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5

- 안좌·팔금면 편 -

2005. 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신 안 군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신안군의 의뢰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가 2005년 1월부터 9월에 걸쳐 수행한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도초, 안좌, 팔금면 편』의 최종 성과물 중 안좌·팔금면 편이다.

이번 학술용역은 2003년 하반기에 수행한 학술용역(압해, 비금, 흑산면 편)에 이어 두 번째 수행되었다. 따라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작업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지표조사의 성과들을 문화콘텐츠의 원천자료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 특히 '문화재'를 뛰어넘어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하였다. 문화재는 자연의 공공재들과 함께 권역과 '자연-인간'의 총체성인 문화에 바탕을 두고 보존·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였다. 특히 남도 다도해 문화의 특장점을 살린 도서·해양문화산업의 원천 소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하였다.

셋째, 문화자원을 '보존하며 동시에 활용하고', '활용하며 동시에 보존하는' <보존과 활용>의 조화와 상생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주력하였다. 이는 대립 개념인 '보존과 개발'을 상보 개념으로 재정립해냄으로써 '문화론적 개발'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개발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용역의 대상이 된 도초, 안좌, 팔금면의 섬들은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해역'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번 용역에 건 기대도 남달랐다. 영암과 해남을 묶어 해양레저도시를 건설하려는 J프로젝트가 정부의 기업도시 승인으로 구체화되면서, 그에 인접해 있는 '다이아몬드 해역'은 해양관광지로서 응비할 꿈에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그 꿈의 실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근자에 J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바라보는 심정은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전라남도의 의지와 중앙 정부의 지원 약속이 겹쳐지면서 J프로젝트가 서남해지역의 해양관광지 개발에 더 없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자연생태와 문화자원에 대한 배려 없이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이 점에서 신안군이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신안군 도서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론적 지역 개발의 바람직한 모델을 모색하려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번의 학술용역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지표조사에 그치지 않고, 자원화의 방안을 찾으려는 적극적 의미를 잊지 않았다.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 지표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 지표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다시 한번 총괄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입안하는 데에도 각별히 유의하려 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계절스런 근대화 개발의 태풍이 서남해지역을 비켜간 것은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 자연생태와 문화 그 자체가 보물인 ‘문화의 시대’에 자연생태와 문화자원이 온전히 보존된 것은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양의 시대’에 온전한 자태를 뽐내는 남도 다도해의 자연과 문화자원은 이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해양문화산업의 소진되지 않을 무한한 원천 소스임에랴!

이번 작업에 착수할 때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연자원,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문화자원, 주거문화자원의 다섯 개의 분야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지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도초, 안좌, 팔금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풍부한 민속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반면 선사유적이나 역사유적의 흔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결과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제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자원, 유형문화자원, 무형문화자원의 세 분야로 재조정된 것이 그것이다. 선사유적과 역사유적과 주거문화자원은 하나로 합쳐 ‘유형문화자원’으로 포괄시킨 반면에, 민속문화자원은 ‘무형문화자원’으로 바꿔 어로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민속신앙자원, 구비전승자원의 네 소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결국 민속문화자원의 비중이 한층 커진 것이다. 이는 지표조사 결과 자연스럽게 드러난 도초, 안좌, 팔금면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랄 수 있겠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신안군의 1읍 13개면 중에서 6개면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된다. 1982년 개소한 이래 23년 동안 도서·해양문화 연구라는 외길을 걸어온 우리 도서문화연구소가 그 노하우를 살리고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추가하여 일련의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게 된 것은 연구소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연구소에 이 같은 소중한 기회를 부여한 신안군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해양문화가 활짝 꽃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해 본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심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연구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2005년 9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장 강 봉 룡

목 차

책을 내면서	3
연구개요	13
제1부 안좌면 지표조사	21
I. 자연자원	23
1. 자연자원 목록	23
2. 자연자원 현황	23
3. 활용방안	33
II. 유형문화자원	35
1. 고고문화자원	35
1) 고고문화자원 목록	35
2) 고고문화자원 현황	35
2. 역사문화자원	46
1) 역사문화자원 목록	46
2) 역사문화자원 현황	47
(1) 기념비	47
(2) 효열각	55
(3) 재각	56
(4) 역사인물	58
3. 주거문화자원	66
1) 주거문화자원 목록	66
2) 주거문화자원 현황	67
(1) 전통주거 건축 현황	67

- (2) 가옥구성 및 특성 ——— 80
- 4. 유형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 83

Ⅲ. 무형문화자원 88

- 1. 어로문화자원 ——— 88
 - 1) 어로문화자원 목록 ——— 88
 - 2) 어로문화자원 현황 ——— 88
- 2. 생활문화자원 ——— 93
 - 1) 생활문화자원 목록 ——— 93
 - (1) 우실 목록 ——— 93
 - (2) 노두 목록 ——— 93
 - (3) 세시풍속 목록 ——— 93
 - (4) 일상의례 목록 ——— 94
 - 2) 생활문화자원 현황 ——— 94
 - (1) 우실과 노두 ——— 94
 - (2) 일상의례 ——— 101
 - (3) 세시풍속 ——— 114
- 3. 민속신앙자원 ——— 122
 - 1) 민속신앙자원 목록 ——— 122
 - (1) 당제 목록 ——— 122
 - (2) 기우제 목록 ——— 123
 - (3) 입석 목록 ——— 123
 - (4) 뱃고사 목록 ——— 123
 - (5) 가신신앙 목록 ——— 123
 - 2) 민속신앙자원 현황 ——— 124
 - (1) 당제 ——— 124
 - (2) 기우제 ——— 143

(3) 입석	146
(4) 뱃고사	151
(5) 가신신앙	156
4. 구비전승자원	160
1) 구비전승자원 목록	160
(1) 설화 목록	160
(2) 민요 목록	161
2) 구비전승자원 현황	163
(1) 설화	163
(2) 민요	164
5. 무형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246

2부 팔금면 지표조사 251

I. 자연자원 253

1. 자연자원 목록	253
2. 자연자원 현황	253
3. 자연자원의 활용방안	255

II. 유형문화자원 256

1. 고고문화자원	256
1) 고고문화자원 목록	256
2) 고고문화자원 현황	256
2. 역사문화자원	260
1) 역사문화자원 목록	260
2) 역사문화자원 현황	260
(1) 기념비	260

(2) 효열각	—————	262
(3) 재각	—————	264
3. 주거문화자원	—————	267
1) 주거문화자원 목록	—————	267
2) 주거문화자원 현황	—————	268
(1) 건립 현황	—————	268
(2) 주거구성 특징	—————	279
4. 유형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	281

Ⅲ. 무형문화자원 285

1. 어로문화자원	—————	285
1) 어로문화자원 목록	—————	285
2) 어로문화자원 현황	—————	285
2. 생활문화자원	—————	290
1) 생활문화자원 목록	—————	290
(1) 우실 목록	—————	290
(2) 노두 목록	—————	290
(3) 세시풍속 목록	—————	290
2) 생활문화자원 현황	—————	291
(1) 우실과 노두	—————	291
(2) 세시풍속 현황	—————	297
3. 민속신앙자원	—————	305
1) 민속신앙자원 목록	—————	305
(1) 당제 목록	—————	305
(2) 기우제 목록	—————	305
2) 민속신앙자원 현황	—————	305
(1) 당제	—————	305

(2) 기우제	————	307
4. 구비전승자원	————	311
1) 구비전승자원 목록	————	311
(1) 설화 목록	————	311
(2) 민요 목록	————	312
2) 구비전승자원 현황	————	312
(1) 설화	————	312
(2) 민요	————	312
5. 무형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	368
3부 문화유적 자원화 방안	————	343
1. 베일에 쌓인 웅장함 ‘안좌도’	————	345
1) 개요	————	345
2) 관광자원 현황	————	345
3) 관광자원화 방안	————	348
<hr/>		
2. 노두와 우실이 아름다운 섬 ‘팔금도’	————	352
1) 개요	————	352
2) 관광자원 현황	————	352
3) 관광자원화 방안	————	354
3. 관광자원화 방안 종합대책	————	358
1) 연계자원화 기본방향	————	358
2) 상세 개발 구상	————	358
3) 대상 도서지역의 문제점과 개발방안	————	360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1) 도서 자연 및 문화자원 지표조사

점차 소멸되어 가는 신안군의 자연자원 및 유·무형 문화자원에 대한 심도 있는 지표조사를 수행하여 자연 및 문화자원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정리하며, 이를 디지털 자료화한다.

2) 도서 자연 및 문화자원의 자원화 방안 모색

지표조사한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지정 방안 및 관광 자원화 방안 등을 제안한다.

2. 연구의 기본 방향

1)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지답사조사를 심도 있게 병행·추진하고 발굴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2) 신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발굴한다.

3)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다도해 문화관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4) 다양하고 참신한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도서·해양문화 리소스를 발굴한다.

3. 연구 범위와 분야 구분 및 연구진 구성

1) 연구 범위

- 도초면, 안좌면, 팔금면의 세 개 면 도서·해역을 이번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 연도되어 있는 안좌면과 팔금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안좌·팔금권역'으로 하여 '도초·우이권역'과 함께 두 개의 권역으로 구분 정리한다.

2) 분야의 구분

- 크게 자연자원 분야, 유형문화자원 분야, 무형문화자원 분야, 문화관광자원 분야의 네 분야로 구분
- 유형문화자원 분야는 고고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 주거문화자원의 세 소분야 포괄
- 무형문화자원은 어로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민속신앙자원, 구비전승자원의 네 소분야로 구분·정리

3) 연구진 구성과 분담 내용

○ 책임연구원 : 강봉룡(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장, 역사학)

○ 공동연구원(집필 순서)

- 김건수(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고고학, 고고문화자원 담당)
- 김경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역사학, 역사문화자원 담당)
- 김지민(목포대 건축조경토목공학부 교수, 건축학, 주거문화자원 담당)
- 나승만(목포대 어문학부 교수, 민속학, 어로문화자원과 민요 담당)
- 이경엽(목포대 어문학부 교수, 민속학, 생활문화자원·민속신앙자원·설화 담당)
- 김형서(대불대 관광해양학부 교수, 관광학, 문화관광자원 담당)

○ 보조연구원

- 이은정(도서문화연구소 조교, 역사학)
- 박영훈(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고고학)
- 최미영(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졸업, 역사학)
- 조세인(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4년, 역사학)
- 강정성(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건축학)
- 엄수경(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민속학)
- 송기태(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민속학)
- 김현주(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 이진일(대불대 해양관광학부 4년, 관광학)

4. 분야별 연구 방법 및 내용

1) 자연자원 분야

○ 연구 방법

- 현지조사를 원천자료의 근간으로 삼되, 문헌조사 결과를 참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문헌조사는 자연자원조사 관련 학술보고서 내용 검토 및 정리와 “계획수립 된 보고서” 중심의 기존자료 조사 및 분석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행하도록 한다.
- 수집된 자료는 DB화에 활용되도록 그 기준에 맞춰 정리한다.
- 도면 및 지도자료는 관련 속성자료와 함께 모두 디지털화를 원칙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섬의 위치적 특징 조사 :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특성을 지리적 요충지적 관점(바다길, 농산물 수탈로, 어로길 등)에서 조사
- 기후와 풍토성 관련 자원조사 : 기후특성을 주민영향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체감온도,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 특이 토질(예, 황토갯벌 등)과 영향(주민생활, 생산물 경제활동 등) 조사, 바다환경 조사(적조, 냉수대 등)
- 숲과 동·식물에 관한 자원조사 : 천연기념물, 보존가치가 높은 숲과 동식물 군락지(송림, 염생식물, 해조류, 야생동물 등) 조사
- 물과 바다 관련 자원조사 : 활용 가치가 높은 약수터, 온천수, 습지 등 조사, 특이성 해수 및 해양환경 조사
- 지형과 지질 관련 자원조사 : 지질환경과 화석, 특이지형(괴암괴석 등), 명산, 갯벌, 사구, 특이 섬(무인도) 지형형성과 변화과정 중 특이점 조사
- 지역산물 조사 : 농·어업 특산물(품질의 평가, 재배조건 등), 광물(게르마늄 등)
- 경관자원 조사 : 포토존(경관자원 등), 유명 포구 등 산업자원(교량, 생산시설 등)
- 공원과 관광지 조사 : 유명 낚시터, 해수욕장, 관광농원, 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습터, 휴게소 등)

2) 유형문화자원 분야

○ 연구 방법

-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해당 지역별 유형문화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번 학술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자료는 비고란에 “신규”로 표기해 두었다.
- 연구대상목록을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 현장답사는 조사대상지역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간행된 기존의 연구성과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기존에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였다(면사무소 총무계장 체보).
-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소재지, 연혁, 관련인물, 관련자료, 사진촬영 및 내용을 파악하였다.
- 현지에서 확인 조사된 자료는 지도에 위치를 표기하여 <분포지도>를 작성하였다.

○ 주요 내용

- 고대 · 고려시대의 역사문화자원 : 패총, 고분, 유물산포지, 성곽, 군현 치소, 해양사관관련 유적 등
- 조선시대의 역사문화자원 : 수군진, 향교 및 부속건물, 서원, 사우, 재실, 루·정, 충신각, 효자각, 열녀각, 신도비, 선정비, 기념비, 효자비, 열녀비, 불망비, 고문서, 고문헌 등
- 근 · 현대사 관련 역사문화자원 : 서당, 서재, 고문서, 비석, 근대 건축, 민가 등
- 이외에 최근에 건립된 유적 · 유물이라 할지라도 해당 섬의 역사와 문화, 섬 주민들의 생활사, 섬과 바다, 연안지역의 문화성향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면 시기와 유형에 제한 없이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 해당 섬 지역 유형문화자원을 교육용, 문화관광 자원용, 역사관 · 자료관의 전시용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3) 무형문화자원 분야

○ 연구방법

- 다음의 기존 연구성과를 분석 · 정리한다.
- 『도서문화-신안군 안좌도 조사보고』4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 “안좌도지역의 민속지”라는 이름으로 통과의례, 가정신앙, 동제신앙, 성신앙, 민간의료, 세시풍속, 산업기술이 기술되어 있다.
- 『방월리』(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 이 보고서에는 신앙민속(가정신앙, 마을신앙, 무

속·점복·금기, 세시풍속, 통과의례), 설화와 민요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신안군의 문화유적』(목포대 박물관, 1987) : 신안군의 문화유적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보고서로서 안좌도 당제가 수록되어 있다.
- 『다도해의 당제』(최덕원, 학문사, 1983) : 대상지역 몇 마을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의 양상과 비교하여 보완하고, 새롭게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 현장론적 방법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연구의 경우 20여년 전의 자료이고,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지조사를 새롭게 해야 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민속문화의 전승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현지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한 면담조사와 연행상황의 촬영, 녹음 등을 병행하여 자원화에 맞는 자료 조사를 한다.

- 자원화 연구를 수행한다.

현지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한다. 수집된 자료를 활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도서·해양문화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주목하여 의미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주요 내용

- 어로문화자원 : 전통적인 어로활동과 어구, 생태환경에 대한 인지체계, 어민들의 생애사 등
- 생활문화자원 : 우실, 노두, 세시풍속, 장례(초분, 고토롱 등), 일생의례 등
- 민속신앙자원 : 당제, 장승, 입석, 기우제, 뱃고사, 가신신앙 등
- 구비전승자원 : 설화와 민요 등

4) 관광자원 분야

○ 연구방법

- 현지답사를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만한 자연 및 문화자원의 소재를 발굴한다.
- 발굴 소재를 바탕으로 관광자원화 방안을 구상하여 제안한다.
- 자연자원, 유형문화자원, 무형문화자원의 지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구상한다.

○ 주요 내용

- 각 도서별 슬로건 제시 : 예컨대, 편안한 어머니의 품 ‘도초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해온 ‘우이도’, 베일에 쌓인 웅장한 섬 ‘안좌도’, 노두와 우실이 아름다운 섬 ‘팔금도’
- 도서별로 관광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
- 도서별로 관광코스를 개발·제시하고, 관광자원 목록지도 및 관광자원화 지도를 작성·제시
- 관광자원화 방안 종합대책과 상세 개발구상을 제안
- 신안군 관광개발의 차별화 전략 제시

5.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의의

○ 문화자원의 현황만을 파악하는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다른 “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

- 지표조사의 성과들은 그대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
- 섬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콘텐츠 위주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문화재를 뛰어넘는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
-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
-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존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함

○ 지표조사의 집중화·체계화·디지털화

- 기존 조사와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지표조사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
-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지표조사의 의미가 새롭게 탄생하도록 시도
-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제적 응용 및 디지털 자료화 구축

2) 기대효과

- 신안군내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계승·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
- 문화관광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안군의 문화역량 강화의 실질적 계기 마련
-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개념을 조화시킴으로서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시킴으로써 문화론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기 마련
- 21세기 신해양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해양문화관광의 신세계를 맞을 토대 마련

부

안좌면 지표조사

新安

I. 자연자원

1. 자연자원 목록

구 분		자 원 명	주 소(위치)	규모 및 사양
1. 섬의 모습	간척과 경관변화	“안좌(安左)” 지명	안좌도 일원	면적46km ² , 해안선50km
	유명섬	요령도	산두리 동쪽 해안	해수욕장이 있음
		사치도	한운리 서쪽 해안	
2. 숲과 동·식물	마을숲	박지리동백군락지	박지리	
		대척리팽나무숲	대척리	
	약초 및 특이식물	박지함초자생지	박지도 해안	
	보호동물서식지	내호고니도래지	안좌도 내호리	큰고니, 흑고니
3. 물과 해양	샘과 약수	음샘	산두리 산자락	
4. 지형과 지질	갯벌자원	박지갯벌	박지도 인근 해안	10km ²
	유명섬	박지도	안좌도 남쪽 섬	동백군락과 갯벌
5. 지역 산물	특산물	파래 김	안좌도 해역	
6. 공원과 관광지	낚시터	신촌저수지	신촌리 저수지	미물낚시
		한운리복지	한운리 복지	바다낚시

2. 자연자원 현황

1) 두 섬이 합쳐서 “안좌(安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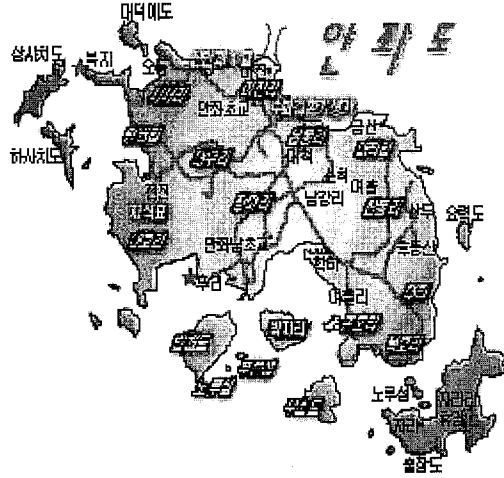
안좌도는 신안군 14개 읍·면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동으로는 바다 건너 해남군 화원면, 서쪽으로는 바다 건너 비금면, 도초면과 그리고 남쪽은 바다 건너 장산면, 북쪽은 바다 건너 팔금면과 이웃하고 있다. 면적 46.29km², 해안선길이 49.7km의 둥굴둥굴한 꽤 큰 섬이다.

원래는 안창도와 기좌도 두 섬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간척공사에 의해서 연륙되어 하나의 섬이 되어 두 섬의 이름에서 한 자씩을 따서 안좌도로 부르게 되었다. 현재 32개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유인도 7개, 무인도 57개로 형성되어 있다.

삼국시대에는 기좌도는 아차산현, 안창도는 거지산현에 속했으며, 통일신라 시대에는 기좌도는 압해군, 안창도는 안파현에 속했었고, 고려시대에는 기좌도는 압해군, 안창도는 장산현에 배속되었었다. 조선시대에는 기좌도는 영광군, 안창도는 나주목에 속하였고 후에는 모두 나주목에 속해왔으나, 1896년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기좌면(箕佐面)이라 하여 지도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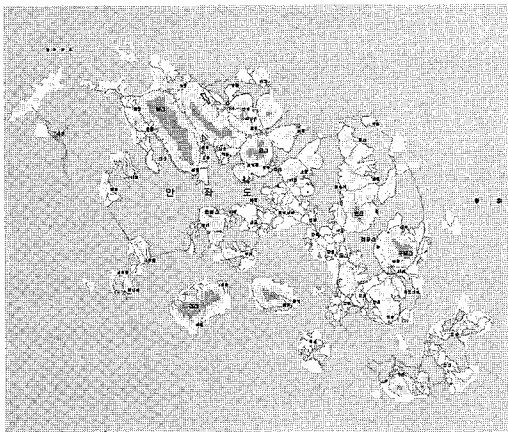
안군에 편입되게 되었다.

[참고]섬의 모습 변화 : 안좌도는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원래 안창도와 기좌도 두 섬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간척공사에 의해서 연륙되어 하나의 섬이 되어 두 섬의 이름에서 한 자씩을 따서 안좌도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크고 작은 간척사업이 매우 활발한 섬이었다. 간척사업은 해안선의 길이를 크게 단축시켰고, 면적은 크게 증가시켰다(4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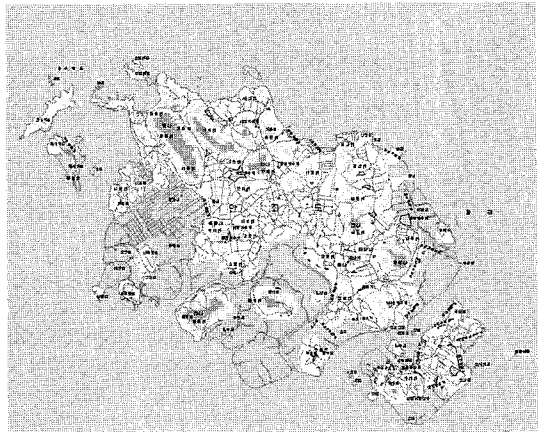


원지형을 보면 대소의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만 북쪽에 안창도라는 큰 섬과 남쪽에 조금 큰 기좌도라는 두 섬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약 300여년에 걸친 수차의 간척사업 결과 오늘날과 같은 크기의 섬에 32개리 마을을 형성한 섬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인근 북쪽에 있는 섬인 팔금도도 예와는 아니었다. 원래 크고 작은 10여개의 섬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간척에 의해 하나로 만들었다. 그 결과는 역시 해안선은 크게 단축시킨 반면, 면적은 크게 증가시켰다(약2.5배).

구분 도서	간척 전(원지형)		간척 후(현지형)	
	해안선(km)	면적(km ²)	해안선(km)	면적(km ²)
안좌도	193.27	21.90	120.51	81.54



간척 전(원지형)



간척 후(현지형)

2) 해수욕장이 있는 무인도 “요력도”

요력도는 면적 0.07km², 해안선 2 km인 조그마한 섬이다. 안좌도에서 보기 드물게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는 무인도이다. 안좌도 동쪽 산두리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본섬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관계로 피서철에는 해수욕객이 찾아든다. 바위의 질이 강하며 력도라 하였으나 후에 요력도로 개칭하였으며, 250년전 김씨가 처음으로 입도하여 살았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무인도로 변했다.

3) 해수욕장과 낚시터로 유명한 사치도(沙稚島)

안좌면 한운리에 속한 섬으로 목포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있다. 주위에 있는 기좌도·자은도·비금도·안좌도·팔금도 등과 함께 나주군도(羅州群島)를 이룬다. 최고지점이 70m 이하인 낮은 평지로 되어 있고, 해안은 드나뚝이 비교적 심하며 간석지가 넓게 발달해 있다. 1월평균기온 1℃ 내외, 8월평균기온 26℃ 내외, 연강수량 1,334.7mm 정도이다.

본래 상사치도와 하사치도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최근 두 섬 사이에 있던 염전에 방조제를 쌓아 연결시켰다. 사치도 웃섬(상사치도)에는 조그맣고 아늑한 해수욕장이 있어 한적한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제격이다. 사치도 또한 낚시가 잘 된다.

250년 전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경지면적은 논 0.132km², 밭 0.264km²로 경지율이 18%이다.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한다. 농산물로 보리·고구마·쌀·마늘·콩 등이 생산되며, 특히 보리와 고구마는 생산량이 많아 농협수매가 이루어진다. 연근해에서는 송어·민어·농어·멸치 등이 잡히며, 조개·굴·미역 등의 채취와 김 양식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취락은 대부분 하사치도 남쪽에 집중해 있다. 목포에서 출발하는 정기여객선이 압태도·추포도를 경유하여 격일제로 운항된다.

4) 파래 김(海苔)

안좌도의 특산물로는 김이 유명하며, 신안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처럼 부유식 방법이 아니고 지주를 세워 양식하는 방법인데 간만의 차로 물이 들고 날 때 햇볕을 쬐므로 약을 할 필요가 없어 공해가 없고 맛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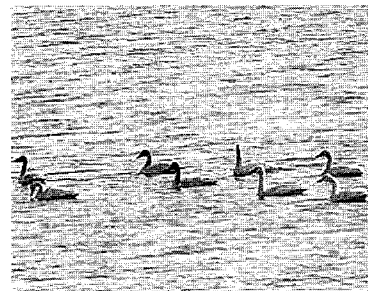
흔히 파란 파래가 없는 검정색이 짙은 김을 육지에서는 상품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안좌의 김을 비롯한 신안군의 김들은 약을 하지 않아 약간의 파래가 섞여 있으며 이 김들이 가장 맛있고 공해가 없는 김이다.

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적조가 발생 못하는 해역이기 때문이다. 안좌도 바다 밑에는 비옥한 점토 혹은 사질토가 두껍게 쌓여있어 갯것과 해초의 농장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얕은 바다에는 김 등의 해초류 양식장이 널려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지금껏 적조가 발생한 일이 없고 아니 앞으로도 발생하지 못할 것이다. 해안에는 평균 3m 이상의 큰 조차는 해수 해수를 수직적으로 섞고, 빠른 조류흐름(들물은 시계방향, 썰물은 시계반대방향, 사리 때에는 2~3노트의 속력을 보이고 연안과 섬사이 유속은 6~6노트 되는 곳이 많음)은 해수를 수평적으로 섞어버리는 활발한 해수순환 운동은 적조 발생의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활발한 수직적 해수순환은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류 공급을 활발하게 하여 냉수에 적합한 어종의 생태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고, 조류가 활발한 지면과 접하는 해역은 먹이사슬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비하게 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갖게 하고 있다. 해안에는 부유성 식물이 많고, 어족이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게 한다.

5) 내호고니도래지

고니는 온몸이 백색이며 우아한 자태를 가지고 있어 사랑을 받는 종으로 보통 “백조”라고 불리우며 천연기념물 201호이다. 세계8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큰고니, 고니, 흑고니가 겨울철새로 도래한다.

수금류 중 가장 큰 종으로 수면이나 갯벌위를 5m쯤 달린 후 탄력을 받아 난다. 잠잘 때에는 한쪽 다리를 들어 아랫배에 감추고 긴 목을 등뒤로 돌려 날개 밑에 파묻고 자는데 이는 몸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다. 초식성으로 자맥질하여 긴 목을 물속에 넣어 넓고 납작한 부리로 호수 밑바닥의 풀뿌리를 먹거나 줄기를 끊어 먹고, 질편한 갯벌에 부리를 파묻고 우렁이, 민물조개, 작은 어류 따위를 먹는다.



고니 모습

고니류는 한번 짝짓기를 하면 짝을 바꾸지 않고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 시베리아에서 반식 후 우리나라에 도래할 때에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 해 태어난 어린새는 부모로부터 길을 익히며 월동지에 도착한다. 고니가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 3년이 걸리는데 1년생은 회색깃을 하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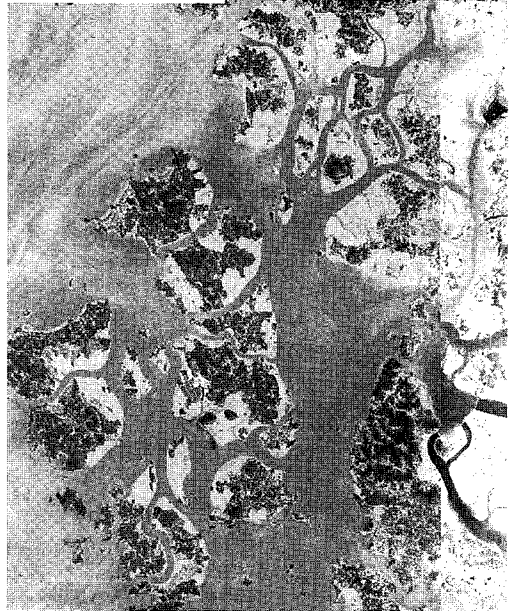
6) 한국의 슬레스비히홀슈타인 “박지갯벌”

안좌도 남부 박지도 갯벌은 생명의 원천이며 생활의 터전이다. 바닷물이 빠지면 흑갈색으로 드러나고 석양을 받아 반짝 반짝 빛을 내면 아프리카 흑인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강한 생명력이 꿈틀거림을 느끼는 곳이다. 갯벌은 생물학적 변화를 담고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해양식물, 무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만 마리가 날아드는 철새의 중간 휴식처이자 털갈이하고 알을 낳아 부화하는 곳으로 새들의 낙원을 이루고 있다. 개펄생태계는 개펄의 성분특성에 따라 그 다양성을 달리하는데, 특히 압해도 개펄은 빨개펄, 모래개펄, 자갈개펄, 혼합개펄 등 그 종류가 많아 식생 또한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개펄낙지, 개펄석화, 전통고기잡(독살 등)이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안에는 가무락조개, 통죽물, 피뿔고둥, 물레고둥, 홍합, 진주, 담치, 벤댕이, 망둥어, 봉장어 등을 잡을 수 있다.

이곳 자연학습장으로 안성마춤이다. 날씨가 좋으면 제방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배를 갯벌과 일터 타고 갯벌연안을 따라가며 새와 식생을 관찰하고, 썰물이 되면 직접 갯벌을 걸으며 자연을 느끼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친절한 이곳 주민들로부터 토착지식(갯벌과 날씨, 물때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얻어 갯벌산책이나 자연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며 오염 없는 갯벌’로 접근해 무조건 인간의 접근을 막는 방법보다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공간’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독일의 「슬레스비히홀슈타인 갯벌국립공원」의 성공사례를 눈여겨보며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갯벌보존회를 구

신안갯벌의
위성사진



위성으로 촬영된 서남해 갯벌모습



갯벌과 일터

성하고, '갯벌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안좌도 서남해안 갯벌은 보 존가치가 크다. 손상되지 않은 태곳적부터 내려온 자연그대로의 지형변화와 생물학적 변화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쉼 수 없는 해양식물이 자라고 있고 새끼와 알을 낳아 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개펄도 성분에 따라 급을 달리하는데 이 곳 갯벌은 생명의 토양으로 불려지고 있는 황토갯벌이다. 그리고 갯골을 따라 흐르는 물결이 많아서 갯 것이 특히 흔하다. 낙지, 운저리, 굴, 꼬막, 해태와 감태, 서렁게, 농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간혹 낚시꾼들이 찾아와 돛이나 송어, 광어를 잡으나, 유독 다른데 보다 많이 잡히는 것이 낙지다.

7) 노골적인 성문화가 담긴 “음샘”

산두리에는 음샘 노골적인 성문화가 담긴 음샘이 실존하고 있다. 도서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직설 적이고 노골적인 성 문화가 질게 베어나오는 향토 민속문화이다. 더욱이 인근 마을(대리) 앞에 세워져 있는 남근석¹⁾과 함께 사실적인 섬 사람들의 섬 문화를 엿 보게 한다.

이 샘은 산두리 산자락 밑에 위치하고 있는 샘으로 그 유래 를 알 수 없으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도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어 들에서 일하는 주민들 의 식수원으로 더 없이 소중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시멘트로 사각형 모양으로 단장되어 있어 깨끗한 샘물 을 마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 음샘으로서의 자연스런 모양 은 찾을 수 없다.



음샘

8) 함초자생지 “박지갯벌”

염생식물 구분 : 염생식물은 크게 갯벌식물과 사구식물로 나누어진다. 먼저 갯벌식물을 보면, 이 는 해안성식물과 기수성식물로 나누어진다. 해안성식물은 주로 해수에 잠겼다가 노출되었다가 하 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갯벌해역에서 자란다. 주요 식물로는 염도가 높은 곳에 잘 식생(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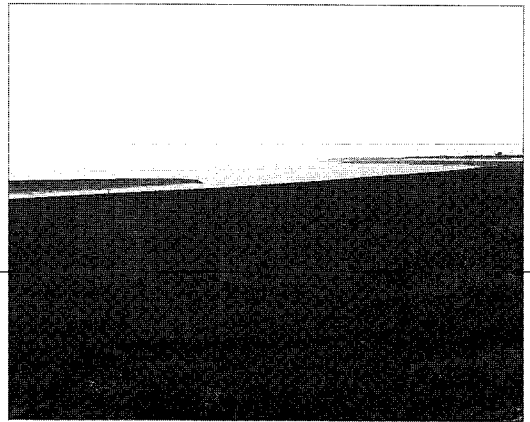
1) 산두리 남근석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시대는 알 수 없으나 전해오는 설에 의하면 옛날 중국을 왕래하며 교역하던 선박의 등 대 역할을 위해춧돌바위를 만들었다는 설과 마을 뒷산에 음바위가 있는데 동네 아낙들이 이음바위를 보면 바람이 자주나 온 동네가 시끄럽게되자 동네 어른들이 음바위를 쪼개어 두 개의 남근석을 만들어 동네 앞쪽에 세웠다는 설이 있다.

패염전)하고, 잎·줄기가 구분이 안 되며, 한약재(함초)로 쓰이는 통통마디, 일곱 번 색이 변하며 가을철에 붉으스럼한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 어린 싹 때는 나물로도 쓰이는 칠면초, 어느 정도 간물과 짠물이 섞인 곳의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곳이어야 잘 자라는 역시 나물로 사용되어 온 해홍나물, 침수가 일어나지 않는 고지대에 잘 식생하는 나문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수성식물은 갯벌 중에서도 담수유입으로 어느 정도 탈염이 이루어진 저염도 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다. 여기에는 담수가 많은 곳, 즉 보통 제방을 따라 발달하는 갈대, 갯벌의 담수 골에 잘 나타나는 천일사초, 지체 등이 있다. 이들은 담수로를 중심으로 초기에는 3종(갈대, 천일사초, 지체)이 심한 경쟁을 벌이다 결국 갈대, 천일사초, 지체 순으로 천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갈대 침입, 사초침입에 의해 햇빛차단, 뿌리발육 미비로 지체는 바다 쪽으로 자꾸 물러나는 변이를 보인다. 이들은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토양에 다량의 유기질을 함유시켜 비옥토로 만들어 간다.



해당화



칠면초



갯잔디



갯방풍

사구식물은 바닷가의 모래나 자갈로 된 토양에서 자라는 식생으로 대표적으로 초본으로 줄기가 약해서 지지(支持)를 위해 옆으로 퍼져 자라는 수송나물, 수송나물보다 줄기가 보다 굵고 단단한 관계로 위로 크는 솔장다리, 염생습지식물 중 유일한 목본식물(높이 50cm)인 순비기나무, 모래땅에 서식한 초본이기는 하나 뿌리가 알아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한 관계로 배후습지에 군락을 잘 이루고 있으며 이삭이 보리와 같이 생긴 통보리사초, 벼과에 속하며 보통 높이가 88cm에 이르며 뿌리길이와 줄기길이 비슷할 정도로 뿌리가 매우 깊게 발달되어 있어 사구의 경사진 곳이나 언덕을 이루는 곳에 군락을 잘 형성한 갯그렁, 뿌리가 매우 깊고 잎에 털이 많고 넓으며 거칠고 뿌리가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풍 예방) 갯방풍, 뿌리가 매우 깊고 줄기에 가시가 있으며 붉은 색의 꽃이 매우 아름답고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 해당화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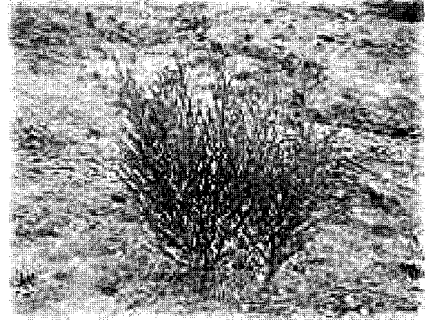
갯벌식물의 분포양상 : 안좌도 염생식물 역시 타지역 분포양상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곳의 분포 양상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염생식물들은 대부분이 씨앗이 매우 부유성이 강하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생육조건을 갖춘 곳이라 할지라도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보다는 고여있는 곳일수록 왕성한 군락지가 형성된다. 즉 씨앗이 안정적으로 부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물살이 느린 곳, 즉 갯골로부터 먼 곳(갯골과 갯골 사이), 앞에 높은 곳(갯두렁)이 막고 있는 뒤편(바다쪽), 서해의 경우 만의 북서쪽(침식 없고, 점진적 토사퇴적), 즉 침식보다 퇴적이 활발한 곳, 오래된 퇴적지형일수록 식생의 다양성 및 우점종 발생하고 있다.

둘째, 물의 흐름이 안정된 곳이라도 염분도(담수량)에 따라 저염도역>보통해수역>고염도역 순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즉, (고염도)→통통마디→칠면초→해홍나물→(無植生帶)→갯눈쟁이→나문जे 순으로 '고염도역→쉬이는 곳→기수역'의 패턴을 보인다.

셋째, 고도 또한 분포패턴에 영향을 준다. 염생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일정 높이를 요구(평균 만조면 즉 최대수면으로부터 1m내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함초 등 약초식물 : 신안 해역은 온화한 해양기후로 수많은 토종 약용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초 등의 염생습지에서 자라는 약초에서부터, 전호(천식과 거담 치료와 예방에 효과)와 치자(꽃이 백색으로 6~7월에 엷액이나 가지 끝에서 피며, 열매는 타원형으로 길이가 3~5cm이고 보통 세로로 6개의 모서리가 붙어 있음. 연평균기온 12~14℃에서 자생) 등의 육상에서 자라는 약초까지 전국적 경쟁력을 지닌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이곳 안좌도 남해안 일대에는 이들 토종약초들이 유달리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것은 함초로 일컬

어지고 있는 통통마디를 필두로 나물류인 나문재와 해
홍나물, 목본약초인 해당화와 순비기나무 등이 많이 분
포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함초는 한·의학, 농림수산,
환경 및 관광의 상호 연계를 통한 신개념의 생태관광 활
성화가 요구되는 식물 중의 하나이다. 함초통통마디는
소금을 먹고 자란 풀로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풀이다.
소금을 주된 영양소로 삼는 생물은 없다. 바닷물 속에서



함초(통통마디)

일생을 보내는 물고기도 소금을 주된 영양소로 삼지는 안는다. 그러나 한가지 예외가 있다. '함초'
라는 식물이다. 함초는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소금을 비롯해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 인 등 갖가
지 미네랄을 흡수하면서 자라는 생리를 지니고 있다. 우리말로는 '통통마디' 라고 하고 중국의 옛 의
학책인<신농본초경>에는 맛이 몹시 짜다하여 함초(鹹草), 염초(鹽草) 혹은 몹시 희귀하고 신령스로
운 풀이라 하여 신초(神草)라고도 적혀있고, 전체 모양이 산호를 닮았다 하여 산호초라고도 한다.
우리말로는 통통하고 마디마디 튀어나온 풀이라 하여 '통통마디' 라 부르기도 한다.

함초는 10월 중순까지 진한 녹색을 띠며 자란다. 10월 중순 이후에는 온통 빨간색으로 물이 든
다. 선인장처럼 잎과 가지의 구별이 없다. 보통 4월 초순 싹이 나기 시작해 꽃은 8~9월에 연한 녹
색으로 피고 납작하고 둥근 열매가 10월에 익는다. 잎은 다육질로 살이 찌고 진한 녹색을 띠다가
가을에는 빨갱게 변한다. 줄기에 가지를 여러 갈래로 치며 자라는데 키는 40cm 정도까지 크다.

함초는 소금을 비롯, 바닷물에 녹아 있는 모든 미량 원소가 농축되어 있으므로 무게가 많이 나간
다. 함초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식물이다.

함초는 아무 곳에서나 자라지 않는다 재배조건이 갖춰진 곳에서만 자란다. 소금기가 많은 갯벌일
수록 잘 자라면서도 바닷물이나 빗물에 잠기면 곧바로 죽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담수 유입
이 없고 해수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으면서도 물이 많이 차지 않는 해역이어야 한다. 또한 부유성이
강한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파랑작용이 거의 없는 안정된 수역이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수면이
안정되면서도 염도가 높은 폐염전이 적합지라 할 수 있어, 최근 노는 염전이 늘고 있는 신안지역의
재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함초는 주요성분으로 함초 100g에 칼슘670mg, 요오드70mg, 나트륨1333.8mg, 마그네슘50mg,
칼륨650mg, 아연29.6mg, 철84.8mg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구리, 니켈, 망간등 여러 종류의 미네
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글루타민산, 아스파르트산, 티로신, 라이신, 타우린, 등의 아미노산이 함

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칼슘은 우유보다 7배, 조혈작용을 하는 철은 김이나 다시마의 40배, 칼륨은 굴보다 3배, 부족하면 생식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바나듐은 동물의 간과 생선 보나 1.5배).

특히, 함초에는 양질의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함초의 성분 중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다(식이섬유는 하루 권장량이 25-30g 정도이며, 미국에서는 식탁 옆에 식이섬유를 비치해두고 수시로 섭취한다고 함).

또한, 바닷물의 효소가 다량 농축되어 있다(바닷물 1톤 속에 1그램이 들어 있음). 이 효소가 사람의 몸 안에 쌓인 갖가지 독소를 없애고 소장 속에 들어 있는 중성지방질인 숙변과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 혈액, 세포조직 속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지방을 분해하여 배출한다.

함초의 약리효과와 식품성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함초는 오래 전부터 서해안 바닷가 사람들은 나물로 먹어왔던 것으로, 성인병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순환기질환(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변비, 당뇨병 등에 대한 개선효과, 또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고 위장기능 강화, 대장암 예방효과 등이다. 현재 함초를 이용해 개발한 요리는 함초비빔밥, 함초국수 함초소금, 함초김, 함초튀김, 함초빈대떡, 함초로 만든 동동주와 김치, 흑미떡, 함초두부 등 수십 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캔음료, 기능성 미용비누, 치약, 향수 등으로 개발되고 있고, 이 외에서 분말, 캡슐, 정, 환, 액즙 등의 형태의 건강식이 개발되고 있다.

함초의 생태적 특성은 특이하다. 먹어도 갈증을 일으키지 않으며, 질병을 갖는 사람이 먹으면 명현반응을 보인다. 함초의 맛은 소금기 많은 바닷물을 먹고 자라 짠맛이 강합니다. 그러나 일반소금처럼 그냥 짠 것이 아니라 단맛이 살짝 배인 짠맛입니다. 또 짠 것을 먹으면 대개 갈증을 느끼지만 함초에 들어있는 소금은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고 생명체에 이로운 물질만으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함초분말을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물을 적당히 부은 컵 두개를 준비한다. 한쪽 컵에는 일반소금을 세 숟가락 정도 넣고 다른 컵에는 함초분말을 짠맛이 확실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넣는다. 그리고 한 시간 후에 각각의 맛을 보자. 일반소금을 넣은 컵의 짠맛은 처음이나 한시간 후나 변함이 없다. 하지만 함초분말을 넣은 컵은 짠맛이 거의 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반소금은 장시간에 걸쳐 삼투압현상이 진행되지만 함초소금은 아주 짧은 시간에 삼투압현상이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다.

함초를 먹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장이 있는 부위가 빠근하게 아프고, 콧속 쑤시거나,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등 일종의 명현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합초를 오랫동안 먹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에서도 냄새가 나며, 배에 가스가 차고, 졸음이 오며, 머리가 멍해지는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정도 지나면 이러한 증상은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소장엔 쌓인 숙변이 배출되는 현상이라 한다(숙변이 빨리 나오는 사람은 10일쯤만에, 더딘 사람은 1~2개월 만에 검은색이나 흑갈색의 끈적끈적한 숙변이 나오는데 평소보다 2~3배나 많은 양이 나오게 됨).

9) 낚시터

신촌저수지 :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한 신촌저수지는 오염원이 없고 물이 깨끗하여 붕어, 잉어, 민물장어 등 낚시에 좋다. 또한 저수지 옆 도로가 새로 잘 포장되어 주위가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을 주며 낚시하기에 좋다. 면적은 3,947㎡이고 저수량은 476,000톤이며 봉리면적은 100,5ha이다. 인근에 수화 김환기 생가, 신안제1교, 대리우실, 대척리 층흔탑 등 관광자원이 있다.

한운리복지 : 해양오염원이 없고 풍부한 먹이생물로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바다낚시(갯바위 낚시+선상낚시)에 적당하다. 농어, 장어, 송어, 감성돔 등이 주어종이다. 낚시방법은 갯바위낚시, 선상낚시 모두 가능하다. 읍동선착장에서 차량을 이용 현지마을까지 이동한 후 배를 대절하는 것이 편리하며 전형적인 도보낚시터로 도보진입이 가능하다.



갯벌과 일터

3. 활용 방안 - "박지갯벌을 한국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으로 개발"

박지도 갯벌은 원형보존이 잘 되어있고 상품성 요건을 가지고 있어 개발의 기본방향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첫째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며 오염 없는 갯벌'로 접근해 무조건 인간의 접근을 막는 방법보다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공간'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독일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갯벌국립공원」처럼 개발해야할 것이다.

둘째 갯벌보존회를 구성하고, '갯벌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안좌도 서남해안 갯벌은 보존가치가 크다. 손상되지 않은 태곳적부터 내려온 자연 그대로의 지형변화와 생물학적 변화를 살려내는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개펄낙지, 개펄석화, 전통고기잡(독살 등), 가무락조개, 통죽물, 피뿔고동, 물레고동, 홍합, 진주, 담치, 밴댕이, 망둥어, 봉장어 등이 갯벌 고기 및 패류잡이 학습체험장으로 개발이다.

둘째 해양식물이 자라고 있고 새끼와 알을 낳아 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생태학습장이 필요하다.

셋째 개펄도 성분에 따라 급을 달리하는데 진흙갯벌, 모래갯벌, 자갈갯벌 등 여러 형태의 갯벌체험학습장이 만들어지면 좋을 듯하다.

넷째 염생식물체험장 조성이다. 염생식물단지는 크게 갯벌식물과 사구식물로 나누고, 다시 갯벌식물은 해안성식물과 기수성식물 단지로 나누고, 해안성식물은 염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포단지를 만든다. 그리고 각 소단지는 세부적인 식물별로 조성되도록 한다. 또한 별도로 약용식물(예, 함초 등)단지를 조성한다.

다섯째, 특산물 가공단지 조성과 상품판매장터를 조성한다. 함초 등으로 비빔밥이나 약초를 만들며, 갯벌로 화장품 등도 만들어 판매토록 한다.

Ⅱ. 유형자원

1. 고고문화자원

1) 고고문화자원 목록

번호	유적명	위 치
1	치동마을 지석묘군	안좌면 신촌리 치동마을
2	비화마을 지석묘군	안좌면 대우리 비화마을
3	방월리 지석묘A군	안좌면 방월리
4	방월리 지석묘B군	안좌면 방월리
5	방월리 지석묘C군	안좌면 방월리
6	방월리 지석묘D군	안좌면 방월리
7	방월리 지석묘E군	안좌면 방월리
8	읍동리 고분군	안좌면 읍동리
9	대리 파괴 석실분	안좌면 대리
10	배널리 고분군	안좌면 대리
11	방월리 유물산포지	안좌면 방월리
12	읍동리 유물산포지	안좌면 읍동리

2) 고고문화자원 현황(그림1)

안좌면에 대한 고고유적 조사는 1986년²⁾과 1987년³⁾에 각각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석묘, 유물산포지, 고분 등이 확인되었다.

(1)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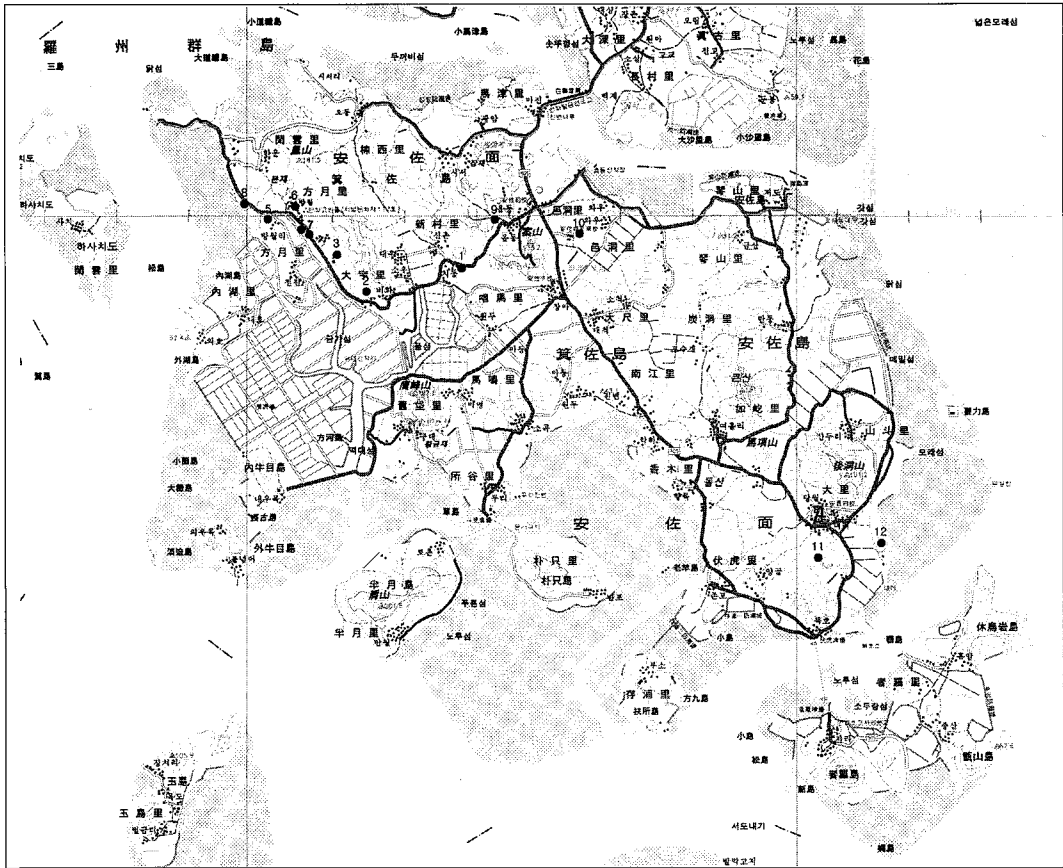
① 신촌리 치동마을 지석묘군(사진 1)

- 위치 : 안좌면 신촌리 치동마을

- 현황 : 신촌리 치동마을에서 동쪽으로 50m 거리에 지석묘 3기가 위치한다. 산등성이가 끝나고 치동저수지와 바로 접하는 곳이다. 이들 지석묘는 저수지 방향인 동-서로 1열을 이루고 있다.

2) 최성락 1986, 「안좌도지역의 선사유적」 『도서문화』 제4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3) 최성락 1987,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 | | |
|------------------|---------------|---------------|
| 1. 신촌리 치동마을 지석묘군 | 5. 방월리 지석묘 C군 | 9. 읍동리 유물산포지 |
| 2. 대우리 비화마을 지석묘군 | 6. 방월리 지석묘 D군 | 10. 읍동리 고분군 |
| 3. 방월리 지석묘 A군 | 7. 방월리 지석묘 E | 11. 대리 석실분 |
| 4. 방월리 지석묘 B군 | 8. 방월리 유물산포지 | 12. 대리 베널리고분군 |

그림 1. 안좌도지역 선사유적 분포지도

일련 번호	상석			상석형태	장축방향	지석수	기타
	장축	단축	두께				
1	210	185	30	부정형	남동-북서	3	
2	200	155	40	방형	동북-남서	2	
3	405	260	110	방형	남동-북서	3	

② 대우리 비화마을 지석묘군(사진 2)

- 위치 : 안좌면 대우리 비화마을

- 현황 : 대우리 비화마을에서 방월리로 가는 도로 북쪽 50m거리의 구릉 경사면에 지석묘 3기가 위치한다. 마을에서는 북서방향으로 50m정도 거리이다. 표고 50m의 구릉이 40~45° 각도로 급 경사를 이루면서 뺨어 내리는 이곳은 상당히 높은 지대이다. 주변에는 민묘가 여러기 있으며 해안과는 300m로 가까운 거리이다. 이들 지석묘 3기는 같은 고도의 경사면에 수평을 이루며 동-서 방향으로 1열 배열되어 있다. 주변에서 삼각형석도가 수습되었다.

일련 번호	상석			상석형태	장축방향	지석수	기타
	장축	단축	두께				
1	175	140	55	방 형	남동-북서	.	
2	182	115	55	타원형	동-서	.	
3	145	80	37	방 형	남동-북서	.	

- 수습유물

· 삼각형석도(그림 2-②, 사진 3) :
背部와 刃部の 상당부분이 결실되었으나, 잔존부분을 통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直背形이며 刃部는 交互이다. 紐孔은 前後 양면에서 穿孔하였는데, 穿孔하기 전에 양면에서 각기 擦切法으로 面을 갈아서 석도의 두께를 얇게 한 후 양쪽에서 穿孔하였다. 잔존길이 6.5cm, 잔존폭 5.6cm, 두께 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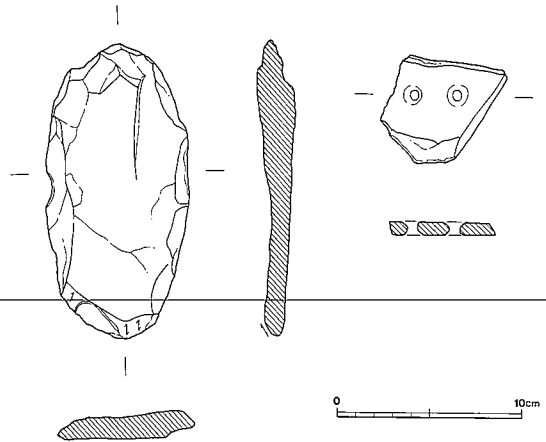


그림 2. 안좌면 지표수습유물

③ 방월리 지석묘 A군(사진 4)

- 위치 : 안좌면 방월리

- 현황 : 면소재지인 읍동리에서 도로를 따라가다가 대우리 비화마을을 지나 방월리에 접어들면 서부초등학교에서 300m 못 미쳐서, 오른쪽에 서부교회가 있고, 그 뒤편 구릉 경사면의 숲밭속에 지석묘군이 위치한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는 표고 158m의 산이 있고 서남쪽으로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이 지석묘군은 모두 17기인데 그 중에 13기는 숲속에 있으며 남동~북서 방향으

로 2열로 배열되어 있다. 4기(14,15,16,17호)는 이들 지석묘군으로부터 북쪽으로 5~10m떨어진 발 가운데 있으며 대부분 훼손된 듯하다. 상석은 타원형 내지 부정형이 대부분이며 지석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변 밭에서 석제 굴지구가 수습되었다.

일련 번호	상석			상석형태	장축방향	지석수	기타
	장축	단축	두께				
1	246	130	58	타원형	남-북	·	
2	212	150	29	부정형	남동남-북서북	·	
3	230	120	20	타원형	남-북	·	
4	130	124	40	부정형	"	·	
5	150	174	20	장방형	"	·	파손됨
6	135	104	40	부정형	동-서	·	
7	160	110	60	방형	남-북	·	
8	340	150	40	타원형	"	2	서쪽으로 기울
9	200	160	20	부정형	"	·	
10	150	130	50	방형	남동남-북서북	·	
11	140	130	50	방형	"	1	서쪽으로 기울
12	180	145	50	부정형	"	2	
13	143	105	52	방형	"	1	
14	344	138	53	타원형	남동-북서	·	
15	133	170	45	방형	"	·	상석의 일부가 파손됨
16	190	130	48	부정형	"	1	
17	150	110	35	방형	동-서	·	상석이 거의 묻힘

- 수습유물

· 석제 굴지구(그림 2-①, 사진 5) :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을 띤다. 전체적으로 타격에 의해 가공되었으며, 날의 끝부분만 마연되었다. 길이 15.7cm, 폭 7.9cm, 두께 0.9~1.8cm.

④ 방월리 지석묘 B군(사진 6)

- 위치 : 안좌면 방월리

- 현황 : 지석묘 A군에서 서부초등학교를 지나 200m쯤 가면 도로 좌편의 숲속에 지석묘군이 있다. 여기서 남쪽으로 100m 떨어진 곳은 과거에는 해안선이었으나 현재는 간척이 되어 논이 되었으며 서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방월마을이 있다. 이곳 숲속에 13기의 지석묘가 북동~남서방향으로 일정한 형태 없이 타원형을 이루며 길게 분포한다. 지석묘의 상석은 타원형 내

지 방형이며 지석이 보이는 경우도 많다. 특히 7호 지석묘의 경우는 지석이 기둥과 같은 형태여서 특이하다. 그리고 2기(14,15호)는 이들 지석묘에서 서쪽으로 약50m 떨어진 축사 주변에 위치한다.

일련 번호	상석			상석형태	장축방향	지석수	기타
	장축	단축	두께				
1	210	150	70	부정형	남-북	1	동쪽으로 기움,하부노출
2	490	374	80	타원형	"	3	일부가 흙에 묻힘
3	220	190	40	"	남동-북서	.	
4	280	135	80	방 형	"	.	
5	140	120	40	"	"	.	
6	230	120	45	"	"	1	지석으로 石柱사용
7	280	210	90	"	남서-북동	4	
8	130	80	40	"	남동-북서	.	
9	507	220	60	타원형	남서-북동	3	
10	230	120	60	부정형	"	1	
11	215	128	70	방 형	"	.	상석 일부가 묻힘
12	170	115	55	"	동-서	.	상석이 자갈돌로 덮힘
13	565	125		"	남동-북서	3	
14	360	250	70	"	남-북	3	
15	420	260	120	장방형	"	2	

⑤ 방월리 지석묘 C군(사진 7)

- 위치 : 안좌면 방월리

- 현황 : 방월마을에서 남쪽방향으로 150m 떨어진 논 가운데 지석묘군이 위치한다. 기존 조사에서는 모두 5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으나, 현재는 1기의 지석묘 상석만이 조사되었으며, 이 또한 파괴되어 밀려난 것이다.

⑥ 방월리 지석묘 D군(사진 8)

- 위치 : 안좌면 방월리

- 현황 : 방월 마을 입구에 공동우물이 있고 그 옆에 마을 안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 옆에 보호책을 친 지석묘 1기가 있으며 그 주변에 2기가 더 있다. 보호책 안의 지석묘는 동쪽은 완전히 땅에 닿아 있고 짧은 돌기둥이 2개 받치고 있으며 서쪽에도 돌기둥이 받치고 있다. 주변에 있는 지

석묘 2기는 파괴되어 원래의 자리에서 밀려났으며,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로 인해 상석만 드러나 있고, 하부구조는 모두 매몰되었다.

이들 지석묘군을 마을에서는 「七星바위」라 부르고 있는데, 모두 7기의 지석묘가 있었으나 대부분 파괴되고 현재는 3기뿐이다.

⑦ 방월리 지석묘 E(사진 9)

- 위치 : 안좌면 방월리

- 현황 : 방월리 지석묘 B군에서 동북쪽으로 약 100m정도 올라가면 도로 좌측에 지석묘가 확인된다.

(2) 고분

① 읍동리 고분군(사진 10, 11, 12)

- 위치 : 안좌면 읍동리

- 현황 : 읍동리에서 대척리로 가는 길 왼쪽에 안좌종합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뒤편 야산의 남쪽 경사면에는 3~4기의 고분이 있었으며 일부는 일제시대때 파헤쳐졌다는 말이 전하나 어떤 유물이 출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주민들은 이곳을 고려장이라 부르며, 현재 2기의 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호분은 안좌종합고등학교에서 동쪽으로 100m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천장석 1매를 뜯어내고 도굴 되었는데 석실내부에는 흙으로 채워져 있다. 봉분의 크기는 길이 17.5m, 폭 16.2m, 높이 2m이다. 묘실의 방향은 남북이다. 묘실의 위치는 주변보다 다소 높은 반지상식이다. 현실의 크기는 장축이 235cm, 단축 175cm, 현 높이가 100~120cm이다. 북벽은 3매의 판석을 제형으로 세워 고정시키고, 동서의 양벽은 길이 50~60cm, 두께 15cm 정도의 할석을 사용하여 줄여나갔다.

천장석은 5매의 판석을 사용하여 덮었으며, 각 석재 사이의 틈은 백회석을 사용하여 빈틈을 메우고 있다. 연도나 바닥부분은 알 수 없다. 이와같은 고분은 백제석실분으로 安承周교수의 분류에 의하면 평석천정중에서 괴임식에 해당된다.

2호분은 1호분으로부터 서북쪽으로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봉분의 크기는 길이와 폭이 8.6m의 원분이고 높이가 1m이다. 묘실의 방향은 정남에서 서쪽으로 20°기운다. 봉분의 절반 정

도는 깎여나가고 천개석과 벽석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묘실의 위치는 반지하식이고 규모는 길이 2.3m, 폭 1.25m이다.

서벽은 4단, 동벽은 5단으로 쌓아 올려 내경시키고 있다. 북벽은 판석을 세우고 그 위를 2단으로 쌓아 올리고 있다. 천장은 장대석으로 덮여있다. 이 고분도 1호분과 함께 전남지방의 고분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차후에 좀 더 세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② 대리 석실분(사진 13)

- 위치 : 안좌면 대리

- 현황 : 이 유적은 기존에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대리마을에서 당을 지나 산길을 타고 표고 52m 정도되는 야산의 정상을 지나 남쪽으로 약 20m 더 내려가는 산 경사면에 석실이 위치한다고 한다. 석실묘의 봉분은 모두 없어져서 평지가 되어 있으며, 석재들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다른 데에 쓰여졌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배널리에 거주하시는 박철원(55세)씨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풀이 우거져 찾아 볼 수 없었다.

③ 대리 배널리 고분군(사진 14, 15)

- 위치 : 안좌면 대리

- 현황 : 대리에서 배널리로 가는 길을 따라 육지가 끝나는 곳까지 가면 바다가 맞닿는 곳으로 배널리 박철원(55세)씨 소유 밭에 몰무덤이라 불리는 3기의 고분이 있다. 현재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봉분의 상당부분이 유실된 상태이다. 이로 보아 지금은 1호분의 크기가 제일 크게 보이지만 처음에는 비슷한 규모였을 것이다. 1970년대에 박철원씨의 부친인 박현순씨 댁에서 1호분을 파 보았는데 길이 50cm정도의 쇠와 빨강, 파랑색의 구슬이 나왔으며 판석으로 벽을 쌓고 천개석이 덮였었다고 하므로 석실분임을 알 수 있다.

1호분의 규모는 동서방향의 길이가 12m, 남북방향이 12m, 높이는 2m이다. 2호분은 동서방향이 10.5m, 남북방향은 6m, 높이는 1.5m이며, 3호분은 동서방향이 9m, 남북방향이 10m, 높이는 1.5m이다.

(3) 유물산포지

① 방월리 유물산포지(사진 16)

- 위치 : 안좌면 방월리

- 현황 : 방월리 마을에서 한운리로 가는 서쪽 해안로를 따라 500m쯤 가면 낮은 고개에 이르는 데 80년대에 이곳 길을 확장하다가 돌도끼 등 석기류가 출토되었다는 말이 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출토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며, 어떤 다른 유물도 확인하지 못했다.

② 읍동리 유물산포지

- 위치 : 안좌면 읍동리

- 현황 : 읍동리에서 신촌저수지로 가는 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가면 길 주변에서 토기편이 산재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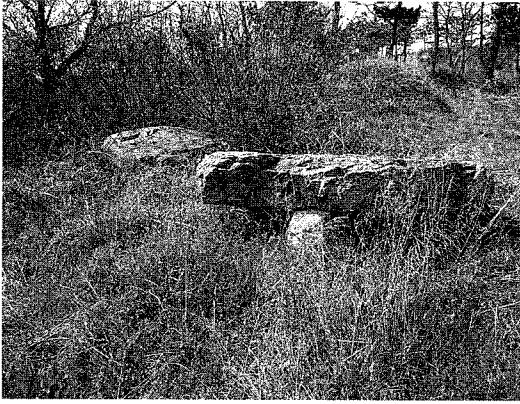


사진 1. 신촌리 치동마을 지석묘군



사진 2. 대우리 비화마을 지석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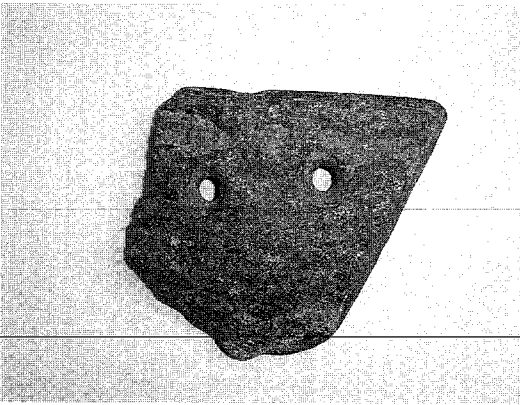


사진 3. 대우리 비화마을 지석묘군 주변 수습유물 (삼각형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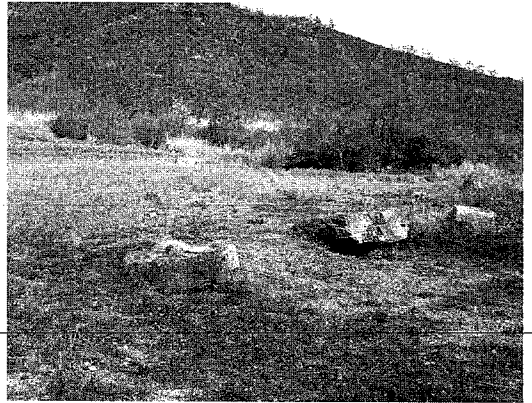


사진 4. 방월리 지석묘 A군



사진 5. 방월리 지석묘 A군 주변 수습유물 (석제 굴지구)



사진 6. 방월리 지석묘 B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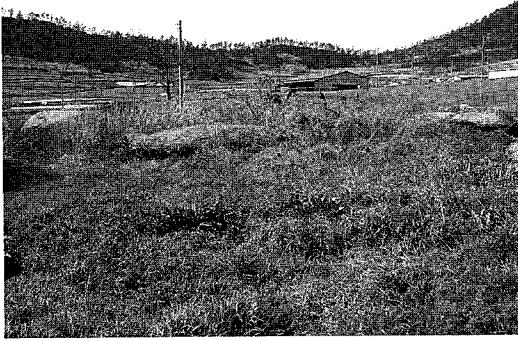


사진 7. 방월리 지석묘 C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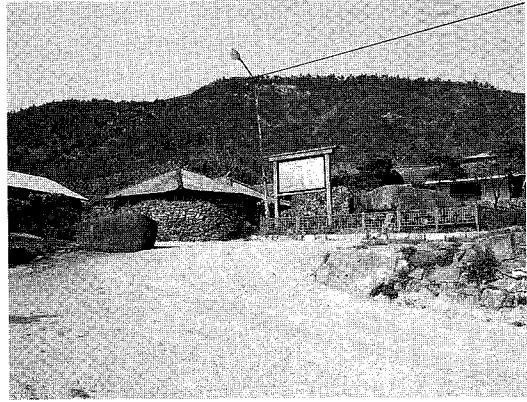


사진 8. 방월리 지석묘 D군



사진 9. 방월리 지석묘 E



사진 10. 읍동리 고분군(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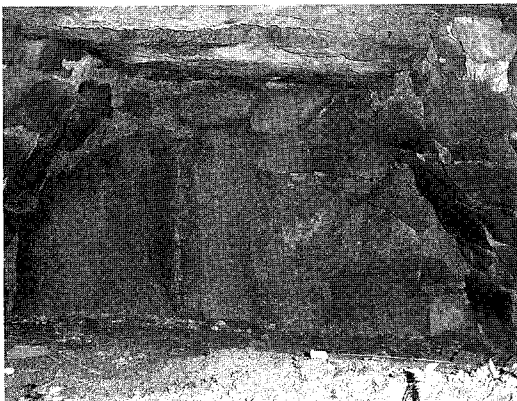


사진 11. 읍동리 고분군(1호분 석실내부)



사진 12. 읍동리 고분군(2호분)



사진 13. 대리 석실분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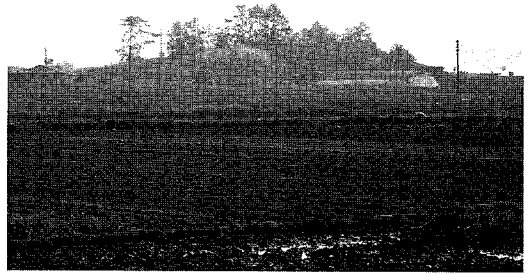


사진 14. 대리 배널리 교분군 원경



사진 15. 대리 배널리 교분군(1호분)



사진 16. 방월리 유물산포지

2. 역사문화자원

1) 역사문화자원 목록

(1) 기념비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기적비	金琪林紀蹟碑	마진리 광암마을	2001년	신규
2	선행비	金茂振善行碑	시서리 시서마을	1989년	신규
3	불망비	오동리비석군	시서리 오동마을	1941년 1959년 1968년	신규
4	유허비	金龍珏遺墟碑	한운리 한운마을	2001년	신규
5	열녀비	金海金氏烈女碑	대우리 비화마을	舊碑 1876년 新碑 2004년	신규
6	공적비	姜熙信·金濟云·鄭貞産 功績碑	읍동-창마리	1990년	신규
7	기념비	安佐中學校創設紀功碑	읍동-창마리	1997년	신규
8	사은비	金學洙謝恩碑	읍동-창마리	1996년	신규
9	불망비	김종석불망비	읍동리 읍동마을	1994년	신규
10	공적비	金明珍功績碑	대우리 대척마을	1997년	신규
11	선정비	善政碑群	대우리 대척마을	1861년 1855년 1880년 1903년 1971년	신규
12	효자비	安教翼孝子碑	여흘리 여흘마을	1942년	신규
13	기공비	金宗潤紀功碑	산두리 산두마을	舊碑 1865년 新碑 2002년	신규
14	공덕비	崔公仁功德碑	산두리 산두마을	1994년	신규
15	불망비	이호준불망비	자라리 선착장	1872년	신규

(2) 효열각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효열각	金海金氏孝烈閣	읍동리 읍동마을	1890년	기존
2	효자각	金石柱孝子碑閣	대우리 대척마을	1960년	신규

(3) 재각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재각	景慕齋	시서리 오동마을	1999년	신규
2	재각	慕仁齋	읍동리 읍동마을	1990년	신규

(4) 역사 인물 유적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기념물	김환기생가	읍동리 읍동마을	1910년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146호 (1992.11.30)
2	고선박유적	고선박 유적	금산리 갯섬 등대 앞	13세기말~14세기초	

2) 역사문화자원 현황

(1) 기념비

① 金琪林紀蹟碑(사진 1)

· 소재지 : 안좌면 마진리 광암마을

· 유적현황 : 안좌도와 팔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가 시작하는 마을이 마진리이다. 마진리에서 시서리로 향하는 도로 오른쪽에 광암마을이 있다. 이 비석은 광암마을 초입에 위치한다. 金琪林은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에서 태어났다. 성장하여서 안좌도 마진리 광암마을에서 세거하던 鎭州 崔太守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다. 그러나 33세가 되던 해에 남편이 병을 얻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았다. 특히 자녀 교육에 힘써 큰아들 목포고등학교로 진학시켰다. 이는 당시 농촌지역 부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훗날 큰아들 崔日斗씨가 안좌면 20대 면장으로 취임하였다. 또 손자·손녀들이 광주로 진학하였는데, 가세가 기울어 교육비를 보내지 못하게 되자, 김씨부인은 야채 행상을 하여 학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김씨부인의 행실을 기리기 위해 아들과 딸들이 힘을 모아 2001년에 어머니의 기적비를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 <孝烈夫人 金琪林 女史 紀蹟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측면에는 김씨부인의 아들과 딸, 손자 등 3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는 김씨부인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이 새

겨져 있으며, 비문은 30행 41자이며, 국한문 혼용체로 새겨져 있으며,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2cm, 너비 57.5cm, 두께 27.5cm이다.

② 金茂振善行碑(사진 2)

· 소재지 : 안좌면 시서리 시서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시서마을회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다. 金茂振의 성품은 온화하고 정숙하였으며 四德을 겸비한 규수였다고 한다. 17세가 되던 해에 金海 金守炫과 약혼하였다. 그런데 혼례준비를 하던 중 시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자,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았지만, 김무진은 시부모에 대한 정성을 다하였다. 이러한 김무진의 행실을 본 문중 사람들은 감복하였다고 하였다. 훗날 혼례를 올리고,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그런데 김씨부인이 24세이 되던 해에 남편이 아이들의 장래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이후 김씨부인은 홀로 남매를 양육하며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54년 3월 28일 열녀로써 표창되었으며, 1989년에 선행비가 건립되었다. 비석의 앞면에는 <烈女 金海 金茂振 善行碑>라 새겨져있고, 비석 뒷면에는 김씨부인의 행적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15행 37자이며,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6cm, 너비 85cm, 두께 21cm이다.

③ 오동리 비석군(사진 3·4)

· 소재지 : 안좌면 시서리 오동마을

· 유적현황 : 안좌면 시서리 오동마을 입구에 오동마을 표지석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비석 3기가 나란히 서 있다. 이 비석들은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도움을 준 尹炳柱의 공적비 1기와 오동마을 앞 개울가에 교각을 건립하는데 도움을 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망비 2기가 함께 서 있다. 비석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尹炳柱功德碑> : 1963년에 재일교포 윤병주가 마을 회관을 건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에 윤병주를 기념하기 위해 1968년에 마을사람들이 공적비를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故 尹炳柱 功德碑”라 새겨져있다. 비석 뒷면에 주민 일동의 이름으로 작성한 감사의 글이 5행 18자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76.5cm, 너비 18.2cm, 두께 13cm이다.

<拾貳個里施惠不忘碑> : 오동마을은 바닷물이 많이 만입하면 이웃마을로 출입할 수 없었다. 이에 오동마을 인근 12개리 주민들이 힘을 모아 1959년에 2개의 다리를 건립하였다. 12개리는 柿西里, 馬津里, 大字里, 方月里, 邑洞里, 唱馬里, 田陳里, 內湖里, 馬鳴里, 新村里, 閭雲里, 沙雉里이다. 비

석의 측면에 오동리 期成會長 尹道善와 金守美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70cm, 너비 28cm, 두께 13cm이다.

〈拾個里施惠不忘碑〉: 오동마을 인근 10개리 주민들이 1941년에 뜻을 모아 교각을 세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불망비를 건립하였다. 10개리는 시서리, 마진리, 방월리, 읍동리, 마명리, 대우리, 구대리, 한우리, 신촌리, 창마리이다. 비석 측면에는 교각을 건립할 당시 마을 有司를 맡았던 尹其原과 金其宗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93cm, 너비 42cm, 두께 12.5cm이다.

④ 金龍珥遺墟碑(사진 5)

· 소재지 : 안좌면 한우리 한운마을

· 유적현황 : 방월리에서 한우리로 향하다 보면, 도로 왼편에 넓게 펼쳐진 갯벌이 나온다. 갯벌을 지나 한우리로 향하는 길을 따라 직진하다보면 도로 오른편에 비석 1기가 서 있다. 비석의 주인공은 金龍珥이다. 공의 본관은 金海이며, 字는 敏舉, 號는 雲庵이다. 金海金氏 三賢派 中始祖인 金管의 후손이자 節孝公의 56세손이다. 김해김씨가 안좌도에 정착하게 된 것은 공의 선조 大雅公이 조선 연산군 무오사화 때 강진으로 유배되어 처음 전라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大雅公의 玄孫 金淵이 후손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진에서 안좌도 한우리로 이거하였다.

김용각은 1829년에 한우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업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訓練院判官, 承政院左承旨, 吏曹參判 등에 증직되었다. 말년에 落鄕하여 후진 양성에 힘쓰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김용각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공의 손자 金星植 의 9명이 2001년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資獻大夫 吏曹參判 金公 諱 龍珥 遺墟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측면에는 비석 건립에 참여한 후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는 공의 행적을 기록한 碑文 19행 40자가 국한문혼용체로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91.5cm, 너비 66cm, 두께 33cm이다.

⑤ 金海金氏烈女碑(사진 6)

· 소재지 : 안좌면 대우리 비화마을

· 유적현황 : 방월리에서 대우리로 가다보면 오른쪽 길가에 비석이 서 있다. 이 비석은 열녀 김씨의 열행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열녀 김씨는 본관은 金海이며, 金克一의 후손이다. 김씨부인은 1816년에 金擎泳의 딸로 태어나,

무안군 안좌면 읍동마을에 거주하던 崔永洙와 혼인하였다. 김씨부인은 천성이 정숙하고, 혼례를 올린 후 남편과 시부모님을 정성으로 공경하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부인의 남편이 병으로 얻어 자리에 눕자, 김씨부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남편이 생사를 넘나들자, 부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남편에게 수혈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부모님 봉양과 유복자의 양육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김씨부인은 남편의 묘역에 빈소를 차려 놓고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그리고 유복자를 낳아 양육하며 시부모님을 봉양하였다. 이러한 김씨부인의 행실을 문중에서 발의하고, 李安得이 열행사실을 기록하여 1917년에 남원군 養士齋의 선비들에게 천거하였다. 이러한 김씨부인의 행실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지역의 진사, 참봉, 유학, 교리 등 유생들의 공동명의로 성균관에 추천되었다. 또 1875년에 우이도로 유배되었던 崔益鉉이 안좌도에 들러 김씨부인의 행실을 기록한 서문을 썼고, 그 이듬해인 1876년 마을에 열녀각이 건립되었다. 김씨부인은 1884년에 세상을 떠났고, 김씨부인은 주검은 안좌면 마진리에 안장되었다.

원래 열녀비각은 대우리 대우마을에 위치하였으나 소실되었고, 2004년에 후손들이 대우리 비화마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慶州 崔公永洙 贈 兵曹參判 配 金海金氏 贈 貞夫人 烈女碑>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 뒷면에 曾孫 壻 鄭彥玉이 쓴 김씨의 행적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19행 55자이며,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되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207cm, 너비 77cm, 두께 45cm이다. 비석 주위에는 ①<烈女 金海金氏 旌闈 上樑文>(李種龍 書, 癸亥年), ②<孝烈旌帛>(聖上 533년 甲子, 閔泳琦 書), ③<烈女の 一生>(1875년 최익현 書, 2004년 정언옥 刻) 등 관련 비석이 함께 있다.

⑥ 姜熙信 · 金濟云 · 鄭貞産 功績碑(사진 7)

· 소재지 : 안좌면 읍동리 읍동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안좌종합고등학교 교정에 있다. 비석의 주인공은 姜熙信 · 金濟云 · 鄭貞産이다. 이 비석은 안좌 공적 선양회에서 1990년에 건립하였다. 이들은 1974년 안좌종합고등학교가 세워질 당시 학교 부지로 5,416평을 기증하고 교문을 건립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비문에 “사람은 떠나도 그 이름 향기롭게 남아야 하니 여기 학원을 가꾸고 후배를 키우는 내 고향 선배들의 거룩한 뜻이 희망으로 불타오른다. 푸른 동산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최공인이 찬하고, 김창운이 썼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61.8cm 너비 91.2cm, 두께 17.3cm이다.

⑦ 安佐中學校創設紀功碑(사진 8)

· 소재지 : 안좌면 창마리-읍동리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읍동리와 창마리의 경계지점에 있다. 이 비석 바로 옆에 〈金學洙謝恩碑〉가 서 있다. 이 비석은 안좌중학교를 창설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1997년에 건립되었다. 3기의 비석이 하나의 이수로 연결되어 있다. 비석의 오른쪽 가장자리부터 〈安坐中學 開院 耕隱 金鎮采 院長〉〈中學院 後授會 止石 金達天 會長〉〈公立中學校 期成會 錦亭 崔東煥 會長〉 등이 차례로 새겨져 있다.

1946년 3월에 읍동리 임시 교사에서 안좌중학원이 개교하였다. 무안군 鄭明吉 장학사가 金達天을 설립자로 임명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학술강습소 인가를 받았다. 김진채 선생이 초대 원장에 취임하였다. 특히 김진채의 공로는 안좌중학교 졸업생들이 목포시내 학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였다. 비석 뒷면에 竹塢 金喜午 선생이 지은 〈開校敍事〉가 새겨져 있다.

止石 金達天은 안좌보통학교의 개교를 주관하였던 인물이자, 안좌중학교 설립 대표자이다. 학교 설립 당시 일본인들의 주택과 창고를 校舎로 사용하였으며, 100여명의 학생이 모집되었다. 전라남도 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도서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중등교육이 시작되었다. 비석 뒷면에 김달천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 34행 23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학원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1997년 10월에 안좌중학교 창설 기공비 건립위원회 일동이 撰하였다.

錦亭 崔東煥은 안좌중학교를 공립중학교로 승격하는데 공을 세운 주역이다. 1951년에 기성회장으로 선출되어 校舎 신축과 인가 수속에 착수하였다. 당시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다. 학교 건물이 완공되면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교육공무원을 파견해 주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은 이상향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동환은 학교시설을 갖추어 1952년에 안좌공립중학교를 승격하는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비석 뒷면에는 최동환 선생의 비문이 15행 47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공립 중학교 출범〉이라는 제목으로 鄭彥玉이 撰하였다.

이 비석의 측면에 스승을 추모하는 詩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1cm, 너비 181cm, 두께 24cm이다. 3인의 기공비 왼편에는 〈安佐頌〉을 기록한 비석이 있고, 오른쪽에는 〈推進委員會〉의 명단이 새겨진 비석이 서 있다.

⑧ 金學洙謝恩碑(사진 9)

· 소 재 지 : 안좌면 창마리-읍동리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읍동리와 창마리의 경계지점에 비석 2기가 서있다. 1기는 <金學洙謝恩碑>이고, 다른 1기는 <安佐中學校創設紀功碑>이다.

선생의諱는 學洙, 字는 良燮, 雅號는 輝勳이며, 본관은 光山이다. 선생은 1896년에 안좌면 방월리에서 金永振과 原州李氏의 3남으로 태어났다. 성장하여서 錦逸 金元鉉과 志垠 金敬燁의 문하에서 四書三經과 諸子百家를 통달하였다. 공은 일제강점기에 후진양성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공은 1963년에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비석은 1996년에 선생의 문하생들이 스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輝勳先生謝恩碑>라 새겨져있고, 비석의 측면과 뒷면에 선생의 행적을 기록한 碑文 20행 44자가 국한문혼용체로 서술되어 있다. 이 비문은 光山 金淵水가 撰하고, 長興 高光烈이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7cm, 너비 57.5cm, 두께 27cm이다.

⑨ 김종석불망비(사진 10)

· 소 재 지 : 안좌면 읍동리 읍동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안좌면 읍동리 읍동 선착장 대표소 옆에 세워져 있다. 1994년에 주민들이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고 김종석 잔교구축 유공불망비>라 새겨져 있다. 비석 뒷면에는 “읍동리민 일동”이라 새겨져 있고, 측면에는 “1994년 4월에 세움”이라 새겨져 있다. 김종석이 선착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하였다는 구전이 전한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5cm, 너비 36cm, 두께 14.5cm 이다. 이와 동일한 비석이 대척리 충훈탑 묘역에도 있다.

⑩ 金明珍功績碑(사진 11)

· 소 재 지 : 안좌면 대척리 대척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대척마을 끝자락의 도로변에 있다. 이 비석에서 도로 건너편에 충훈탑이 위치한다.

김명진은 1924년에 무안군 안좌면 대척리의 모범 農里로 선정되었다. 또 1925년에는 전국 목화採種圃로 안좌면 대척리, 창마리, 남강리가 선정되는데 공을 세웠다. 이에 대척리 주민들은 공을 마을 지도자로 선임하였다. 이후 공은 농촌지도자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3년 후 전국 목화 생산량 100萬斤을 안좌면 주민들이 달성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 때 공은 전국에 목화종자를

보급하여 목화 생산 증가와 안좌도 3개리 마을 주민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공은 일본에서 보리 종자를 구입하여 실험재배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안좌도를 비롯한 전라남도 농민들에게 보급하였다.

이러한 공의 농촌진흥에 종사한 공로를 인정하여 1997년 무안군 안좌면 대척리 주민들이 공적비를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梅谷 金公 明珍 勸業善導 功績碑〉라 새겨져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0.5cm, 너비 45.5cm, 두께 21.5cm이다.

⑪ 善政碑群(사진 12·13·14)

- 소 재 지 : 안좌면 대척리 대척마을
- 유적현황 : 안좌면 읍동리 대척마을 충훈탑 앞에 8기의 비석이 서 있다. 충훈탑을 기준으로 왼쪽에 4기, 오른쪽에 4기가 각각 서 있다. 이 비석은 안좌면 읍동리와 마진리 일대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옮겨 온 것이다. 비석의 규모와 건립 년대는 다음과 같다.

비명	년대	규모(cm)			비 고
		높이	너비	두께	
郡守宋公祥熙愛民不忘碑	1903	160	49	21	앞면에 4언절구, 뒷면에 光武 7년 癸卯에 건립.
牧使朴公奎東恤民不忘碑	1855	150	48	21	앞면에 4언절구.
風憲崔碩獻恤民不忘碑	1880	114	43	16	앞면에 4언절구.
行都護府使趙公義林永世不忘碑	1889	140	45	13	비석이 마모되어 있음.
京監尹公泓定恤民不忘碑	1899	150	47	15	뒷면에 光緒 6년 庚辰에 건립.
內需司次知金公奎復永世不忘碑	1899	140	47	16	앞면에 4언 절구, 뒷면에 光緒 15년 己丑에 건립.
學生金公擊淑之不忘碑	1861	112	48	22	앞면에 4언절구, 뒷면에 光緒 15년 己丑에 건립.
고김종석간교구축유공불망비	1971	87	33	12.5	앞면에 4언절구, 뒷면에 光緒 15년 己丑에 건립.

⑫ 安教翼孝子碑(사진 15)

- 소 재 지 : 안좌면 여흘리 여흘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여흘리 마을회관에서 여흘제일교회로 향하는 길목 오른쪽에 위치한다. 공의 初諱는 佑翼, 字는 益現, 號는 藥軒이다. 공의 본관은 順興이며, 1886년에 태어났다. 공은 성장하여서 慶州金氏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잘 섬겼다. 어

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러한 공의 효행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1942년에 효자비가 건립되었다. 비문은 尹用求가 識하고, 공의 손자 金明洙가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安孝子孝靖公碑銘〉이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 19행 37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4.5cm, 너비 47.5cm, 두께 16.5cm이다.

⑬ 金宗潤紀功碑(사진 16)

· 소 재 지 : 안좌면 여흘리 여흘-탄동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여흘리 여흘마을에서 탄동마을로 향하는 도로 왼편에 있다. 김종윤은 산두지구 방조제 건립에 공을 세운 인물이다. 비문에 따르면, 이 공적비는 1865년에 처음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舊碑의 마모가 심하자, 2002년에 문중 후손들이 새로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 뒷면에 國文으로 새겨져 있는 비문은 舊碑의 내용을 국역한 것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금관 서쪽에 섬은 지역이 분리되어 있어도 구역은 하나다. 사람과 물류가 접하여 교관과 산촌이 즐비하다. 봄에는 경작을 하고 가을에는 오곡이 성숙하여 즐거운 해에 누가 근심을 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량을 짝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무진년에 조수가 물러간 후 제언을 축조하니 한지방의 인후이다. 이미 그 완성을 마쳤으니 이 사업이 보존되고 경작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만 천수를 마치지 못하였다. 그 자손들은 마음이 아파 장차 그 공을 기술하여 비석에 새기려고 한다. 훌륭하게 나타난 그 공적에 해와 별처럼 소명하다. 이 제언이 만들어진 후 오곡은 풍성하고 백성은 편안하였다. 오직 이 칭송을 하니 백년 천년이 되도록 영원하리라” 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의 앞면에는 〈學生 慶州金公宗潤 紀功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공의 행적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3cm, 너비 45.7cm, 두께 21.4cm 이다.

⑭ 崔公仁功德碑(사진 17)

· 소 재 지 : 안좌면 산두리 산두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산두마을 초입에 위치한 안좌공원에 앞에 있다. 비석 바로 옆에 산두리 마을 표지석이 있다.

최공인은 1930년에 산두리에서 태어났다. 목포상고 교사를 시작으로 문태고등학교 교감과 문

태중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여 평생동안 후진양성에 종사하였다. 공은 목포상고 장학재단 이사장, 목포지구 중등교장단 협의회장, 국제 도덕재무장 전남도회장, 목포상고 총동문회장, 在木 안좌항우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때 안좌면 복지회관 건립기금, 안좌 노인당 건립기금, 안좌고등학교 건립 공적비 기금, 안좌면 청년체육대회기금 등을 회사하여 안좌면 발전에 공헌하였다. 또한 1969년에는 간척사업에 참여하여 100町步의 간척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공의 농토확장과 식량증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교육부장관상, 전남교육 특별 공로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현대 인물사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이 비석은 1994년에 안좌면 주민들이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山斗 崔公仁 先生 功德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는 공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은 21행 40자이며, 국한문 혼용체이다. 비문은 최일환이 작성하였고, 김정태가 기록하였다. 비석 측면에는 공의 경력이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4cm, 너비 28.5cm, 두께 22.5cm이다.

⑮ 李鎬俊不忘碑

· 소 재 지 :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자라도 선착장에 위치한다. 원래 미덕섬 선착장에 세워져 있었으나, 자라도 본섬과 연륙이 된 후 지금의 선착장인 가장동으로 옮겨왔다. 비석의 앞면에는 〈觀察使 李公 鎬俊 永世不忘碑〉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의 뒷면에 “崇禎紀元後 五 壬申 六月日”이라 새겨진 것으로 보아 1872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호준의 불망비는 자라도, 옥도(1873년), 하의면 신의(1874년)에서 확인된다. 그 중에서 하의면 신의에 세워진 비석은 하의 3도 농민운동과 관련해서 세워졌는데, 비석이 세워진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다른 비석들도 하의 3도 농민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효열각

① 金海金氏孝烈閣(사진 18·19)

· 소 재 지 : 안좌면 읍동리 읍동

· 유적현황 : 효열각은 안좌면 읍동리 案山 北麓에 위치한다. 김환기 생가와 반대편 언덕위에 위치한다. 金海金氏 孝烈閣은 2동의 목조건물이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먼저 외삼문의 오른쪽

에 위치한 효열각에 孝子 金擎河와 烈女 密城朴氏(金炳翰의 妻)가 봉안되어 있고, 외삼문의 정면에 위치한 효열각에 金雲基의 부인 礪山宋氏가 봉안되어 있다. 그리고 여산송씨의 열녀각 원편에 <前參奉 金炳癸 愛民記念碑>(庚巳年, 안좌면 일동)가 서 있다.

金擎河 孝子閣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다. 효자각의 내부 공간은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효자각」이라 새겨진 편액이 걸려있고, 왼쪽에 「열녀각」이라 쓰여진 편액이 걸려있다. 효자각 내부에는 현판 3기가 걸려 있는데, ①「孝子 贈 童蒙教官 朝奉大夫 金海金公 擎河之間」(上之二十六 己丑, 1889년, 고종 26년 命旌, 二十七 庚寅年, 1890년에 命職), ②「童蒙教官 青松公 金孝子 旌閭序」(金奎弘 書), ③「上樑文」(1890년, 崔丙斗 撰) 등이다. 또 열녀각 내부에는 「贈 戶曹參判 金海金公 炳翰 妻 烈女 贈 貞夫人 密城朴氏閭 命旌」이라 새겨진 현판이 걸려있다.

한편 외삼문 정면에 위치한 또 하나의 효열각은 金雲基의 부인 礪山宋氏가 봉안되어 있다. 열녀각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역시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른쪽에 「열녀각」이 왼쪽에 「효열각」이라 새겨진 편액이 각각 걸려있다. 효열각에는 2개의 현판이 걸려있고, 열녀각에는 현판이 걸려있지 않다. 효열각 내부에 걸려있는 현판은 ①「贈 莊陵參奉 金海金公 雲基 妻 孝烈 贈 宣人 礪山宋氏閭」(上之二十八年, 1891년, 고종 28년 4월 命職), ②「孝烈婦 礪山宋氏 表閭記」(庚辰年, 尹甯求 撰) 등이다.

② 金石柱孝子碑閣(사진 20·21)

· 소 재 지 : 안좌면 대척리 대척마을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안좌중학교에서 남강리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 원편에 위치한다. 비각 바로 옆에 보광오토바이센터가 있다. 비각 초입에 잘 다듬어진 들계단을 올라서면 정면 1칸, 측면 1칸의 석축으로 된 효열비각이 있다. 비각의 주인공은 金石柱이다.

공의 諱는 石柱, 號는 文成이다. 본관은 金海이며, 首露王의 후예이자, 三賢派 金駟孫의 후손이다. 공은 1917년에 金奉益의 큰 아들로 태어났다. 장성하여서 全州李氏와 결혼하여 2남 5녀를 두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온순하고 학문에 뛰어났으며 의리와 선행에 술선수범 하였다. 부친이 등창으로 병마에 신음하자, 정성으로 간호하면서 단식하며 하늘에 기도하였다. 1950년에 또 다시 아버님이 중환으로 자리에 눕자, 공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아버지에게 수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친이 끝내 세상을 떠나자, 공은 아버지의 묘역에서 3년동안 시묘생활을 하였다. 또한 공은 칠순 노모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生存朔望祭를 행하였다. 어머니가 병이 들자, 6개월여 동안 정성으로 봉양하

였다. 그러나 끝내 어머니가 회생하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공은 또다시 3년상을 치렀다.

이와 같은 공의 효행을 유림들이 성균관에 추천하였고, 1960년에 성균관장의 효행표창을 받았다.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석축건물이며, 내부에 비석이 서 있다. 비석 앞면에는 <文成 金海 金公 石柱 孝行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 뒷면에 高聖泰가 撰·書한 비문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가 91.2cm, 너비 61.8cm, 두께 17.3cm이다. 효열비각 내부에 성균관장이 수여한 <褒彰狀>, 전라남도 무안군 유도회에서 수여한 <표창장>이 새겨져 있다. 비각 오른쪽에는 한글로 작성된 <효자 김석주 효행비문>이 판석에 새겨져 있다.

(3) 재각

① 景慕齋(사진 22)

· 소재지 : 안좌면 시서리 오동마을

· 유적현황 : 景慕齋는 오동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안좌면 오동상수도> 건물 앞에 있다. 경모재는 파평윤씨의 문중재각이다. 오동마을에 수원지가 건립될 때 舊 재각이 소실되었고, 1999년에 위치를 옮겨 신축하였다. 현재 오동마을에 거주하는 제보자 윤병수씨의 6대조까지 배향되어 있으며, 매년 양력 4월 첫째 주에 제사를 모신다. 후손들은 서울에 주로 살고 있으며, 현재 안좌도에는 제보자 가족만 거주하고 있다. 재각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 팔작지붕이며, 측면은 붉은 벽돌로 되어있다.

② 慕仁齋(사진 23·24)

· 소재지 : 안좌면 읍동리 읍동마을

· 유적현황 : 읍동면사무소 진입 직전에 위치한 사거리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거리에서 안좌초등학교 앞을 지나 신촌리로 향하는 도로로 진입하여 약 200m 정도 직진하다보면 도로 오른쪽 언덕 위에 읍동리 노인회관과 김환기 생가가 위치하고, 도로 왼쪽으로 “案山”이 위치한다. 慕仁齋는 읍동리 案山 북쪽 산록에 위치한다. 안산에는 김해김씨의 문중재실인 <모인재>와 <김해김씨 효열각>이 있고, 그 사이 사이에 民家가 들어서 있다. 김해김씨의 재실과 효열각은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모인재에서 매년 음력 3월 3일에 三賢派 후손들이 문중선조의 제사를 모신다.

金海金氏 三賢派는 조선 세종 때 節孝先生 克一公과 季子 駙孫公, 長孫 大有公을 三賢으로 하여

淸道에 배향하였다. 駙孫公은 문과에 장원하였으나, 燕山君 때 戊午士禍로 남원부(현 장수군)로 유배되었다가, 中宗反正으로 청도군 이서면 운계리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후 己卯士禍 때 三足堂이 연루됨에 따라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안좌도 입도조는 仁起公이다. 공은 조선 인조 병자호란때 해남군 마산면에서 안좌도 금산리로 은둔생활을 위해 입도하였다. 이 때 公의 長子 將士郎 金宗賢이 기좌도 창마리로, 次子인 金宗善은 읍동리에 각각 정착하였다.

유적현황은 <崇祖門>이라 불리는 외삼문이 있고, 그 안쪽에 정면 3칸, 측면 2.5칸의 慕仁齋가 위치한다. 모인재의 오른쪽 공터에는 재실 건립을 기념하는 기념비, 문중사업에 공을 세운 인물들의 공적비와 불망비가 서 있다. ①<慕仁齋 勸建記念碑>(1990년), ②<慕仁齋 勸建 獻誠 不忘碑>(1990년), ③<晩畊 金鎮九 功績碑>(2002년), ④<竹塢金喜午功績碑>(2002년) 등이다.

(4) 역사인물유적

① 김환기 생가(사진 25·26)

· 소재지 : 안좌면 읍동리 읍동마을

· 유적현황 : 읍동리는 안좌면 소재지이다. 안좌 초등학교를 지나 신촌리로 향하는 도로 오른쪽 언덕위에 읍동리 노인회관이 있다. 김환기 생가는 읍동리 노인회관 바로 옆에 위치한다. 수화 김환기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선생은 동양의 직관과 서양의 논리를 결합한 한국적 특성과 현대성을 겸비한 그림을 구상과 추상을 통해서 실현시킨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양화가이다. 생가는 1910년에 백두산에서 자란 나무로 건립하였다고 전해온다. 건축 양식은 북방식 “ㄱ”형 기와집이다. 선생은 1934년에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추상미술운동에 참여하였다. 1936년에 일본에서 귀국하여 3~4년 동안 고향인 안좌도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 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新寫實派를 조직하여 새로운 창작활동을 했다. 1956년에 파리로 건너가 서구 미술을 체험한 뒤, 1965년 미국에 정착하여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74년 7월 25일 뉴욕에서 사망하였다. 선생은 1970년 제1회 한국일보 주최 행사에서 대상을 받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등 여러 작품을 남겼다. 김환기 생가는 1992년 11월 30일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되었다.

② 고선박 유적(사진 27, 28, 29, 30)

· 소재지 : 안좌면 금산리 갯섬 등대 앞

· 유적현황 : 김성두씨(안좌도 본가, 35세)가 낙지잡이를 하던 중 선체를 발견하고 주변에서 도자기편 7점을 수습하여 2005년 2월 9일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선체는 해안선에서 약 100m 떨어진 개펄에 매몰되어 있으며, 3년 전부터 개펄이 침식되면서 노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선체의 길이는 13.6m, 중앙 너비가 5m 정도 규모이며, 우측으로 30° 정도 기울어져 일부 개펄에 노출된 상태이다. 매몰 선체는 선수가 북동쪽으로, 선미가 남서 방향을 향하고, 선수와 선미부분의 선편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또 오른쪽 외판 6단과 내부 중앙에 대형 멩에(한선에서 대들보의 구실을 하는 횡강력 부재)가 보인다. 또한 매몰선의 위치에서 남서 방향으로 각각 약 15m, 30m 떨어진 곳에 선체편으로 보이는 목재편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체는 주변에 흩어져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선체는 평저형(平底型)의 전통 한선구조(韓船構造)를 갖추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굴된 몇 척의 한선(길이 10m 정도)들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며, 잔존부분도 많이 남아 있어 배의 구조와 용도를 파악하는데 쉬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체 내부의 대형 멩에구조(駕木構造)는 선실 내부와 갑판 구조를 추정할 수 있고, 선수재로 보이는 부재 등 잔존 선체편이 많아 고대선박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2005년 8월 15일~9월 14일에 이 고선박 유적을 조사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선체의 구조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이전에 조사된 완도의 완도선(11세기)·군산 십이동파도선(11세기)·목포 달리도선(14세기)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한선 발달사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잔존길이 14.5m, 너비 6.1m

○ 발굴내용 : 우현외판 7단, 좌현외판 2단, 저판 3채, 선미판재, 대형멩에, 상감청자(청자국화문잔, 청자소접시) 및 편 약간, 목재편, 원통목, 밧줄, 돌판, 숫돌, 옹기편 등

○ 시대 : 13세기말 - 14세기초

○ 특징 : 수중발굴 고대한선 중 최대규모

- 고선박 발굴의 해양사적 의의

고선박이 발굴된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의 갯섬 해안 일대는, 북쪽으로 팔금면, 동쪽으로 해남 화

원반도를 마주보는 해역으로 좁고 완만한 만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흑산도 방면과 먼 바다를 향해 하는 선박들의 항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위치를 염두에 두면서 고선박 발굴의 해양사적 의의를 살피기로 하자.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영암 구림마을에 신라~고려시대에 국제 무역항구이 있었음이 전하는데 상대포가 그것이다. 고운 최치원 등 도당 유학생들이 상대포를 통해서 떠났다고 하는데, 화원반도에 최치원이 세웠다는 서동사라는 절이 전하고 있고, 오늘날도 흑산도 여객선의 항로인 비금-도초 해협이 바라다 보이는 비금도 수도마을 뒷산에 최치원이 파주었다는 샘(고운선생샘)이 전하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또한 상대포에서 영산강을 따라서 바다에 나가는 화원반도의 끄트머리에 당포라는 지명이 있는데, '당으로 떠나는 포구'라는 의미로 역시 의미가 심장하다. 상대포에서 당포를 거쳐 비금-도초 해협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항로상의 해협이 있으니, 안좌-팔금 사이의 해협이다. 고선박이 발견된 금산리는 안좌-팔금 해협의 초입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고려시대까지 중요한 항로상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금산리에서 비금-도초 해협을 통과하는 길목에 안좌도의 읍동마을이 위치하는데, 읍동마을에 백제시대의 황혈식석실분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이 항로가 멀리 백제시대에도 주요 항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읍동의 바닷가에 '배널리'라 불리는 마을이 있고, 그 항로상의 동남방의 바닷가에 위치한 대리의 바닷가에도 '배널리'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는 점이다. 더욱 대리의 '배널리'에도 백제시대의 황혈식석실분이 있어 흥미를 끈다. 이번 조사에서 대리의 배널리에서 문초석을 찾아냈는데, 이는 당시 그곳에 중요한 건물시설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배널리'란 '배가 들고나는 마을'이라는 의미라 생각되거나, '배널리'라 불리는 읍동과 대리에 황혈식석실분이 있고, 두 '배널리'가 예의 항로상에 위치한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신라-당 사이의 항로를 추정해 보자면, '상대포→당포→대리의 배널리→안좌-팔금 해협(금산리→읍동의 배널리)→비금-도초해협(수도 마을)→우이도→흑산도→홍도→가거도→중국'의 항로를 설정해 볼 수 있다. 이번에 고선박이 발견된 금산리 앞바다는 여지없이 이 항로상에 위치한다. 이점에서 금산리 고선박은 고려시대 선박사를 해명하는 것은 물론, 당시 서남해지역 해양사, 더 구체적으로는 항로를 해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생각된다.



사진 1. 金琪林紀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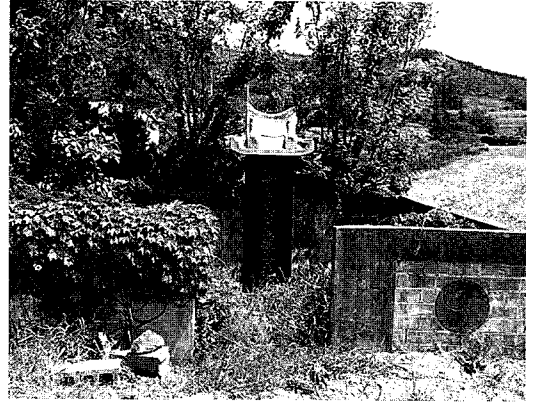


사진 2. 金茂振善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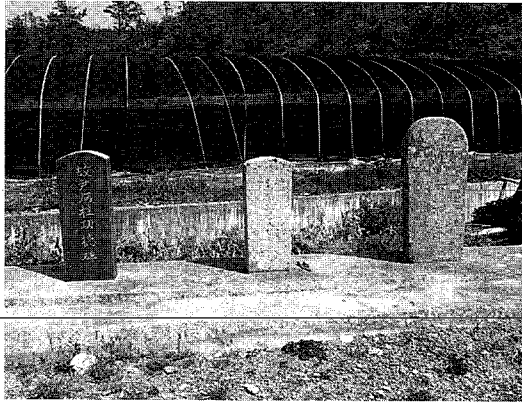


사진 3. 오동리 비석군



사진 4. 拾貳個里施惠不忘碑



사진 5. 金龍玉遺墟碑



사진 6. 金海金氏烈女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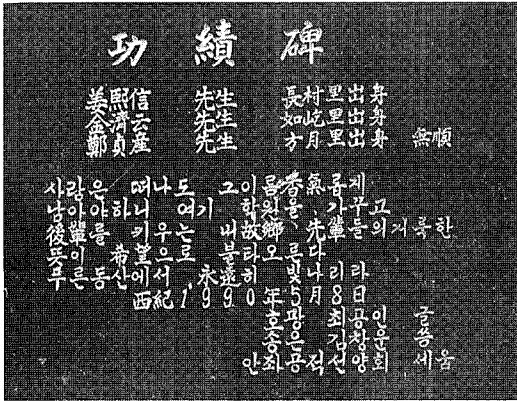


사진 7. 姜熙信·金濟云·鄭貞產功績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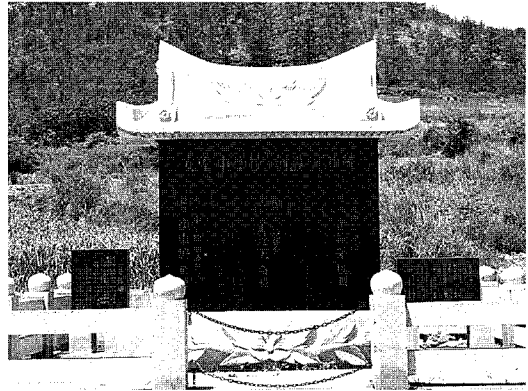


사진 8. 安佐中學校創設記功碑



사진 9. 金學洙謝恩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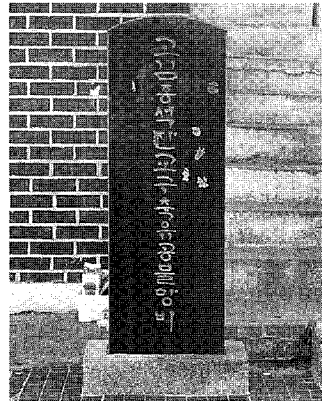


사진 10. 김종석불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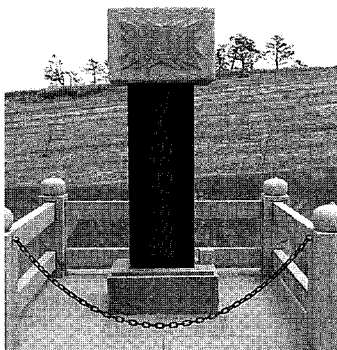


사진 11. 金明珍功績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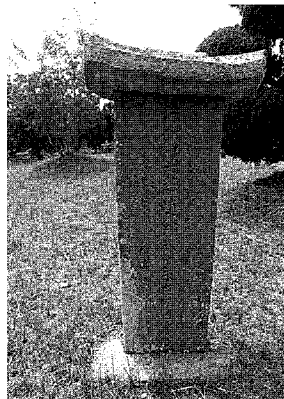


사진 12. 趙義林不忘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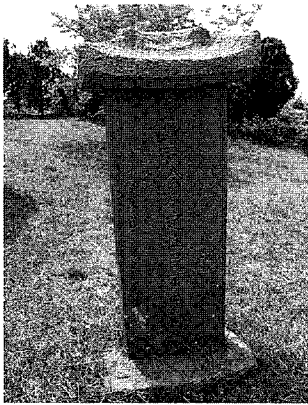


사진 13. 尹泓定不忘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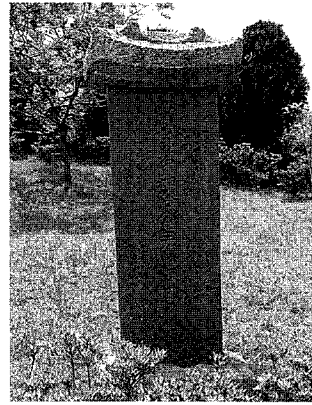


사진 14. 金圭復不忘碑



사진 15. 安敎翼孝子碑



사진 16. 金宗潤紀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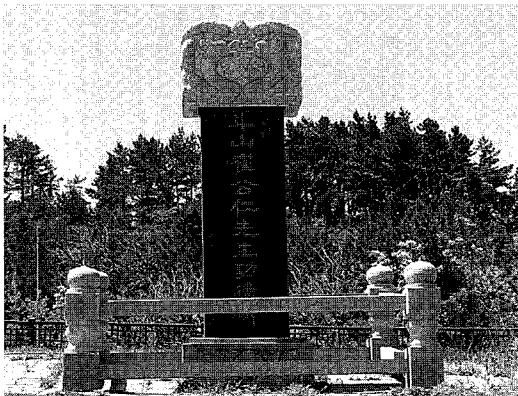


사진 17. 崔公仁功德碑



사진 18. 金海金氏孝烈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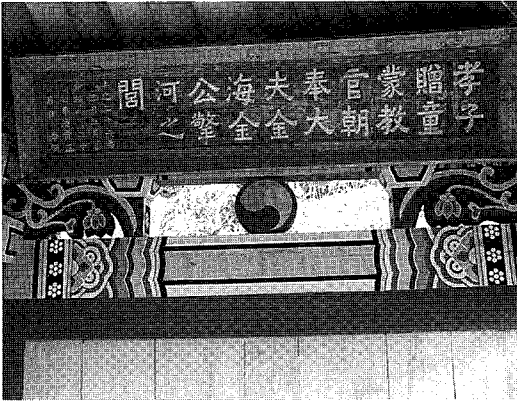


사진 19. 金擎河旌閭



사진 20. 金石柱孝子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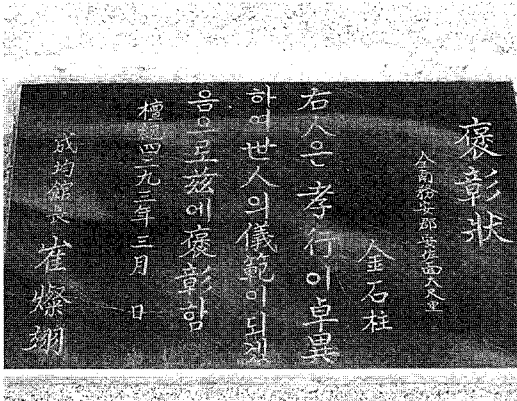


사진 21. 金石柱褒彰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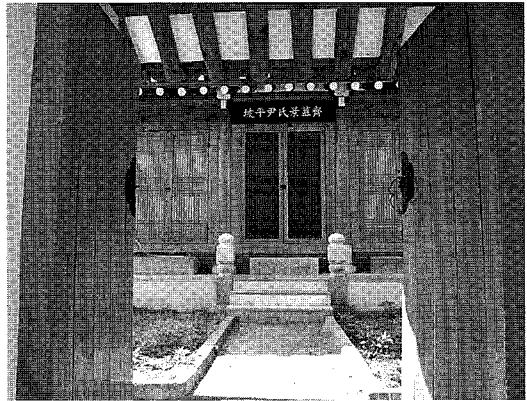


사진 22. 景慕齋



사진 23. 慕仁齋



사진 24. 慕仁齋建記念碑



사진 25. 김환기생가(전경)



사진 26. 김환기생가(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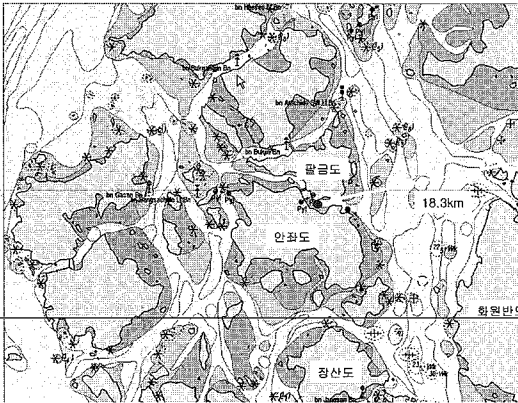


사진 27. 금산리 고선박 발견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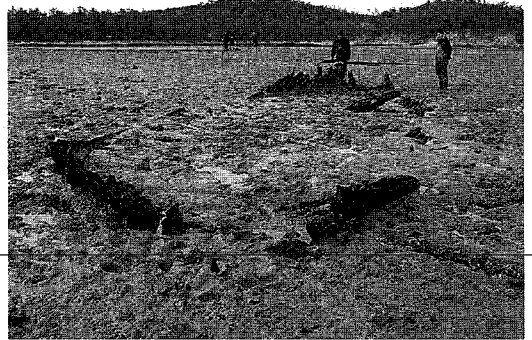


사진 28. 금산리 고선박 전도



사진 29. 금산리 고선박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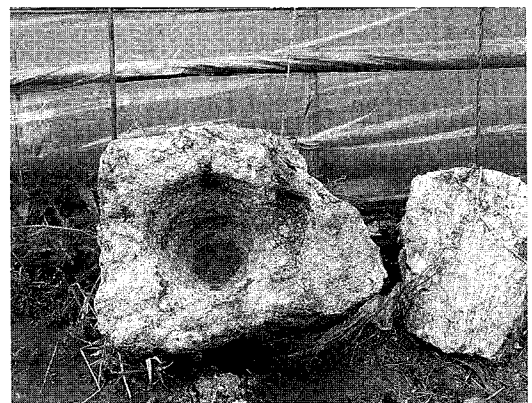


사진 30. 안좌도 대리 배널리에서 수습한 문초석

3. 주거문화자원

1) 주거문화자원 목록

전남에는 전국도서의 62%정도인 1950여개의 많은 도서가 있다. 도서는 지리적인 영향으로 과거로부터 내륙과 다른 도서만의 독특한 문화환경을 가꾸어 왔다. 민가의 구성개념과 구조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예로 내륙인 영산강 유역의 민가와 도서민가의 구조가 다르다.

최근 산업과 정보화의 영향으로 도시와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삶의 문화”와 획일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장점들이 현대화라는 서구적 개념에 밀려 버려지고 있다. 주거양식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인간과 가장 하부적으로 밀착되어 발전을 거듭해온 목조 초가는 이제 더 이상 현대적 편의성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형태의 주거가 농·어촌에 들어서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주거란 주거개념과 형태에서 과거의 전통가옥과는 너무 이질적인 것으로서 주거 문화사 측면에서 본다면 과히 혁신적인 것이다.

〈표 1〉 안좌도 조사가옥 목록

번호	가옥명	소재지	건립연대	건물구성	비고
1	고순례 가옥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48번지	1900년대 초	안채	
2	이길동 가옥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39번지	1900년대 초~중	안채, 헛간채	
3	김운기 가옥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88번지	1800년대 말	안채, 측간채	
4	공가 1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49번지	1900년대 초	안채, 측간채	
5	윤방하 가옥	신안군 안좌면 대척리 456번지	1900년대 초	안채, 측간채	
6	오제단 가옥	신안군 안좌면 남강리 129번지	1900년경	안채, 측간채	
7	김채성 가옥	신안군 안좌면 대리 830번지	1900년대 초	안채	
8	김봉홍 가옥	신안군 안좌면 여흘리 287번지	1930년경	안채, 측간채	
9	김정순 가옥	신안군 안좌면 대우리 343번지	1935년	안채, 행랑채	
10	전양례 가옥	신안군 안좌면 대리	1900년경	안채, 측간채	
11	서갑철 가옥	신안군 안좌면 신촌리 99번지	1800년 대	안채	
12	정상호 가옥	신안군 안좌면 대우리 535번지	1920년경	안채, 헛간채, 측간채	
13	고산월 가옥	신안군 안좌면 대우리 550번지	1900년경	안채, 측간채	
14	정정균 가옥	신안군 안좌면 대리 885번지	1849년	안채, 헛간채, 측간채	혈림
15	강육월 가옥	신안군 안좌면 대척리 435번지	1800년대 중	안채	혈림
16	이선여 가옥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 326번지	1839년	안채, 헛간채, 측간채	혈림
17	김환기 생가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5번지	1920년	안채, 화실	지방기념물 제 146호

본 조사는 안좌도를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의 전통주거가 이 지역에 정착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도서민의 주거역사 · 문화 환경 정체성 확립
- 과거에 건립된 주거를 조사 · 정리하여 주거역사 이론 정립 및 자료화
- 지속 가능한 건축 공간, 형태, 건축 공동체 등을 찾아낸다.
- 도서민의 정주환경을 역학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새로운 주의식 문화를 정립,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시한다. 이는 바로 문화자원화 개념과 연결된다.

〈표 1〉은 안좌도 전통주거 조사가옥 목록이다. 비록 지붕개량과 부분적 보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가옥구조는 옛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다. 14, 15, 16번 가옥은 필자가 1988년도에 조사한 가옥이다. 현재는 모두 철거되고 없다. 조사 당시 이 가옥들은 상량문이 있어 건립연도가 정확히 드러났고 건립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갖추고 있었다. 17번 김환기 생가는 기념비적인 주택으로 본 조사에 포함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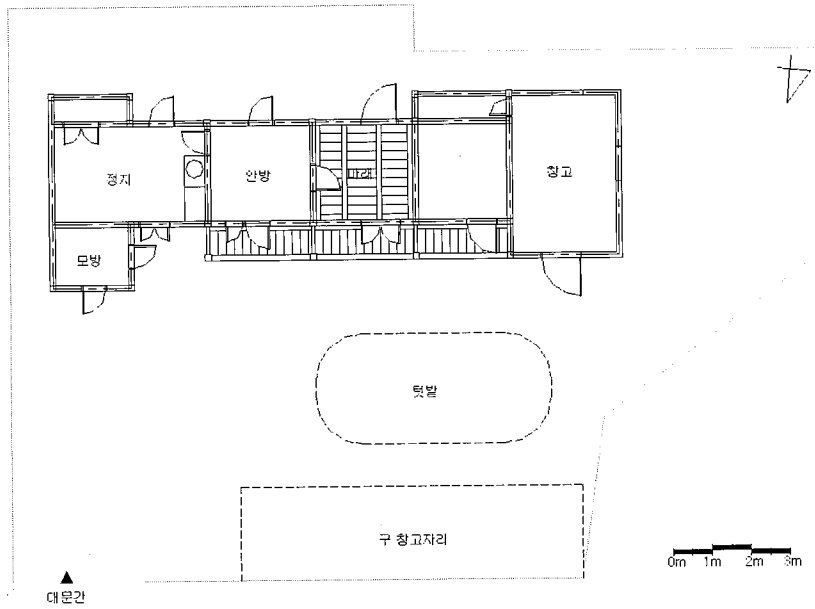
2) 주거문화자원 현황

(1) 전통주거 건축현황

① 고순례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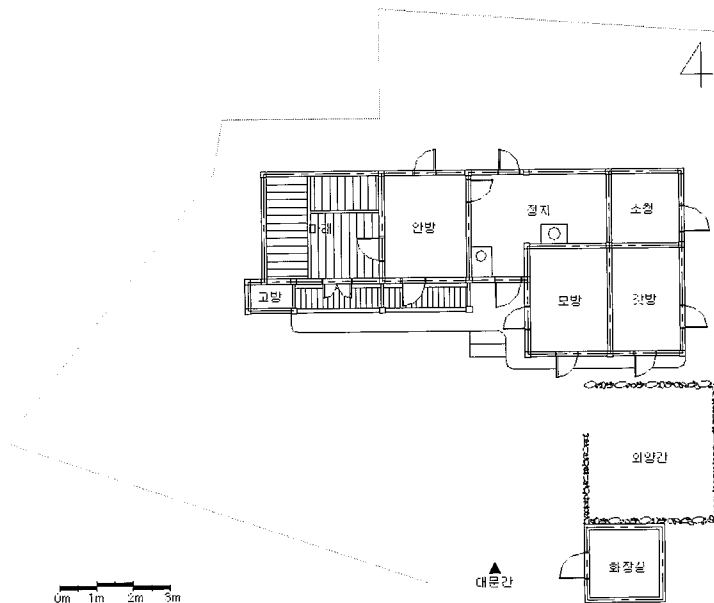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48번지
- 건립연도 : 1900년대 초
- 가옥특성 : 정지 전면에 모방. 마래 옆으로도 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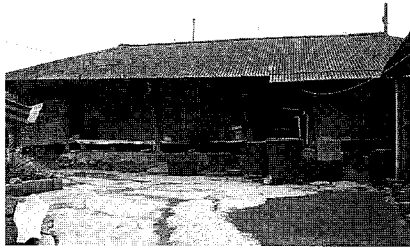




② 이갈동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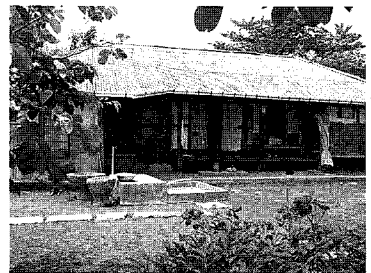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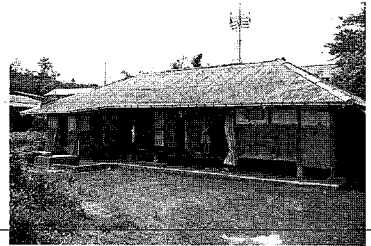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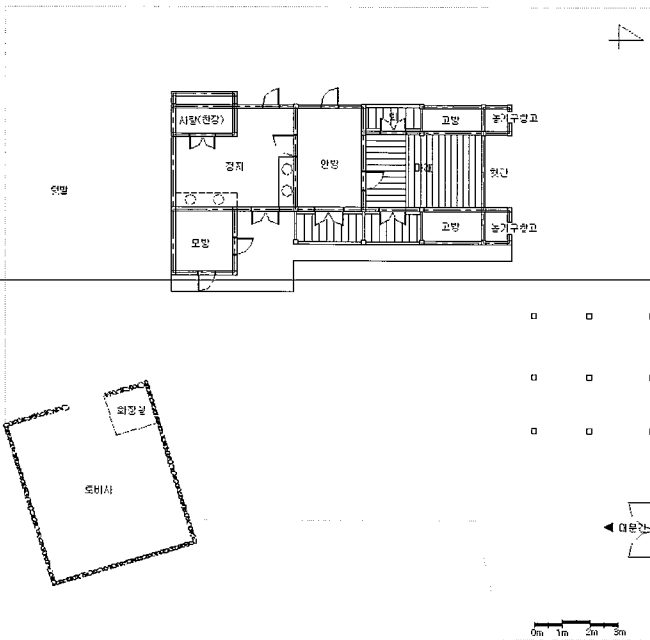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39번지
- 건립연도 : 1900년대 초~중
- 가옥특성 : 정지 우측 겹집구성. 비교적 규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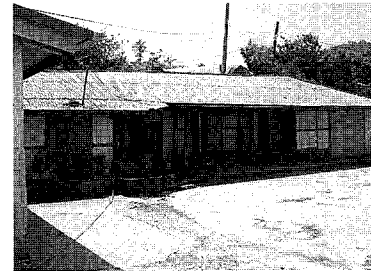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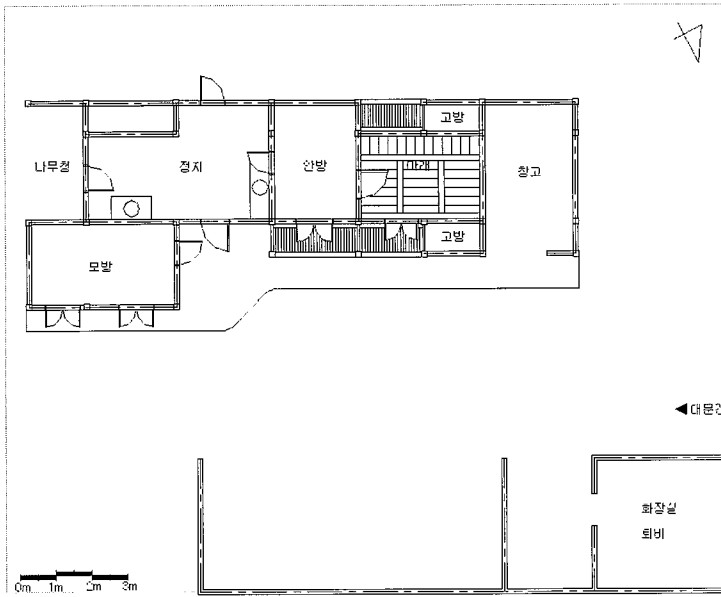
③ 김윤기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388번지
- 건립연도 : 1800년대 말
- 가옥특성 : 정지 전면에 모방. 후면과 우측면 퇴칸 이용(고방, 마루, 헛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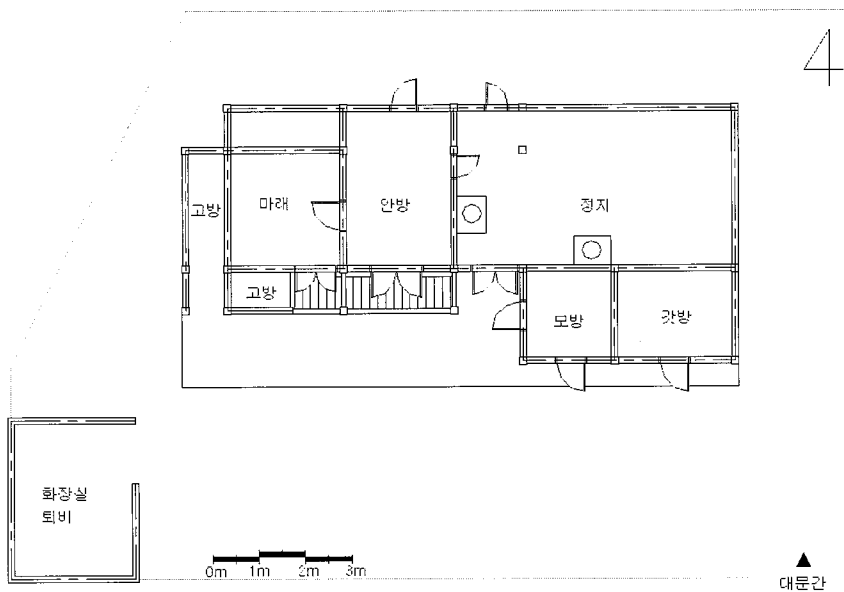
④ 공가 1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49번지
- 건립연도 : 1900년대 초
- 가옥특성 : 마래 후면(퇴칸)에 고방과 마루 설치. 모방이 2칸으로 넓음.



⑤ 윤방하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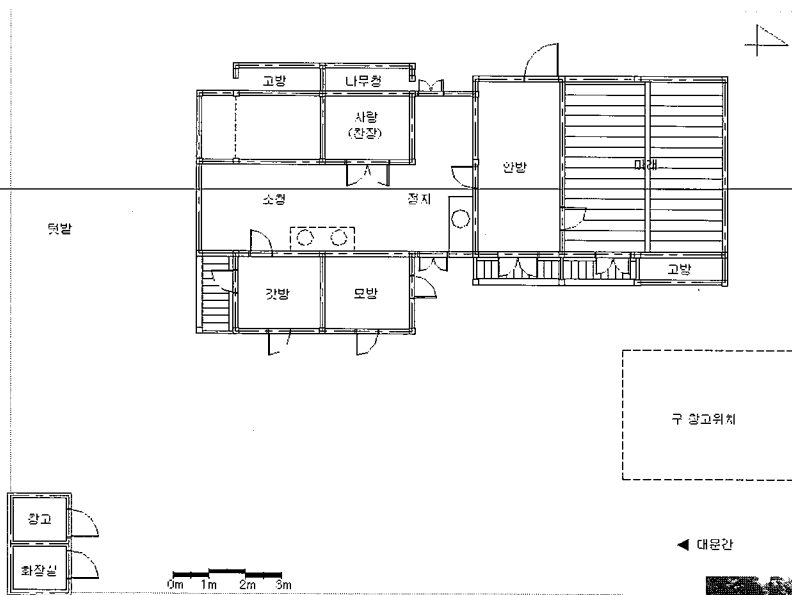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대척리 456번지
- 건립연도 : 1900년대 초
- 가옥특성 : 모방 옆으로 갓방 설치. 정지가 매우 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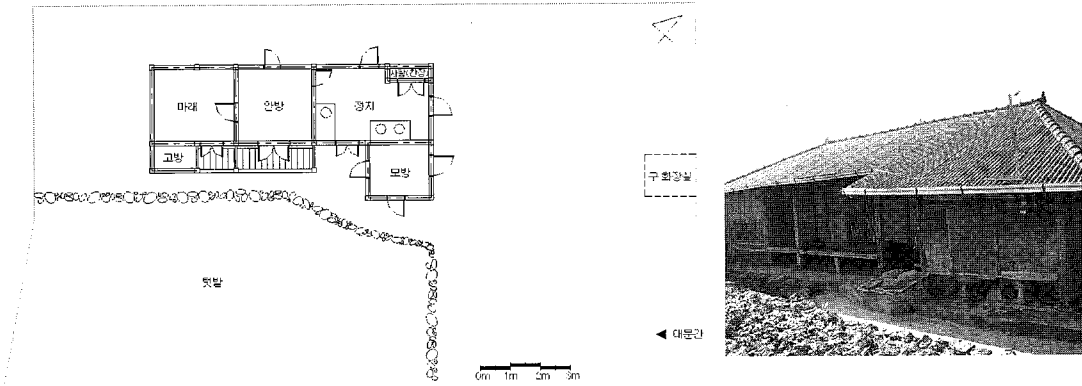
⑥ 오제단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남강리 129번지
- 건립연도 : 1900년경
- 가옥특성 : 갓방 옆으로 마루설치. 찬장이 매우 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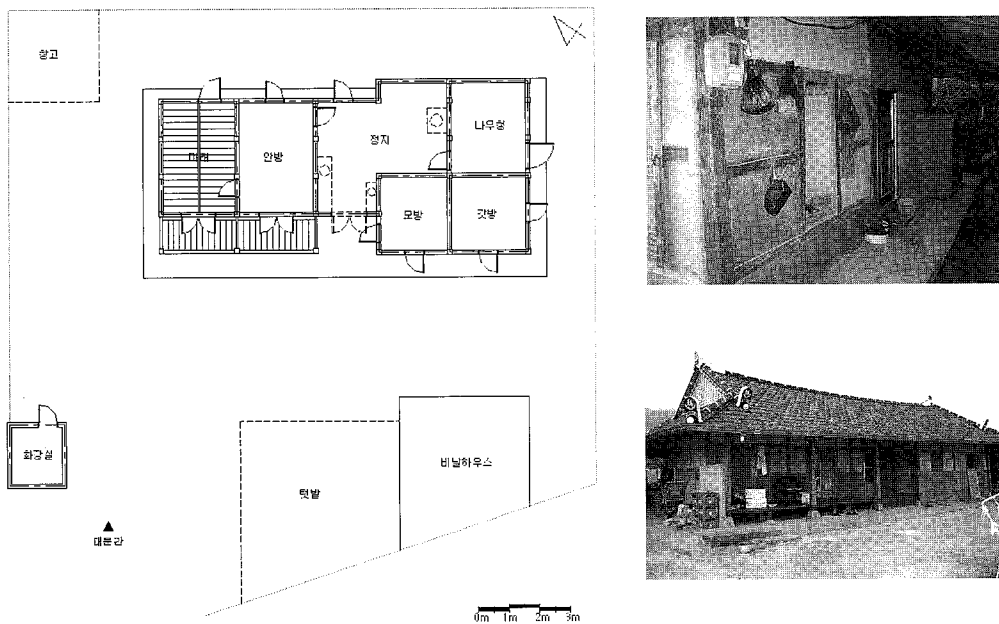
⑦ 김채성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대리 830번지
- 건립연도 : 1900년대 초
- 가옥특성 : 전형적인 신안도서지방 민가구조. 정지 전면 모퉁이에 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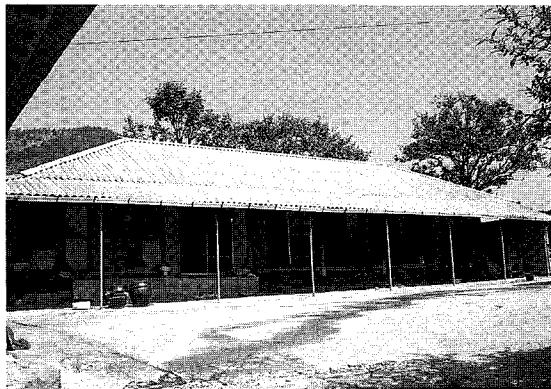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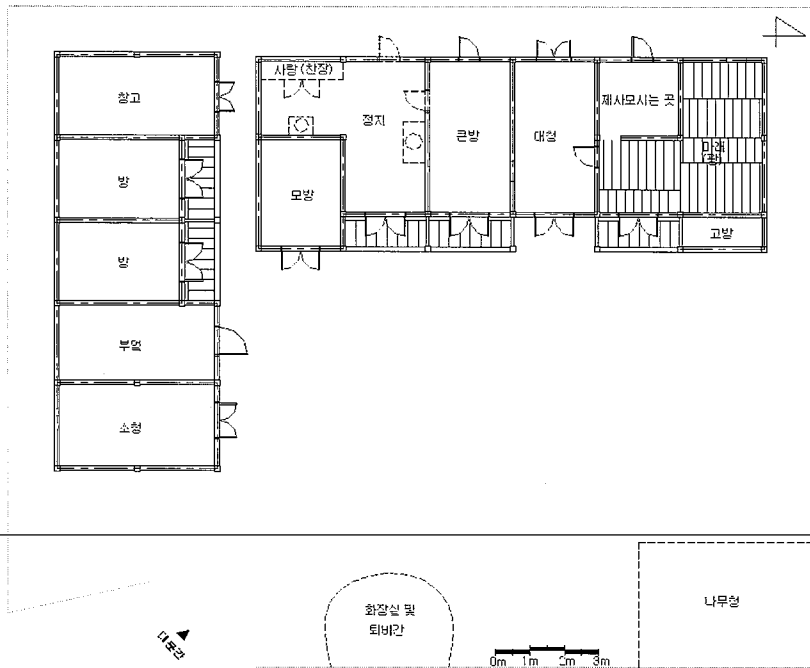
⑧ 김봉홍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여흘리 287번지
- 건립연도 : 1930년경
- 가옥특성 : 정지 우측으로 겹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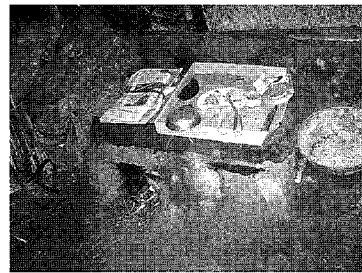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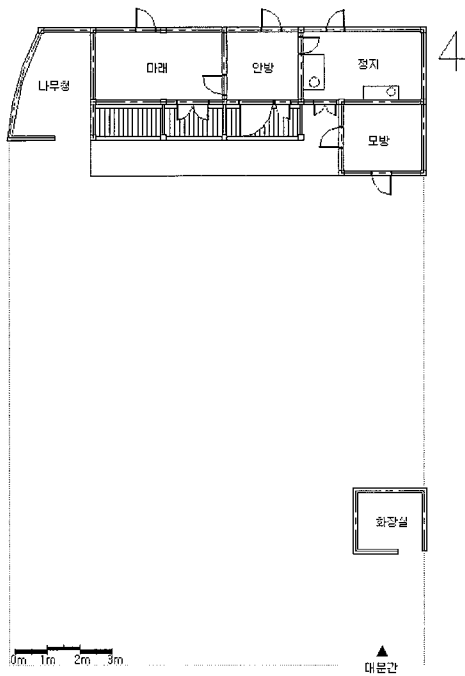
⑨ 김정순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대우리 343번지
- 건립연도 : 1935년
- 가옥특성 : 큰방과 마래사이 대청설치, 정지 전면 출입을 뒷마루로(개수된 듯), 마래에 별도의 제사 공간 구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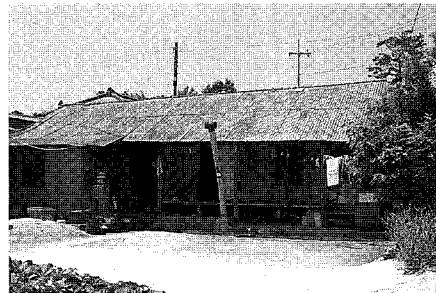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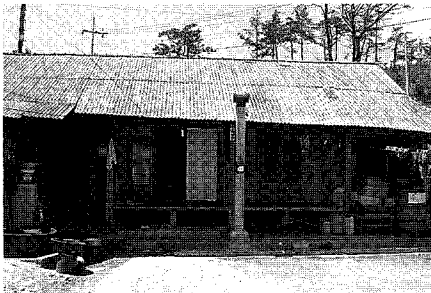
⑩ 전양례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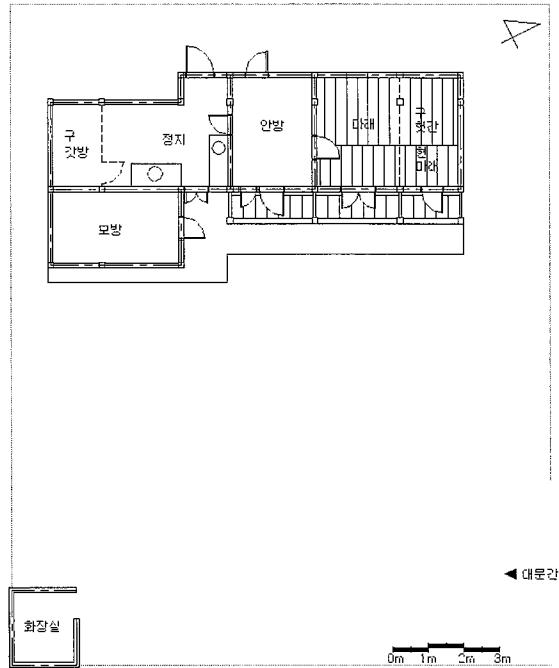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대리
- 건립연도 : 1900년경
- 가옥특성 : 가옥규모에 비해 마래가 넓음(2칸).



⑪ 서갑철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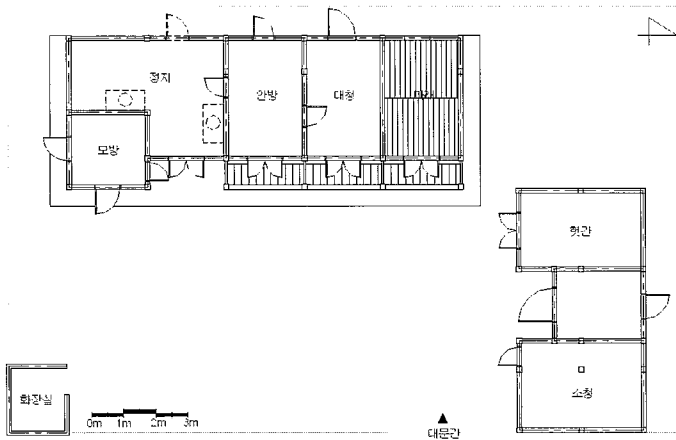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신촌리 99번지
- 건립연도 : 1800년 대
- 가옥특성 : 정지 옆에 갓방 설치. 우측퇴간 헛간(현 마래로 넓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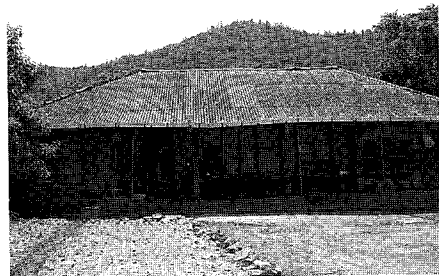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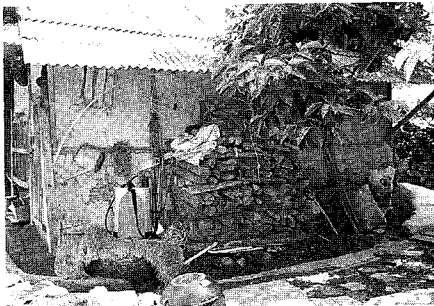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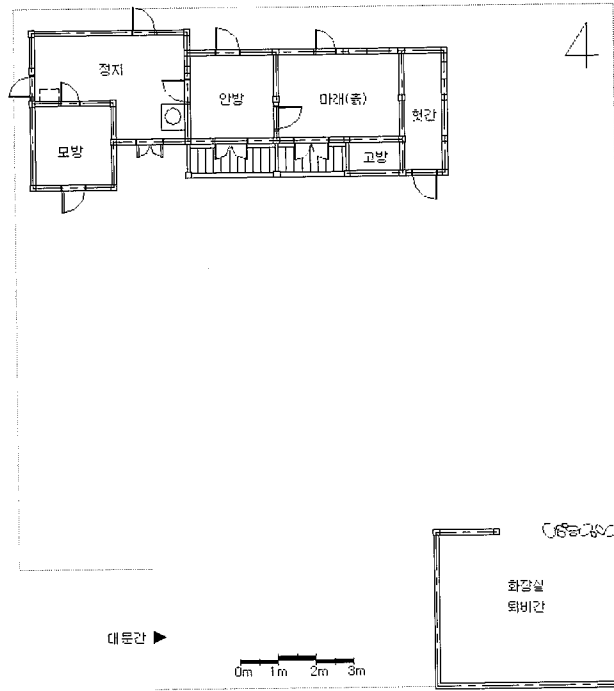
⑫ 정상호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대우리 535번지
- 건립연도 : 1920년 경
- 가옥특성 : 모방이 정지 안쪽으로 들어간 'ㄱ'자 형 가옥, 안방과 마래 사이 대청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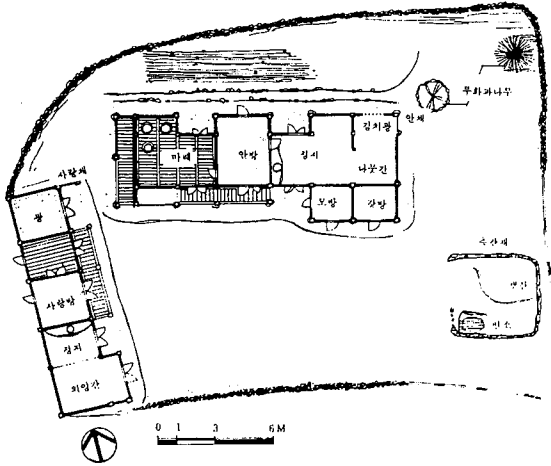
⑬ 고산월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대우리 550번지
- 건립연도 : 1900년 경
- 가옥특성 : 'ㄱ' 형 가옥. 모방이 안쪽으로.



⑭ 정정균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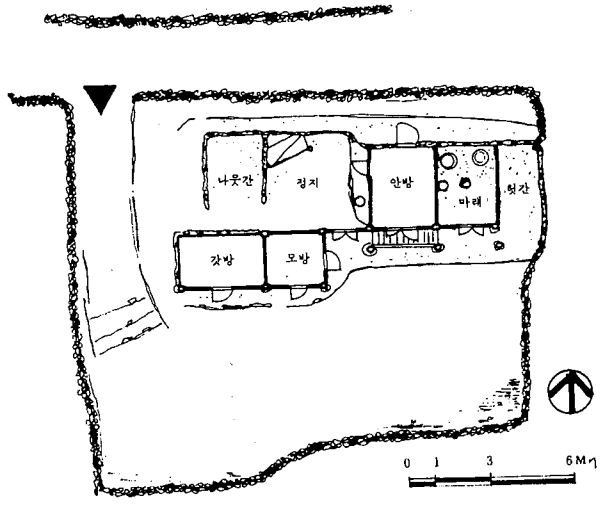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대리 885번지
- 건립연도 : 상량 '道光貳拾九年乙酉...' (1849년)
- 가옥특성 : 마래 넓은(2칸), 정지 옆 겹집 구성



⑮ 강육월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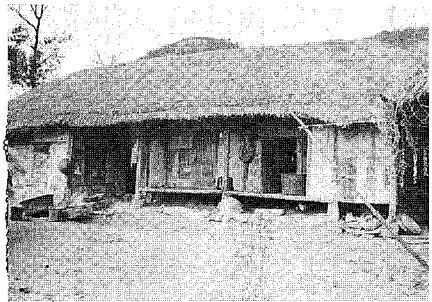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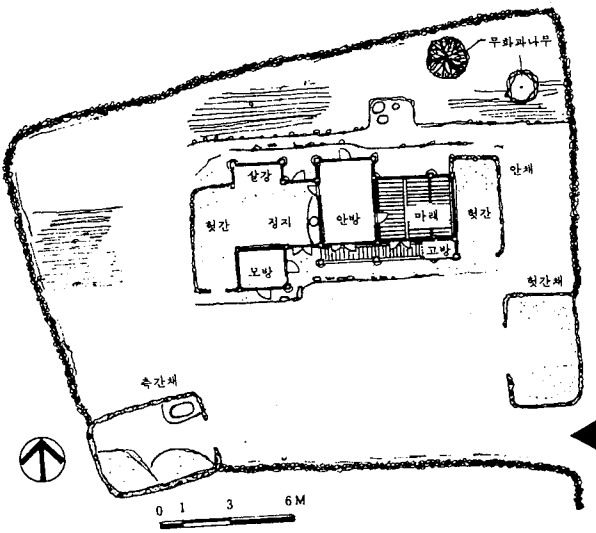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대척리 435번지
- 건립연도 : 1800년대 중
- 가옥특성 : 후면 죽담구조(흙+돌)





⑩ 이선여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 326번지
- 건립연도 : 상량 道光拾九己亥... (1839년)
- 가옥특성 : 좌·우측 헛간(죽담구조). 모방 정지 전면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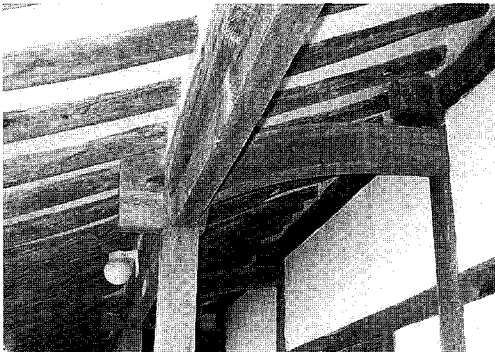
⑰ 김환기 생가

- 소재지 :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5번지
- 건립연도 : 1920년

· 가옥특성 : 현재 안채와 화실 1채로만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1920년에 건축된 것으로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별동으로 건립된 화실은 1940년대에 건립됐다.

수화 김환기는 안채에서 어린 시절(안좌초교)을 보냈으며 화실은 수화가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잠시 서울에서 내려와 작업을 하던 곳이다. 현재는 살림집으로 사용하여 내부가 많이 변형되어 있다.

이 가옥은 안좌면 읍동마을의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입지한 집터는 상당히 넓으며 건물 위치는 안쪽에서 보아 좌측에 안채, 우측에 화실이 자리하고 있다. 안채는 'ㄱ'자 형 기와집으로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곡간, 건넌방, 대청마루, 안방, 정지 순으로 꾸며져 있고 정지 앞쪽으로 꺾어져서 다시 방 1칸이 드러져 있다. 구조는 다듬은 방형 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납도리집 형식으로 되어 있다. 문은 정지의 판장문 만을 제외하고 모두 띠살문으로 되어 있고 벽체는 회벽으로 마감되어 있다.



(2) 가옥구성 및 특성

① 건물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

각 가옥의 대지내 건물의 배치형식은 일정한 유형으로 단순화 되어있다. 우선 건물구성을 살펴보면 가옥의 기본이 되고 있는 안채가 꼭 있고 이 외에 사랑채(행랑채)가 있다. 사랑채는 모든 가옥에서 건립한 것은 아니고 가족구성과 경제능력에 따라 건립되어진다. 사랑채의 건립 시기는 보통 안채보다 늦게 나타난다. 기타 돈사와 헛간채가 가옥에 따라 건립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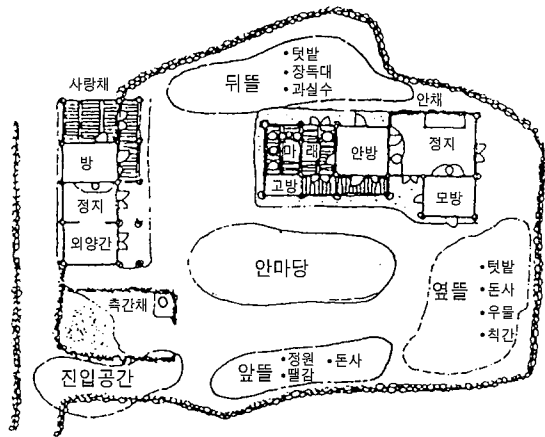
세부적인 배치형태는 마을이나 입지환경에 관계없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오직 안채만이 대지의 중앙 안쪽에 단독으로 건립된 ‘ㄱ’자형이며, 다른 하나는 사랑채가 안채 전면의 좌측 내지는 우측에 독립으로 놓여져 안채와 함께 구성된 튼 ‘ㄷ’자형이다. 이 두 가지 유형 외에 안채의 전면에 건물이 들어서는 ‘ㄷ’자형이나 또는 ‘ㄷ’자형, ‘ㄷ’자형의 건물배치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이 지역 다른 도서 및 전남 내륙지방에서도 거의 같다. 이러한 개방적인 ‘ㄷ’자형배치는 가옥이 전체적으로 밝고 또한 안마당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서지방 전통민가의 외부공간은 다른 지방에서와 같이 민가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다양성은 찾아볼 수 없고 거의 일정하게 유형화 되어 있다. 또한 대지의 협소성으로 한 흑산도 민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3가지로 유형화 시켜 그 성격을 알아보면

첫째, 마을길에서 가옥내부로 들어오는 진입공간을 들 수 있는데 이곳 입구에는 대문이나 그 밖의 어떤 장치물 없이 바로 마을 안길에서 담장사이에 난 약 1.5m의 통로를 통하여 안마당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많은 가옥에서 앞마당이 바로 보이지 않게 입구의 담장을 변화 있게 처리하였다.

둘째, 안마당으로 불리우는 안채 전면의 공간이다. 사랑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면과 한데 어울려져 형성된다. 기능은 다른 지방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데 이 지역에서는 주로 땀



〈도서 전통민가 구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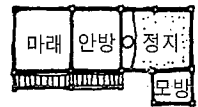
감저장이나 텃밭, 화단조성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쪽 모퉁이로는 감나무 등의 과실수가 한 두 그루 심어지기도 한다.

셋째, 안채 후면의 뒤뜰이 있다. 이곳은 비록 넓지는 않으나 정지의 뒷문과 이어져 장독대, 우물 등이 설치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장독대 뒤쪽으로는 지형상 축대를 형성하여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또한 담장 가까이로는 감나무 등의 과실수가 심겨져 있다.

② 내부공간 구성

내부공간(안채)은 안방, 정지, 마래, 모방의 4실이 주가 되어 기능적으로 조합, 공간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 외 갓방, 텃마루, 고방 등도 가옥 구성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각 실의 배치는 조사 가옥 16채를 유형화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4가지 타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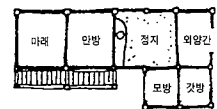
㉠ 마래, 안방, 정지, 모방의 4실로 이루어진 <유형 2>와 같은 형식이다. 이 경우 모방이 전면의 퇴주선(退柱線)보다 약 1m 정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자형 평면이지만 ‘ㄱ’자형을 연상케 한다. 조사가옥 중 7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은 안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안 도서의 민가 형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패턴이다. 그러나 먼 바다에 위치한 흑산도지역의 가옥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특히 주목된다.



㉡ 앞의 유형과 유사한 구조이나 모방이 정지 안쪽으로 반쯤 침투되어 있어 완전한 ‘—’자형을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지공간이 축소되는 반면 구조적으로는 단순화되고 있다. 2가옥이 이 유형을 취하고 있다.



㉢ ㉠, ㉡ 타입의 구조에 정지와 모방 측면으로 외양간(헛간)과 갓방이 겹집형식으로 추가되어 실이 4실에서 6실로 늘어나는 형식이다.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중농가일수록 이러한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 조사가옥 중 6채가 이 유형을 취하고 있다.



㉣ 안방과 마래 사이에 1칸 대청을 둔 가옥이 1채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도서에서도 간혹 보이는데 건립시기는 주로 20세기 이후가 되고 있다.



각 실의 규모 및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기능이란 실의 이용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가급적 가옥들이 지어진 19C의 주생활에 맞추어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㉟ 안방 : 안방은 정지와 마래 사이에 위치한 안채의 주공간이다. 그 규모는 전면이 234cm에서 270cm사이, 측면이 224cm에서 489cm사이로 평균 전면이 245cm, 측면이 334cm이다. 방의 면적은 평균 8.2㎡(2.5평)이다.

㊱ 정지 : 안채 내에서 제일 큰 면적(평균 13.4㎡, 4.1평)을 차지하는 곳으로 평균 전면이 401cm, 측면은 후퇴까지 포함하여 335cm 크기로 나타난다. 전면은 대부분 가옥이 2칸으로 되어 있어 장재 사용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정지의 주 기능은 취사와 난방을 위한 불때기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 작업공간으로도 쓰여진다. 정지내의 시설물로는 부뚜막이외에 사랑(살강)이 대부분 가옥에서 갖추어져 있고 기타 정지광이나 별도의 나룻간 등은 가옥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찾아볼 수 없다. 정지내의 후면 한 쪽으로는 굴뚝이 설치되어 있어 바람이 많은 도서지방 가옥구조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가옥에서는 벽과 천장이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어 취사와 난방을 전적으로 아궁이를 통한 빨감에 의존했던 옛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더욱이 내부의 굴뚝으로 인해 그 양상이 더욱 심하다.

㊲ 마래 : 안방 보다 큰 평균 10.7㎡(3.2평)의 면적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공간이다. 모방이 없는 가옥에서도 마래만큼은 가옥의 규모에 관계없이 꼭 갖추어져 있다. 크기는 전면이 평균 333cm, 측면은 320cm로 규모가 좀 큰 가옥에서는 정지와 같이 전면을 2칸으로 하고 후퇴 칸까지 넓혀져 있다.

“마래” 또는 “마리”라고 불리워지는 이 실의 호칭은 “마루”의 이 지역 방언으로 바닥 구조가 마루널 또는 흙바닥과는 관계없이 이 지방에서는 기능에 의해 마래라고 불리운다. 현재 안좌도의 대부분 가옥에서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나 이 지역 다른 도서의 가옥에서는 흙바닥으로 된 가옥도 일부 있다. 흙바닥으로 된 가옥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열악하다.

이 실의 기능은 내륙지방의 광과 비슷하다. 이곳에는 곡물을 넣은 비교적 큰 항아리가 벽선에 따라 1열로 놓여지고 다시 그 위로 작은 항아리가 얹혀진다. 기타 사립도구, 자주 쓰이지 않는 부엌기구, 제사용구 등이 보관된다. 이러한 수장의 기능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조상의 신위를 모신 감실장을 후면 벽 쪽에 설치하여 제사공간으로도 이용한다. 감실장 없이 “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상자로 대신하여 선반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몇몇 가옥에서만 이러한 시설이 잔존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거의 모든 가옥에 감실장이 있었고 제사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㉔ 모방 : 평균 5.8㎡(1.7평) 규모의 작은방으로 그 크기는 전면이 보통 200cm에서 250cm사이, 측면 165cm에서 322cm사이로 가옥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개 성장한 자녀, 또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아들부부가 거처한다. 정지 내부 쪽으로는 문이 없어 출입은 전면으로만 토방에서 하게 되어있다.

현재 부부만이 거처하는 가옥에서는 이곳에 각종 살림도구, 곡물 등을 보관하고 있다.

㉕ 사랑 : 정지 출입문 옆의 전퇴부분에 설치한 정지내의 유일한 수납공간(천장)이다. 보통 2단 정도로 선반이 드러져 있고 그 위에 그릇 등이 얹혀진다. 서남해 다른 도서에서는 대부분 정지 앞으로 모방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랑은 뒷문 옆 틈간에 또는 틈간이 없을 경우에는 벽선 밖으로 달아내어 설치된다.

㉖ 툇마루 : 대부분 가옥에서 안방과 마래 전면의 틈간에 마루를 설치한다. 모방이 있는 가옥에서는 그 전면에도 툇마루를 설치하나 토방으로 꾸민 가옥도 상당수 나타난다.

4. 유형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1) 고고유적의 활용방안

안좌도에는 도서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5개의 지석묘군 40여기, 3개의 고분군 6기, 유물산포지 등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5개의 지석묘군 가운데 방월리 마을내에 위치하고 있는 방월리 D군 지석묘군은 전남지방 무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으며 15기와 17기가 위치하고 있는 방월리 지석묘 A·B군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방월리 지석묘 A·B군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도 용이하고 보존상태도 용이하다. 그리고 안좌종합고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고분과 배널리의 고분군은 이미 도굴은 당해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도서지방에 이런 고분군이 위치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므로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을 들면 첫 번째로 유적 주변의 정화 작업이 절실하다. 유적 주변에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아 접근할 수없는데 쉽게 누구나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고분군의 경우 이미 도굴은 당하였으나 도서지방에 고분군이 위치한 이유를 파악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정밀한 학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근거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기존에 안좌도에는 지식묘로부터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방월리 A군 지식묘 주변에서 수습된 굴지구를 보았을때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사진5에 보이는 굴지구는 주로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므로 관심을 갖고 주변 지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1) 역사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읍동사례-

안좌도는 섬이지만, 오히려 농촌풍경을 더 많이 닮았다. 5월이면 섬 전역을 뒤덮는 보리밭과 마늘밭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경문화와 어촌문화,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등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특히 안좌도의 읍동은 지명만큼이나 중심지로써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생필품, 관련 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섬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해 주는 역사문화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읍동의 경우 ①김경하효자각, ②김환기 생가, ③충훈탑과 공적비, ④대척리의 우실, ⑤읍동포구와 연락선, ⑥안산의 등산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듯 읍동은 섬의 중심지에 해당하면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좌도를 대표하는 역사마을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도서지역의 인구는 노령화와 감소 추세에 있다. 또 도서지역의 입지적 조건이나 관광시장을 고려해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한계점이 엿보인다. 즉 저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지역을 방문할 경우 가장 불편한 점이 숙박시설이다. 이러한 체류공간을 조성한다고 할 경우 독립된 장소에 별도도의 건물로 운영하기 보다는 도서지역의 학교시설과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즉 평상시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향유하고, 필요에 따라 외지인들이 체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즉 섬마을 청소년들의 복지시설이 때로는 육지 학생들의 여름캠프 장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이 과정을 통해 섬주민과 외지인의 공유공간이 마련될 것이며, 그 다음에 도서문화를 전달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겠다. 지역문화는 섬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자원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문화자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현지 주민의 안내 없이 방문객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완작

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 교통안내, 포구와 마을 간의 연계, 주요 시설물간의 거리, 이동경로와 이동방법 등을 외지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판을 상세히 게시하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김환기 생가의 정비와 활용 방안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양 화가인 수화 김환기의 생가가 안좌도 읍동에 위치한다. 생가는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동포구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어서 누구나 접근이 편리하다. 이에 생가의 보존 및 공간활용 방안을 우선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생가를 내륙지역 화가들에게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거나, 김환기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도서지역 미술학도들을 위한 문화학교로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활용에 앞서 생가를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다. 구전에 의하면, 생가는 안좌도에서 교직생활을 하였던 교사들의 숙식공간으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즉 현재 생가 앞마당에 위치한 우물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건물의 활용은 기존의 형태와 조건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또 도로변에서 생가를 바라볼 경우, 생가의 문간채와 화장실이 안채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어색하다. 반면에 안채와 정원은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온 것으로 전해온다. 또 마당은 장마가 올 경우 출입하기에 불편하였다. 이 점은 후손들과 논의하여 부분적인 복원이 요구되며,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3) 주거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많은 문화자원이 있다. 전통건축도 그 중의 하나다. 전통건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 준다.

첫째, 감성가치를 제공 해 준다. 초가삼칸집, 웅장한 궁궐 등 옛 집은 우리에게 옛 생각 등 감성을 유발 시킨다.

둘째, 역사적 가치이다. 건축물은 지어질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사찰건축은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주택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따라서 전통건축은 형체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요, 역사현장이다.

셋째, 조형 예술사적 가치가 있다. 건축은 종합예술의 결정체로서 모든 각각의 형태와 요소는 기

술적인, 조형적인 측면에서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산업화 이후 전통주거는 그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심지어는 존재의 의미조차도 찾지 못하게 됐다. 그 이유는 건축 구조적인 측면과 경제성 등에서 이른바 현대식 주택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주거를 일상의 살림집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전통계승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1) 개별 전통가옥의 보존

현재 각 마을에는 초가집은 아니나 내부구조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집, 특히 빈집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집을 원형으로 복원하여(마을별 2~3채 정도, 또는 2~3개 마을을 묶어 3~5채) 마을의 정체성을 갖게 해 준다. 외지에 사는 도서민이 고향을 찾을 때 텃자리의 의미도 갖게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잠시 찾는 소그룹 외지인에게 임대(숙박업)를 한다.

안좌도는 내륙(목포)에서 가깝고 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도서관광의 명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하절기에는 숙박업소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바다냄새가 물씬 나고 깔끔하게 정돈된 전통가옥에서의 하룻밤은 또 다른 도서관광의 낭만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물론 문화권이 다르겠지만 안동시의 경우 고가옥 전통체험 상품에 하루 300여명이 꾸준히 찾고 있다.

1차 관리와 보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군에서는 통합관리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가령 인터넷에서 '신안 도서 전통가옥 체험' 만 클릭하면 홍보부터 예약까지 가능하게 한다.

(2) 집단 전통가옥의 복원

민가(초가)는 개별적인 건축보다는 집단적으로 있을 때 낙안 민속마을처럼 그 효과가 커진다. 민가는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안좌의 경우 어느 한 마을을 선정, 여러 채의 전통가옥을 민속자료와 함께 복원하여 집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세트는 도서의 전통마을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교육(초, 중, 고 학생의 교육 캠프)과 향수의 장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벤트사업(영화촬영장, 민속공연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가능 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은 방월리마을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아직도 옛 돌담, 공가, 옛 집터 등이 많이 남아 있다.

(3) 김환기 생가의 문화관광 자원화

수화 김환기 화백은 이 고장이 낳은 세계적 서양화가다. 이미 수화 생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기념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주변을 재정비(조경, 진입로, 마당 등)하고 같은 권역에 기념관(전시, 휴게 등)을 건립하여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하루 방문 관광객뿐만 아니라 각종 미술캠프와 이벤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화순에는 오지호 화백 생가 부근에 이미 오지호 기념관(미술관)을 건립했다.

Ⅲ. 무형문화자원

1. 어로문화자원

1) 어로문화 목록

번호	제목	제보자	제보지역	제보일자	비고
1	송어잡이	김재남(남, 54)	팔금면 고산리	2005. 4월 21~22일	
		김월출(남, 57)			
		김갑동(남, 80)	안좌면 한운리		
2	농어잡이	김재남(남, 54)	팔금면 고산리	2005. 4월 21~22일	
		김월출(남, 57)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안좌면 복호리		
3	전어, 우럭잡이	김재남(남, 54)	팔금면 고산리	2005. 4월 21~22일	
		김월출(남, 57)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안좌면 복호리		
4	망둥어잡이	김재남(남, 54)	팔금면 고산리	2005. 4월 21~22일	
		김월출(남, 57)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안좌면 복호리		
5	게잡이	김남현(남, 48)	팔금면 당고리	2005. 4월 21~22일	
6	낙지잡이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팔금면 고산리	2005. 4월 21~22일	

2) 어로문화 현황

(1) 송어잡이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고산리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안좌면 한운리 김갑동(남, 80)

- 현황 : 송어잡이의 어로시기는 10월부터 5월까지다. 송어는 여름철에도 잡는데, 주로 봄철에 잡는다. 여름철 산란시에는 송어의 맛이 떨어지고, 잡아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잡지 않는다. 찬바람

이 날 때 잡은 송어가 맛있다. 송어는 수심이 얇은 곳을 좋아한다. 얇은곳 중에서도 바닥이 빨로 되어있는 곳을 좋아하고, 빨을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송어잡이는 대맥이와 삼마이, 삼각망으로 잡는다. 대맥이는 일반적인 개맥이와 비슷한 방법이다. 바다에 말목을 박아놓고, 그물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대맥이다. 들물 때는 그물을 내려놓고, 썰물이 될 때 그물을 대에 걸어서 빠져나가는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대맥이는 한운리에서 조사된 것으로, 한운리 앞에 '되' 라고 부르는 조금만 섬과 마을 앞바다를 가로질러 대맥이를 설치한다. 길이는 대략 300m 가량이다. 대맥이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3~4명이 짝을 이뤄서 작업을 한다. 물이 쓰면 박아놓은 말목 밑에 그물을 묻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보통 이틀 정도 걸린다. 이후 들물이 되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들어올리는 데 하루가 걸린다. 현재는 이렇게 대맥이로 고기를 잡지 않지만, 근래에까지 대맥이를 했었다.

삼마이는 빨에 말목을 박고 그물을 친다. 삼마이그물로 잡는 방법은 조금 무렵에만 한다. 이는 그물이 사리때의 빠른 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리때에 삼마이그물을 치면 그물이 엉키고 훼손된다. 그물은 물이 빠졌을 때 설치한다. 그 후 물이 들어왔다 나갈 때 고기가 걸리게 한다. 송어는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많이 잡을 때는 100마리 이상도 잡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겨우 한두 마리씩 잡힐 때도 있다. 삼마이그물은 보통 60~70m 정도 길이로 친다.

삼각망에는 주로 사리 때에 많이 잡힌다. 삼각망은 삼마이와 달리 말목을 튼튼하게 고정하여 거의 1년 내내 설치해 둔다. 장소도 거의 고정적이어서 각 철에 따라 드는 고기를 잡는다. 그물을 잠시 철수할 때도 있다. 그물에 이끼나 해조류 등이 끼어서 그물이 무거워지면 보수를 위해 잠시 철수한다. 그물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사리 무렵에는 고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1~2일에 한번씩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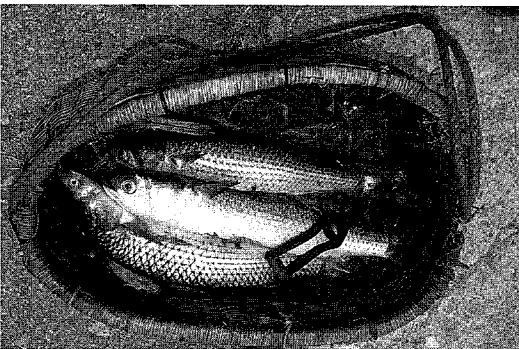


사진 1. 삼마이로 잡은 송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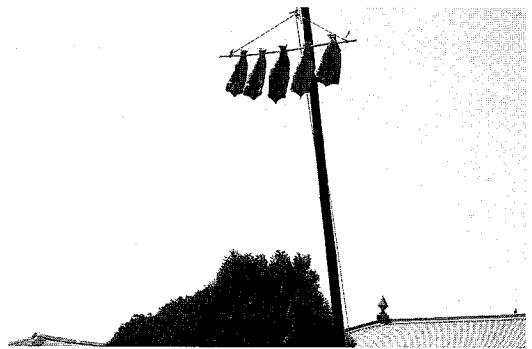


사진 2. 집안에서 건조 중인 송어

(2) 농어잡이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고산리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안좌면 복호리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 현황 : 농어는 봄여름에 연안으로 회유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먼 바다로 돌아간다. 안좌면에서는 연안으로 회유하는 봄철에 주로 잡는다.

농어는 송어보다 조금 깊은 곳에서 서식하고, 수초가 있는 여 근처를 좋아한다. 또한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 서식한다. 농어잡이는 주로 주낙을 이용한다. 삼마이그물에도 가끔 걸리긴 하지만, 삼마이 그물은 낮은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바닥에 여가 많은 곳에 주낙을 내려 조업한다. 주낙을 이용해 잡기 때문에 조금 무렵에 맞춰 조업을 한다. 사리 때에는 물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주낙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다.

농어는 송어에 비해 4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봄철 외에도 '아무 때나 잡는다'고 한다.

(3) 전어, 우럭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고산리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안좌면 복호리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 현황 : 전어는 주로 남해안 지방에서 많이 잡힌다. 안좌 근해에서도 조금씩 잡힌다. 가을에 잡은 전어의 맛이 좋고, 여름에 잡은 전어는 맛이 없다. 농어에 비해 조금 얕은 곳에서 잡는다. 삼각망으로 주로 잡는데, 삼마이 그물에 걸리기도 한다. 전어는 암초와 수풀이 있는 곳에 산다.

안좌와 팔금지역에서는 전어를 잡기 위한 목적의 어로행위는 별로 없다. 다만, 삼마이 그물과 삼각망에 가끔 걸린다. 전어는 농어보다는 얕은 곳에 산다. 전어도 여름에는 안 먹는다. 여름에는 맛이 없다. 전어는 여수쪽에 많이 난다. 특별히 전어를 잡으러 가지는 않는다. 그냥 삼마이에 잡히면 잡는다. 3~4월에 잡는다. 여름에는 맛이 없다.

우럭은 9월 초순부터 봄까지 잡힌다. 주로 가을에 잡힌 우럭의 맛이 좋다. 바다의 암초나 수풀이 있는 '여'에서 산다고 한다. 우럭은 삼마이로도 잡고, 삼각망으로도 잡는다.

(4) 망둥어(운저리)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고산리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안좌면 복호리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 현황 : 망둥어는 주로 뺨에서 산다. 겨울에는 뺨 속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산다. 3~4월에는 산란을 하고 죽는다. 어로시키는 주로 9~11월의 가을철이다. 보통 8월부터 12월 사이에 뺨이 좋은 곳에서 잡을 수 있다. 봄에 잡은 것은 맛이 없고, 가을에 잡은 것은 맛있다. 봄에는 산란기가 끝나고 죽어버리니 때문에 맛이 덜하다. 또, 봄에 잡은 것은 고기가 뻘뻘하다.

망둥어잡이는 맨손으로 잡기도 하고, '태우'를 쳐서 잡기도 한다. 맨손으로 잡을 때는 망둥어의 구멍을 파악해야 한다. 망둥어는 뺨을 파먹고 내뺨어 놓는데, 그 곳에서 손을 집어넣어 잡는다. 태우는 새우를 잡을 때도 사용하는 그물이다. 갯벌 개웅에 20~30m 정도 길이로 그물을 치고, 쭈기 통을 만들어서 잡는다.

(5) 게잡이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당고리 이장 김남현(남, 1958생)

- 현황 : 갯벌을 자갈이 섞인 곳과 뺨만 있는 곳으로 구분한다. 자갈이 섞인 갯벌은 갯장불이라고 하고, 진흙으로만 이루어진 곳을 넉지창이라고 한다. 갯장불은 비교적 딱딱해서 발이 빠지지 않는 곳이다. 넉지창은 딱딱한 곳과 무른 곳이 있는데, 딱딱한 곳에서는 발이 빠지지 않고, 무른 곳에서는 발이 빠진다. 갯벌에서는 농기와 서리기를 잡는다. 서리기는 뺨기라고도 한다.

농기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붉은색을 띠면서 조금 크다. 주로 3~4월에 넉지창에서 잡는다. 넉지창 중에서도 발이 빠지지 않을 만큼 딱딱한 곳에서 잡는다. 주요 어획방법은 손으로 구멍을 파서 잡는 방법이다. 농계의 구멍은 동그랗고 일직선으로 파여 있다. 6월이 되면 산란하기 위해 내려가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서리기는 가을이나 봄에 잡는다. 서리기는 뺨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진흙이 많은 뺨에서 살기 때문이다. 서리가 내려서 하얗게 되면 조그만 개웅 근처에 많이 있다. 개웅 근처의 뺨이 좋은 곳에서 잡는다. 개웅 근처에서 사람이 쫓으면 한 구멍으로 몰린다. 그러면 구멍에 손을 넣어서 잡는다.

(6) 낙지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고산리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 현황 : 낙지는 갯벌에서 가래로 잡기도 하고, 근해에서 주낙으로 잡기도 한다. 낙지주낙은 3~4월과 7~9월경에 한다. 5~6월에도 잡을 수 있지만, 산란기인데다 맛이 없어서 잡지 않는다. 겨울에는 추워서 많이 하지 않는다. 주낙의 미끼는 서리기를 사용한다. 낙지주낙의 경우 조금 무렵 저녁 들물시에 한다. 낙지는 주로 저녁에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갯벌에서는 가래와 손을 이용해 잡는다. 가래는 삽처럼 생겼지만, 폭이 훨씬 좁아서 깊이 파기에 적당하다. 낙지를 잡는 방법 중 가장 큰 노하우는 낙지구멍과 부룻을 구별하는 것이다. 부룻은 낙지구멍 주위에 있는 조금만 구멍으로, 구멍 주위의 갯벌색깔이 푸른빛이다. 부룻은 낙지구멍과 연결되어 있어서 낙지구멍에 손을 집어넣으면 부룻으로 물이 빠져나온다. 낙지구멍과 부룻을 확인하면 바로 가래와 손을 이용해 잡는다. 낙지는 구멍을 수직으로 파지 않고, 어느 정도 깊이에서부터 옆으로 파기 때문에 이동위치를 생각해서 가래로 판다. 가래로 파기 시작하면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재빨리 손을 집어넣어서 잡아야 한다. 빨 깊이 손을 집어넣어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힘이 세야 많이 잡을 수 있다. 가래를 사용하지 않고 잡기도 하는데, 이는 양손으로 구멍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낙지를 잡아올리는 방법이다.

2. 생활문화자원

1) 생활문화자원 목록

(1) 우실 목록

번호	마을	명칭	위치 및 형태	관련의례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안좌면 마명리	우실	마을 북쪽에 심어진 나무군락(팽나무, 소나무, 시누대)	당제	2005. 04. 18~19.	이문기(남, 70)	현존
2	안좌면 구대리	우실	마을 북서쪽을 감싸고 있는 나무군락(시누대)	없음	2005. 04. 18~19. 2005. 05. 15.	김애단(여, 77) 김재월(여, 79) 권양남(여, 74)	현존
3	안좌면 대척리	우실	마을 북서쪽 일대를 감싸고 있는 나무군락(팽나무, 시누대)	당제(1940년대 이전 중단)	2005. 04. 18~19.	최영희(남, 68) 조인주(남, 60)	현존
4	안좌면 여흘리	우실	마을 북서쪽 일대를 감싸고 있는 나무군락(팽나무, 두릅나무, 시누대)	없음	2005. 04. 18~19.	최양매(여, 84)	현존
5	안좌면 대리	우실	마을 북서쪽 일대를 감싸고 있는 나무군락(팽나무, 시누대)	없음	2005. 04. 18~19.	정희석(남, 71)	현존
6	안좌면 한운리	우실	마을 북서쪽 일대 바닷가를 막고 있는 나무군락(소나무, 아카시아나무, 시누대, 잣목 등)	없음	2005. 04. 18~19.	부금덕(여, 75)	현존
7	안좌면 산촌리	우실	마을 동쪽 일대를 감싸고 있는 나무군락(소나무, 팽나무)	없음	2005. 04. 18~19.	오근만(남)	현존
8	안좌면 대우리	우실 (사장등)	마을 남쪽을 막고있는 언덕과 언덕에 심어진 나무군락(팽나무, 두릅나무, 명씨나무 등)	없음	2005. 04. 18~19.	최자섭(남, 79)	현존

(2) 노두 목록

번호	마을	형태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안좌면 구대리-우목도	갯벌 위 징검다리	2005. 05. 15	김재월(여, 79) 권양남(여, 74)	시멘트로 포장되었음

(3) 세시풍속 목록

번호	마을	형태	참고문헌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안좌면 전체	월별 세시의례 및 놀이	『도서문화』4집	1985. 07. 09		

(4) 일생의례 목록

번호	마을	형태	참고문헌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안좌면 전체	산속, 혼례, 상례, 제례	『도서문화』4집			

2) 생활문화자원 현황

(1) 우실과 노두

① 안좌면 마명리 우실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제 보 자 : 안좌면 마명리 이문기(남, 70)

가) 위치 및 형태

마명리의 우실은 마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우실 사이로 마을 입구가 있고, 우실의 맨 서쪽 끝에는 예전에 당제를 지내던 터가 있다. 우실의 수종은 팽나무와 소나무, 시누대인데, 현재는 소나무와 팽나무만 남아있다. 소나무와 팽나무 사이로 시누대가 뺄뺄이 들어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관리가 되지 않아 모두 뽑아버렸다고 한다. 시누대는 2004년에 대대적으로 제거했다. 조사자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는 시누대가 조금 남아있었고, 마을 입구에 있는 팽나무를 뽑아내기 위해 포크레인이 동원돼 있었다.



사진 3. 현재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마명리 우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형성시기 및 유래는 전하지 않는다.

우실은 마을 북쪽에 조성되어 있어서 북풍을 막아준다.

지금은 시누대를 제거하고, 마을길을 넓히기 위해 팽나무를 뽑아내지만, 예전에는 함부로 손 댈 수 없었다. 또, 초상이 나도 우실을 통해 상여가 나갈 수 없었다.

다) 관련제의

우실의 서쪽 끝에 당제를 지내던 사장나무가 있었다. 사장나무가 있던 곳은 크게 우실과 구분되지 않지만, 그 앞에 조그만 공터가 있다. 우실에서 진행된 당제는 1940년대 이전에 중단되었다.

② 안좌면 구대리 우실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5월 15일

제 보 자 : 안좌면 구대리 김애단(여, 77) 안좌면 반월리에서 시집음.

김재월(여, 79) 안좌면 읍동에서 19살에 중매로 장남에게 시집음. 6남매를 두었음.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음.

권양님(여, 74) 임자면 삼두리 부동마을에서 19살에 시집음.

가) 위치 및 형태

구대리의 우실은 마을 북서쪽에 일렬로 서있는 시누대를 말한다. 우실의 길이는 약 300m 정도이고, 폭은 1.5m 정도이다. 우실 사이로 외부로 통하는 길이 나 있다. 주 수종은 시누대이다. 우실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 즉 하늬바람을 막아준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현재 우실이 있는 자리는 원래 밭이었던 곳이다. 지금도 우실 주위로 밭이 일구어져 있는데, 50여년 전 마을에서 듕성듕성 시누대를 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실이 생겼다. 우실을 심은 구체적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북서풍(하늬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실을 처음 심었을 때는 듕성듕성 해서 그 사이로 밖이 보였는데, 어느새 뻑뻑하게 들어서서 현재는 울창할 정도로 우거졌다. 우실이 점점 무성해지면서 바로 접해있는 밭으로 뿌리를 뚫어 나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뿌리를 잘라주고 있다.

김애단은 우실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타 마을과 달리 시누대만 심어놓은 것을 나무그늘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것



사진 4. 시누대로 이루어진 구대리 우실

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우실과 관련된 이야기로 마을에 있는 썩바우와 관련짓기도 한다. 썩바우가 내호마을에서 보이면 내호마을 여자들이 바람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썩바우가 내호마을에 보이면 구대리가 손해라고 하여 심었다고도 한다.

다) 관련의례

관련의례는 없다.

③ 안좌면 대척리 우실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제보자 : 최영희(남, 68), 조인주(남, 60)

가) 위치 및 형태

대척리의 우실은 팽나무와 시누대로 이루어져 있다. 팽나무가 일렬로 서 있고, 그 중간에 시누대가 뺨뺨이 들어서 있는 형태다. 위치는 마을 북서쪽 입구에 해당하고, 우실 사이로 마을과 통하는 길이 나 있다. 우실이 예전에는 마을 소유였으나, 최근 군 소유로 등록해 버려서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우실이 언제 조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북풍을 막기 위해 심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북풍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구실을 하고 있다.

우실 사이로 나 있는 길로는 상여나 가마가 지나갈 수 없었다. 따라서 초상이 나서 상여가 나갈 때는 우실을 피해서 다른 길로 이동해야 했다. 또한 혼례를 치르기 위해 들어온 가마도 우실을 피해서 마을로 들어와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금기들이 이야기로만 전해진다.



사진 5. 마을 입구를 감싸고 있는 대척리 우실

다) 관련제의

예전에는 우실 중간에 마을 당집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그 당집과 당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당제는 1940년대 이전에 중단되었다.

④ 안좌면 여흘리 우실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제 보 자 : 최양매(여, 84) 장산면에서 시집옴.

가) 위치 및 형태

안좌면 대리의 우실은 현재 팽나무와 두릅나무로 조성되어 있다. 예전에는 큰 나무들 사이에 시누대가 뺨뺨이 들어서 있었으나 4~5년 전에 시누대를 파내버렸다. 우실은 마을의 북서쪽 일대를 감싸고 있고, 일렬로 서 있는 우실의 동편 끝에는 이웃마을과 통하는 입구가 있다.



사진 6. 마을 뒤를 감싸고 있는 여흘리 우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우실이 언제 조성되었는지 전하지 않는다.

우실은 일년에 1~2차례 청소를 한다. 주로 여름과 가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마을 대동회의를 할 때 날을 잡아 청소를 한다. 우실은 사람들이 함부러 들어갈 수 없고, 나무도 훼손할 수 없는 구역이었다. 특히 초상이 났을 때 상여가 지나갈 수 없었다. 지금은 시누대를 뽑아버려서 흰하게 뜯려있지만, 그 전에는 매우 추운 날에도 우실 안으로 들어오면 따뜻했다고 한다.

다) 관련제의

관련제의는 없다.

⑤ 안좌면 대리 우실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제 보 자 : 안좌면 대리 정희석(남, 71)

가) 위치 및 형태

안좌면 대리의 우실은 팽나무와 시누대로 조성되어 있다. 우실은 마을 북서쪽 일대를 감싸고 있고, 우실의 서쪽 끝부분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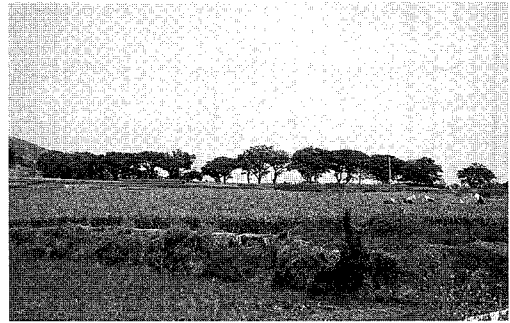


사진 7. 마을 입구를 감싸고 있는 안좌면 대리 우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우실의 유래는 전하지 않고, 예전에 상여나 가마가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다. 지금은 마을에서 가끔씩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다) 관련제의

관련제의는 없다.

⑥ 안좌면 한운리 우실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제 보 자 : 부금덕(여, 75) 대척리에서 시집옴.

46.

가) 위치 및 형태

한운리의 우실은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 바닷가 일대를 감싸고 있다. 수종은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시누대, 잣목 등이다. 우실 중간에 바다가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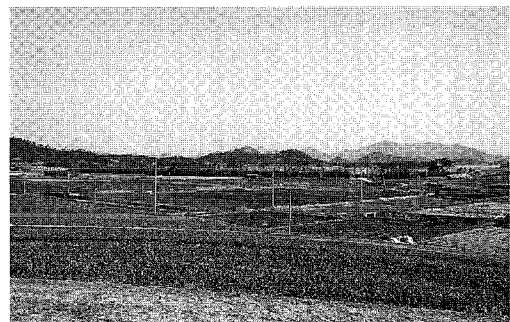


사진 8. 마을 앞 바닷가를 감싸고 있는 한운리 우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우실의 조성시기는 알 수 없으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하늬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마

을 바닷가는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하늘바람이 불면 모래가 마을로 날아드는데, 우실은 바람과 모래를 막아준다.

우실 사이로 상여가 나갈 수 없고, 결혼 할 신랑·신부도 들어올 수 없다.

다) 관련의례

관련의례는 없다.

⑦ 안좌면 신촌리 우실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제 보 자 : 오근민(남)

가) 위치 및 형태

신촌마을은 서남향으로 조성되어 있고, 뒤로는 산을 등지고 있다. 우실은 본래 마을 좌우와 앞쪽 사장등에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동편에만 남아있다. 뒷산 산자락과 마을이 만나 든 지점에 우실이 위치해 있다. 사장등은 마을 앞 작은 언덕인데, 예전에는 나무가 우거진 우실이었다고 한다. 마을 동편 우실사이로 외부와 통하는 길이 나있고, 정면으로 대우리와 마주보고 있다. 우실의 수종은 팽나무와 소나무였는데, 현재는 소나무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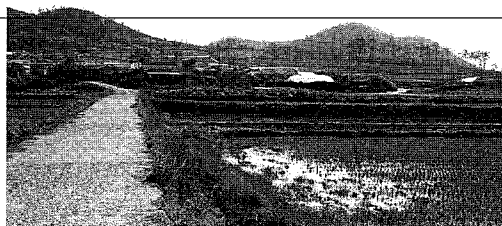


사진 9. 안좌면 신촌리 우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신촌은 마을 성촌시 '사장등을 보고 들어섰다' 라고 한다. 예전에는 마을 근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마을 앞에 있는 사장등이 바다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우실 사이로 상여나 가마가 다니지 못했다. 그래서 상여나 가마가 나가거나 들어와야 할 경우에는 마을 앞으로 난 길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30여년 전부터 이러한 금기는 없어졌다.

다) 관련의례

관련의례는 없다.

⑧ 안좌면 대우리 우실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제 보 자 : 최자섭(남, 79)

가) 위치 및 형태

대우리는 정면(동쪽)으로 신촌리와 마주보고 있고, 뒤(서북쪽)로는 산을 등지고 있다. 우실은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남쪽에 조성되어 있다. 우실을 사장등이라고도 하는데, 작은 언덕 위에 팽나무와 두릅나무, 명씨나무를 비롯한 잡목이 우거져 있다.



사진 10. 안좌면 대우리 우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대우리는 현재 바다와 접해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마을 입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우실은 바닷물이 들어왔던 마을 입구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마을이 바다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우실을 보고 마을이 들어섰다' 라고 할 정도로 우실이 중요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우실을 신성한 곳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않고, 나무를 베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특별히 우실을 가꾸지는 않지만, 자연 그대로 보호하고 있다.

다) 관련의례

관련의례는 없다.

⑨ 안좌면 우목리 노두(우목도 외에 자라도, 반월도 등에도 노두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모두 포장되었음)

조사일시 : 2005년 5월 15일

제 보 자 : 김재월(여, 79) 안좌면 읍동에서 19살에 중매로 장남에게 시집옴. 6남매를 두었음.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음.

권양님(여, 74) 임자면 삼두리 부동마을에서 19살에 시집옴.

가) 위치 및 형태

우목리의 노두는 구대리쪽 지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징검다리였다. 구대리에서 우목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질선'이라고 하는 나룻배를 탄 다음에 다시 노두를 건너야 했다. 우목리 근처에는 수심이 얕지만, 구대리 근처에는 수심이 깊은 강이 흘러서 나룻배를 타야 했다. 이 노두도 물이 빠졌을 때에 지나다닐 수 있었고, 물이 들어있는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두 위로 길이 나 있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우목리는 팔금면에 속해있지만, 본섬에서도 질선과 노두를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같은 섬에서 살지만, 본섬 사람들은 우목리 사람들을 '섬놈'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목도까지 길이 나 있고, 전부 차가 있을 정도로 부자동네가 돼버렸다고 한다.

다) 관련의례

관련의례는 없다.

(2) 일생의례

① 産俗

가) 祈子

일단 結婚을 한 여자의 최대의무이며 소망은 자녀, 특히 아들을 낳는 일이다. 그러나 결혼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으면, 부인은 선영이나 조왕에게 밥을 해놓고 상을 차려서 빌기도 하고, 깊숙하고 깨끗한 산에 물을 떠서 밥도 짓고 떡을 놓고 선영에게 빈다. 그 외 多産한 여인네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둘러매는 주술적인 방법도 사용된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조카나 시숙의 아들을 양자로 삼거나, 딸을 키워 데릴사위를 데려와 대를 잇는다.<제보 ①>

나) 妊娠

임신했다는 것을 “애기 썼다”고 한다. 애기가 설 때 태몽을 꾸게 된다. 아들인 경우는 무시(무), 참외, 깨비(고배)를 길게 갖고 들어오는 소, 호박꼭지가 긴 것, 구렁이에게 쫓기는 것, 돼지, 굵은 구렁이, 구렁이 알, 고추, 가지를 보는 꿈이고, 딸인 경우는 날카로운 구렁이, 호박꼭지가 짧은 것, 무수(무)가 짧은 것, 소 고삐가 짧은 것, 놀령 감, 빼란 감, 배추, 수박, 밥죽(주걱)을 꿈에서 보게 된다. 이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수명 장수를 의미한다.

태몽 중 多男의 꿈은 많은 소와 박을 보며, 수명장수의 꿈은 소깨비가 긴 것이고 명(命)이 짧은 꿈은 호박이 시원치 않을 때다.〈제보 ㉔〉 그리고 꿈에 용불, 물이 넘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꿈이고 여자를 보거나 신발을 잃어버리는 것은 흉몽이다. 그리고 풋것을 많이 먹으면 딸을 낳고, 육물을 많이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예측한다.〈제보 ㉕〉 텃점으로는 배가 훌쩍하여 반듯이 걸으면 아들이요, 배가 통통하고 넘어지듯이 걸으면 딸이다. 〈제보 ㉖〉

치성을 드렸거나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면 그때부터 임신부는 많은 禁忌를 지켜야만 한다. 임신부의 금기사항으로는 집안 사람들은 초상집이나 墓 판데, 어린애 낳은 집 등 곳은 데에는 가지 않는다. 또 집안에서 개나 돼지를 잡지 않고 임신부는 이를 먹어서는 안 되며 집안에 불도 끄지 않는다.〈제보 ㉗, ㉘〉 그리고 임신부는 애기 몸이 곱충거린다 하여 날 달(만산)에는 상어고기를 먹지 않는다. 또 애기가 늘쩍지근해 진다하여 쟁어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유산을 걱정하여 배도 타지 않았다.〈제보 ㉙〉 임신부는 産日이 되기 전 애기의 옷과 걸레는 미영베로 만들어 준비하는데〈제보 ㉚〉 이때 애기의 손이 나오지 않게 한다. 아기베개는 서숙을 넣어 만든다.

다) 出産

아이를 낳는 것을 “산고 졌다”고 한다.〈제보 ㉛〉 애기를 낳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선영에 “선왕님네 우리 애기 곱게 순산해 달라”고 빌거나〈제보 ㉜〉 지앙동우에 쌀을 넣고 그 위에 미역을 걸친 후 삼신할미에게 “아기 쉽게 순산해 주라”나〈제보 ㉝, ㉞〉 “똥덩이 만이로 꼭 빠지라”〈제보 ㉟〉고 빈다.

애기는 임신부나 산모가 새짚을 깔고 임신부는 흰 훌치마 하나를 입고 낳는다.〈제보 ㊱〉 한편 산모의 밀이 빠질려고 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무릎을 개서 받쳐 준다.〈제보 ㊲〉 그런데 애기가 더두날 때(難産時)는 측간이나 헛간에서 낳으며, 당꿀네를 데려다가 “물방구 친다”고 하는데 이는 반탱(물을 담은 큰그릇)에다 쪽박을 얹어놓고 손가락으로 치는 것이다. 이때 “쉽게 산모 애기 낳아 달라”고 빈다.〈제보 ㊳〉 또는 지앙동우 위에 미역을 걸쳐놓고 밥 세 그릇을 차리고 삼신에게 “지앙할

머니 우리 애기 쉽게 나 달라”고 빈다. 다른 방법으로 多産婦의 허리끈을 갖다가 매어주거나 남편이 샘에 가서 물을 머금고 와서 여자 입에다 넣어주기도 하며<제보 ㉔> 다산한 여인의 치마를 얻어다 입히기도 한다.<제보 ㉕>

出産은 산모 혼자 하거나, 대개 시어머니나 경험이 많은 여인네가 받기도 한다. 태어난 애기가 울지 않을 때는 땃줄을 애기에게 밀어넣고 성냥불을 켜서 땃줄을 가운데에 대고 있으니 애기가 울었다고 한다.<제보 ㉖> 胎는 가위나 실로 자르는데 짧게 자르면 오줌을 자주 누는다고 하여 애기 무릎에 맞춰서 자른다. 이때 자른 胎는 땃방우(방위)를 봐서 깃물(갯물)에다 버리거나<제보 ㉗> 손이 없는 곳에 삼질(3일)을 지내고 저녁때 묻기도 한다.<제보 ㉘>

출산 후 시어머니는 목욕하고 조왕님께 “산모 밥 잘 먹고 몸 성해서 일어나라”나 “명 길고 부자로 잘 살아 주라”고 빈다.<제보 ㉙> 이때 조왕에게 드렸던 미역과 쌀로 밥을 하여 산모에게 먹인다. 산모는 이레 서넛(21일~28일)까지 누워 있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보통 이레 하나만에 일어나기도 한다.<제보 ㉚> 산모 목욕은 삼질날에 하며 김치와 생감자는 속기차고 뼈에서 소리가 난다하여 먹지 않는다고 한다.<제보 ㉛, ㉜> 애기의 첫 목욕은 낳은 날 바로 시키거나<제보 ㉝> 삼질날 시키며 일곱 이레(49일) 동안 목욕을 시킨다.<제보 ㉞> 애기의 손·발톱은 처음 자르면 지시렁에 찢러 둔다.

애기를 낳은 날 바로 외인의 출입을 금하는 “검줄”을 치고 집안에는 “문전지앙”을 모신다. 검줄은 개고기를 먹었거나 초상집을 방문하는 등 추한 사람 오지 마라고 친다.<제보 ㉟> 이때 아들인 경우는 원새끼를 꼬아 꼬치(고추), 종이와 사내끼(새끼)로 男兒의 성기 모양으로 본떠 만든 “수세미”를 달며(끼웠으며)<제보 ㊱> 딸은 숯덩이와 종웃대기(종이), 머크락(머리카락)을 끼웠다.<제보 ㊲> 검줄은 세 이레나<제보 ㊳> 망중 이레(49일)가 지난 후에 “삼신 나가라”고 걸어 놔둔다.<제보 ㊴> 걸어 둔 검줄은 다음 애기가 태어날 때나 호넛(홍역)이 들면 다시치고 끝나면 거둬서 태워 없앤다.<제보 ㊵>

그러나 추한 사람이 검줄을 보지 못하고 産家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문전지앙이 힘을 발휘하는데 외인은 검줄을 못 보게 되더라도 문전지앙은 쉽게 눈에 띄이므로 놀라 나가게 된다. 문전지앙의 형태는 짚물(짚단을 묶어서)을 토방 위의 마루 기둥에 기대 놓고 이곳에는 매 이레(7일) 때마다 부모나 형제간이 밥, 미역국, 물을 바쿠리에 담어 놓고 지앙할때 “앉을 줄, 설 줄 모르는 개같은 아이 잘못 하더라도 잘 보아 달라”고 빈다.<제보 ㊶, ㊷> 문전지앙도 검줄과 같이 세 이레나<제보 ㊸> 망중 이레가 지나면 치운다.<제보 ㊹> 출산때 입었던 산모의 옷은 불에 태운다.<제보 ㊺>

라) 산후(産後)

출산 후 바로 차린 삼신상은 3일날 거두고,〈제보 ㉔〉 일곱 이레 동안 계속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제보 ㉕〉 친정집에서는 첫애기를 낳으면 망중 이레가 지난 후 떡, 쌀, 미역, 닭을 가져와 동네 사람들 오라고 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하며 애기옷과 보땃지를 만들어 주고 국과 밥을 해서 삼신상을 차린다.〈제보 ㉖〉

산모의 젖이 잘 나지 않을 때는 당골네에게 가서 빌거나 실을 달아매어 물을 떠와 “우리 애기 젖 띠 주라”고 빈다. 그래도 젖이 나오지 않으면 맘씨(쌀)를 씹어서 끓이거나 그릇에 갈아서 먹이고〈제보 ㉗〉 미역국으로 젖을 깨끗이 닦기도 한다.〈제보 ㉘〉 혹 젖이 많을 때에는 깨끗한 곳에다 붓는데 보통 굴뚝에다 붓는다.〈제보 ㉙〉

애기의 백일은 지내지 않았으며 첫 생일을 “돌”이라 하여 아들인 경우만 지냈다. 돌상에는 실, 돈, 활, 책 등을 놓아두고 애기가 어떤 것을 집는가를 보아 애기의 장래를 점쳤고, 이날은 마을 주민에게 떡을 돌린다.〈제보 ㉚, ㉛〉

□ 제보자

㉜ 김수자(여 48세, 방월리 거주) ; 정진철씨 댁에서 13시부터 14시 15분까지 혼례와 출산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20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으며 농업에 종사한다.

㉝ 양화초(여 80세, 방월리 거주) 김광용(남 39세, 방월리 거주) ; 두 분은 母子之間이다. 양할머니는 본관이 濟州이고 19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다. 친정은 存浦里로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일본에서 10여 년 거주하였다. 김씨는 1남 4녀를 두었고 직업은 농업이다.

㉞ 장광울(남 57세, 박지리 거주) 박창단(여 57세, 박지리 거주) ; 두 분은 18세 동갑나기로 결혼한 부부이다. 장씨의 본관은 안동이고 박지가 고향이며 박부인은 밀양이 본관이다.

㉟ 박옥례(여 75세, 소곡리 두리마을 거주) ; 친정은 압태도이고 18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㊱ 신영임(여 54세, 방월리 거주) ; 민간의료 및 금기, 주술 제보자란 참고.

□ 참고문헌 :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② 婚禮

가) 議婚

혼인은 일생의 大事로 여기서 중매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매는 친척이나 이웃이 하는데 중매인은 중매꾼(제보 ㉠), 중매쟁이(제보 ㉡, ㉢), 중매인(제보 ㉣), 중신애비(제보 ㉤), 중매장이(제보 ㉥)라 부른다. 중매는 대부분 양측에서 놓으나, 남자측에서 먼저 여자측으로 놓는 경우가 있다.(제보 ㉣)

이때 서로간의 가문이나 재산 정도를 보았으며 아무리 병신이어도 재산만 있으면 혼인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결혼이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은 외성(外姓)과 삼종(三從)에는 못했으며, “섬은 水死를 가리고 육지는 호사虎死를 가린다.” 하여 물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집안과는 혼사가 성립되지 않았다. 중매가 오고 간 뒤에도 남녀가 서로의 얼굴을 알아 볼 길이 없었음은 물론이며, 간혹 신랑의 부친이 신부의 모습이 궁급하면 은밀히 보기도 하였다.(제보 ㉠) 仲媒가 오고 간 뒤 양가에서는 “사주객”, “관상객”, “혼장객”에게 궁합과 출생한 햇머리(태세수), 달수(월건수)를 봐서(제보 ㉡) 서로의 부모들간에 定婚이 결정되면 신랑측에서는 신랑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적은 “四星”을 보내는데 이를 “납표 건다”(제보 ㉢)고 한다. 四星 사주가 좋은 신랑의 손윗 친척이나 형제간의 한 사람이 가는데 이를 “손포” 또는 “손”이라 한다. 이때 남자의 사주와 옷걸림옷(제보 ㉣)이라 하여 여자의 옷감 한 벌을 보낸다. 四星을 받은 여자측은 사주가 맞지 않을 때 보내 온 옷감과 함께 돌려보내면 곧 퇴혼이 되었다.(제보 ㉤)

四星이 보내지고 나서 정혼이 되면 남자측에서 “혼서(혼세)”를 보낸다. 이때 생기복덕에 맞는 날을 택해서 보내는데 이를 “날택”(제보 ㉠), “날을 절은다(택한다)”(제보 ㉡)고 한다. 혼서는 주단(붉은 보)에다 “謹封”이라 적어서(제보 ㉢) 저고리, 당치마, 머릿저고리, 속치마(제보 ㉣)와 이부자리 할 미영솜을 함께 보낸다. 미영솜을 보내면 여자가 솜을 타서 이부자리를 만들어 가져왔다. 한편 신부집에서는 신랑측의 날택이 맞지 않으면 되돌려 보내기도 하는데 이때 신랑측에서 다시 날택을 해서 보낸다.(제보 ㉣) 혼세는 신랑의 부친이나 형, 갓간 이녁(가까운 형제간) 중의 한사람을 대표로 하여 머슴에게 메여 보냈다. 이때 신부측은 음식을 장만하여 신랑측 일행을 대접하고 혼세는 상위에 올려놓는다.(제보 ㉤) 이렇게 혼세를 받아들이고 나면 신부측은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禮를 맞이해야 함이 상례이다.

사성과 혼세가 모두 보내지고 나면 양가에서는 혼례맛이 할 준비를 서두른다. 혼례를 맞이하기 하루 전날에 양가는 밥을 지어 조상님께 올리고 접시에 참기름을 붓고 창지 두 개로 심지를 만들어 반대 방향으로 기울게 세워놓고 불을 붙인다. 이때 심지가 짧게 꺼지면 “명(命)이 갱하다(짧다)”하여 생명과 관련시켜 보고 서로 합의가 잘 되겠다든가 하는 두 남녀의 운명을 점쳤다.(제보 ㉥) 예전

에는 여자 나이가 17세가 넘어 시집 갈 나이가 되면 함부로 마을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제보 ㉔>

나) 혼례식(婚禮式)

신랑이 예(禮)를 맞기 위해 신부집으로 가는 것을 “禮 맞으러 간다”고 한다. 예를 맞으러 떠나는 신랑은 부모님에게만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제보 ㉕> 교자(가마)를 타고 출발한다. 신부집이 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출발하여 중간에서 내렸다가 신부집이 가까워지면 다시 교자를 타고 들어간다.<제보 ㉖> 예를 맞으러 가는 신랑의 일행은 상객, 함쟁이, 부님대표(주례자?)가 따른다. 이중 상객은 신랑의 손윗사람으로 “수상들이 간다”고 하여 신랑측을 대표하여 간다.<제보 ㉗> 중객은 “중방”이라고도 하며<제보 ㉘> 신랑측 하인이 주로 하는데, 신랑이 예 맞을 때 인사를 도와주며 중방의 얼굴은 동네 사람들이 검게 칠한다.<제보 ㉙> 또 신부의 인사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임”이라 하는데 무당이 한다.<제보 ㉚> 그리고 오늘날 주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님대표가 따르며<제보 ㉛> 함쟁이 곧 “중방”이 함을 지고 따른다. 중방(=함쟁이)은 친근한 이웃이나 하인이 한다. 신랑은 예를 맞으러 가는 도중 객귀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빨강, 노란, 파란색의 비단천 조각에 쌀을 넣어 묶어서 거리의 나무에 걸고 빨강과 파란색은 당(堂)에다 묶고, 노란색은 배 건널 때 물에다 떨어뜨린다.<제보 ㉜>

신랑이 신부의 마을에 들어서면 마을에 산고자가 있을 때 미역국에 밥을 말아 떠 먹인다. 또 동네 청년들이 교자를 가지고 마중 나와 “탈선”이라 하여 신랑의 모선(가래기)을 빼앗기도 하고 “글월풀이”로 어려운 문구를 내어 신랑으로 하여금 풀게 하여 능력을 시험하기도 한다. 이때 모선을 빼앗으면 신랑은 예를 맞지 못하므로 청년들을 크게 대접하여 모선을 되돌려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처가댁에 사정을 하여 되돌려 받았다.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대문 앞에서 객귀(귀신)를 물리치고 오기 위해 측간(변소) 서근대(짚)를 빼서 불을 피워 넘어가게 한다. 신부쪽에 처남 되는 이가 신랑보다 손아래이면 교자에서 내려오시라고 하여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 이를 “읍친다”고 한다. 신부집에서는 신랑을 사랑채로 모시며 “한불진지”라 하여 먹을 것을 주며, 신랑은 집에서 입고 온 명지 옷 두루마기를 벗고 사모관대로 갈아 입는다.

함쟁이는 예를 하고 함을 신부측에 건네주면서 “너무 싸게 팔았다”고 얘기한다고 한다. 함쟁이들에게는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주는데 교꾼들과 같이 술을 마신다. 신부측에서는 마루에다 상을 놓고 향불을 두 개 피워서 함을 받아 그 위로 넘어가게 한다. 함을 받은 신부측은 예(禮)를 마치고 돌아가는 신혼부부에게 목화 한 주먹이나 아들 낳으라고 고추를 넣어 다시 보낸다.

예맞이 순서로는 '신랑귀 → 기안위지 → 신랑홍 → 신랑재배 → 신랑입문' 이라 하여 소례가 끝나면, 신랑은 곧 각시방으로 들어간다. 중방이 신랑에게 사모관대를 입히고 신부쪽에 가서 오리를 빼 놓고 '신랑하교 → 신랑입문 → 읍보취성 → 교해 → 봉안(치안)위지 → 신랑재배' 로 끝난다. 봉안 위지 때 중방은 신랑 무릎 위에 오리를 얹어 놓고 신랑에게 "그 참에 창시 빼 먹었다"고 놀린다. 예가 끝나면 홀기를 부르는 "인객"이 신랑을 각시방으로 밀고 들어간다.

예가 끝나면 신부에게 떡국 상을 차려서 먹이며, 점심상에는 팔을 넣어 밥을 해 준다. 저녁상에는 떡과 전적(문지)을 부쳐서 올려놓고, 큰상을 차려서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드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랑이 밥을 남겨놓아, 신부가 그 밥을 먹는가를 본다. 신랑측 동행자는 큰상 음식을 먹고 나면 신랑만 남겨놓고 떠난다.

그러나 날이 맞지 않으면 예가 끝나는 대로 신부는 당일 날 신랑집으로 갔는데 이를 "당일잔치"라 하고, 날이 좋으면 "양일잔치"라 하여 하루를 신부집에서 머물고 갔다.

신랑이 양일잔치를 하게 되면 신부는 친정에서 첫날밤을 맞이한다.

첫날밤 장모가 마루에다 술상을 차려 놓으면 신부가 나와 갖고 들어간다. 신랑과 신부 예복은 "맞이각씨"가 벗겼으며 첫날 밤 불은 명주수건을 내려서 끈다.

혼례식에 산고자가 있으면 "삼신이 와서 냄새나서 못 산다"하여 오지 않았고, 상고자(喪故者)는 같은 짓일(?)이라 해서 와서 예를 구경해도 상관없다고 한다.

다) 신행(新行)

방월리에서는 예를 마치고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가(媿家)로 가는 것을 "첫질 간다"고 한다. 이때 신부집의 동행자는 신부집을 대표해서 상객이 간다. 상객은 손위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고모나 큰엄마, 오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중 한 사람이 된다.

신부가 신랑집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산고(産故)가 들어 이레동안 금줄을 치우지 않은 집이 있으면 신부에게 미역국을 세 번 떠 먹인다. 신랑집 교꾼은 마중 나와 교자를 바꾸어 폐고 들어간다.

신랑집에 도착하면 "신부맞이"라 하여 교자위로 짚, 콩, 미영씨를 던지며 징을 두드리거나 "살(귀신)이 앵키면(붙으면) 안 된다"하여 치를 거꾸로 하여 교자를 가렸다. 가매(가마)가 마리에 이르면 신랑이 가매 문을 열어 주고 "업 덩어리가 들어온다"하여 쌀을 동구리나 그릇에다 넣어 방으로 갖고 들어가며 또 "내 복을 갖고 들어간다"해서 상위에 쌀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신랑집에 도착한 신부는 시누이들의 입을 막는다 하여 밤 크기만 하게 만들어 온 “입막음 떡”을 시누들에게 먹였다. 또 신부는 선조들 밥을 지어놓고 “이 가문으로 오게 됐다”며 술 따르고 예를 드리는 사당고사를 지냈다. 신부가 신랑의 친척을 만나 절을 하면 어른들은 돈을 준다.

시집 온 신부는 보름이나 한달 가량 시부모님께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린다. 방월리에서는 시가(媿家)에서 3일만에 신부가 신랑과 함께 신부집에 가는 것을 “첫질”, “지양질”이라 한다. 이때 특별히 마련한 음식은 없으며 농사를 지어 다음 해에 큰 이바지를 해 보낸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도 “접이바지”를 한다. 혹 3일만에 첫질을 가지 못하면, 석 달 만에라도 가는데 술이나 떡 등을 해서 보내고 반드시 신부쪽에서도 이바지를 해 보낸다. 첫질에는 신랑, 신부와 함께 시어머니나 신랑의 형수가 따르며 신랑은 신부집에서 3일 정도 머무른다. 가는 도중 당(堂)이 있을 때는 당 밑으로 가지 당 위로는 가지 못한다.

첫질 일행이 신부집 앞에 도착하면 살(귀신)이 따라 붙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역국을 먹이거나 칩간(변소)의 지식(짚)을 불 피워 신부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거나 신부의 교자 위로 무당이 식칼을 던진다. 신랑 장모는 보선만 신은 채로 뛰어 내려와 신랑, 신부를 맞아들인다.

첫질 간 밤에 마을 청년들이 “신랑 달려가세”하고 신랑을 거꾸로 달아 떼어 장작으로 발바닥을 때려서 요구조건을 내걸어 신랑이 어느 정도 들어주는가 능력 시험을 한다.

□ 제보자 :

- ㉠ 정진철(남 53세) 성순월(여 53세) 김산출(남 50세)
- ㉡ 김수자(여 48세)
- ㉢ 김군진(남 59세) 정영봉(남 50세)
- ㉣ 장수복(남 70세, 반월리 거주)
- ㉤ 오읍동(남 82세, 구대리 거주)
- ㉥ 김용재(남 63세, 소곡리 두리마을 거주)
- ㉦ 고옥청(남 46세, 소곡리 두리 거주)
- ㉧ 이소구(남 70세, 소곡리 두리 거주)

□ 참고문헌 :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③ 상례(喪禮)

가) 초종(初終)

방월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초상났다”, “운명하셨다”, “당고당했다”고 말한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을 유언(遺言)이라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형제간 우애, 재산문제, 못 다한 일 등이다. 유언은 가족 또는 근친이 듣게 되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지막 말이라 하여 반드시 실행하거나 몸에 새겨 행한다.

사람은 객사(客死)하면 방으로 모시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면 큰방으로 모신다.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자식은 밖에서 신발을 벗고, 여자는 머리를 풀고 곡(哭)하면서 들어온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통곡하고 시신의 손을 배 위에 얹어 놓고, 발은 가지런히 펴놓는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와 “사자상(死者床)”을 차리는데 사자상은 밥 두·세 그릇, 술, 반찬, 지전, 돈을 올려놓는다. 방월리 정옥철씨는 사자상의 밥은 사자들을 대접하는 것이고 지전은 저승으로 가는 노자돈이라고 했다. 사자밥에 얹힌 옛날 얘기는 “밤에 무섭증이 있어 사자가 잡아간다 하지” “밥은 세 그릇을 놓고 밥을 세 번 씹 버리고 돈이랑 같이 버린다” 경우가 있다. 사자상을 차리고 적삼을 “복복복” 세 번 하고 지붕 위로 던지는데 이를 “복 부른다”고 한다. 적삼을 지붕 위에 던져 놓는 것은 초상집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옛 풍습에 남좌여우(男左女右)라는 것이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주(喪主)는 두루마기 왼쪽 어깨를 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른쪽 어깨를 뺀다. 여상주(女喪主)는 머리를 푼다.

고인의 시신이 굳기 전에 시신의 밑에 짠 도투리를 깔거나 정지 문짝을 띠어 깔고 윗목으로 받다시(반듯이) 모신다. 우선 시신의 손과 발을 묶고 코를 솜으로 막고, 입에는 수건을 넣어 턱을 아물린다. 그리고 병풍을 쳐놓고 병풍 앞에 “혼상”을 차린다. 혼상에는 술, 과일, 향, 촛불을 놓는다.

상을 치르는 모든 일은 동네의 상복계와 유친계에서 도맡아 한다. 상고가 있으면 계원 중에서 “호상인”을 뽑아 부고, 안내 등 모든 일을 총지휘하게 한다. 동네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문상을 하며 상가를 돕는다.

나) 습염

방월리에서는 시신을 목욕시키는 것을 “소다름”, “시세한다”고 한다. 소다름은 ‘쭉물 → 향물 → 깨끗한 물’의 순으로 한다. 깎은 손톱, 발톱이나 떨어진 머리카락은 주머니나 참종이에 싸서 관의 네 귀에 넣어 둔다. 이러한 소다름은 형식적으로 실시된다.

소다름이 끝나면 “몸갱기”라 하여 명주 18자나 20자 정도로 하여 시신을 감는다. 몸갱기가 끝나면 “주검입성”을 포개서 밑에서부터 입힌다. 주검입성은 명주나 마포로 만드는데 사전에 준비해 놓거나 돌아가신 뒤에 준비한다. 옷은 입힌 다음에 흘매질을 하지 않는다. 얼굴은 명주로 만든 면막수로 가리고, 머리는 남자의 경우 복건을 씌우고 여자는 수양버들을 깎아 만든 비녀를 꽂아 드린다. 그리고 발에는 버선을 신겨 드린다. 시세 할 때는 돌아가신 분 입에 세 번 쌀을 넣어 드리는데 수저는 버드나무 깎은 것을 사용한다. 고인의 시신이 염습되면 몸전체를 7매듭 묶고 머리가 동쪽으로 향하게 입관한다.

관에 모시고 나서 “보공”이라 해서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흙이나 짚을 넣는다. 관은 자식들이 도와서 본 후에 못을 박는다. 관에 못을 박을 때 전에는 비내장이라 하여 판자 사이에 흙을 두고 나무 못으로 박았으나 지금은 쇠못을 사용한다.

입관 후에는 윗목에 관을 모시고, 병풍이나 막을 치며, 혼백상자, 사진, 상불, 명정, 공포를 차려 놓고, 상옷과 건을 쓰고 성복(복)제를 올린다. 자식들은 목욕하고 여자는 머리를 올리고 마포나 옥양목으로 만든 상옷을 입는다. 남자의 상복차림은 두건, 수질, 요질, 행전, 죽장이고, 여자는 수질, 죽장이다. 여기에서 수질과 요질은 사주가 머리와 가슴에 두르는 띠로서 남자는 하얀 삼베에 왼쪽으로 매듭을 만들고, 여자는 노란 삼베에 오른쪽으로 매듭을 지어 착용한다. 상주들은 예전에 마포 조각을 붙여서 만든 “갓은지복”을 입었다고 한다. 성복 후 관을 묶는 것을 절판이라 한다. 상주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생인이 되므로 일체 방에서 나갈 수 없으나 성복 후에는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며 곡을 하여야 한다. 조문객 또한 성복제 전에는 상주를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요즈음은 대부분이 만난다. 조문객은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상을 당해서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하는데 상주가 알아듣지 못하게 흐물흐물 한다.

출상 전 날 “밤다리”라 하여 상두꾼과 마을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방구치며, 노래하고 춤추고 밤을 새는데 이는 시신과 생인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밤다리에 사위와 친족을 다룬다.

다) 치장(治葬)

예전에는 묘자리를 전문적인 지관이 잡았으나 요즈음은 쇠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잡는다. 장일(葬日)은 옛날에는 5일장, 9일장을 했으나 지금은 보통 3일장으로 한다.

출상한 날 방에서 관이 나올 때 고인이 서운하다 하여 방을 서너번 돌고 문턱에 엎어 놓은 바가지를 관을 세 번 올렸다, 내렸다 하여 깨뜨리고 나온다. 이것을 동관축이라 부르는데 이는 방안의 모

든 재앙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라고 한다.

동관축 후 “발인제”를 지내고 제가 끝나면 상여를 들었다, 났다를 세 번 하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난다. 그리고 장지(葬地)로 가는 도중 “거리제”라 하여 마을 앞에서, 다리 건널 때 상여를 놓고 상주를 다루어 돈을 내게 한다. 여기서 나온 돈은 상두꾼의 술값, 담배값을 주고 남은 돈은 다시 상주에게 돌려준다.

상가에서 상여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묘자리를 파기 위해 몇 사람이 장지로 가서 묘자리를 다루기(파기) 전에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에 쓰이는 술과 음식은 묘자리 땅을 다루는 의식이므로 술도 가게에서 새 것으로 사고 음식도 깨끗한 것을 구입한다.

상여 행렬은 ‘명정 → 만장(만사 : 여자의 경우는 장화) → 위패나 사진 → 상여’의 순으로 나간다. 여기에서 만장과 장화를 달리한 것은 남상(南喪)인가 여상(女喪)인가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장화는 삼색(빨간, 파란, 노란색)의 계단식 형태로 되어 있다.

상여는 새로 구입하거나 상여계에서 구입하여 놓은 것을 돈을 주고 빌려서 사용한다. 상여를 운구하는 사람을 “상두꾼”이라 하고, 구성원은 12명이다.

상여놀이에는 방구(복)를 동반하고 상여 앞에서 소리꾼이 소리하면 상두꾼들이 “어닐 어허닐 어나리 넘자 어닐”이라고 후렴구로 받는다.

여기서 방월리의 김복단, 김만엽, 이운이 할머니께서 불러주신 상여놀이의 몇 구절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나이 범사, 가나이 범사, 가나이 범사, 가나이 범사(동관축을 할때 내는 소리)

가자 가자 어서 가세 (후렴 - 어닐 어허닐 어나리 넘자 어허닐)

저기 저기가 무신 줄 알았드나 북망산천이 아니구나 (후렴)

부모 형제 이별하고 일가 친척도 이별하고 (후렴)

오늘 날로는 하직이로구나 (후렴)

인제 가며는 언제나 오냐 오실 날짜나 일러주소 (후렴)

가는 길이 있건만은 오는 길은 정히 없네 (후렴)

북망산천이 어디라고 그리 쉽게나 가시나요 (후렴)

상북계원의 집에서 상을 당하면 모든 일은 상북계에서 맡아 하는데 공헌, 조사, 서사 등이 그 임원이다. 공헌은 상두꾼 총 책임자이며 조사는 공헌 보좌관이며 서사는 부주돈 받는 사람이다. 상여

가 묘지에 도착하면 상두꾼들이 관을 끈으로 묶어 운반한다. 묘자리에 관을 넣고 나서 관 위에 명정, 홍대(나무를 포개서)를 얹고 생인이 흙을 한 삽 먼저 넣고 나면 차례로 다음 사람이 넣는다. 나머지는 상두꾼들이 “어낭생 가네”하고 노래를 부르며 묘를 메꾸어 나간다. 분묘 후 평토제(산신제?)를 지내고 상주는 혼을 모시고 갔던 길로 되돌아온다.

라) 흉제(凶祭)

혼 상여가 돌아오면 상실을 마련하는데 자식의 운세와 월일의 일진(日辰)을 보아 방향을 정하여 마련한다.

방월리 정석균씨 댁은 삼우지나 모방 동쪽 구석에 상실을 마련하였다. 상실 가장 안쪽 벽에는 사진, 영정, 액자를 모시고 액자 양옆에 한지로 顯?儒人 密陽朴氏와 享子, 享用이라 묵서(墨書)되어 있다. 상위 앞줄에는 잔이 있고 둘째 줄에 편(떡), 오징어포, 동어, 병치, 조구, 셋째 줄에 배, 저육, 탕, 사과, 적이 진설 되어 있고 맨 앞줄에 모래(모사)에 사신대인 짚속을 묶어 꽂은 강신대와 향로와 향이 있다. 상실 천정에는 커다란 종이꽃과 명정과 장화를 잘 정리하여 놓았다.

시신을 보내고 영혼을 맞아다가 지내는 제사로 초우, 제우, 삼우가 있다. 출상한 후 100일에도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감실을 설치하고 초하루와 보름(하루삭단과 보름삭단)에 지내는데 감실은 각목과 합판을 이용하여 방바닥에서 70cm 높이에 70cm 규격의 정육면체의 벽장형태로 만들었다. 요즈음은 백일을 앞두고 소상을 택일하여 지내고 예전 소상일에는 대상을 치러 1년 만에 탈상을 한다.

이장(移葬)은 분묘하고 나서 3년 내지 5년에 낙근이 되면 한다. 낙근은 살이 썩고 뼈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마) 초분·애장

초분은 지금은 하지 않으나 정육철씨는 어려서 많이 보았다고 한다. 방월에서 초분은 10~25년 전에 없어진 것 같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지명상으로는 옛날에 초분을 많이 했다는 “초분골”이 있을 뿐이다.

초분은 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고 정월 초신에 땅을 파면 그 해에 재미가 없다해서 하기도 한다. 형태는 돌판을 놓고 그 위에 칠성판을 올려놓고 나람으로 덮어둔다. 흑전염병에 자식들이 죽으면 나람으로 덮어두고 병이 없어지거나 정월이 지나면 묻는다.

몸이 축고 의쓸한 초학에 걸리면 초분의 나람속에 가라지(?) 넣었다가 모르게 고와서 먹으면 좋다고 한다.

어린애가 죽으면 돌로 싸서 덮어버리는 “독담물”을 하는데 20년 전까지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자식들이 죽으면 독담물 외에 초분을 하기도 한다.

□ 제보자 : 정옥철(남 62세), 정양복(남 62세), 정영봉(남 50세), 정행복(남 48세) 정주섭(남 62세), 정용규(남 53세), 정원섭(남 46세), 정형동(남 35세), 정주섭, 정원섭, 김복단(여 59세), 김만엽(여 63세), 이운이(여 67세).

□ 참고문헌 :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④ 제례(祭禮)

가) 다례(茶禮)

한 해의 명절을 대표할 수 있는 정월 대보름, 2월 한식, 3월 삼짇날,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추석, 9월 중구, 동짓달 동지, 선달 그믐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방월리에서는 정월 초하룻날(설날) 등 명절에 조상님(성주님)께 제사를 지낸다. 이때의 복장은 평상시 입던 옷으로 한다.

나) 기제(忌祭)

방월리에서는 예전에 경주정씨 제각이 있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각이 없어졌다.

조사시 정석균씨 댁에서 마리 시렁에 얹어 있는 감실을 보았는데 그 구조는 세 칸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모시게 되어 있어 그 안에 독을 넣고 기성(지방)을 붙여 놓았다. 제삿날은 독을 내려다 모신다. 부락에 병고가 있을 때는 감실문은 열지 않으며 기성은 제사 지낸 후 태운다.

정석균씨는 제사권은 모두 장남이 이어받고 재산 또한 3분의 2를 장남이 차지하게 되며 제사 치를 때 모든 형제들이 장남을 물질적으로 동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남이 아닌 정용규씨는 집에서 부모의 제사를 모셨고 큰집에서 증조부까지 모시고 있어 실제로 반드시 장남에게만 일임되고 있는 않았다. 제사 지내는 시간은 자정이고 제사 지낼 때의 옷은 하얀 옷에 두건은 창호지로 만들어

쓴다. 제사상은 북쪽 방 옆으로 바짝 붙여서 순서대로 놓고 남녀 구분 없이 아무나 상을 차린다. 제사 지낼 때 일가친척들이 보내오는 쌀을 “땀쌀”이라 하는데, 이것은 조상에게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지었다고 보이는 것이다. 제사상에 올라오는 것은 주과포(酒果脯)이며 제사 음식에 양념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음식도 제사 음식과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장만한다. 제사에 쓰는 그릇은 목기를 사용하나 요즈음은 신식 그릇을 사용한다.

방월리의 정용규씨는 제사지내는 이유를 아버님과 돌아가신 분을 식구 모두가 잊지 않고 기리는 뜻에서라고 했다.

방월리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조상을 제사지내는 외에 “망제”라 하여 아들없는 처갓집 제사나 손이 없는 분의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망제는 마리에 모시지 않고 모방이나 토방에 모셔 제물을 차리고 지낸다.

다) 묘사(墓祀)

방월리에서는 시제를 “세양(시양) 지낸다”, “산제”라 부른다. 이 마을은 경주정씨가 대부분이나 문중조직이 약하다. 세양은 10월 보름에 고조로부터 6대조까지 모시고 있다. 세양에는 집사가 상을 차리고 술을 따른다.

세양을 모신 후 2~3일 뒤에 문중총회를 여는데 여기서는 다음에 시제 모실 사람을 선정하고 제비용에 대해 논의한다. 제비(祭費)는 시제 모실 사람에게 위토를 주어 그가 거기서 나온 것으로 충당하게 한다.

□ 참고문헌 :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3) 세시풍속

① 정월의 세시풍속

가) 설 쇄기

㉓ 설 茶禮: 조상들은 陰歷을 生活曆으로 지켜왔다. 음력 正月 1일을 해(年)의 머리로 잡고 <제보 ㉑> “정초”, “정월초하루”, “설”이라 부른다. 각 가정에서는 큰 명절의 하나로 꼽히는 설에 그믐날 정성들여 장만한 음식을 마리(대청)의 조상님(성주님)께 올린다. 차례 음식은 특별히 따로 만들어 먹는 것은 없으며, 대개 시루떡, 술, 어류, 두부탕국, 과일 등을 준비한다.<제보 ㉑, ㉒, ㉓> 이때

배를 부리는 집에서는 뱃사고를 서무셋날(12日이나 27日)외에 설에도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고사를 지낸다. 이는 漁場의 豐漁를 기원하는 習俗에서 나온 것이다.<水産儀중 정정남씨(男, 68세, 方月里 거주)와 김용복씨(男, 61세 牛月里 퇴촌거주)의 자료를 발췌함>

㉞ 설빔과 歲拜 및 省墓: 설에는 새해를 맞이한다 하여 새옷을 장만 하거나 더러운 옷을 정결하게 손질하여 입는데, 이를 “설빔”이라 한다.<제보 ㉞> 옛날에는 집에서 한복을 만들어 입었는데 지금은 거의가 기성복을 구입하여 입는다. 설에는 설빔을 입고 차례를 끝내고 집안 어른께 세배를 드린 후 아침을 먹고 친척이나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하러 다닌다.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새해 복 많이 타 거라” 하시며 세배돈을 준다.<제보 ㉞> 그리고 추석 명일(명절)보다는 덜 행하는 편이나 설에는 先祖의 묘소를 찾는다.

㉟ 신수보기 및 日辰에 따른 習俗: 정초에는 가족끼리 모여 앉아 신수(토정비결)를 본다. <정원섭씨, 男, 46세, 方月里 거주> 그리고 十二干支에 의해 지켜지던 습속으로 쥐날(子日)은 쥐가 성하다 하여 불을 켜놓지 않고 용날(辰日)은 이종할 때 비가 온다고 하여 물을 길지 않는다. <제보 ㉟>

㊱ 정초의 바깥출입: 정초에 어른들은 아침부터 여자들이 남의 집에 출입하면 재수가 없다 하여 禁한다.<제보 ㊱>

㊲ 정초의 놀이: 정초에 여자들은 널뛰기, 그네뛰기(25년전부터 하지 않는다)를 하고 남자들은 화투, 윗놀이, 연날리기, 햇불놀이, 농악놀이 등을 즐긴다. 햇불놀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 마을의 고목나무가 있는 곳에서 짚을 묶어 불을 붙여(피우고) 부락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한다.<제보 ㊲> 方月里의 어른들은 불이 잘 보이는 자리를 선정하여 밤에 전진이나 한운마을과 불놀이 대결을 하는데 여기서 이겨야만 풍년이 든다고 믿어 마을민이 단합하여 이긴다. 이는 마을민의 협동심을 기를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제보 ㊲> 농악놀이는 지금도 대부분이 하고 있다. 설에는 농악을 집집마다 쳐주고 자금을 마련하여 마을회비를 마련하였다. 농악은 설쇠인 우두머리와 그 밑네 종쇠, 징, 방구, 짱구, 소구로 구성되어 있다.

나) 立春

입춘에는 “立春”紙를 써서 벽이나 지등(기등)에 붙인다. 지금은 이러한 관습을 찾기가 힘들다.<제보 ㉞>

다) 보름쇠기

㉔ 보름밥: 정월 보름을 “대보름”이라 부른다. 이때는 오횃밥(팥, 수수, 보리, 찹쌀, 콩등)과 야채, 나물 등을 많이 준비하여 조상님께 올린다. 상은 마리에 차리고 현석이라 하여 내전(죽은 귀신)에게도 장만한 음식을 조금씩 바쿠리짝에 담아 문전에 놓는다. <제보 ㉑> 그리고 방월리는 정월보름에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당제(20여년전에 없어짐)를 지냈다.<제보 ㉒>

㉕ 현석 걷기: 보름날 밤에는 마을의 청년들이 큰 차두(자루)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몰래 현석을 걷어 먹는다. 그러면 무섭(무서움)을 타지 않는다고 한다.<제보 ㉑, ㉒>

㉖ 더위팔기: 보름날 아팸이 되면 남보다 더 빨리 상대방 이름을 불러서 상대방이 대답할 경우에는 “아무개야 내다우”라 하여 다우(더위)를 판다. 그리고 보름에 얻어온 밥을 절구통에 앉아 개를 띠어 주고, 밥을 먹으면 더위를 안탄다고 한다. <제보 ㉒>

㉗ 유지지 세우기: 보름날 아침에 農家에서는 豊年을 기원하는 뜻에서 유지지라 하는 것을 세운다. 형태는 긴 간짓대에 수수를 꽂아 세운 것이다.<제보 ㉒>

㉘ 논두렁에 불지르기: 정월 14일 밤에 마을 논두렁에 사내 아이들이 불을 지른다. 이는 벌레가 시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습속에서 나온 것이다.<제보 ㉒>

㉙ 잠 안 자기: 정월 14일 밤은 잠을 자지 않는다. 이날 잠을 자면 “눈썹에 시 쓴다”고 하여 어르신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제보 ㉒>

㉚ 햇불싸움: 정월 14일 밤에 마을끼리 햇불싸움을 한다. 方月里에서는 주로 전진마을과 싸우는 데 여기서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믿고있다. 이러한 관습은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제보 ㉑, ㉒>

㉛ 望月占: 보름달 저녁에 떠오르는 달을 보고 農事의 豊凶을 점친다. 달이 일찍 뜨면 농사가 풍년이고 늦게 뜨면 흉년이다.<제보 ㉑> 그리고 달과 해가 입맞추면(똑같이 뜨고 지면) 좋지 않으며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면 農事가 좋다.<제보 ㉚>

㉜ 강강술래: 方月里에는 이러한 풍습이 사라진지가 45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정월 대보름 밤에 여자들이 각 자정의 넓은 마당을 돌면서 강강술래를 하였다.<제보 ㉑>

방월리 김복단(女, 59세)할머니가 들려준 강강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못하것네 못하나것네
강강수월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강강수월래
이태백이 노더난 달아
강강수월래
팔자 좋다 젊어서 노자
강강수월래
저 달이 떴다 지듯 노다나 가세
강강수월래
산천 초목은 불어야라 좋고
강강수월래
우리집의 우리 엄네 젊어야라 좋네
강강수월래
백발(?)은 썰곳이나 있는데
강강수월래
사람의 백발은 아무 썰곳이 없네
강강수월래
늙은 사람은 죽지를 말고

강강수월래
젊은 사람은 늙지를 말게
강강수월래
이 마당이 꺼지고 보든
강강수월래
권네(주인네) 말씀이 다 죽어난다
강강수월래
누가 익사 뛰어 보자
강강수월래
늙어지면 못하니라
강강수월래
젊어서는 놀아보자
강강수월래

방생아 놀아라
 강강수월래
 쥐나무생이 내려온다
 강강수월래
 노자 좋다
 젊어서 노자(놀자)
 강강수월래
 늙어지면 못노니라
 강강수월래
 가 - 안 - 강 수 - 월래

① 기타: 보름날 버선을 신지 않으면 발문새에 쫓문다.<제보 ㉞>

② 2월의 歲時風俗

가) 하리아드렛날 쇠기

2월 1일은 “하루날”, “하릿날” 등으로 부르며 이날은 선영네에게 마리에 밥과 음식을 올린다.<제보 ㉠, ㉞> 이때 음식은 운저리탕, 두부탕, 꿀탕, 뉘지탕, 병치, 승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등을 준비하여 선영상에 올린다.<제보 ㉠>

㉡ 콩볶아 먹기: 하릿날은 콩을 볶아 먹는다. 이는 밤눈 어두운 사람 눈뜨게 한다는 습속으로 볶은 콩을 던지면서 “휘-새야 새눈도 깜짝 아무개 눈도 깜짝” 이라 외친다.<제보 ㉞>

㉢ 영등내림: 영등은 2월 초하룻날에 햇벌이 비치면 불영등, 비가 오면 물영등,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이라 한다. 이중 물영등이 내리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하며<제보 ㉠, ㉞>, 영등이 올라가는 날 장닭꼬리가 팔랑거릴 정도로 바람이 불면 시절이 좋다고 한다.<제보 ㉠, ㉞>

나) 경칩날 용알주워먹기

음력 2월 경칩날에는 물구렁이 알을 주워 먹으러 다닌다. 물구렁이 알을 주워 먹으러 다닌다. 물구렁이 알을 먹으면 속병이나 기침<제보 ㉠>, 신경통에 좋다고 한다.<제보 ㉞>

다) 한식쇠기

4대명일의 하나인 한식날은 온 동네가 쉰다. 이날은 선영께 상을 차리지 않으나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주민들과 나누어 먹고 장구치며 논다.<제보 ㉠> 음식은 국수를 만들어 먹는다.<제보 ㉡> 그리고 이날은 손이 없는 날이라 하여 개사토(移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3월 한식에는 개사토를 하지 않는다.<제보 ㉢>

③ 3월·4월의 歲時風俗

가) 삼월삼짇 쇄기

음력삼월 삼일은 제비가 돌아온다는 “삼짇날”이다. 이날은 온 동네가 쉬고 성주상은 차리지 않으나 음식을 장만하여 먹고, 남자들은 옷놀이, 화투놀이 등을 한다.<제보 ㉠, ㉡>

나) 4월 초파일 쇄기

4월 초파일은 춘향이가 내린 날이라 하여 춘향이 이름을 종이에 싸서 손바닥에 놓고 “정골 남안골 춘향아씨 4월 초파일 정글정글(정거장) 내이쇼”하고 외치면서 논다. 그리고 불공은 목포로 드리러 간다.<제보 ㉢>

④ 5월, 6월, 7월의 歲時風俗

가) 5월 단오쇠기

예전에는 “당오날”이라 하여 명일로 쇄어 왔으나 지금은 이러한 관습이 거의 없어졌다. 이날은 온 마을이 쉬었고 성주상은 차리지 않았다.<제보 ㉣, ㉤> 단오날에 방월리 여인네들은 마을뒷산 굴바위에 있는 작은샘에 가서 머리를 감거나<제보 ㉤> 깻잎삭을 뜯어다가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부드러워 진다고 믿어 이를 행했다.<제보 ㉣> 그리고 상추밭에 이슬을 받아서 세술하거나<제보 ㉤> 초롱꽃(가시꽃)뜯어다 나이대로 개떡해 먹으면 버짐이 피지 않는다고 한다.<제보 ㉣> 또한 단오에는 온갖 풀잎을 다 뜯어다 약찜한다.<제보 ㉣> 그리고 단오날에는 줄다리기, 널뛰기, 용각취기(?) 등의 놀이를 즐긴다. <제보 ㉤>

나) 6월 유두

유두날은 지성님네<제보 ㉥>와 성주님<제보 ㉤>께 상을 올린다. 음식은 밀문지등을 부쳐서 상에 놓고, 또 헌석이라 하여 짚을 깔고 바쿠리작에 담아 놓는다.<제보 ㉥> 이날은 “씨래받침”이라 하여 농가에서는 일손을 놓고 음식을 장만해서 먹으며 “오동리 물이 열두물이라 약물이다”하여 물맞으러 간다.<제보 ㉥>

다) 7月 칠석맞이

음력 7月 7日에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 만나는 날이다. 이 날은 온 동네가 쉬고 밤에는 별을 본다.<제보 ㉠>

라) 7月 백중맞이

음력 7月 보름을 “백중날”이라 하여 농가에서는 일손을 쉬고 음식을 장만하여 상주상을 올린다.<제보 ㉡, ㉢>

㉤ 8月, 9月, 10月의 歲時風俗

가) 8月 추석쇠기

㉤ 추석차례: 추석을 “한가위”, “가우”라 부르고 큰 명절로 쇠어왔다. 추석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님께 차례를 올린다.<제보 ㉣, ㉤, ㉥> 이때는 객지에 나갔던 자식들이 추석을 쇠러 고향에 내려와 선산에 성묘를 하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제보 ㉦> 추석에는 농가에서도 일손을 놓고 5일 정도 쉬었으며, 머슴이 있는 집은 옷 한 벌과 쇠경, 반찬을 사주고 집에 다녀오게 한다.<제보 ㉧, ㉨, ㉩> 이때 배를 부리는 집은 豐漁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배고사를 지낸다.<水産儀禮 중 정정남(男, 68세, 方月里 거주)와 김용복씨(男, 61세 牛月里 퇴촌거주)의 자료 발췌함>

㉥ 추석시식: 추석에 장만하는 음식은 송편, 시루떡, 돼지고기, 명태, 낚지, 송어, 굴젓, 노무새 등이다. 이중 송편은 팔을 고물로 하여 만들고 과실로는 사과, 배, 밤, 대추 등을 준비한다. 추석밥은 “심리”라 하여 햅쌀로 밥을 지어 조상님께 올린다.<제보 ㉪>

㉦ 추석놀이: 추석에는 장만한 음식을 먹고 놀기를 하면서 즐긴다. 方月里에서는 남자의 경우 화투, 윗놀이를 하고 여자는 강강술래 등을 하면서 논다. 이 놀이 중에서 남자들이 많이 하는 화투놀이는 마을부녀회가 설립되면서부터 하지 않고 있다.<제보 ㉫>

나) 9月 중구쇠기

음력 9月 9日을 “중구”라 한다. 이날은 예전에는 조상님께 상을 올리고 명절로 쇠었으나 지금은 평일과 동일하게 생활한다.<제보 ㉬, ㉭>

다) 10月 시제모시기

음력 10월에는 각 가정에서 선산에 時祭를 모시는데<제보 ㉔> 이를“새양(시양)지낸다”고 얘기한다.<제보 ㉕> 새양지내는데 필요한 음식은 문중전답(이를 “위토”라함)을 경작하는 산지기가 준비하며 이를 아침 나절에 가지고 올라가서 제를 낸다.<제보 ㉖, ㉗, ㉘>

㉞ 11月, 12月의 歲時風俗

가) 11月 동지쇠기

11월을 “동짓달”이라 하고 20일을 “동지”라 부른다. 24절후에 하나인 동지에는 동지팔죽을 쑤어서 12그릇을 성주상에 올린다. 팔죽 12그릇은 그해의 時에 따라 시간을 맞춘 것으로 이를 통해 농사의 豐凶을 占하였다. 즉 그릇에 물기가 돌면 풍년이고, 죽이 갈라지면 가뭄이 든다고 믿는다.<제보 ㉙, ㉚> 또 “액물림”이라 하여 벽에 팔죽을 뿌리면서 “자식들 복 많이 태워주고 집안 편안하게 해주쇼”하고 가정의 안녕과 자식의 출세를 기원한다.<제보 ㉙, ㉚, ㉛>

나) 12月 그믐쇠기

섣달그믐에는 집안 구석구석 불을 켜고 조상님께 상을 올리고 묵은 세배를 한다.<제보 ㉜, ㉝> 상을 올린 후 송농을 올리고 수저로 밥을 세 번 질러 송농에 떠 놓는다. 그리고 잔을 개놓고 다음날 가족끼리 먹는다.<제보 ㉞>

□ 제보자 : ㉙ 정진철(남, 53세, 농업, 방월리 거주), 성순월(여, 53세, 농업, 방월리 거주), 김산출(남, 50세, 농업, 방월리 거주), 김만엽(여, 63세, 농업, 방월리 거주). 김만엽씨는 친정어 馬津里이고 남은 세분은 婚禮 제보자란 참조.

㉚ 양화초(여, 80세, 방월리 거주)

㉛ 고난심(여, 78세, 唱馬里거주)

-조사일시 : 1985년 7월 9일

□ 참고문헌 :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3. 민속신앙자원

1) 민속신앙자원 목록

(1) 당제 목록

번호	마을	이름	신격(제당)	제일	참고문헌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안좌면 박지리 박지마을	당지	당할매(팽나무)	1/15	『다도해의 당제』 『신안군의 문화유적』			중단
2	안좌면 대리	당제	①상당(50여년 전 보지바위에서 당집으로 이동) ②하당(소나무, 쫓바위)	1/3	『다도해의 당제』	2005. 04. 22	정희석 (남, 71)	20여년 전 중단
3	안좌면 방월리	당지	①당(당할매, 하남씨) ②칠성바우(칠성암, 옷사장, 공알바우)	1/15	『다도해의 당제』 『방월리』	2005. 05. 15		1970년대 중단
4	안좌면 구대리	당제	하늘영감(팽나무)	1/2	『다도해의 당제』 『한국의 성신앙 현 지조사』 『도서문화』 4집	2005. 05. 15	정복남(남, 57) 김재월(여, 79) 권양남(여, 74)	20여년 전 중단
5	안좌면 남강리	당제	소나무	1/15 → 1/1	『도서문화』 4집			1986년 당시 진행
6	안좌면 반월리 반월마을	당제	당, 당산, 반월신당(당할매, 당할아버지, 아들, 딸, 요왕님, 안지심, 발지심)	1/15	『도서문화』 4집			1986년 당시 진행
7	안좌면 소곡리 두리마을	서낭제	소나무, 소나무숲	1/1	『도서문화』 4집			1986년 당시 진행
8	안좌면 소곡리 소곡마을	당제(당제 산신령 모신다)	팽나무(당할매, 당할아버지)	1/3	『도서문화』 4집 『내고장 자랑』			1986년 당시 진행
9	안좌면 폐서리 동촌마을	노신제	팽나무(오방신장, 거리신, 새미각시)	1/3	『도서문화』 4집			1986년 당시 진행
10	안좌면 여흘리 여흘마을	당제	사장의 구시나무→마을회관	1/3	『도서문화』 4집	2005. 05. 18~19	최양매(여, 84)	현행
11	안좌면 한운(하누)리 하누마을	당지	소나무 4그루, 제단, 들담(당할매)	1/15	『도서문화』 4집	2005. 05. 18~19	부금덕(여, 75)	1960년대 중단

(2) 기우제 목록

번호	마을	이름	제의형태	제장	제일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안좌면 구대리	기우제	불 지르기	매봉산 정상	여름	2005. 04. 18~19.	김애단(여, 77)	40여년 전 중단
2	안좌면 한운리	기우제	불 지르기	봉산 정상	여름	2005. 04. 18~19.	부금덕(여, 75)	50~60년 전 중단
3	안좌면 대우리	기우제	불 지르기, 제사	봉산 정상 마을 뒷산 정상	여름	2005. 04. 21~22.	최자섭(남, 79)	1945년까지 지냄

(3) 입석 목록

번호	마을	명칭	위치 및 형태	관련의례	참고문헌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안좌면 대리	보지 바우와 좃바우	보지바우(후봉산 정상에 위치, 10m 크기의 여자 성기모양) 좃바우(마을 입구에 위치, 남 근석 형태)	당제	『다도해의 당제』 『한국의 성신앙 현지조사』 『도서문화』 4집			현존
2	안좌면 구대리	썸바우	마을 앞산 중턱에 위치, 높이가 약 5~6m, 둘레 약 30여m 되는 여자 성기모양의 自然石	없음	『한국의 성신앙 현지조사』 『도서문화』 4집	2005. 05. 15.	김재월(여, 79), 권양남(여, 74), 장동욱(남, 68)	현존
3	안좌면 한운리 하누마을	썸바우	마을 뒷산에 위치, 여자 생식기 모양	없음	『도서문화』 4집			

(4) 뱃고사 목록

번호	마을	신격	시기	장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안좌면 방월리	여선영(삼색형견)	명절, 출항, 배 건조 및 수리시(조금때를 지나 물이 들 무렵 낮)	배	『도서문화』 4집	1985. 07. 09	정정남(남, 68)	
2	안좌면 반월리	여선왕(삼색실, 삼색천, 창호지, 바늘 3개)	월 1회 혹은 2회(서무새날 만조시 낮)	배	『도서문화』 4집	1985. 07. 11	장수복(남, 74)	
3	안좌면 반월리 퇴촌	女堂神(삼색천과 바늘, 실)	어장철이나 명절(서무새날 만조시 낮)	배	『도서문화』 4집	1985. 07. 11	김용복(남, 61)	
4	안좌면 박지리	여서낭(삼색의 옷배(천))	명절이나 출항시배	배	『도서문화』 4집	1985. 07. 11	정용선(남, 58)	

(5) 가신신앙 목록

번호	마을	이름 및 신격		조사일시		현황
1	안좌면 방월리	성주, 지앙, 삼신, 문전, 조왕				

2) 민속신앙자원 현황

(1) 당제

① 안좌면 박지리 박지마을 당제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朴只島는 崑洞에서 약 0.7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섬으로 所谷里 斗里 선착장에서 서편으로 5분 가량이 소요된다. 총 39호(농가 36호, 비농가 3호)에 157명(남 85, 여 82)이 海苔養殖을 주업으로 하는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에 기록된 ‘당사-너메’, ‘당-새엠’, ‘당-앞’의 지명에 나타나듯 堂을 중심으로 한 공간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한글학회, 1982 : 477).

매년 음력 정월보름에 거행하는 당제의 방언은 ‘당지’이다(이하 堂祭로 표기). 祭場은 박지마을 뒷산 봉우리에 위치한 3~400년생 팽나무 고목과 그 밑의 土石祭壇이다. 팽나무가 堂神의 神體이며 당신은 “당할매”, “할머니神”으로 불리운다. 100여 평이 되는 祭場 주위에는 나무들이 심겨져 울타리 역할을 한다.

나) 당제 준비

祭官은 祭日 10일 전에 生氣福德이 맞고 喪·出產·不淨이 없는 3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4명이 선정된다. 4명에게는 각기의 역할에 따라 원당주, 부당주, 칼재 혹은 산제비, 헌관이라는 직책이 주어진다. 원당주는 祭饌을 차리고 祭를 주관하며, 부당주는 일반적인 보좌역을, 칼재는 송아지를 잡는 역할을, 獻官은 祭儀過程을 보좌하고 소지를 태운다. 이들 모두가 음력 정월 열하루부터 보름까지 5일간 당샘에서 목욕재계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 祭日전에 이들은 당앞 당샘을 깨끗이 청소하고 원새끼의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雜人의 출입을 막는다.

祭饌은 메·酒·果·시루떡과 소머리로 이를 마련할 때는 향시 당샘물을 사용한다. 祭饌·祭酒는 祭日 하루 전에 마련된다. 박지마을 주민들은 堂祭를 지낼 때 평시에는 소(牛) 한 마리를 잡으며 흉년에는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場에서 머리만 사오기도 한다. 박지마을 堂祭에서 소를 잡는 관습은 인근에 널리 알려져 있다. ‘祭物로 쓰일 소를 구입할 때 만약 상인이 소를 팔지 않으면 당할매가 화가 나서 소를 말려 죽인다.’는 말이 박지마을 堂祭에 관련된 소의 이야기로서 이 일대에서 口傳되고 있다는 정도이다.

다) 당제 진행

堂祭는 정월 보름 새벽 2시부터 시작된다. 陳設·獻酒·再拜·燒紙·飲福의 順이다. 燒紙때는 이장·원당주·부당주·獻官·칼재의 燒紙가 먼저 오르고 다음 39호 전 가구의 戶別燒紙가 오른다.

祭가 끝나면 원당주 집에서 마을주민들이 祭饌을 음복한다. 단 음복시에도 부정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다. 주민들이 부정한 사람이 祭饌을 먹으면 당할매의 노여움을 받아 本人은 물론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음복 후에는 나룻배 운영비, 농로 보수, 이장선출에 관한 件 등 마을의 諸般事를 협의하는 마을회의가 이어지고 그 뒤로 걸궁(농악)이 행해진다. 박지마을에는 아직도 걸궁에 다양한 雜色이 남아있다. 쟁과리, 징, 장고, 소고, 북을 든 앞치배 뒤에 砲手, 唱夫, 탈을 쓴 비비각시 등의 雜色이 따르는 것이다. 걸궁패는 원당주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대문·마당·부엌·우물·마래·뒤꼍 등지에서 한 해의 幸運과 平安을 祈願한다.

□ 제보자 : 鄭龍先(남 62세, 제관 경험), 李順女(여 61세), 李軍道(남 29세)

(조사일시 : 1985년 7월 8일 15시 15분 ~ 17시 20분)

□ 참고문헌 :

목포대 박물관, 『신안군의 문화유적』, 1987, 237쪽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44쪽

② 안좌면 대리의 당제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大里는 802戶에 1,180名(男 586 명, 女 594명)이 살고 있는 安佐島 제 2의 마을이다. 面所在地인 邑洞에서 4km 거리에 위치하여 동편으로 왕래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대리 上堂은 원래 뒷산의 陰바위(보지바위)에 있었으나 현재는 옮겨졌고 下堂은 지금 있는 곳에 옛부터 있었으며, 下堂神은 부락입구의 古松과 그 옆 길가의 陽石(쫓바위)이다.

마을에 憂患이 있어 30년 전에 案山 중턱에 神堂을 새로 짓고 佑里神主人 堂할머니를 모셨다. 堂舍의 크기는 높이 2.6m, 가로 4m, 세로 2m의 4方形 부르크로 된 집이다. 堂內의 左便에는 佑里神

主大察之位란 창지로 된 位牌(紙榜)를 모셨고 右便에는 祭器가 있다.

1950년에 神堂 建築 寄金支出金으로 每戶當 割當 總回收金이 55,030원, 白米 1? 7,200원, 案山 木林代 1,300원, 正租 8?, 借入代金 19,050원, 合計 82,580원을 거출하여 새 神堂 을 지었다. 이 神堂에서 500m 아래에 下堂이 있는데 中堂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는 古松이 15그루나 있고 넓은 마당이 있어 祭祀와 마을회의를 갖는다. 中堂에서 600m 쯤 邑洞쪽으로 가는 길가에 男根立石(춧바위)이 500m 간격을 두고 2개가 서 있는데, 中堂祭를 지내고 바로 여기에 와서 竝을 十字로 깔고 다른 雜神이 侵犯하지 못하도록 禁줄을 三角形으로 치며 祭物인 밥과 명태를 차려 祈願한다. 길 안쪽에 있는 陽石은 높이 270cm, 둘레 150cm이며, 길 밖에 있는 陽石은 높이 160cm, 둘레 150cm로 서당골 陰바위에 對應하여 세웠다고 하고, 部落의 業과 氣인 靑龍, 白虎가 못 나가도록 길목에 장승을 세웠다고도 한다.



사진 11. 안좌면 대리의 당집

나) 당제 준비와 진행

祭日은 陰 正月 3日이며 部落회의에서 승인한 3人的 祭官이 3일 전에 堂에 들어가 흰떡과 꿩국 명태 祭밥을 準備하며, 神木과 堂집 주변에 黃土와 원새끼 줄을 치고 祭를 지낸다. 제물로 쓸 꿩은 案山과 뒷산에서 물면 부락 한 가운데 있는 中堂에 저절로 떨어져 祭床에 놓을 수 있다한다. 祭日에 産故가 없도록 하되 만일에 産故가 있게 되면 미리 서둘러 다른 마을로 가서 놓고 오게 하며, 外地의 客도 정월 한 달은 출입을 할 수 없고 2월 1일에야 마을에서 나갈 수 있게 된다. 祭日이 끝나면 온 마을이 조용한 가운데 部落會議를 열어 前年度 會計報告와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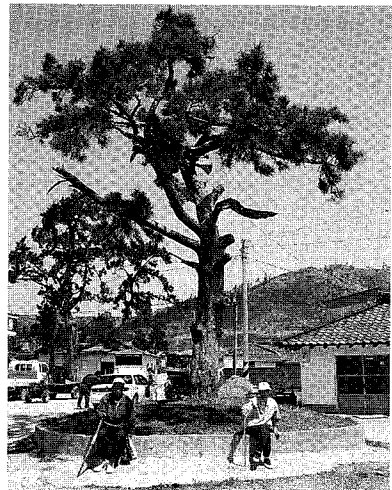


사진 12. 안좌면 대리의 사장나무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예전에는 당제를 엄하게 지냈으나, 20여년 전부터 중단되었다. 당제를 지내던 당집은 외관상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는 벽돌이 부식되고, 나무가 썩어서 곧 무너져내릴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

다) 영험담

安佐島 邑洞에 靈驗이 좋은 堂할머니를 모시는 本堂인 邑洞堂이 있었다. 80여년 전에 邑洞에 사는 부자 金氏 門中에서 明堂을 찾고 있던 중 堂 마당임을 알고 초랑이를 招請하여 마을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 하였다. 밤 늦게까지 초랑이의 굿놀이를 보게 하고, 그 사이 堂 뜰에 平葬으로 墓를 썼다. 墓를 썼던 그날 밤에 堂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나는 여기서 居處할 수 없게 되어 박지도로 가겠다” 하여 4km 떨어진 박지도로 옮겨 갔다.

□ 제보자

姓名	年離	性別	學歷	宗教	職業	現居所	備考
정 윤 환	74	男	漢學	無	農	단대리	有志
노 무 정	44	〃	〃	〃	〃	〃	
정 석 균	63	〃	〃	〃	〃	방월리	
정 익 산	30	〃	中卒	〃	〃	〃	里長
진 금 술	50	〃	國卒	巫教	巫人	창마리	
김 안 술	53	女	〃	〃	〃	〃	
이 세 창	66	男	漢學	無	農	북호리	
이 선 봉	56	〃	〃	〃	〃	〃	

(조사일시 : 1971~1983년 / 2005년 4월 22일 추가조사함)

□ 참고문헌 :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41쪽

③ 안좌면 방월리 당제

가) 제당 구성과 신격

方月리는 322명(남 162, 여 160)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방월리는 전에 목화, 담배 농사로 소득이 높았으며 현재는 마늘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제를 지내는 장소는 두 군데인데 할매·하남씨가 거쳐한다고 믿는 상당과 칠성신인 지석묘(支石墓)로 이루어진 하당이 있다. 이 중 상당은 동네에서

동북방향에 있는 뒷산 중 굴바위로 가는 당바우(높이 4.5m, 폭 15~18m) 정상에 있다. 여기에는 자연석의 돌담이 쌓여 있었으며(돌담 직경 약 300~440cm, 높이 55~110cm, 담폭 40~65cm) 돌담안 북쪽에는 토석제단(土石祭壇) (가로 170cm, 세로 130cm, 높이 31cm)이 있었다(현재는 부서져 있음). 돌담 주변에는 10~30년생 소나무가 세그루 있고 돌담안은 흙다짐 흔적이 있다. 이 뒷산너머에는 폐허가 된 절터가 있고 방월리 경주정씨들의 선영이 있었다. 하당에는 칠성바우(七星岩)라 불리는 7개의 지석묘가 있었다. 이 칠성암인 지석묘가 하당신체(下堂神體)이다. 上堂에는 堂할머니를 모시고 下堂에는 堂할아버지와 七星神인 支石墓를 모셨었다. 下堂에는 神木인 팽나무가 있으며 神木의 근처에는 4개의 고인들이 있는데 七星岩이라 하며, 下堂祭를 지낼 때 같이祭밥을 차려 部落의 消災新福과 子息發願을 빈다. 바로 七星岩인 지석묘가 하당신이다. 祭日은 정월 15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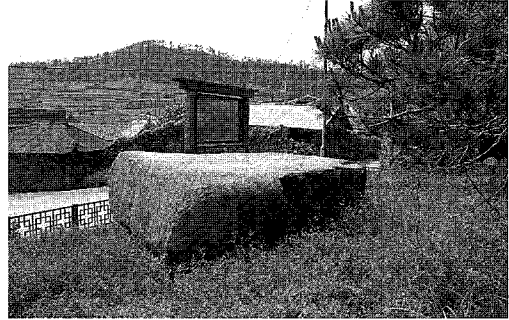


사진 13. 안좌면 방월리 제장으로 사용되는 지석묘

나) 당제 준비

방월리에서는 제를 진행하는 제관을 “제주(祭主)”라 부른다. 제주는 마음 착하고 산고(産故)나 상고(喪故)가 없는 깨끗한 사람을 이장이 선정했다. 제주로 선정된 집앞에는 황토흙을 깔고 검줄을 치고 모든 것을 조심한다.

제는 당샘과 지당 주위에 검줄을 치고 제주로 선정된 부부가 목욕재계하고 꼬사리, 도랏, 콩나물, 녹두나물, 술, 냉수, 소금(?) 메 두 그릇을 차려 놓고 지낸다. 축문은 없고 다만 당할매·하랍씨(하납씨)께 부락 사고 없고 부정(不淨), 돌진(호녀, 손님) 없이 마을 잘 보아 주시고 농사·면화 잘 되게 해 달라고 빈다.

다) 당제 진행

상당의 할매·하납씨에게 제를 지낸 후에는 마을 앞 동네 우물 바로 뒤 칠성바우에도 지(祭)를 올렸다. 여기에는 지석묘가 2기 있는데 작은 것에는 성혈(性穴:cup-mark)이 여러개 뚫려 있다. 이곳을 옷사장이라하고 지석묘를 공알바우라고도 불렀으며 만지면 사고가 난다고 했다. 옷사장에는 황

토흙과 외로 끈 새끼로 검줄을 둘러 쳐 놓았다.

방월리로 들어오는 입구, 즉 하누(閑雲)로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에 예전에는 돌레가 세아름이나 되는 팽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년 전에 고사했고 여기에는 끈, 말끈, 육말끈, 옷판을 새겨 놓았던 큰바위가 있었는데 이곳을 아랫사장(?)이라 불렀다.

라)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제비용은 제주가 부담한다(대동회 기금으로 충당한다는 보고도 있음). 지(祭) 후에는 징, 쟁쇄, 장구, 방구(북), 소고 등으로 굿물(군물, 농악)을 쳤고 마을회의나 줄다리기는 없었다. 이러한 방월리의 당지는 1970년대부터 지내지 않고 있다 한다.

마) 영험담

支石神인 칠성암은 영험이 있어 함부로 옮길 수 없다 한다. 방월리 정옥진(67세)씨 부친 정내살씨가 고인돌 한 쪽을 떨어뜨린 후 허리를 쓰지 못하고 死亡하였으며, 길을 造成하기 위해 고인돌을 옮기었는데, 부락에 憂患이 있었고 우물물이 나오지 않아 원 位置에 옮겨 놓았다.

방월리를 마을 뒷산에서 보면 집이 모여진 모양이 말(馬)이 달리는 형상으로 말대굿박(말머리)이 나 꼭지(꼬리)쪽에 집을 지으면 좋지 않고 꼭 집이 뜯기게 된다고 한다.

□ 제보자 : 정흥기(남, 78세), 정만기(남, 39세), 정양복(남, 55세)

(조사일시 : 2005년 5월 15일 보충조사함)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년, 43~44쪽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방월리』, 1982, 92~94쪽

④ 안좌면 구대리 당제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舊垵里는 64호에 359명(남 177명, 여 182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堂祭”, “神堂祭”를 20년 전에 모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시지 않고 있다. 마을 동쪽 어귀에 있는 堂은 다섯 사람이 양팔로

젤 정도로 둘레가 크고 수령을 알 수 없는 枯木 팽나무 당나무가 있었으나 枯死된 후 다시 당나무가 재생하여 마을을 지키고 있다. 堂神은 당할아버지·할머니와 하늘영감을 모시고 있다. 하늘영감은 구대리 마을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영스러운 영감으로 할멈, 자식이 없다. 이 마을의 堂神은 수령을 알 수 없는 古木 팽나무로 수 백 년 전 枯死된 후 그 아래에 있었던 岩石을 堂神으로 모셔 왔는데 70년 전에 다시 堂木이 재생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양위를 모시다가 60여 년 전에 죽은 하늘 영감이란 껍 영스러운 영감을 堂神으로 모시고 있다.

나) 당제 준비

堂祭日은 음력 정월 초이튿날 밤 11시부터 1시까지이며 부정타지 않고 생기에 맞는 3명의 당주가 당샘에서 목욕재계하고 당제를 지낸다.

당주는 일주일전(음력 28일)에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유지들이 뽑는다. 당주 중 1명은 제관이 되고 2명은 제관을 보좌하는데 제 지내기 전까지 이들은 제관집에서 같이 행동한다. 당주는 참종이로 만든 고깔을 쓰고 흰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는다. 당주에 선정되면 당, 당샘, 당주집, 길입구를 청소하고 출입을 금하는 원새끼 금줄을 치고 황토흙을 뿌린다. 당샘은 지금 마을 주민의 공동우물로 사용되고 있다.

제물은 동네 호당 쌀 1되 가격의 돈을 거두어서 당주집에서 초이튿날 장만 한다. 제물을 살 때는 돈을 부르는데로 지불한다. 제상에는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꿩), 과일, 산야채, 밥 7그릇, 떡이 올라간다. 밥은 당할아버지, 할머니, 하늘영감, 헌석을 차린다. 당샘에는 물만 떠 놓는다.

다) 당제 진행

제는 堂 안에 두 대를 치고 나서 진설하고 술과 뽕을 올리며 재배, 기원을 하고 소지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된다. 기원은 “동네 운 타서 아무 병 없이 살게 해 주쇼”하며 소지는 당주? 이장? 연령별로 동네 주민을 순서대로 올리고 객지(타지)에 있는 사람은 따로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 제관이 보아 재가 밖으로 나가면 좋고 음식에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 행실을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제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동네 사람들은 가정마다 조용하게 한다.

라)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당제를 지낸 음식은 제관이 먼저 음복하고 나머지 음식은 동네사람들 모두 나누어 먹는다. 제음

식은 동네 사람들이 먹으면 좋다하며 특히 떡을 태워 참기름에 묻혀 부스럼에 발라주면 낫는다 한다. 당제가 끝나면 대동회가 있고 농악놀이로 집집의 厄運을 쫓는다.

구대리는 이러한 당제를 지내는 것이 미신이라 하여 20여 년 전부터 지내지 않고 있다.

마) 영험담

堂山은 아주 靈效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堂나무가 있는 案山에 女根岩이 있는데, 이를 마을에서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는 松葉을 꺾으면 그 女根이 보이는 여러 마을의 婦女子들이 바람(음탕기)이 나서 家出이 많으므로 女根岩 근처에 접근을 금하고 있다. 또한 閑雲里에도 女根谷이 있는데 누구도 접근을 못하고 있다.

□ 제보자

- 기존 자료 제보자 :

정복남(남 57세, 구대리 거주). 고향은 목포이고 이곳에 거주한 지는 50년 정도 되었다. 23세에 결혼하여 5남 1녀를 두었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 부제관을 지낸 경험이 세 번 정도 된다.

- 보충조사 제보자 (2005년 5월 15일 보충조사함)

김재월(여, 79) 안좌면 읍동에서 19살에 중매로 장남에게 시집옴. 6남매를 두었음.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음.

권양남(여, 74) 임자면 삼두리 부동마을에서 19살에 시집옴.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44쪽

이종철 외, 『한국의 성신앙 현지조사』(국립광주박물관 학술총서 제 9집), 1984, 15~16쪽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11~114쪽

⑤ 안좌면 남강리 당제

가)제당 구성과 신격

南江里는 箕佐島와 安昌島의 경계지역으로 진변과 원두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진변은 안창도와 기타 섬을 연결하는 나루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1929년 횡단도로가 개설되어 바로 안창도

의 杵木里와 연결됨으로써 그 기능을 잃었다. 리는 총 58호(농가 57호, 비농가 1호)에 252명(남 132, 여 120)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邑洞으로부터 4k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1985년 현재 : 면 통계 자료>

이 두 개의 자연 마을은 매년 정월 초하루에 마을의 번영, 질병·재앙방지와 나쁜사람 퇴치, 단결을 목적으로 “당제”를 “당” 또는 “당산”에서 지낸다. 堂은 마을로부터 뒤로 300m 거리 언덕진 밭 가운데 위치하며 7~8 그루의 큰 소나무 神木이 숲을 이루고 있다. 堂木에는 원새끼 금줄이 둘러 있고 堂이 있는 밭은 大洞契의 自産이다. 堂은 원래 김해김씨 선산에 있었으나 7~80년 전 지금의 자리로 옮겼고, 마을민은 이곳에서 놀거나 소를 매어 놓는 위협보다는 친근감을 풍기는 것이다.

나) 당제 준비

祭官은 ‘당주’, ‘부당주’ 2명으로 대동계장이 깨끗하고 운이 맞는 사람을 4~5일 전에 선출한다. 예전에는 제관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금은 수고비를 지급하므로 나아졌다. 1985년 당주는 김수문씨(남 54세), 부당주는 이순식씨(남 45세)가 맡아 하였다. 제관이 된 당주와 부당주는 하루 전(예전에는 일주일 전)에 마을의 깨끗한 집을 얻어 그곳에 거주하면서 言語不通하고 간장에다가 밥을 먹어야 한다. 또 선달그믐은 당새미의 물로 목욕하고, 금주 금연 등의 근신을 하며 당새미를 청소한 후 황토흙을 뿌린다. 그리고 堂에는 정월 초하루에 소지(?), 금줄, 두테를 친다. 제보자 김상진씨는 제관이 되어 아침은 집에서 먹고 점심은 빌린 집에서 직접 해 먹었으며, 아침 일찍 당새미에서 목욕하는데 찬물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담배, 술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더라고 堂主지낸 경험담을 얘기하셨다.

祭物은 대동계장이 구입하고 당주가 당새미를 길어다가 밥 두 그릇, 흰떡, 술, 소갈비 또는 돼지갈비, 명태 세 마리를 마련한다. 이중 술은 제 당일에 주조하고 요리는 간장만으로 양념한다.

祭費는 마을에서 ‘성미(誠米)’를 거두어 이중 일부를 깨끗한 집 쌀과 바귀 제물준비하고 부족하면 대동계 자산에서 충당한다.

다) 당제 진행

祭儀는 정월 초하루 밤 11시경 당주와 부당주가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堂에 오르면서 시작된다. 祭는 예전에는 당고나 산고가 들기 쉬운 정월 보름이었으나 지금은 부정 없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로 바뀌어 거행하고 있다. 祭는 진설, 헌작, 분향제배, 口頭祝, 소지 올린다는 順으로 진행된

다. 구두축은 밥에 손가락을 꽂으면서 “부락에 영광주소”하고 구두로 빈다. 소지는 운수 나쁜 사람 없애 주십사 하고 마을민의 연령, 성명, 생년월일 순으로 올린다. 이때 군대 간 자체는 착실히 올리고 喪主나 産故者는 올리지 못한다. 제관은 소지를 올리면서 마을민의 운세를 점쳐 “소지가 나쁘더라”고 얘기 경고하여 준다.

라)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祭는 보통 12시경이 되면 끝나고, 당에서 내려온 부락사방에서 거릿제를 지낸다. 거릿제는 원새끼 금줄에 창호지를 끼워 매달고 그 아래 음식을 놓으며 술을 붓고 절만 하는 것이다. 초이튿날은 제물 중 흰떡은 집집마다 나눠 먹고, 대동계총회, 마을총회와 예전에는 농악도 올(올)렸다고 한다. 마을총회에서는 대동계 자산 田삼천평, 자금 60~70만원의 결산과 부락일, 부락발전, 당주격려를 논의 한다. 이때 祭物과 이외로 준비한 음식을 내어 나누어 먹는다.

이러한 당제는 1936년(昭和 11년)에서 38년까지 거행하지 않아 그 해 마을에 홍진이 번졌고, 해방 이후 일 년 모시지 않았다가 마마와 水死者가 있어 堂의 위력이 무서워 계속 모셔오고 있다 한다. 예전에는 홍진, 마마 등 전염병이 들면 제를 다시 택일하여 모셨으나 지금은 않고 있다.

마) 영험담

堂神의 영험으로는 당주가 제 모시기 위해 저녁에 불을 들고 당에 오르면 불빛에도 개가 짖지 않았으며 燒紙가 잘 타오르지 않아 죽은 사람도 많았다한다. 祭에 대한 젊은층의 호응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나 선조유래고 재앙이 두려워 폐지하자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한다.

□ 제보자 :

김상진(남 57세 남강리 津邊里 거주). 본관 金海, 농업, 20세에 하의면 추광리가 친정인 19세의 부인과 결혼하여 슬하에 3남 2녀를 둬. 당주를 2년 전에 지냈다고 함.

김군호(남 50세, 남강리 원두 거주). 본관 金海, 당주를 지낸 경험이 두 번 있는 분이다.

□ 참고문헌 :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02쪽)

⑥ 안좌면 반월리 반월마을 당제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당”, “당산”, “반월신당”이라 불리는 神域은 마을입구의 팽나무, 버드나무, 동백, 양나무가 숲을 이룬 神木이다. 이곳은 마을의 동쪽에 있는 대운산(어깨산) 南向에 위치하고 “당제” 지내는 기간 동안 신역인 팽나무와 버드나무에 검줄(왼새끼에 창지를 묶은 금줄)을 메고 그 주변에는 황토흙을 뿌려 두었다. 神木들은 높이 12m, 둘레 2~3m의 250~300년 생의 枯木으로 그 앞에 土石祭壇(현재 시멘트 제단) 7개를 만들고 神林 사방에는 높이 약 1m 내외의 돌담이 둘러져 있다. 박지도가 “할마 버지당”이고 반월도가 “할매당”이라고 한다.

나) 당제 준비

祭官은 (원)당주와 부당주 2명이며, 50세 이상의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분을 선정한다. 제관은 제장 가까운 깨끗하고 부정 없는 부락갓(외곽) 집을 택하여, 참종이로 房을 도배하고 집 앞에 황토와 금줄을 친다.

제관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하고 또한 대소변 후이나 부정한 사람을 보면 언제나 찬물로 세수, 목욕하고 이 닦고 금연하며 옷갈아 입는다. 어찌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추운 겨울에도 춥지 않다. 또 늘 조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마을 앞길로 다니지 않고 뒷길로 다니며 이때 婦人들은 일체 나들이를 하지 않는다.

다) 당제 진행

원당주는 음력 정월 15일 자정이 지나서 인기척이 없을 때 제장에 모닥불을 펴 놓고 술(祭酒), 떡(쌀 닷말), 몬치 7마리, 명태 7마리 등 물린(말린)고기, 콩, 녹두, 꼬사리채 등 각종 노무새, 뚜부탕, 돼지머리, 장닭 1마리를 장만하여 상 차리고 3 번씩 술 올리고 동네 이장, 머리(마을 어른) 몸살 없고, 김(海苔) 잘 되고, 충해 없고 농사 잘 되어 달라고 손비빔을 한다. 또한 소지를 올리는데 객지나 외지 나가 있는 자식들, 군인이나 마을사람 성공하라고 빌고, 유지급, 호주소지, 귀한 아기들의 개별 소지, 당할매 제사시 보양한 소지를 올린다. (보용안 : 나무가 있는 神木을 지키는 말) 제상은 7개 차리는데 ㉠당할매 ㉡당할아버지 ㉢아들 ㉣딸 ㉤요왕님 ㉥안지심 ㉦받지심을 차리고 제사 후에는 헌석(남은 음식)을 바위 여기저기에 50개(120군데라고도 기억)를 종이에 싸 놓고 아침에 가 보아서 그대로 있으면 농사 잘 되고 애들 命 질어(길어) 좋고 안 좋을라면 다 헛쳐진다.

라)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祭後에는 이장, 수상들이 오셔서 飲福 후 총회를 한다. 총회에는 堂 고치는 일, 마을길 고치기, (원)당주·부당주 보수, 제비용 결산, 나룻배 운영자 결정(1985년은 1호당 12,000원 학생 7,000원임. 그 전에는 서숙, 나락 말가웃, 보리 두 말씩 줌)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당주 비는 모방 사(세간) 사람까지 한 호도 빠짐없이 거두어들인다. 예전에는 산속 구석이라 산비탈에 보리 심어 초근목피로 굶기를 밥 먹듯이 했을 때도 堂費는 내었다고 한다.

총회 후에는 결국하면서 노래부르고 쉰다. 결국치는 순서는 당산터, 당샘, 제사집(제관이 머물렀던 집), 동네우물 순으로 치고 각 집에 들어와서는 마당, 부엌, 큰방, 마리(성주, 동오) 뒤뜰에 잡귀 물러나라고 친다. 부인네들은 쌀, 과일, 돈, 실, 술을 내놓기도 한다. 결국패는 복색을 갖추고 고깔 쓰고, 꿩마리 3개, 징 1개, 장구 1개, 방구(북) 1개, 소구 10개로 이루어지며 꿩수는 상모를 쓴다. 맨 뒤에는 “빼빼각시”라 하여 女裝한 남자와 창구재(총과 바랑을 맨 포수)가 뒤따른다.

□ 제보자

박일용(남 54세, 반월리 반월 거주) ; 7대가 이곳에 거주했으며 슬하에 7남매를 둠.

김석심(여 53세, 반월리 반월 거주) ; 박일용씨 부인, 친정은 장산도 대리이다.

장호길(남 48세, 반월리 반월 거주) ; 슈퍼마켓 경영, 13대가 이곳에 거주했다고 함.

손명선(남 44세, 반월리 반월 거주)

장홍희(남 30세) ; 1969년 문화재관리국 설문지 조사기록 책임자, 당시 안좌 반월국교근무.

□ 참고문헌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04~106쪽

목포대박물관, 『신안군의 문화유적』, 1987, 264쪽

⑦ 안좌면 소곡리 두리마을 서낭제(당제)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두리(북마루)마을은 안좌면 남쪽에 위치하고, 반월 또는 박지도로 갈 수 있는 나루가 있으며 주위는 칠성봉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은 읍동으로부터 6km 거리이고 가구는 총 43호(농가 39호, 비농가 4호)에 인구는 182명(남 100명, 여 82명)이 거주한다. <1985년 현재 ; 면통계 자료>

堂은 마을 동쪽의 300여 년생 소나무 숲이고 제는 “서낭제”, “당제”라 불린다. 祭神은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아들”로 마을번영, 질병방지, 후손번창을 기원한다.

나) 당제 준비

祭官은 “堂主” 2명으로 선달그름에 깨끗하고 생기가 맞는 사람을 마을 유지가 추천한다. 제관은 집밖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치고 당, 당샘도 깨끗이 하고 목욕재계한다.

祭物은 당주집에서 떡, 명태, 조퇴술, 나무새(나물), 꿩을 장만한다. 꿩은 마을민이 함께 몰아서 잡아 소나무(당나무라 부름)에 매달아 놓았다가 요리했다고 하는데 20여 년 전부터 놓지 않는다. 제물 장만은 여자 1명이 참여하나 깨끗해야 하며 堂에는 오르지 못한다.

다) 당제 진행

祭는 음력 정월 초하루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다. 제관은 정월 초하루 밤 11시 祭堂에 당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들의 상을 차리고 연령순에 따라 소지를 올리면 제는 끝난다. 당에서 제가 끝나면 마을 사거리에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리지”를 놓는다. 이때 주민은 조용히 해야 하므로 함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라고 한다.

라)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祭後에 제물은 당주집으로 가져와 마을민과 나누어 먹고 몸이 아프거나 애기가 귀한 집은 얻어다 먹는다. 이때에 동네총회를 갖는다. 祭費는 마을민에게 호당 500원씩 거출하여 충당한다. 祭日에는 초상집이나 산고자가 있어서는 안 되며 祭 후에는 마을에 쥐가 많고 전염병이 생기면 다시 택일하여 지낸다.

□ 제보자 :

이소구(남 70세, 소곡리 두리) ; 본관 전주, 농업, 20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둬.

김용재(남 63세, 소곡리 두리) ; 본관 광산, 농업, 20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 5녀를 둬.

□ 참고문헌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06~107쪽

⑧ 안좌면 소곡리 소곡마을 당산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所谷 마을은 읍동에서 5km 거리에 있는 마을로 57호(농가 50호, 비농가 7호)에 242명(남 126명, 여 116명)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거주 성씨는 慶州 崔氏가 29호로 가장 많이 거주한다. <1985년 현재 ; 면통계자료>

마을은 정월에 동네 아무 탈 없이 잘 되게 해 주고 마을의 풍년, 편안, 번영과 질병·재앙을 물리쳐 주십사 하고 “당지”, “당제산신령”을 모신다. 당은 마을 뒷산 능선에 樹高가 12m, 둘레 390cm, 樹齡 300년생 늙은 팽나무(당나무라 부름)가 있는 곳이다. 神木인 팽나무는 금줄이 쳐져 있으며 당 주변에는 담장처럼 넝쿨이 둘러있다.

나) 당제 준비

제관은 1명으로 일주일 전(현재는 사흘 전 임)에 이장이 40~60세의 깨끗한 남자를 선정한다. 제관에 선정되면 집 앞에 금줄치고 길가에 황토흙을 뿌리고, 옷새미, 가운데새미, 아랫새미 세 군데에 있는 당새미의 물을 길어 목욕제계한다. 또 제 삼일 전에 당나무와 당둘레에도 원새끼 금줄을 치고 황토흙을 뿌리고 堂에 사람들의 출입을 금한다.

다) 당제 진행

제관은 정월 초사흘 밤 10시가 되면 당산에 오른다. 제는 예전에 정월 초사흘과 9월 중구(9일)에 두 번 실시했으나, 지금은 초사흘에 한 번 거행한다.

祭 시간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정숙하고 堂山에 오른 제관은 밥, 국, 술(예전은 누룩술), 떡, 소갈비(예전은 독소), 노무새, 명태, 해물, 탕국, 편, 과실을 “당할매”와 “당할아버지”께 진설한다. 당산에 진설이 끝나면 “헌석”을 놓는데 이는 대나무로 만든 사각형 상자 형태에 금줄을 친 것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놓고 제물을 조금씩 차린다.

제는 헌작·재배·피올림·축문·소지올린다·음복으로 진행된다. 소지는 먼저 당할매, 당할아버지, 이장 등의 특별소지를 올린 후 마을민 서열대로 개별소지는 올리는데 이때 “이 동네 금년에 풍년 들어 무병하게, 화목하게 지내게 해 주십시오.”하고 기원한다. 이때 소지가 잘 타 재가 하늘로 오르면 좋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해 厄運이 뒤따른다고 한다. 또 동서남북 사방에 놓은 헌석을 돌면서 “東方 靑帝將軍 비합니다. 동쪽에 부정한 일 있어도 잘 봐주소. 남방에 赤帝將軍 비합니다. 남쪽에 부정한

일 있어도 잘 봐주쇼. 서방에 白帝將軍 비합니다. 서쪽에 부정한 일 있어도 잘 봐주쇼. 북방에 黑帝將軍 비합니다. 북쪽에 부정한 일 있어도 잘 봐주쇼”라 기원하고 음복하면 제는 새벽 1시쯤에 끝이 난다.

라)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제가 끝난 후 초나흘날은 동네회의를 하고 동네사람에게 제물을 대접한다. 이때 妊娠者나 喪室이 있는 집은 제물을 먹지 않는다. 제에 드는 비용은 가가호호 쌀 1되를 “추미”하여 충당하고 있다. 소곡마을의 당지는 교회가 들어 온 뒤로 많이 악화되었다고 하나 당신의 영험과 관련된 유래를 보면 당이 주민들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한다. 마을민이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을 쏟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사람이 이때를 농칠세라 몰래 음식을 훔쳐 먹었다. 그해 여름에 괴질이 크게 번졌다. 음식을 훔쳐먹은 당사자가 제일 먼저 괴질로 신음하다 숨을 거두고 어린이 수명이 목숨을 잃은 이변을 겪었다고 한다.

□ 제보자 : 최갑철(남 64세, 소곡리 소곡 거주). 본관이 경주이고 마을 본토박이며 20세에 장가 들어 슬하에 6남을 두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제관경험이 있다.

□ 참고문헌

『내고장 자랑』, 신안군, 1982년, 210~211쪽

『도서문화』 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07~108쪽

⑨ 안좌면 폐서리 동촌마을 노신제(路神祭)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폐서리(속칭 : 감나무골)는 읍동으로부터 2km 거리로 동촌과 서촌의 자연마을로 나뉘어진다. 두 마을은 총 76호로서 이중 농가가 73호, 비농가가 3호이고 372명(남 189, 여 183)이 거주하며 성씨는 김해김씨가 60호로 가장 많다. <1985년 현재 ; 면통계자료> 이들 마을은 서로 100m 간격을 두고 위치하나, 이장은 한명으로 조사당시 金文鎬씨(남 43세)가 혼자 맡고 있는 하나의 생활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정월 초사흘에 마을의 단결·번영과 편안, 재앙 방지를 위한 “노신제”만은 따로 거행되고 있다.

南方赤帝將軍, 北方黑帝將軍, 中央黃帝將軍의 五方神將과 거리신, 새미각씨에게 차린다. 예전에는 마을 사방을 돌면서 오방신장을 모셨으나 요즈음은 제실에 함께 모신다. 소지는 가가호호를 올리는 데 제관은 소지의 타오름을 보고 운수를 점친다. 제가 진행되는 시간, 각 가정에서는 마당에 “청두 바침”이라는 원새끼를 십자로 놓고 가장자리에 황토흙을 깔고 물 떠놓고 빈다.

□ 제보자 :

최복동(남 83세, 폐서리 동촌 거주). 본관 전주, 7~8번 제관 경험, 22세에 친정이 唱馬里인 19세의 부인과 결혼하여 5남 1녀를 슬하에 두었다. 제장안내 및 제 과정을 상세히 제보해 주셨다.

김복석(남 69세, 폐서리 서촌 거주). 서촌 노제 제관 경험자, 본관 김해.

□ 참고문헌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08~110쪽

⑩ 여흘리 여흘마을 당제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여흘은 읍동으로부터 5km 거리이고 총 93호(농가 97, 비농가 6)에 400명(남 192, 여 208)이 거주한다. 마을은 慶州金氏 65호가 동쪽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앞에는 군자연보호림으로 지정된 팽나무 위실(우실)이 있다. <1985년 현재 ; 면통계자료>

마을뒷면에 정월 초하루에 자석(식)들 좋으라고 공드리는 평(병)풍바위가 있고 그 밑에 띠이 있었다. 이곳에 마을민은 음력 정월 초삿날(초사흘) 밤 11시경에 한 해 동네에 사고나 병고 없이 잘 넘어가게 해 달라고 “동제”, “당제”를 지냈다.

그러나 띠이 박지리로 건너간 뒤 요즈음은 새마을회관이 위치한 사장에서 거행하고 있다. 사장은 넓은 공터로 둘레 175cm, 수령 100년생인 당산나무로 불리우는 구시(수)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보충조사에 의하면 현재는 당제를 사장에서 지내지 않고, 사장 옆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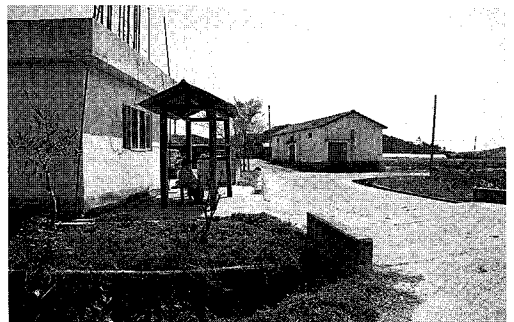


사진 14. 안좌면 여흘리 마을회관 앞(당제 제장)

동촌의 제장은 마을 뒤 화리봉 능선에 둘레 4m, 수령 400년생 평목(팽나무)이 있는 곳이고 그 아래 샘은 노신제의 제장이며 평목 옆에는 <司憲府監察金公之墓>가 있다. 마을민은 이 평목의 짝이 동서남북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느 쪽의 앞이 번성하느냐에 따라 운을 점치기도 한다.

나) 당제 준비

제관은 生氣나 운이 맞는 사람을 이장이 선달 그림에 선출한다. 제관의 수효는 6명으로 제관(진설담당), 당주(음식장만), 유사(제물준비), 심부름꾼 3명이다. 이들은 정초에 세배도 다니지 않고, 대소변보고 목욕제계하며 조심한다. 1985년도는 김준호씨와 최광석씨가 제를 담당했다. 제관은 초상집에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후 삼일을 조심해야 한다. 마을민은 제후 동네가 편안하면 제관이 제를 잘 모셔서 그렇다고 믿는다.

제는 원래 정월 초닷새였다. 그러나 동네가 자주 불결한 일이 발생하여 정월 초사흘 밤 12시경으로日時를 바꾸었다. 제관선정이 끝나면 제관은 물론이고 마을민은 노신제의 분위기에 휩싸여 정숙하고 깨끗이 한다. 먼저 제관은 제지내는데 필요한 양의 샘물을 떠놓은 다음 마을민으로 하여금 미리 떠놓도록 알린다. 정월 초하루에는 샘물을 품어 뚜껑 덮고 금줄을 치고 평목에도 줄을 띄우며 마을로변에는 황토흙을 간다(놓는다). 또 제장에는 천막을 쳐서 제실을 만든다. 이때 각 가정에서도 대문에 황토를 간다.

제물은 유사가 예산에 맞춰 구입해오면 깨끗한 당주가 준비한다. 제물로는 주과포를 중심으로 밥, 술, 명태, 쇠고기, 시리, 흰떡 등이며 요리는 고추를 사용하지 않고, 간장이나 지(기)름, 물로 양념한다. 이중 밥은 노신제의 대상신, 오방신장 5명, 걸판(거리판, 거리제, 산신제), 새미(샘) 각 씨를 합하여 7그릇을 준비한다.

제비는 가가호호 돈 또는 쌀을 “추렴”하는데 이웃 西村보다 가구 수가 적어 호당 돌아오는 액수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東村의 노신제는 한 해 지내지 않았다가 피해를 본 적이 있다. 그 이후로는 정성으로 모시고 있으며, 서촌 마을이 제를 합하여 함께 지내자는 요구도 해 왔으나 거절하고 있다.

다) 당제 진행

祭時가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은 각 가정으로 들어가고 마을은 인적이 끊어지며 제관은 제장으로 향한다. 이때 제관이 지나가면 개도 안 짓고 멈추었다가 간다고 한다.

祭儀는 진설하고 헌작, 재배하고 告祝하고 소지를 올린다. 진설은 東方靑帝將軍, 西方白帝將軍,

낸다고 한다. 마을회관에서 지낸 것은 60여년 정도 됐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제일을 정월 초하루로 옮기 상태다. 제일을 옮기게 된 것은 초사흘날에 지내면 마을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과, 설날에 내려온 귀성객들과 같이 지내기 위함이었다.

나) 당제 준비

洞祭 거행시기가 다가오면 마을 이장은 제관인 “제주”를 물색한다. 제주는 생인(喪主)이나 잉태가 없는 깨끗하고 연운이 맞는 사람으로 두 명이 선출되는데 이들은 김치, 술, 담배를 먹거나 피우지 않고 간장·참기름에 식사하고, 대변에는 목욕 등 공을 드리고 많은 것을 게린다. 1985년 제주에는 김봉선(남 51세), 김재식(남 57세?)씨가 맡았다.

제주는 정월 초하루 마을의 빈방을 빌어 그 집의 그릇을 사용하여 밥해 먹고 공들인다. 또 제주거처, 사장, 구세목(마을입구?), 샘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줄치고 禁土를 뿌린다. 특히 祭場이 되는 사장에는 막을 쳐서 紙錢(?)을 놓고 마을민은 제가 끝나기 전에 사흘간 사용할 물을 미리 길어다 놓는다.

제물은 제주가 거처에서 여성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밥 몇 그릇, 술, 흰머리떡, 소머리 등을 준비한다.

다) 당제 진행

제의 순서는 진설한 뒤 술 올리고 참종이 소제(지)를 올린다. 소제는 먼저 “동네 일 없이 잘 되게 해 달라”고 공동소제를 올리고 다음으로 마을수상, 이장, 마을주민의 순서로 병고 없이 잘 넘어가게 해 주십사고 개인소지를 올린다. 제가 거행되는 시간에는 마을민은 조용히 한다.

라)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祭 후에는 이장선출, 마을자금결산, 제결산을 위한 마을총회를 갖고 여기서 이장은 제주에게 수고비로 값을 지급한다. 예전에는 제주에게 주는 수고비는 없었다고 하며 마을총회는 제후에 거행하던 것을 몇 년 전부터 정월 초하루에 개최하고 있다.

祭費는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예전은 쌀 한 되를, 요즘은 물가에 따라 돈을 걷어 왔으나 1985년은 일체 걷지 않고 마을재산(田)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여흘 동제는 祭期間에 出産이 발생하면 어찌는 수가 없이 제가 거행되나 만약 사

망자가 있게 되면 동제장이 되는 사장이 護喪處가 될 수는 없으므로 출상은 제가 끝난 후에 치른다. 또는 옛날 한 해 촌립(전염병)이 번져 칠월 보름에 한 번 더 지낸 경우도 있었다. 요즈음은 제에 대한 젊은층과 교회의 반발이 있으나 계속 모샷(섯)다.

□ 제보자 : 최양매(여, 84) 장산면에서 시집옴.(조사일시 : 2005년 4월 19일)

□ 기존 자료 제보자 : 김수봉(남 63세, 여흥리 여흥마을 거주). 본관은 慶州, 농업, 결혼은 18세에 친정이 구대리인 20세의 부인과의 사이에 3남 3녀를 두었으나 모두 출타 함. 이 마을 본토박이로 2년 동안 이장을 하면서 동제를 거행했고, 제주에게 빈방도 여러 번 빌려 주었다.

□ 참고문헌

『도서문화』4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10~112쪽.)

⑪ 閑雲里(하누) 하누마을 당제

가) 제당 구성과 신격

하누는 읍동에서 7km 떨어진 마을로 39호(농가 38호, 비농가 1호)에 166명(남 80명, 여 86명)이 거주하고 있다. <1985년 현재 ; 면통계자료> 居住姓氏는 金海金氏가 29호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그 외 長興高氏 6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동북방향에 있는 뒷고랑(뒷산)에는 “썩바우”, “보지바우”, “썩샘” 이라 부르는 성기바위와 당지(제)의 祭場인 “後堂”이 위치한다.

後堂은 뒷고랑에 남북으로 위치하며 형태는 산중턱의 바윗돌로 祭壇을 만들고 제단 사방에 돌담을 쌓았다. 祭의 神域은 약 30평 정도로 주변에는 높이 10m, 둘레 1.5m의 소나무 네 그루가 서 있다.

나) 당제 준비

祭는 다른 사람이 절대 참석하지 못하고 祭官은 50代 이상의 生氣에 맞고 부정이 없는 남자를 마을 年長者(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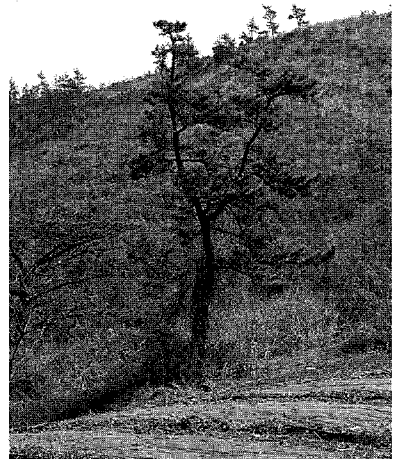


사진 15. 안좌면 한운리 당제터

들)가 선정하는데, 마을의 가장 많은 성씨인 김해김씨와 장흥고씨 중에서 2명이 된다. 제관이 되면 사흘간 집에 못 들어가고 부락 뒤쪽의 당새미(당샘, 듬뚍)에서 목욕재계하고 비린내 나는 것 먹지 않고 謹愼한다.

祭 기간 동안 동내는 정숙하고, 전 부락이 외부인, 부정한 이의 출입을 금지하고 제관이 머무는 집과 당은 창지를 길게 늘어뜨린 원새끼 검줄을 친다.

祭日은 음력 정월 15일 자정 이후에 너물(채소), 시리(떡, 1~3되), 밥, 술, 마른생선(乾魚)을 차렸는데, 음식을 만들면서 입에 젖어 보지 않는다(맛을 보아서는 안 된다). 祭官은 당할매께 무병하고 농사 잘 되고, 쥐서침(쥐가 곡식 못 먹도록) 막아 달라고 빈다.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祭 후에는 동내 사람이 모여 부락 수상을 대접한 후 음복을 하고, 祭 비용은 쌀이나 돈을 각 호에서 각출하였다. 또한 不定期 祭儀로 여름 농사철에 벌레나 물컷이 많으면(?祭와 비슷한) 당지를 올린다.

이러한 이곳의 당지는 1950년 전까지는 엄수 되었고, 1960년대에 消滅되었던 듯하다.

보충조사시에 당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중단되어서 구체적 내막을 알고있는 제보자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제장 주위에 서 있던 소나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영험담

마을민의 당에 대한 의식은 당할매가 마을을 지켜 내려오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에 대한 얘기로는 “보리밭에 청충(?)이 많이 빠졌는데 당지를 지내고나니 하루이침에 보라지(벌레)가 다 없어졌다”와 “여름에 가뭄이 들어 지사(제사)를 지내고 당을 내려오니 청명했던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작은재(옆에 있는 작은 언덕)로부터 비가 몰아왔다.” 또, “땀 마을에 나쁜 병이 나돌았으나 당할매가 몰아내서 이 마을은 무사했다” 등이 있다.

□ 제 보 자 : 부금덕(여, 75) 대척리에서 시집옴.

(조사일시 : 2005년 4월 19일)

(2) 기우제

① 안좌면 구대리 기우제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구대리는 마을 북쪽에 위치한 매봉산 봉우리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나) 제의 준비 및 진행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의논을 한다. 날짜가 잡히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뭇짐을 가지고 나와 매봉산 봉우리에 올랐다. 가지고 온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이때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제를 지낸 후 특별한 행사는 없다. 40여 년 전까지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 제보자 : 안좌면 구대리 김애단(여, 77) 안좌면 반월리에서 시집옴.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② 안좌면 한우리 기우제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한우리는 뒷산인 봉산(181.9m)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이때 인근 신촌리와 대우리, 방월 리 사람들이 함께 기우제를 지냈다. 인근 마을에서는 ‘한우리 똥구멍을 지진다’고 하면서 불을 질렀다고 한다.

나) 제의 준비 및 진행

제사를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날짜를 잡아 불을 질렀다. 이때 각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들고와서 봉산 정상에 쌓아놓고 비가 오기를 기원하며 불을 질렀다고 한다.



사진 16. 한우리를 비롯한 인근 마을의 공동 기우제터, 봉산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50~60년 전까지 기우제를 지냈다.

□ 제보자 : 부금덕(여, 75) 대척리에서 시집옴.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③ 안좌면 대우리 기우제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대우리의 기우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인근마을들과 함께 한우리 뒷산에서 불을 지르는 것과, 마을 뒷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있었다. 처음에는 한운리와 신촌리, 방월 리가 모여 '한운리 똥구멍을 지진다'고 해서 한우리 뒷산인 봉산에서 불을 질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뒷산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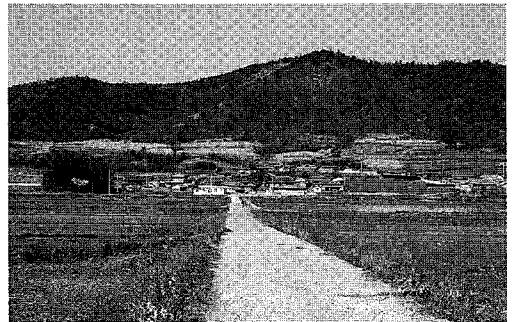


사진 17. 안좌면 대우리 기우제터, 마을 뒷산 정상

나) 제의 준비 및 진행

인근 마을들과 연합해서 기우제를 지낼 때는 나무를 들고 한우리 뒷산으로 올라간다. 정상에 도착하면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여름에 낱짜를 잡고, 제관을 선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를 지낼 때까지 몸을 정결하게 한다. 제관에 대한 금기가 엄격하기 때문에 주로 홀로 사는 남자를 제관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제일이 되면 제관과 마을 사람들이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1945년까지 기우제를 지냈다.

라) 영험담

기우제를 지내고나서 비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연 3년동안 가뭄이 들어 계속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가뭄 때문에 메밀을 2모작으로 갈아먹었다고 한다.

□ 제보자 : 최자섭(남, 79)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3) 입석

① 안좌면 대리 보지바우와 좃바우

가) 위치 및 형태

대리는 159호(농가 117호, 비농가 42호)에 631명(남 318, 여 313)이 살고 있는 안좌면에서 제일 큰 마을이다. 마을은 읍동에서 7.5km 거리로 버스가 두 시간마다 읍동 선착장과 대리 間을 운행하고 있다. 姓氏는 경주정씨와 밀양박씨가 많고 시설물로는 안창국교(774번지 소재)와 이사무소, 농협분소, 장로교회가 있다. <1985년 현재 ; 면통계자료>

마을에는 3基의 성기바위가 있고, 그 중 2基는 음력 정월 초하루에 거행되는 “당제”, “祠堂祭”, “수호제”의 하위신에 해당된다.

상당은 원래 “당마당”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30년 전에 그곳에서 500m 거리에 있는 案山 중턱에 神堂 집을 새로 짓고 제를 지내고 있다. 당마당은 마을 중앙에 있는 이사무소 앞 古松(堂木 또는 당나무라 부름) 10여 그루가 있는 공터이다. 예전은 이곳에 돌담이 쌓여 있었고 주위는 松林이 우거져 있었다고 하는데, 당 주변에 안창학교가 생기고 人家가 들어서면서 당이 더럽혀지자 마을에 우환이 있어 당집을 짓고 좋은 날을 택해 마을 노인들이 절차를 밟아 옮겼다고 한다.

하당은 마을입구 교회당 옆에 있는 우실(우술이라고도 함)과 앞의 性信仰에서 서술한 길가 양쪽에 있는 2기의 陽石이다.

그러나 대리당은 최덕원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보지바우가 上堂이다가 현재의 神堂으로 옮겨졌고, 당마당은 中堂으로, 下堂은 마을입구 우실과 2기의 陽石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사자가 최교수의 조사내용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임했음에도 보고된 상당은 단순한 성기바위로 느껴졌으며 중당은 상당으로 채록되었다.

이러한 당의 규모나 형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上堂은 당집으로 크기는 높이가 2.6m, 가로 4m, 세로 2m의 부르크로 된 2間 맞배와가이고 정면

에 “神堂”이라 적혀 있다. 좌측 1間은 창지에 〈佑里神主大察之位〉라 기록된 당할머니의 神位가 벽에 붙었고 밑에는 현재 많이 사용하는 스텐그릇, 플라스틱 접시, 유리그릇과 수저젓가락이 흩어져 있었다. 우측 남은 1간은 祭器庫로 술, 바케스, 양푼, 고무대야, 기와가 흠뻑은 채 놓여 있고 벽에는 〈祠堂建築寄金收入支出記〉가 붙여 있어 수입이 82,510원, 지출 82,535원임을 알 수 있었으며,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신당은 上梁이 1970년(庚戌) 2월 27일 午時로 落成은 지출기에 동년 3월 22일로 되어 있다. 당 주위는 고송이 우거져 당집을 덮었고 나무에는 원새끼 금줄이 쳐져 있다.

하당은 우실과 2基의 陽石이다. 우실은 마을 입구 古木 팽나무가 줄지어서 마을을 가리우고 있는 곳을 이르는데 이는 액막이, 裨補,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 이들 바위는 당제의 下堂에 해당하는데 위치는 마을 입구 도로의 응금재라 불리는 지역 부근 발 가운데 600~700m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서 있다. 이 중 1기는 마을 입구의 서측 발에 세워져 있으며, 전체 크기는 높이가 150cm, 얼굴둘레 87cm, 몸통둘레 153cm이다. 基壇은 높이 85cm, 폭 40cm인 四角石柱이며, 상부에는 거칠게 다듬은 男根石을 조각하여 놓았다. 남은 1기는 동측의 교회당이 있는 우실(우술이라고도 함)옆 발 가운데 서 있다. 전체 크기는 높이가 260cm, 폭은 40cm인 화강석으로 四角石柱형태이다. 부분 세부 높이는 地台石 63cm, 笄石 158cm이며 上部는 약간 굽었으나 40cm로 蓮峰形 또는 男根形이나 삿갓을 씌운 듯한 형태이다.

나) 유래 및 관련 전설

성기바위 중 먼저 “보지바우”, “공알바우”라 불리는 1基는 마을뒷산 後洞山(151m)頂山部에 있다. 여자의 성기형태인 이 바위는 사방 10m의 자연암석이다. 조사자는 많은 바위로 이루어진 이 후동산에서 다른 큰바위의 상부에 있는 여자성기 바위를 찾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 이 바위를 마을 부녀자들이 쳐다보면 바람이 나고, 마을에서는 이 바위가 바라보이면 동네가 망한다고 한다. 그래서 서인지 바위 주변은 소나무로 뺨뺨 했으며, 이곳의 소나무는 마을에서 베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남은 2基의 성기바위는 보지바우로 인해 골치를 앓던 마을민이 여자성기의 힘을 막아 부녀자의 바람기를 방지하고자 세웠다고 하는데 “쫓바우”, “男根바우”, “망주석”, “음바우”라 불리운다.

다) 관련 제의

한편 이 마을은 “里堂祭”, “수호제”, “神堂祭”, “祠堂祭”를 지내는데 음력 초사흘 밤 12시경에 祠

당에 거처하는 당할머니께 마을의 번영과 부귀영화, 농사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거행한다. 祭神인 당할머니의 상대신(혹은 부부신) 당할아버지는 박지도에 있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 조사에서 박지도는 당할매를 모시고 있었다. 대리의 당은 상당과 하당이 있다.

제관은 “시엄씨”, “시압씨”(진설담당), “며느리”(심부름) 3명으로 이장이 부락민과 함께 가장 깨끗하고 연령과 운이 맞는 사람 또는 生氣福徳을 맞추어 선출한다. 1985년 제관은 배순성씨(남 50세, 시압씨), 김동주씨(남 60세?, 시엄씨, 거주한지가 3~4년 정도 됨), 김동주씨의 동서(?, 며느리)가 맡아 거행했다.

祭後에 神堂 그리고 우실고목과 마을주변 고목에 금줄을 치고 빨간 황토를 군데군데 뿌린다. 제관은 정월 초하루에서 초사흘까지 사흘간 마을 뒤 당새미(당새암 ; 지금은 안창국교 간이급수탱크가 되었다)에서 목욕재계하고 당에 올라 청소, 제물장만(현재 제관집에서 함)하고 불피고 놀다가 거석피고 그곳에서 잔다.

祭物은 제관이 인근지역이나 목포에서 구입하는데 밥, 제주, 흰떡, 송아지머리, 김, 지편(전, 편?), 명태, 평국을 장만한다. 이 중에서 밥은 깨끗한 집에서 구입한 쌀로 하고 송아지머리 외에 소나 돼지고기는 놓지 않고 명태는 날것으로 놓으며 양념은 간장만 사용한다. 평국은 예전에 평몰이를 하여 잡았으나 지금은 놓지 않는다. 평몰이는 뒷동산과 안산에서 몰면 쫓기어 힘이 빠진 평이 부락가운데 당마당으로 떨어지게 하여 잡는데 마을민은 “당영금”에 의해서 잡힌다고 한다.

제비는 호당 500원씩 “봉양전”을 건었으나 1984년 부터는 봉양전 대신에 12월말 농약이 가까호호 방문하여 1,000원씩을 거출하여 충당하였다. 거출된 금액의 절반은 제후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祭는 진설, 현작, 독축(현재는 않는다), 소재 올린다, 내전 피운다는 순으로 진행된다. 소재는 공동소지와 개인소지로 나누어서 올린다. 공동소지는 “동네살고 있는 사람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고 농사풍년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며 개인소지는 祭物이나 소지를 회사하면서 부탁하면 이름을 부르면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하고 올린다. 이때 제관은 소지가 잘 타면 한 해가 좋다는 占을 해준다. 내전 피운다는 것은 神堂祭 후 하당인 우실과 양석 그리고 마을주변 금줄이 쳐진 고목에 제물을 놓고 비는 것으로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 제후에 제물은 원래 마을민이 나누어 먹었으나 현재는 제관끼리 먹는다.

제후에는 농약, 줄다리기, 씨름, 부락총회 등을 했으나 지금은 부락총회를 제외하고 않는다. 부락총회에 마을민은 제물 외에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마을사를 의논하고 단결을 도모한다.

祭日은 産故가 없도록 하되 만일 산고가 있게 되면 미리 다른 마을로 가서 낳고 오게 하고 있다.

몇 해 전 제관이 제를 지내고자 당에 오른 후 마을에 산고가 있어 추하다고 하여 다음달로 날을 받아 다시 지낸 적이 있었다고 한다.

堂神의 영험에 관해서는 겨울에 당새미물로 목욕하거나, 제관이 제당에 머물러도 눈이 없어 춥지 않았고, 4~50년 전 부정한 사람이 제물을 먹고 버버리(병어리)가 되었다. 하며 당집을 지은 후 장로교인과 젊은층이 제를 지내지 않았다가 그 해 젊은이가 많이 죽음으로써 마을 노인이 주동이 되어 다시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유래가 있다. 어쨌든 이러한 영험에도 불구하고 대리의祭도 세파에 몰려 한동안 지내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마을민은 선조의 유래이니 미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씩 마을 단결을 위해서라도 지내자는 의견이 모여져 간소하게나마 지내오고 있다.

□ 제보자

박창오(남 48세 대리 안창마을 거주) ; 본관 밀양, 목포高 출신, 마을이장 지냄, 20세에 친정인 沙雉里인 당시 19세의 부인과 결혼 슬하에 3남 1녀를 두심. 조사는 박씨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몇 분이 참여했다.

정은삼(남 70세, 대리 안창거주) ; 마을 본토박이로써 본관은 慶州, 결혼은 22세에 당시 17세로 친정인 長山島인 부인과 결혼하여 3남 5녀를 두었으나 자식들 모두 외지로 출타하였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년, 42~43쪽

李鐘哲 외, 『한국의 성신앙 현지조사』(국립광주박물관 학술총서 제 9집), 1984년, 16~17쪽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14~118쪽

② 舊垆里 씩바우

가) 위치 및 형태

구대리는 58호에 260명(남 132, 여 128)이 농업을 주생업으로 하여 살고 있는 마을이다. <1985년 현재 ; 먼통계자료> 조사자가 1985년 7월 12일 씩바우에 대해 알고자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을민 정복남씨(남 57세, 농업, 5남 1녀를 둬)는 “얼마전에 동네처녀들이 시멘트로 막어 버렸다”고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기를 꺼리는 등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조사가 되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이미 소개된 문헌과 조사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마을 앞에 있는 案山の 堂神龕에 “썩바우”, “女根岩”, “女根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높이가 약 5~6m, 둘레 약 30여m 되는 自然石으로 형태는 여자의 성기를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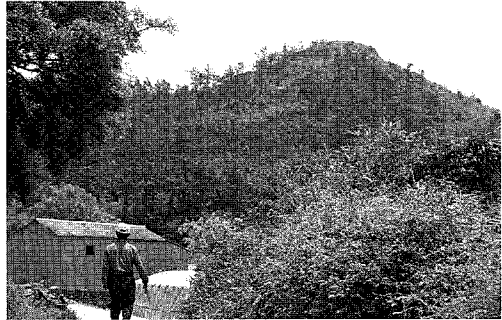


사진 18. 안좌면 구대리 썩바우

2005년 5월 15일 조사에서는 멀리서 바위의 형태를 촬영할 수 있었다. 썩바우를 가리고 있

던 소나무들이 고사해서 바위를 볼 수는 있었지만, 주위에 숲이 우거지고 길이 나지 않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는 없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여자의 형태라고 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 유래 및 관련 전설

구대리 썩바우는 소나무에 가리워져 있는데 마을민은 나무를 베면 구대리 뿐만 아니라 소리, 내호 부락의 동네 처녀들이 바람이 나거나 오줌소태가 난다고 믿고 있다. 부녀자들이 이곳에 접근하면 바람(음탕기)이 나서 가축이 많으므로 접근을 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썩바우를 가리고 있는 소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훼손할 수 없다.

보충 조사에서 여성의 형태를 띤 썩바우와 대비되는 바위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 결과 타 제보자들은 모른다고 했으나, 장동욱은 내호에 썩바우와 반대되는 남성 상징의 바위가 있다고 했다.

□ 제보자(조사일시 : 2005년 5월 15일)

김재월(여, 79) 안좌면 읍동에서 19살에 중매로 장남에게 시집옴. 6남매를 두었음.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음.

권양남(여, 74) 임자면 삼두리 부동마을에서 19살에 시집옴.

장동욱(남, 68)

□ 기존자료 제보자

정복남(남 57세, 구대리 거주). 고향은 목포이고 이곳에 거주한 지는 50년 정도 되었다. 23세에 결혼하여 5남 1녀를 두었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 부제관을 지낸 경험이 세 번 정도 된다.

□ 참고문헌

이종철 외, 『한국의 성신앙 현지조사』(국립광주박물관 학술총서 제 9집), 1984, 15~16쪽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11~114쪽

③ 閑雲里(하누) 하누마을 씹바우

가) 위치 및 형태

하누는 읍동에서 7km 떨어진 마을로 39호(농가 38호, 비농가 1호)에 166명(남 80명, 여 86명)이 거주하고 있다. <1985년 현재 ; 면통계자료> 居住姓氏는 金海金氏가 29호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그 외 長興高氏 6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동북방향에 있는 뒷고랑(뒷산)에는 “씹바우”, “보지바우”, “씹샘”이라 부르는 성기바위와 당지(제)의 祭場인 “後堂”이 위치한다.

나) 유래 및 관련 전설

씹바우는 여자의 生殖器처럼 생긴 바위낭 끝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데, 바다 넘어 김씨 묘소의 男性器인 “좃등”의 지형과 맞아 떨어진다. 또한 “낭”이 직접 보이면 그쪽 동네가 안 좋다하여 海松을 심고 김씨문중에서 얼마 전 이 땅을 사 버렸다.

□ 제보자

李蘭禮(여 82세, 한운리 거주) ; 본관은 陽城, 이장 金基浩씨(46세) 母親이며 八禽 邑里에서 20세에 하누로 시집와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다.

金柱植(남 69세, 한운리 거주) ; 하누에 9대째(?) 거주함.

金三植(남 42세) ; 1969년 문화재관리국 설문지 조사기록책임자, 당시 안좌국교 근무.

□ 참고문헌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18~119쪽

(4) 뱃고사

水産儀禮는 한정된 시간이어서 안좌면 전체를 세밀히 조사하지 못했다. 다만 어선을 부리신 경험 있는 분을 대상으로 “뱃고사”에 관해서만 조사하였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안좌면 뱃고사 문화내용 분석표〉

리	제보자		고사명	神名	神格	形態 및 位置	時期 (祭日時)	祭場	祭主	祭物	기타
	성명	연세									
方月里	정정남	68세	뱃고사	선영	여선영	삼색 형짚을 방장간에 걸어둔다.	배가 영선할 때, 고쳤을 때, 명절 때(조금 넘고 물이 든 날)	뱃머리, 배중간, 船尾	선주 · 무당	돼지머리, 해물, 노물, 떡, 밥, 국, 술 등	제 후에 현식을 함
半月里(반월)	장수복	74세	뱃고사	선왕님·뱃귀신	여선왕	삼색 실과 형짚, 창호지, 바늘(3)을 배이물에 걸어둔다.	달(月)마다 지내거나 凶漁때(서무셋날 만조시 낮)	뱃머리(이물), 배의 중간(귀양), 船尾(선원실)	선주 · 선장	돼지머리, 해물, 나물, 떡, 밥, 국 등	제 후에 바닷가에서 퇴시사를 함
半月里(퇴촌)	김용복	61세	뱃고사	堂神	女堂神	삼색 천과 바늘, 실을 당에 걸어둔다.	달(月)마다 지내거나 凶漁때(서무셋날 만조시 낮)	배의 성주방, 튀지간, 정계	선주 · 선장	돼지머리, 해물, 나물, 떡, 밥, 국 등	제 후에 바닷가에서 갓고사를 지냄
朴只里	정용선	58세	뱃고사	서낭	여선영	삼색 베를 걸어둔다.	배가 나갈 때, 배를 났을 때, 명절 때		선주	돼지머리, 해물, 나물 등	

① 안좌면 방월리 뱃고사

가) 時期 : 설날 등 명절 때나 어장배가 출항할 때(영선할 때), 그리고 배를 고쳤을 때 날을 받아 지낸다.

나) 場所 : 뱃머리나 중간, 船尾에 제물을 차려 놓는다.

다) 祭物 : 돼지머리와 해물, 떡, 노물(나물), 국, 밥, 술 등을 준비하며 어로 중에 처음에 잡은 큰 고기는 제숙 하여 선영 옆에 걸어 놓았다가 다음 뱃고사 시에 제물로 바친다.

라) 祭日 : 조금이 넘고 물이 들 때 낮에 지낸다.

마) 祭主 : 선주

바) 神名 : 선영

사) 神格 : 여선영

아) 形態 및 位置 : 여선영은 형짚을 색깔별로 삼색을 걸어 두는데 남선영은 백지만 걸어둔다. 선영은 방장간(?)에 모신다.

자) 祭次 : 먼저 선주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배에 가서 지낸다. 祭는 술을 붓고, 기원하며 재배한

다. 그리고 음식을 조금씩 떼어 바다에 던져 헌식하고 제물은 마을 주민이 나누어 먹는다.

차) 祈願 : 당골을 데려다가 무사고와 고기를 잘 잡게 해 달라고 빈다.

카) 기타 및 금기사항 : 뱃고사 시에는 친척이나 친구들은 “豐漁”라 쓴 旗를 만들어 오는데 이 旗를 풀고 북, 장구를 치며 놀이를 한다.

꿈은 집에 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늘에서 용이 들어오면 만선의 길몽이고, 여자를 꿈에 보면 흉몽이다. 금기사항은 임신부나 상가집 사람은 뱃고사 지내는 곳에 오지 않으며 또 개고기 먹은 사람도 절대 금물이다.

해상시의 금기로는 아침에 꿈이야기를 하지 않고, 노루말을 하지 않으며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 제보자 : 정정남(남 68세, 농업, 방월리 거주) (조사일시 : 1985년 7월 9일)

□ 참고문헌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52~156쪽

② 안좌면 반월리 반월마을 뱃고사

가) 時期 : 달(月)마다 告祀를 지내기도 하고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에 두·세번도 지낸다.

나) 場所 : 뱃머리(이물), 배의 중간(귀양), 船尾(선원실)에 지낸 후 “퇴고시”라 하여 바닷가에서도 지낸다.

다) 祭物 : 돼지머리, 떡, 나물, 밥, 국, 해물 등을 놓는다. 어로 중에 잡은 큰 고기는 비늘을 벗기지 않고 배를 따서 건조시켜 선주 집에 놓아두는데 이를 “제숙탄다”고 한다. 제숙에는 여자가 손을 대면 좋지않다 하여 대는 것을 금한다.

라) 祭日 : 서무쟁날 물이 만조시인 낮에 지낸다.

마) 祭主 : 선주나 선장

바) 神名 : 선왕님(배귀신이라 부르기도 함)

사) 神格 : 여선왕

아) 形態 및 位置 : 여선왕은 삼색실에 인조 삼색을 두 치씩 떠서 걸고 그 위에 창호지를 입히고 바늘 세 개를 꽂아 배이물에 걸어둔다. 선왕을 새로 마련할 경우는 앞전에 있던 神?를 태워버린다.

자) 祭次 : 배에서 먼저 고사를 지내고 갯가로 나와서 퇴고시를 한다. 퇴고시는 쪽박에 재물을 조금씩 담고 거기에 술도 부어서 “그물 널 적에 여러 성반이 와서 고기 많이 잡게 해 주소”하고 외치면서 던진다. 퇴고시를 한 후에 재물을 나누어 먹는다.

차) 祈願 : 뱃고사에서는 “몰라라 하오리가 선왕님께 금일 피를 올립니다. 福은 석순이(부자였던 사람) 복을 점지하고, 命은 무쇠 닳줄로 점지해 주시고 어디가든지 그저 소문 과문나게 고기 많이 잡어 주기를 바랍니다.”고 하고 퇴고시에는 “여러 성반이 와서 고기 많이 잡게 해 주소”라고 기원한다.

카) 기타 및 금기사항 : 제보자의 경험에 의하면 그가 어떤 집에 물건을 맡겼는데 선몽하기를 “애기 낳았다 하여 소두랑이(솔두경) 빨하였다”고 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산고달에 있는 가정에 물건을 맡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왕옷을 다시 만들고 밥을 해서 빌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다른 선주에게 들은 얘기로 산고가 든 집에서 당옷을 했는데 고기가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아 문복한 후에 그 원인을 알고 새로 당옷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선왕께 빌었다고 한다.

뱃고사에는 임신한 자, 상가집 사람, 또는 개고기를 먹은 사람은 참석할 수 없다. 해상에서 금기사항으로는 “또”와 “고기 못 잡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휘파람을 불어서도 안 된다. 혹 배 안에 쥐가 있을 경우에는 좋게 몰아내야 한다.

□ 제보자 : 장수복(남 74세, 반농반어, 반월리 반월마을 거주). 반월 구이장의 소개로 마을회관에서 대화. (조사일시 : 1985년 7월 11일)

□ 참고문헌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52~156쪽

③ 안좌면 반월리 퇴촌마을 뱃고사

가) 時期 : 어장철이나 명절 때

나) 場所 : 방의 성주방 튀지간, 정계(부엌) 그리고 바깥에서 “갯(바깥)고사”를 지낸다.

다) 祭物 : 돼지머리, 떡, 나물, 밥, 국, 해물 등을 놓고 과실은 놓지않는다.

라) 祭日 : 서무셋날 만조시 낮에 지낸다.

마) 祭主 : 선주, 선장(사공)

바) 神名 : 堂神

사) 神格 : 女堂神

아) 形態 및 位置 : 삼색 천과 바늘, 실을 堂에 걸어둔다.

자) 祭次 : 먼저 배에서 밥 세 그릇을 차리고 고사를 지낸 다음에 바닷가로 가서 갓고사를 지낸다. 그리고 나서 마을민이 모여 제물을 나눠 먹는다.

□ 제보자 : 김용복(남 61세, 농업, 반월리 퇴촌마을 거주). 반월마을 당제의 당주를 지낸 경험이 있는 분이다. (조사일시 : 1984년 7월 11일)

□ 참고문헌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52~156쪽

④ 안좌면 박지리 뱃고사

가) 時期 : 설날이나 추석의 명절 때 그리고 배가 나갈 때나 배를 널 때 지낸다.

나) 祭物 : 돼지머리, 해물, 나물 등을 선주 집에서 장만하여 배로 가져간다.

다) 祭日 : 설날이나 추석의 명절 때 지낸다. 만선 시에 처음 잡은 큰 고기는 제숙 하여 두었다가 다음 告祀 시에 제물로 올린다.

라) 祭主 : 선주

마) 神名 : 서낭

바) 神格 : 여서낭

神의 선별은 선몽을 통해서 구별하는데 꿈에 여자가 나타나면 여서낭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남서낭이며 돼지가 나타나면 돼지서낭이 된다.

사) 形態 : 삼색의 옷베(천)를 올려 놓는다.

아) 祈願 : “갈 때 뒷바람 불고 올 때 뒷바람 불게 하여 고기를 한 배 씩 실어주소” 하고 빈다.

□ 제보자 : 정용선(남 58(62?)세, 농업, 박지리 거주). 4대째 박지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슬하에 4남 3녀를 두셨고 박지 당지의 제관을 역임했다. (조사일시 : 1985년 7월 11일)

□ 참고문헌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152~156쪽

(5) 가신신앙

□ 제보자

㉠ 신영임(여 54세, 방월리 거주) : 민간의료 및 금기, 주술 제보자란 참조.

㉡ 정옥자(여 47세, 방월리 406번지 거주), 오광자(여 43세, 방월리 거주) : 정씨는 새마을지도자 정원섭씨의 부인으로 22살에 남강리에서 시집와 2남 4녀를 두었고 밭이 많아 밭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오씨는 정씨와의 대화중에 오셨는데 친정은 박지도이다.

㉢ 김광용(남 49세, 방월리 404번지 거주), 양화초(여 80세) : 산속 제보자란 참조.

㉣ 정주섭(남 62세, 방월리 거주), 김광용(남 49세, 방월리 404번지 거주)

㉤ 정진우(남 46세, 방월리 거주)

㉦ 신영임(여 54세, 방월리 거주), 장삼례(여 68세, 방월리 거주) : 장씨는 친정이 반월도.

① 성주

방월리에서는 가정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성주” <제보 ㉠, ㉡, ㉢>, “성주동우”, “성주동오”, “성주항아리” <제보 ㉣>, “조상하나씨” <제보 ㉤>라 부르는 신(神)을 모신다. 이 신은 집의 마래(또는 마리) 구석에 4~5말 정도 넣을 수 있는 큰 곡식 항아리로 그 위에는 두꺼운 나무 판데기를 덮어 두었다. 이 나무 판데기 위에는 추하거나 더러운 것을 올려놓지 않는다. 조사 당시 제보자 김광용씨는 높이 55cm, 주둥이 직경 30cm, 腹經 50cm인 성주동오와 “상가득 식량”, “큰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라 하여 여러 곡식 항아리를 보여 주었다. 또 제보 ㉠은 성주동우를 마래 상량 밑에 두었는데, 상량 문 밑에는 “성주”라 하여 대나무와 참종이로 길게 지전(紙錢)을 한 묶음 쳐서(오려서) 매달아 놓았다.

이사를 하거나 새로 살림을 차려 神을 모실 때에는 크고 좋은 동우를 구입하여 모신다. 제보 ㉠은 큰집에서 분가할 때 시어머니가 구입하여 봉안하여 주셨다고 했다. 이러한 성주동우에는 쌀 등의 여러 곡식을 담아 놓는다. 봄이나 가을에 햇곡식이 나오면 손이 없는 날을 받아(택하여) <제보 ㉠> 술, 밥, 물을 떠 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 바꾸어 담는다. 이때 동우에 있던 묵은 쌀은 밥을 해 먹는다. 단, 배가 아프거나, 감기 <제보 ㉠>, 홍역, 애기가 아프거나 제사 때에는 해먹지 않는다.

성주는 집안편안을 목적으로 모셔두는 것이다. 여기에는 司祭者인 여자(主婦)가 명절이나 제사 때 제일 먼저 음식을 나무 판데기 차려 놓는다. 제보 ㉢은 성주에 음식을 차리는데 있어 명절에는 먼저 모시나, 제사 때는 나중에 모신다고 했다.

제보자들은 한결같이 성주동우를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 깨끗이 하며 함부로 열어 보거나 손을 대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産故時에는 추하다고 하여 손을 대지 않는다. <제보 ㉠, ㉡> 혹, 집안에 큰 곳이 열리면 성주에도 치나<제보 ㉢> 특별히 占卜을 행하지는 않는다. <제보 ㉣> 이러한 성주동우에 대해 제보 ㉤와 ㉥은 “옛날부터 할매들이 놔둔 것이니깐 안 버리고 두고 있긴 현디 쌀은 담아 놓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다.

② 지앙

보통 큰댁에서 후손을 보살피 주십사 하고 모시는 神으로 “지앙”, “지앙동우”<제보 ㉦>, “지앙할매”<제보 ㉧, ㉨>, “조상할매”<제보 ㉩>, “아내오가리”<제보 ㉪>라 부른다.

위치는 큰함새(?)나<제보 ㉦> 제일 눈에 든 동우(오가리)를 참종이로 주둥이를 봉한 다음 뚜껑을 덮어 <제보 ㉣> 안방의 시렁(선반)에 모신다. 동우속에는 성주와 같은 쌀을 담아 놓는데, 새나락(헛곡식)이 나면 성주와 함께 좋은 날을 택해 바꿔 담는다. 이때 묵은 쌀은 초상(喪故)이 난 곳으로 가지 않게 주의하여 해 먹는다.<제보 ㉦> 지앙동우에는 제사를 제외하고 명절 또는 생일 때 집안 큰며느리가 밥, 떡, 물<제보 ㉣>, 고기, 나물 등을 차리고 “집안 무사태평과 아기들 병 없이 命 길게 해 주고 젓 많이 태주라(나오게 해달라)”고 빈다.<제보 ㉥> 또는 집안에 애기가 아프면 지앙동우의 쌀로 밥을 하여 상차리고 빈다<제보 ㉦>. 혹, 집안에 産故가 들면 할매들이 지앙오가리에 “집안 잘 되고 애기 건강히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빌며 출산 시 애기가 더디게 나오면(難産) 오가리에 미역을 얹어 놓고 빈다.

<제보 ㉣> 지앙동우를 10여 년 전에 치웠는데 깨끗한 곳에 Tm지 않는다 하여 구정물을 부어 없앴고 한다. 그러나 없애기 전은 절대 옮기지 않고 함부로 손을 대지 않고 깨끗이 하였다. 또 안좌면 존포리에서 19세에 시집오신 양화초 할머니는 큰집에서 거주했을 때는 모셨으나 분가하면서 모시지 않았다고 했다<제보 ㉥>.

③ 삼신

안좌에서는 애를 태워주는 일을 하는 삼신으로 “삼신할매”<제보 ㉣>, “지앙할매”<제보 ㉦, ㉧, ㉨, ㉩>, “지앙동우”<제보 ㉦>, “삼신동우”<제보 ㉪>, “안지앙”<제보 ㉫>을 모신다. 삼신동우는 쌀 두 말 가량이 들어가는 큰 동우로 지앙할매가 모셔져 있는 선반 아래에 모신다. 이때 쌀은 아이가 태어나서 일곱이레(49일)가 지날 때까지 산모와 가족이 먹을 식량이라고 한다. 삼신은 안방선반에 있는

지양할매와 함께 孫 을 태워주고 보살펴 준다하여 같은 神 으로 취급되었다.<제보 ㉠>

삼신동우에는 미역을 걸어 놓았으며, 삼질과 매 이레(7일) 때 아침 마을민이 일어나기 전 물을 길 어다가<제보 ㉠> 밥, 미역국, 물을 차리고 빈다. 이때는 주로 부모나 형제간 중 산모를 간호하는 사 람이 하는데 “얹을 줄 설 줄 모르는 개 같은 아이 잘못 하더라도 잘 보아 달라”<제보 ㉡> 또는 “어린 애 잘 지켜 주고 추한 사람 들어와도 눈떠보지 마라”<제보 ㉢> “애기 건강히 커서 훌륭한 사람 되 라”<제보 ㉣>고 빈다.

産故가 들어 삼신할매가 있을 때 집안에 喪室이 있으면 상실문을 열지 않는다. 이때는 상실에 밥 을 차리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혹 차리고 싶을 경우는 상실문을 열지 않고 문밖에다 음식을 놓는다.< 제보 ㉤> 이 삼신할매는 일곱 이레가 지난 다음날 아침이면 치운다.

④ 門前지양

산고(産故)가 들면 안방에는 삼신을 모시고 대문에는 검줄을 치고 그 외에 “문전지양”, “바깥지 양”으로 불리는 신도 함께 모신다.<제보 ㉥> 문전지양은 삼신할매와는 달리 토방 위나 마루 기둥에 짚물(짚단을 묶어서)을 “애기낳다”는 표시로 세워 놓는다.<제보 ㉦, ㉧, ㉨> 出産을 나타내는 검줄 (금줄)을 대문에 치지만 혹 추한 사람이 이를 보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집안으로 들어오면 문전지 양이 이를 물리친다. 그래서 제보 ㉩는 삼신할매보다 문전지양의 힘이 더 강하다고 얘기 했다.

문전지양에는 삼신할매와 같은 삼질과 매 이레(7일) 때 바쿠리에 밥, 미역국, 물을 담아 놓는다.< 제보 ㉪, ㉫> 이 신은 일곱 이레가 지나면 치운다.

⑤ 금줄

출산 후 집의 입구(보통 대문)에 추한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검줄”을 친다. 검줄의 형 태는 원살로 간 새끼(원새끼)에 아들일 경우는 짚으로 만든 봉알, 고추, 숯을, 딸은 참종이와 숯을 끼웠다.<제보 ㉬, ㉭> 조사자가 제보자 정진우씨 댁을 방문했을 때 아들 검줄에 짚으로 만든 남근 형태 3개가 늘어뜨려져 있었다.

검줄은 망중(일곱) 이레 때 거두어 두었다가 호녃(홍역) 들면 다시 걸어둔다.<제보 ㉮>

⑥ 조왕

부엌의 부뚜막에 모셔 놓은 신으로 “조왕”<제보 ㉯>, “조왕단지”로 불리운다. 형태는 뚜껑이 있는

사기중발에 물을 주부가 떠다 놓았다. 조왕물은 매인르 아침마다 떠놓는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제보 ㉠> 하룻날(1일)이나 보름날(15일)에 마을 샘에서 길러 갈아 올리고 조왕공을 드리기도 한다.<제보 ㉡> 조왕물을 갈 때 담아져 있었던 물은 아무데나 더러운 곳에 버리지 않고 물수양(항아리)에 붓는다.<제보 ㉢>

조왕신에 대한 제의는 명절이 되면 성주보다 먼저 밥, 노무새를 차리고, 집안에 큰 곳이 있으면 이곳에 시리를 놓고 조왕굿을 한다.<제보 ㉣, ㉤> 방월리의 제보자 신영임씨는 조왕을 모시지 않은 지가 꽤 오래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신을 없앨 때는 공들인 그릇이라고 하여 깨끗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추한 곳으로 내보냈다고 한다.<제보 ㉥>

□ 참고문헌

『도서문화』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97~101쪽

4. 구비전승자원

1) 구비전승자원 목록

(1) 설화 목록

번호	대분류명	중분류명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비고
1-1-1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매월봉	최용주(남,73)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1-1-2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베락바우	최용주(남,73)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1-1-3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마을내력	최용주(남,73)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1-1-4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사장골	정상기(남,70)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1-1-5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말목	박창호(남,48)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1-1-6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공알마우	박창호(남,48)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1-1-7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소섬전설	박순규(남,68)	안좌 대리	1985. 7	『도서문화』4	
1-1-8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북새미고랑		안좌 여홀리	1985. 7	『도서문화』4	
1-1-9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연애고랑		안좌 여홀리	1985. 7	『도서문화』4	
1-1-10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영바우	박창화(남,48)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1-1-11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음바우	박창호(남,48)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1-1-12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말무덤	박창호(남,48)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1-1-13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관청동	최귀금(여,54)	안좌 소척	1985. 7	『도서문화』4	
1-1-14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만승지지	김기운(남,67)	안좌 소척	1985. 7	『도서문화』4	
1-1-15	솨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작은되 큰되 바우	김일만(남,67)	안좌 서서리	1985. 7	『도서문화』4	
2-2-1	내력·인물이야기	장수·이인이야기	장사바우	최용주(남,73)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2-3-1	내력·인물이야기	효녀·효부이야기	효부이야기	김태조(남,85)	안좌 산두리	1985. 7	『도서문화』4	
2-4-1	내력·인물이야기	범인이야기	부자된 이야기	박창호(남,48)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2-4-2	내력·인물이야기	범인이야기	선비와 도둑호랑이	김일만(남,67)	안좌 소척	1985. 7	『도서문화』4	
2-4-3	내력·인물이야기	범인이야기	원님의 예언	김태조(남,85)	안좌 소척	1985. 7	『도서문화』4	
2-4-4	내력·인물이야기	범인이야기	당골의 딸	김태조(남,85)	안좌 산두리	1985. 7	『도서문화』4	
2-4-5	내력·인물이야기	범인이야기	어린신랑	정덕임(여,85)	안좌 산두리	1985. 7	『도서문화』4	
3-3-1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부조 산두 간다	박창호(남,48)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3-3-2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담배밭과 중	김태조(남,85)	안좌 산두리	1985. 7	『도서문화』4	
3-4-1	생활이야기	풍속이야기	토끼와 서숙	김애순(여,71)	안좌 마진리	1985. 7	『도서문화』4	
4-1-1	초자연이야기	당·제의이야기	당제	박창호(남,48)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4-1-2	초자연이야기	당·제의이야기	점하는 팽나무	김모갑(남,48)	안좌 시서리	1985. 7	『도서문화』4	
4-2-1	초자연이야기	귀신이야기	귀신된 이야기	김애순(여,71)	안좌 마명리	1985. 7	『도서문화』4	

(2) 민요 목록

번호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모찌는 소리	박순규(남,68)	안좌면 대리	1985. 7	『도서문화』4
2	홍타령(어랑타령, 청춘가)	박순규(남,68)	안좌 대리	1985. 7	『도서문화』4
3	베틀가	정병임(여,68)	안좌여흘리	1985. 7	『도서문화』4
4	논매기 소리	정병임(여,68)	안좌여흘리	1985. 7	『도서문화』4
5	청춘가(홍글노래)	정병임(여,68) 정명엽(여,54)	안좌여흘리	1985. 7	『도서문화』4
6	상여소리 1	김명엽(여,54)	안좌 열흘리	1985. 7	『도서문화』4
7	상여소리 2	정주섭(남,69)	안좌 방월리	1985. 7	『도서문화』4
8	상여소리 3	박남주(남,69)	안좌 소곡리	1985. 7	『도서문화』4
9	벧노래	박남주(남,69)	안좌 소곡리	1985. 7	『도서문화』4
10	아리랑 타령	박남주(남,69)	안좌 소곡리	1985. 7	『도서문화』4
11	동덩이 타령	최동환(남,73)	안좌 소곡리	1985. 7	『도서문화』4
12	산달미꽃	정덕임(여,85)	안좌 마진리	1985. 7	『도서문화』4
13	언문 뒤풀이	김태조(남,85)	안좌 마진리	1985. 7	『도서문화』4
14	자장가	정덕임(여,85)	안좌 마진리	1985. 7	『도서문화』4
15	꽃타령	김태조(남,85)	안좌 마진리	1985. 7	『도서문화』4
16	옥중가(창가)	최귀금(여,54)	안좌 대척리	1985. 7	『도서문화』4
17	도라지 타령	최귀금(여,54)	안좌 대척리	1985. 7	『도서문화』4
18	꽃타령	장대일(여,79)	안좌 대척리	1985. 7	『도서문화』4
19	동덩이 타령	장대일(여,79)	안좌 대척리	1985. 7	『도서문화』4
20	논매기 소리	장대일(여,79)	안좌 대척리	1985. 7	『도서문화』4
21	배잡이 노래	장대일(여,79)	안좌 대척리	1985. 7	『도서문화』4
22	신세 타령	장대일(여,79)	안좌 대척리	1985. 7	『도서문화』4
23	님마중 노래	정덕임(여,85)	안좌 마진리	1985. 7	『도서문화』4
24	강강술래	김재월(여,79), 권양님(여,74), 김영님(여,68), 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현지조사
25	남생아 놀아라	김재월(여,79), 권양님(여,74), 김영님(여,68), 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26	청예영자	김재월(여,79), 권양님(여,74), 김영님(여,68), 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27	꼬사리 깡자	김재월(여,79), 권양님(여,74), 김영님(여,68), 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28	떡석물기	김재월(여,79), 권양님(여,74), 김영님(여,68), 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29	떡석풀기	김재월(여,79), 권양님(여,74), 김영님(여,68), 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30	개고리타령	김재월(여,79), 권양님(여,74), 김영님(여,68), 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번호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32	보보보따리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33	춘향이 내려온다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34	등당애 타령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35	연애노래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36	모심는 노래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37	밭 땀 때 부른 노래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38	모심는 노래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39	논매는 소리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40	방아야 방아야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41	이빨 빠진 춘향이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42	애기 재울 때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43	애기 어를 때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44	아리랑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45	에야디야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46	허랑타령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47	청춘가 1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48	청춘가 2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49	홍글타령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50	어디만큼 왔나	김재월(여,79),권양님(여,74), 김영님(여,68),정금월(여,76)	안좌 구대리	2005.5.15	"

2) 구비전승자원 현황

(1) 설화

□ 설화 분류안(도서지역 설화)

상위분류	하위분류	항목
1. 삶터이야기	1-1. 지명이야기	섬별로
	1-2. 풍수이야기	"
	1-3. 기후이야기	"
	1-4. 바다이야기	"
2. 내력·인물이야기	2-1. 입도조이야기	"
	2-2. 장수·이인이야기	"
	2-3. 효녀·열녀이야기	"
	2-4. 범인이야기	"
3. 생활이야기	3-1. 어로이야기	"
	3-2. 생애이야기	"
	3-3. 경험이야기	"
	3-4. 풍속이야기	"
4. 초자연이야기	4-1. 당·제의이야기	"
	4-2. 귀신이야기	"
	4-3. 도깨비이야기	"
	4-4. 꿈이야기섬별로	"

1. 삶터이야기

1-1. 지명이야기

1-1-1. 매월봉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최용주(남, 73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매봉산은 매의 형국을 닮았고, 다른 쪽에는 꿩의 형국을 닮은 치돌이가 있다. 꿩은 매에게 꼼짝을 못하므로 치돌이에서 매봉산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 마명리에는 말과 관련 지명들이 있다. 꼬미리는 말의 꼬리, 몽을치는 말이 물을 먹는다는 뜻이다.

매봉산이라고도 하고 또 내가 그 얘기 해주께 매봉산이라고도 하고 어찌 매봉 매봉산이라고 되었

다는 것은 그 옛날 그 산서 보는 사람들이 말이며, 요쪽 산은 그런 소리를 안했ندی, 저쪽에 여그 저 동구갓 그쪽에서 한 소리를 매를 잡았제, 매를 잡아서 매옹자 옹봉산이이라 했어 그래 매봉산이이라 했어. 저쪽에 간다치라면 치들이라고 핑치자 핑도리가 있어, 핑동리 그랑께 거기에 의해가지고 요렇게 하늘에 핑이라는 것이 매를 보며는 도저히 딸삭을 못하는 것이네, 그래서 인자 안벽이 질려가지고 재미도 없다, 요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즌 마복이라서 낫단 말이야, 핑 앞에서는 아라매 매 앞다 요런 소리가 있제. 그러니까 저 쪽 핑동리에서 이 저 매봉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동네가 안 좋다 그 말씀입니까? (조사자)

동네가 안 좋은게 아니라 선산이 선산이 이렇게 되고 또 마복이라 하는 것은 말마차여 이말 이라 이렇게 되는 것은 또 묘하단 말이며. 여기를 마명이라 허났ندی 본다하면은 바로 여기 온다 치라면 쪼끔만 광장이 있드라고 조그마하니 조그막한 광장이 그 뿔이나 세간철도 있고 하ندی 그 앞에 가서 거시기가 있었어. 백일홍이 우리 아람배기였어, 아조 언제 누가 생킨지 압도 몰랐제. 그래 그 꽃을 왜정 때 국민학교 막 설립 당시 때 참 오래 안되었다고 일본놈들이 여그 막 와갓고 했으께. 그러께 일로부터서 한 맺해나 될까 70여년 아 그렇게 76년이나 안 되었다고 이 36년 해방잉께 이런때 사부터 뿔이나 저, 뿔이나 되께, 뿔이나 저 그때 그렇게 뿔ندی 그때 일본인 교장이 와 가지고 일본 사람 그 사람이 교장으로 여기를 왔ندی 부락에 와서 꽃을 달락했제. 꽃나무를 캐가졌다. 부락에서 안 뿔제. 왜 그랬냐 하면, 그 마명리 성국에 든 꽃나무다, 그래 말이 여기 있ندی 그래 여그 저 여가 말갈개다 말갈개, 말이라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모도 말차를 맨든께 그라 제 옛날에 호사에 타고 다닌 사람들 선비들이 타고 다닐 때, 옛날에 그 갈개 꽃봉오리체거든, 모도 그 꽃으로 이것이 자연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시기가 있는데 저기 요마을 요산으로 쑥 내려 요-참 거기 보고 마치 미리부리어 지명이 풀리미라 말이며, 풀리미라 말이며 풀미자하여 말풀리다. 또 그렇게 부르고 있어. 말꼬리가 한 걸로 봐서는 말이 맞ندی 또 매라고도 부르고 항께 그것이 확실히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겠어. 그러며는 그 저 백일홍나무가 그렇게 말을 갈기다. “그랬으면 거기다가 제사도 지내고 그랬습니까?” (조사자)

제사는 안 지냈제. 제사 지내고 안지내고 그대로 하다가 그냥 약이 된다해가지고 모도 막 타부락에서 와 동네에서는 말기지마는 밤에도 와서 쟤가면 누가 그것 그래 가지고 꽃마누가 그대로 죽어 부렸제. 그래가지고 뿔이나 지금 일로부터 몇 해전에 그 식수물 상수도 공사를 한다 해서 거기다가 저장수 딱 창고를 딱 짓어놔어. 당고를 물당고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요렇게 말하고 있제, 어찌거나 부락은 일로부터서 왕성한다. 왜 그런고하니 말이라하는 것이 좌우간 물을 먹어야 한 것인디 물이

여가 있으니 이 부락에 좋다 나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이 너머에 거기 간다 치면 저산 밑에 금이 가면 관이 있는 거기 이름을 갈지리라 했어. 몽울치 갈자 못지자 말이 몽울친 말이 물을 먹는다는 뜻이다. 몽울치 갈자 갈증난다고 한다고 갈지 못지자 못이다 말이를 그런 거시기가 있었제. 그러면 특별히 옛날에 여기가 신마라든가 그런 좋은 말이 있어가꼬 그것이 그랬다는 이야기. “장사하고 장사가 터던 말이라고 그런 얘기는 없었던가요” (조사자) “그런 얘기는 없었어.”

1-1-2. 배락바우

◇ 개요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최용주(남, 73세)	마명리	『도서문화』4	

재가 막으면 터지곤 해 생지숙(살아있는 남자)을 받쳐야 했다. 거지 여자가 아들을 낳아 생지숙으로 팔고 받은 돈을 바위 앞에서 세고 있다가 벼락을 맞았다. 그 후 재에 물이 차서 차량거리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5키로 된단디, 거가 마을도 아니고 거가 산두로 딸렸을까 그런디 이쪽 저쪽 부락이 없고 원을 요렇게 막았단 말이여, 농장으로 안은 있고 인자 막었제 인자 회비를 뚜드려 막았제 인자 그랑께 매디 맺재 거그를 막을 때 막으면 터지고 자꾸 이래싸께, 하다 성가시고 아무리 해도 막을 도리가 없어서 그랑께 이것이 몇백년전 역산가 모르제라.

“옛날에도 그래 여기 각축제를 막을라고 노력했었군요” (조사자)

하 옛날사람 다 막아논 놈 갖고 우리가 이라제 어쩐다 그것으로 먹고 살제 막으면 터지고 요래가지고 한 번은 어느 중이 그리 지내다가 도저히 이러면 안된다. 어찌거니 생지숙을 해야 요원이 완전히 맥힌다. 사람을 산채로해서 거기다가 집어 넣어야 해 그렇게 생지숙을 해야, 들고 터진디다가 옛날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여 인자 이런 소문을 떠 듣고 그때 누가 그럴 거기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여, 나 죽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니까 생지숙이라 하면 남자를 넣습니까?” (조사자)

남녀간에 소용없이 사람이제, 사람이 이렇게 산 사람을 생장시키제, 여기다 제숙이라 하제 제숙 글세 그것이 말하자면 글세 인자 말하자면 제사 빛이시넌다고해서 지숙이라 그런 것 살습디다. 사

람으로 생장 사람으로 그렇게 인자 말하자면 옥황상제님한테 인자 이놈을 바친가 어쩐가 수중 모도 이 귀신들한테 인자 이것을 어찌 그것을 생지숙이라 하제 그냥 이렇게 했ندی 도사가 지나가면서 인자 그렇게 해야 썬다 이렇게 해놨던 말이여 그래서 어디서 구할란다 구할 수가 어디가 있냐 말이여, 아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거지가 말입니다이 거지 여자 거지가 즈그 아들 재간한 놈을 데리고 그렇게 한 대여섯살 묵었던 몬양이제 아니 아해가 이놈을 다리고 인자 거지 짓거리하고 다닌다 말이여. 이놈을 팔았어 아들을 팔았제. 즈그 어머니가 말하자면 팔아서 거기다 생지숙을 해서 물어갖고 원을 썬단 말이여. 그래 돈을 줄 거 아니냐고 돈을 요렇게 신디 난데없이 막 하늘이 캥캥 돈 날이 좌지우지 해가지고 막 뇌성백락이 해갖고 베탁을 놔 두드려 번졌제, 저기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거기 바우가 있는디, 거기서 돈 시다 죽었다 해서 지금 이름을 베탁바우라고 있제. 그래서가지고 그 후로 인자 거기서 인자 물이 만조 된다 치면, 스무일이라고 알재라이, 물이 요렇게 안들어 오요, 안요위로 조위기를 음 물소리가 찰랑찰랑 나요, 그라면 이것이 이상하게도 이 물소리가 엄마 엄마 하고 자꾸 운다고 하요. 그런다고 그런 소리가 있어.

“엄마를 원망하는 소리였군요.” (조사자)

“하머.”

“그러면 예를 들라면 그렇게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막았습니까?” (조사자)

“어이, 인자는 완전히 지대로 되고 그 아래 농토 좋은 농토가 되고 그런 전설이 있었어. 베탁바우라고 현재 부르고 있제, 거기서 돈 시다가 베탁을 때렸제”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라면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조사자)

글세 어찌게 봐야 쓰까, 요쪽 들어온 그 역사를 본다치라면 천년 이내여. 요쪽에 사람이 들오와 살때가 여가 그라면 500~600년 전이라 봐야 쓰까. 그렇게까지는 안될 걸, 한 300년 지금도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 바우 우게 앓어 가꼬 돈 시다가 베탁이 때려 부렸제, 짱어 그런 소리까지 있었구만 거가 짱어 등에 가서 휘어 땡긴다고 애가 장어가 구렁이로 나타나 갖고 다닌다고, 그것이 그러면 날 구진날 거기 지나갈라면 상당히 무서웠지.

1-1-3 마을내력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정상기(남, 70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마을에서 가장 큰 마을이라 하여 대리이다. 지금은 각성받이가 살고 있지만 경주 정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밀양 박씨, 여러 성받이 김씨가 있다.

안좌면에서는 제일 산재부락 없이는 음, 역시 대리가 제일 큰 부락입니다. 훗수도 제일 많았어요. 지금은 나가 조금 침에는 지금 밖으로 나가고 뛰고 있습니다만 근 200호, 200호 될 겁니다. “대리 중에 구대리라고 있잖아요.” (조사자)

구대리는 썩 거시기 기자에가 구대리란 마을이 있죠, 구대하고 연관이 없어, 대리라 하는 것은 마을이 크다 해서 대리로 했제. 그 그런 것이 다른 부락엔 없는 인자 없는 그런 특이한 것이 있다. 당제 모신다는 것이 진당이라고 하는데 그 역시 저 우리 한국 다마이즘 된 기시기를 많이 작성 나온 것 인자 신위를 위하는 뭇이기 풍속에서 나온 것인데, 다알머니라고 그러지. 수호신이 할머니 여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실 여기 여기여 지금 마을회관 들어 있는 광장 거기가 그전에 당지사 모시는당이 있습니다. 당자리 거가 인자 개방사회가 되게 막 거시기 그러니까 저 건네로 앵겨 부렸어요. 저거요 나무 밑에가 당집 있잖습디여. 그것이 인자 얼른 말하면 인자 부락안위를 약간 뭇인가 기원하는 이런 뜻에서 인자 연사를 거시기 하고 부락이 행케 달라 이런 것이기에서 모시는 것이라고 봐야죠. 수호신이라고 봐야제 잉 거기가 있고.

“그러면 여기 문중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사자)

지금 혼성 되었었는데 제일 많은 거시기는 경주 정씨, 그리고 밀양 박씨가 드 다음이고요, 또 인자 김씨가 인정 여러 성 받이 김씨가 있어요, 대성 김씨 이 김씨 저 김씨 김씨들이 거 인자 간계 얼른 말하면 약 그 수를 능가할 만한 것입니다. 두 거시기를 얼른 말하면 약 40~30이라면 약 50 정도되제 그렇게 되고 그 외의 잡성들이 있고. 지금 대개 마을에 그 역사적 사실 즉 말해서 이런 것은 인자 사실 물리적인 것이 아납니까? 그란디 저런 것은 뭇인가 그때 시절에 그렇게 저 물론 식수를 해 가지고 심었제. 그냥심은 것이 아납니다. 나무를 심었제. 그 당시에 부락에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봐야제, 그래서 연륜상으로 본다 하면 한 150년 근 200, 150~200년 될 겁니다. 간디 그 당시 인자 그 부락 소유 지도급들이 담풍 바람도 막어야겠지마는 무엇인가 썩 거시기 시방은 그 풍경이거나 여러 가지 정서를 가지는 한나 뜻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지요 그것을 가꿔나가는 거시기에서는 기금 사람들이 사실 그때 심어논 거시기가 잘 가꿔졌는데 인자 뭇니까? 자곳으로 인자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디, 인자 큰 나무사이에

다 세어도 잘 해주고 하니까 말라죽은 놈 비글비글한 놈이 있고 하니까 그 당시 그 지도 세력 그분들에 상당히 찬양할 만하다 이거여.

1-1-4. 사장골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박창호(남, 48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산의 형국이 뱀 모양이라고 해 사장골이다. 앞에는 개구리 섬이 있다. 이 개구리 섬은 뱀의 먹이를 상징한다.

우리 동네 가며는 사장골이라고 있어, 사장골 산 형국이 뱀 형국이라고 그래. 뱀사자, 뱀 형국, 그래서 사장골이라고 해. 이 뱀이라는게 그럴 것 아니냐고 먹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앞에 가면 개구리 섬이라고 있어, 개구리 섬 뱀이 그 개구리를 잡아 먹어야 배가 부를 것 아니냐고, 간디 어떻게 보며는 농토에 지장이 있었든가 몰라도 주인사람이 많이 깎아 갖고 지금 하얗게 되어갖고 있어. 그런 지명이 있었어.

1-1-5. 말목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박창호(남, 48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말목은 말의 목이다. 말의 형국인 목산에 전주 이씨들이 묘를 썼다. 그 뒤 있들이 망하게 되었다. 이씨들은 비석을 파서 옆에다 묻었다.

그라고 찌리 가며는 저 말목이라고, 말복이라고 말목인디 하였던 몰목이라고도 해. 지명을 목목인디 말목이라고 어제 말목이라고 했냐면 말 형국물 목산이 전주 이씨들이 묘를 써 냈거든. 근디 전에는 비석을 안 세웠던 것이든만. 안 세워갖고 상당히 이씨들이 번창하니 잘 됐어. 번창하게 잘 된

께 자기들 나름으로 선조들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야 쓸 것 아니라고 세웠는데 어따 세웠냐므는 말의 머리 우게가 세웠어. 말 세우고 바로 머리 우게다 아 그래논께, 말이 고개를 들 것이여, 아 갈수록 집안이 망해지고 썩들어 지거든, 할 수 없이, 그래 할 수 없이 비석을 다 파갖고 옆에다 지금 묻어놔어, 그래서 지금 말목이라고 그래, 말목이란 동네가.

1-1-6. 공알바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박창호(남, 48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공알바위는 음바위하고 연관이 있다. 여자들이 공알이 빠져 다니자 남근바위를 세웠다. 옛날에는 방조제를 만들 때 배 닻줄을 묶었는데 약해서 자꾸 넘어져 일 년에 한번씩 검은 줄을 쳐 놓고 제사를 지내줬다.

공알 바위는 간께 아까 말한 음바위하고 연관된 것 같어. 간께 옛날 공알, 여자들 뭐하면 공알이 나왔다고 안 그러드라고 그렇께 하다 이걸 내들러 된께 인자 거기에 연관된 말 같아. 내용이 공알 바우가 그래서 그 공알까져갖고 모도 여자들이 댕긴께 못가게 하기 위해서 좃 큰 놈을 그냥 인자 만들어 놔는 모양이여. 그래서 음바우 음바우라고 그래 저 둘 보고 그라고 또 음성이라 해서 그늘 음자제 음양이라 해서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든마 지명을 동네가 썩 알로 뺏어나가 버리면 못 쓴께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생명의 끝이라 해서 막아 얼른 말하면 못 뺏어나게 세워놔다 그라고 인자 또 아조 옛날서 내려온 말로는 이런 말이 있어. 전에는 인자 얼른 말하면 전에는 방조제가 없을 것 아니라고 얼른 말하면 안 막았어. 바다를 막았을 때 물이 바다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배 닻줄을 막아 묶기 위해서 만들어논 것인디, 아 그런식으로 닻줄을 매노면 자바쳐 볼 것 아니라고, 그 우게 돌 엷어 놔은께, 그란디 그래도 아무리 바람이 불고 해도 안 자빠져요, 그 우게 분명히 돌을 엷어 놔어. 그래도 안 자빠져 그러고 보면 똥인가 옛날에 그 뜻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세워놔을 때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일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낼 때는 검줄을 쳐 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밥을 붓어 놔 지금도.

1-1-7. 소섬 전설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박순규(남, 68세)	대리	『도서문화』4	

◇ 개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배를 타고 나들이를 가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탐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저 쪽으로 돌아가서 입에다 풀잎을 물고 윗몸으로 오면 청을 들어 주겠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풀잎을 물고 옆에 오자 며느리는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소섬인데,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정행재씨가 가다가 “아 저 섬이 무슨 섬이냐” 함께 “아 나 모르겠다”고 함께 소섬이라고 그래 그래서 해남 가 들어봐야 더 알제 우리 같은 사람들 어째서 소섬이냐고 그러께 대개 이러든마, 그 해택선 같은 배를 타고 건너간다, 쪼그만 섬이여, 섬인데 인자 배를 타고 간디 매느리하고 매느리는 뭐 나들이 어디를 간가 어쩐가 모른다, 뭐 아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못된 놈의 씨아버지가 욕심을 냈던 모양이여. 그러께 아니 전설의 고향에 안 나왔어 한 번도 그란디. 욕심을 냈는디 그러께 매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정 나를 거시기 한다면 쪼기로 돌아가서 뿔아입에도 풀잎을 물고 윗몸으로 오시랍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들어 들이께” 그래 인자 영감이 즈그 아버지가 매느리를 거시기 할라고 막 온께는 옆에 온께 매느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소섬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든마 옛날에 아조.

1-1-8. 북새미 고랑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여흥리	『도서문화』4	

◇ 개요

북새미 고랑는 배짜는 북모양을 하고 있다.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 그 곳에 물을 부으면 아이를 낳았다.

북새미 고랑에서는 애기 못 낳는 사람을 보고 거그 가서 그 물을 부어 요렇게 전에 옛날 북담 배 짠 북부기 허제. 요렇게 이렇게 생겼제. 여기서 이렇게 거시기 저 미영 뿔이기를 뿌리에다 감어 처

넣고 배를 짜제, 그란디 꼭 바우 움푹이가 꼭 그렇게 생겼어. 그랑께 거기를 북새미 고랑이로 하제. 몸등아리 같아서 북새미 고랑이라고 허제. 누그 저 산에 올라가면 고랑이 있는데 거시기 저 얘기 못한 사람은 거기서 목간하고 나면 얘기를 난다는 말이 있구만. 그랑께 이런 말에서 나온기라 그라제.

1-1-9. 연애 고랑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여홀리	『도서문화』4	

◇ 개요

북새미고랑과 국고랑을 넘으면 연애고랑이 있다. 예전에는 고랑이 깊어 남녀가 만나던 곳이다.

북새미 고랑 넘고, 굴 고랑 넘으면, 연애고랑이여, 근디 이런 얘기 진짜 혀도 괜찮으요. 이런 데선 못하고 거그서 연애를 많이 걸어서 그랬어. 교회가서 인자 즈그 큰 얘기하고 총각하고 요새 시상에 도 연애 안 험디요 그라께 어떻게 해가는 것을 구식 사람들은 연애라고 그라제.

“그 고랑이 아홉 고랑이에요?” (조사자)

“아홉 고랑은 아니제 아홉 고랑을 알라면 골창이 아홉 개가 있어 썬 삼에 가보소”

“그러면 왜 아홉 고랑이라 했는지요?” (조사자)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고랑이 아홉 개가 있음께 그랬제. 거가 빨청이제. 지금은 기 잡으로 땡심 시렁 우리가 목간도 하고 벨 지랄을 다 했제. 젊어서는 그랬는디 인자 늙어분께 거기를 간 적이 없네. 시방 거기는 모두 농토를 만들어 부렀제.

1-1-10. 영바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박창호(남, 48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운금제에 영바우가 있다. 영바우가 마을에서 보이면 마을이 망하게 된다고 하여 그곳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었다.

그라고 이 영바우 영바우, 거기는 예, 신안군 무슨 새벽 될 자료에는 구름 운자, 비단 금자, 제사 제자, 그라고 썼다드냐, 그란디, 운금제라고 그라께 그 표시가 영바우라고 있어. 영바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 우리 동네 그 뭐라하까 옛날부터 도한 신이라 하까 그란 어뜬 테두리네에서 거기서 인자 부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빌기도 하고, 거 옛날 그 신라시대 같은 뭐라하까 화랑 정신 해갖고 깊은 산속에서 뭐 수양하면서 빌듯기, 충의도가 거기 빌기도 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뭐라하까 속담으로는 뭐요 뭐 영바우 간치 얼어 죽었다. 소리가 뭘 소리오 그라께 우리가 표현한 말로는 갑자기 날이 추워갖고 인자 옷을 두껍게 입고 나온다고 두껍게 입고 나온다고 그럴 때 영바우 간치 얼어죽었드라 그래, 강께 그렇게 사람이 따뜻하게 옷안입고 나오지 않아도 될텐데, 갑자기 옷을 막 두껍게 입고 나와서 나온 사람을 인자 가르쳐서 간치 얼어 죽었다.

인자 그런 지명이 있어. 간디 늦게 어른들 말 들어봉께 뭐가 하나므는 그 영바우가 동네 보이머는 동네가 망한다고 그랬거든. 그래갖고 튼 소나무가 하튼 겁나게 많이 있었어. 그래갖고 튼 소나무가 가려부렸거든, 그란디, 인자 그것도 오랜 세월이 흘러 불고 산주들이 욕심이 있어 갖고 그랬든가, 나무를 다베갖고 인자 다 없애 부렸거든. 그랬는데도 부락이 별로 상관이 없었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

1-1-11. 음바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박창호(남, 48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동네에 음바우가 있었는데 음기가 심해 여자들에게 불상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남근바위를 두 개를 세웠다.

음바우, 음바우, 음바우, 음바우라고 있어, 음바우라는 것이 따른 말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동네가 얼마 많이 살았든가 몰라도 여자 불상사가 많이 있었든마. 그래갖고는 나가 불고 나가 불고 함께 못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좃바우 모양으로 이렇드면 갓 모양으로 두개가 있어요, 강께 음근잡사양가 많이 있으께 그걸 세냈어 못나가게 하는 식으로 만들어 논 바우가 있어 그걸 가르켜 음바우라고 한다고 그래.

1-1-12. 말무덤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박창호(남, 48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말무덤을 배널리라고 한다. 일제 때던가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어 그곳에다 큰 무덤을 만들었다. 큰 무덤을 말무덤이라고 한다.

말 무덤이라는 디가 있어. 말 무덤 여기 말 무덤 배널리라고도 하네, 배널리란다 배널리라는 이야기는 지명학상으로 보며는 거가 상당히 온수 온수가 도니 온수가 어디든지 배가 왔다갔다 할 때 물때가 부족하면 원에들오거든 움푹 파졌거든 배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것이 배널리라고 그래. 그란디 한 때 일제 아마 말엽이었는데 일제시기였던가 몰라도 옛날 전쟁 때 말이 많이 죽어갔고 떠밀령 왔든것 이든만. 그 당시 말을 인자 물어줬던 것 같어. 그래갖고 물어줘 갖고 무덤이 큰 무덤이 있어. 그래서 지면이 말 무덤이라고 그랬어. 말 무덤 지명이 최근에 거리 누가 이사가갔고 집터를 딱으니라고 샀어. 아니까 옛날에 장군들이 사용했던 뭐 칼 이런 것이 나왔드라고 그래, 그런 말이 있어.

1-1-13. 관청동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최귀금(여, 54세)	대척 소척마을	『도서문화』4	

◇ 개요

최고운선생이 중국사신으로 가기 전 관가 사람이 와서 잤다고 하여 관청동이라 부른다. 산꼭대기에는 바둑판 바위가 있는데 중국사신을 기다리면서 바둑을 뒀던 곳이다

비금을 가면 배 닿는 데가 우체국도 있고 그래 옛날 최고운 선생이 중국으로 사신을 가면서 거그 가서 일주일간 잤어. 그래서 옛날 관가 사람이 자고 잤다가 해서 관청동이라고 했던 말이여, 그래서 우이도로 건너가서 중국서 사신 배가 온가 하고는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매일 기다린거라 지금도 우이도 아조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지금도 바둑판이 있제. 누가 이것을 했냐 거그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옛날에 최고운 선생이 중국 사신을 가기 위해 기다리면서 거그서 바둑을 노았다 그런 전설이 다만, 그래서 비금의 관청동이란 디는 옛날에 땡겨갔다고 해서 관청동이락 한다구만.

1-1-14. 만승지지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김운기(남, 69세)	대척 소척마을	『도서문화』4	

◇ 개요

일만만자 중 승자를 써 만승지지이다. 지금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만승들처럼 머리 깎은 남학생들이 있다.

해방후로 군내에서는 여가 중학교가 가장 먼저 되었었습니다. 안좌 중학교가 그러고는 그후로 지금부터 한 20년전이라까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그 때 내가 면에 근무했었습니다. 면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면장이 김종기씨라고 그 양반이 그때의 춘추로는 60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영감이 면장을 하시는데 저랑 출장갔다오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자리 거그 보고 장바탕이라고 그러합니다.

장바탕이라고 그란께 장치다가 피기 잡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란디 저랑 같이 가는데 어야, 저그는 장바탕이세 장바탕인디 그전에 구식 노인네들이 말이 저기 보고 만승지라고 그러니 일만 만자 중 승자 '만승지지' 라고 그러니, 그러니 운제 그것이 맞쳐질랑가 한 것으나 만승지지라고 그러니 아, 지금은 그후 한 20년이 되었겠습니다. 지금은 거그에 고등학교가 설립되고, 설립되어 논께는 역시 만승이라 머리 깎은 학생들이 지금 앞으로 만승까지 될랑가는 모르겠으나 될 테이지요, 지금도 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만승지이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1-1-15. 작은 되 큰되 바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김일만(남, 67세)	시서리	『도서문화』4	

◇ 개요

아랫도리는 없고 위쪽 몸만 있는 옷더리가 태어났는데, 크게 될 사람이었다. 중국에서 옷더리를

찾으러 왔는데 어머니로 인해 웃더리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전에 참 황가란 사람하고 여자는 멋이나 이가란 사람하고 둘이 살었던 모양이여, 촌락인디 부모 조업지기가 없으니까 품을 팔어 그정그정 살든 모양이여,그 가정에서는 멋이나,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있논디 슬하에 아이들이 없었던 모양이제, 그란게 없는 사람일수록 이제 짐생도 자식을 사랑한디 슬하에 일점 없으니까 여간 섭섭허니 생각 안하겠다고 허, 항시 원이었어 품팔이는 힌 묵어도, 그란디 즈그 부인이 어서 듣고 와서 공을 들이면 자식을 난다 합디다 그라믄 공을 어떻게 들일것인가? 우라처럼 없는 사람들이 없을수록 이 밤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공이제, 꼭 있어 갖고 뭐 소나답을 잡아 공들인 것이 아니라 합디다. 우리가 찬물 한그릇 떠놓고도 공을 들이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닥 합디다. 그란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일찍 와서 목욕제계하고, 정수 갖춰 놓고, 공들였던 모양이여. 어허 그란디 대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돌봤던가 묘하게 잉태했든 모양이제. 그란디 10삭을 지내서 인자 내놓고 본께 아이고 아랬도리는 없고 웃더리백게 없네 그것을 낳라고 공들여 빌었던 말이여, 그란디 버리라고 하재만은 버릴 수도 없고 내나 자식이라 봐서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키운 것이 윗목에서 똥싸고 아랫목에서 밥묵고 그랬든 모양이여, 차차 큰 것이 한 삼년이 지났든 모양이여. 밥 주란 말도 못하고 젓 주란 말도 못하고 뭐 달란 말도 못해 그저 먹고 놀고 윗목에서 똥싸고 아랫목에 기어와서 잠자고 그라논디. 하루 저녁에는 뭐라고 하는고니, 들에 갔다와서 놈의 일을 하고 인자 멧을 줌 해볼라고, 저녁할라고 하니까 거시기 웃더리란 놈이 인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인자 해췌거든. 저녁에 부엌에서 술을 씻다 아, 빗을 그란다냐 하고 문을 열어본께 그놈이 그라거든 아야, 이자 막 머락고 했냐? 어머니라고 했소, 어머니, 어머니한테 내가 꼭 사정할 일이 있소! 하거든, 이 우게 장자네 집 장가가 부자던 모양인데 장자네 집 가봐서 콩 서말, 녹두 서말, 풋 서말 서말 씩만 사정하시오 그라믄 주라해서 갖과보시오, 그란게 인자 대처 아닌게 아니라 술을 싣다 그대로 놔두고 하다 당신은 인자, 반관계 말 못할 놈이 반과니까 거그 가서 기양 사실 얘기를 했던 모양이여. 아, 내가 영감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만들고 한나 난 것이 웃더리백게 없논디 오늘은 말을 하요, 그란디 말을 한디는 멋이라고 하믄 영감네 집서 콩 서말, 녹두 서말, 풋 서말을 줌 빌려 갖고라 하요. 그라믄은 영감님은 어찌시겠소? 물으니 느그 내가 멧보고 내가 주겠냐고 당장 호통치면서 어서 가라고 하거든 아 그래서 왔단 말이여, 온게는 그 놈이 웃더리란 놈이 머라고 한게비는 당최 못 된다고 밭도 못 딛게 한 집에 인자 한 번 더 가보라고 말헌디. 잉, 더 가봤던 모양이제 그란게 인자 역시나 그 여자 가서 그 말을 한게는 또 호통을 내거든 그래 또 쫓개왔단 말이여. 머슴 시켜서 쫓아내

버려 온게는 어머니 인자 할 수 없소 인자 가문 될 것이요! 인자 가문은 영감님 이대로 시 번이나 청 구했는디 한 번 조차 안들어 즐랑디여 그란께 한 번 더 가서 말해보시오. 그란은 그래라1 그락저라 한 것이 기양 캄캄해져 그렸단 말이여잉. 거그가서 그말 한께는 할 수 없다, 시 번차 왔으니 내 시 번차 팔시할 수 있나, 갖고 가라고 콩 서말, 녹두 서말, 풋 서말 주거든 그 놈을 이고 왔든 모양이여, 그란디 아 기양 그때는 긴력이 어뜨게 시었든가 모르제만은 기양 인께 가뭇하거든. “어머니 갖꾸와 겐소?” “오냐 주드라!” “어머니가라우!” 그란께 열 한시경이나 열 두시경이나 되었든 모양이제, 지금 시계를 본다면 모양이여, 그랬는디 어머니 나를 업고 이놈 이시오. 으짜란 말이여 하고 물으니 나하잔 대로 합시다. 어머니 으짜겐소. 나하란대로 합시다고 사정하그던 그라고 이 놈을 이고얼로 갔냐하면 저그 저되란 디가 있어 되놈이란 되자여 거가 이룩군 바우가 있는디 거글 이고 갔던 모양 이여, 시서리였든가, 어디였든가 어딘지는 모르제만 오래된 얘기라잉, 그란디 그룩고 캄캄해도 아, 곁이 흰하니 보이거든, 인자 그때 음력으로 하면 그 음력패가 그름적이나 외왔든가 한다. 그름뎨디 아 곁이 흰하니 나있어, 그란이 이리 가고 저리 간 것이 거리가게 되었든 모양이여, 그 바우 있는데 까지 가갖고 내려 놓시오 그란께 그 바우가 이쪽에 있었던 모양이여. 내려 놓시오 그란디 어머니를 꼭 세(혀)를 잘라야 스것소만 내가 어머니 세를 짜르면 쓰것소, 그란디 절대로 비밀로 해주시오잉. 나를 여그다 데려다 왔다고 하지 말고 누가 물으면 죽어서 웃더리 백게 없어서 기냥 파묻었다고만 하시오잉, 그라고 가이시오, 으짜겐소. 그란디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요 어머니 절대로 비밀을 지켜 주시오잉! 쪽 어머니 세를 잘랐으면 쓰것는디 내가 으뜨게 세를 짜르겐소 그란께 절대 비밀로 해주시오. “오냐, 그라먼 그랄란다.” 허고는 즈그 남자가 와서 물어도 절대 말을 안했어. 나 모른다고 안했는디. 그란께 그 전에 대국이라고 지금 중공. 중공가. 천기를 보니까 한국에 아조대인이 나 갖고 곧 즈그 나라를 괴롭히게 생겼거든, 천기를 보니까 그래서는 대국사람을 보냈던 모양이여 방 방곡곡을 지금 기밀 탐정하는 모양이제 그랑께 인자 그 부락에 왔던 모양이제. 웃더리란 그 부락에 와갖고 머라고 한고하니 인자 여그 묘한 일은 없냐. 인자 먼 얘기 해주란 말로 묘한 일 없냐고 묻거든 그란디 묘한 일이 없거든. 그란디 여그는 이 부락에서 위도리만한 사람이 있었다. 그란디 그 아 해들로 행방부명이 되아브렀다. 그라거든. 그 사람도 들으니께는 묘하거든잉 그래 요놈들 켈라고 그 여자를 데래다가 별거시기를 다해도 안 갈차 주거든. 아 그래 그때 돈으로 쌀을 몇 십가마니 준 다든가 그때 멋이나 당목이 있을까 당목은 없고 거시기 먼 배가 있었어. 아비단이여, 존 것이여 고 놈을 갖다가 막 해썬거든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본께 이 놈 가지면 호의호식하고 살쥬거든 그래 바랄것이 없제 그냥 그 말을 해브렀네. 그래 인자 중국서 대체 사람들이 나와 갖고 그리로 갔는디 온

적이 없거든. 그란디 그 바위가 떨어라고 한디 떨어야 떨어수가 있어야제 그래서 여자를 데려다 놓고 흑면 비방이 없냐고, 이 돌을 떨어라든 비방이 없냐고 물이니께 모른다거든. 한국이 망할라고 그랬든 모양이제, 흑이나 억달이라고 하는 풀이 있어. 그 놈으로 이룩콧 한 번 문대 보라고 그라거든 그란께 그 놈을 문댄께 딱 바라지거든 두 섬이 되어 브렸어. 그랬는데 콩은 멋이 되야는고 하면 그때는 대장, 녹두는 섬이 되어 브렸어. 그랬는데 콩은 멋이 되야는고 하면 그때는 대장, 녹두는 인자 중장이라고 하제. 응 그란께, 아마 서로 상극이었던 모양이제 가랄져 버리거든 아까 노랑게 생긴 콩은 모자를 노랑게 생겨 갖고 중장이나 대장이나 되든 모양이제. 안 있드라고 그 놈은 지금이나 하든 소대장이나 되고 아까 팔(녹두)쫄병이 되얏든 모양이제, 그런께 서말 씩이니 그 수가 무려 기수제잉 그 수가 다 나왔으면 지금 중공, 중국을 쳤제. 한국이 할 수 없는 모양이제 조선 그래도백게 안되는 모양이여 암말 안했더라면 헛헛헛……. 그러고 웃더라는 천자될 사람이었든 모양이제. 그란디 짝 버리진게로 가마히 사그라져 버리거든 그란께 막 일어날라다가 사그러 버린 모양이제. 그란디 전설의 고향에도 이 말은 없어. 우리도 전설의 고향이란 책이 있는데 우리 서당에 댕길 때 미안한 말씀이제 만 어느 필상이라는 사람이 댕기거든 그란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 잊어버렸제. 저기 가면 바위가 작은되, 큰되로 갈라져 있어. 그러고 그놈이 갈라져 갖고, 그란디 확실히는 몰러 참멜인지 거짓멜인지 거진멜인지……. 허허허.

2. 내력 · 인물이야기

2-2. 장수 · 이인이야기

2-2-1. 장사 바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최용주(여, 73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장군바우는 쌍둥이 바위로 있는 던 것을 장수가 새끼손가락 하나로 옮긴 것이다. 바위를 옮기는데 사람들이 깨복쟁이 장사 보라고 하는 바람에 바위가 그 곳에 떨어지고 말았다. 장군 바위가 있던 곳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는 장사의 발자국이 있다.

장군바우라 하는 데가 있었는데, 장사바우여 장사바우, 전에 저 머 장사라는 것이 하늘에 머 날아

다녀 날개 돌아갖고 그런다는 그 장사 그 바우가 있었는데 쌍둥이로 이렇게 되어 갖고 있었제. 그러면 한 마디로 보며는 장사가 죽었다 해갖고 말이며, 못이 확실히 있어 못이, 꼭 묘여 틀림없는, 바위 그 안에가 그렇게 되어 있당께. 참 묘했어 그것보면 이려고 우게는 뿔이있나 하르는 지금 요강이라고 해갖고 말이며, 소변 보는 요강이 옛날에 잘 놔뒀던 말이야. 그것이 또 저쪽 봉에 하나 있고, 요 쪽 봉에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그 바우를 올 때 어찌왔느냐 하르는 요 바우가 어서 떠갖고 오다말이며, 장사가 옛날에 새끼 손꾸락가에 뜬다 그러거든, 그것이 인자 전설이제. 떠갖고 이렇게 오다가 아 옆에서 누가 기냥 “아빠 저 장사 깨복쟁이봐라” 그랑께 이랬던가 어쨌든가 장사가 몰라. 장사가 대개 그러고 땡겼든가 아 그래가지고 그냥 고놈에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냥 거기다 떨쳐 났다이 랐는데. 그 놈 바우를 떠갖고 오는데, 이랬다 했는디 그 후로 어 거가 왜정 때였어. 거가가만 있거라, 그때가 명치 메이지 스 아니 메이지라 했다. 소화 소화 7, 그렇게 됐는 갑여, 그때 뿔이냐 그 태 풍이 불어 가지고 그 앞에 인자 거시기가 인자 파괴 되어본졌제, 그 뿔이냐 제방한 거시기가. 조유 지가 막 들어와 본졌단 말이야. 매립하는 그 모통이가 그래가지고 인자 이것을 어찌게 복구를 해야 할텐디 도저히 어서 바우가 없어 남포를 해야 할텐데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바우를 뜬다 항께, 모도 다 안할라 했제. 모도 이런 연금있는 바우를 손을 대야 안 된다, 인자 발포를 해야 할텐디 하도 요런 것이기였는디 그때 설에 의하며는 살 전에 그 발파 살 전에 거그서 무슨 그 울음소리가 밤새 났다 그런 소리가 있어. 울음소라가 났다고 그래 거시기가 있단 말이며 전설이. 그리고 그 바우가 저쪽에서 왔다든디 조쪽에 간다 치라면 저기에 줄로 한 여기서 키로수로 한다면 저가 한 2키로 나오세, 거그 가면 참 묘하단 말이며, 이 평지로 요라고 있는디 말이야 평지로 그 섬 하나가 요렇게 동 리부락이 있는디 섬안에가 부락이 있고 섬 하나가 있는디, 전부 요리가 전부 보퉁이 맥혀 갖고 있는 연결하는 것이 섬이제, 섬을 뿔이여 주시하고이 그런디 평지여, 울퉁질퉁도 앓고 평평한 이런 바원 디, 장사가 요리 지나갔다 하는디 맨발이여 이런 가운데 지금 가서 우리가 붙여봐도 딱딱 맞아 그걸 위치에 몇 몰려가도 한둘이 아니여 영낙없이 말하자면 신도 안신고 여기 맨발로 그것이, 눈 육에 꼭 걸어가는 뭐 말하자면 그것이 영낙없이 걸어가고 있어, 지금 있어 그것이 있어, 지금 영낙없이 지금 가 지금가 맞춰보면 딱딱 맞는디, 장사는 거시기 옛날에 장사는 누가나고 뿔하고 한 것이 아니제, 그것은 인자 뭐라고 보까 하나님에서 난 거시기 하늘에서 내 준 장산가 어쩐가. “그러면 거기 저 장사는 누가 키웠단 얘기는 없구요”(조사자) 키웠단 얘기는 옛날부터서 어디를 막론하고 장사를 킨데 는 없어, 그것은 우연한 자연에서 우연한 장사라는 것이 나왔제, 그래 옛날은 그것이 그란디 그것이 속담에 그 헛소리지마는 그런 소리가 있드라고 얘기 들어본다 치른 옛날 구식 노인네들 한드리고

말 들어본다 치르는 그 어떤 아이를 한 가정에서 낳는다 말이야 들어보면 어린아이를 낳는다 가만 이 본께 어깨 밑에가 날개가 돌아갖고 있었던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장차 장사 거시기가 된다는 이런 소리가 있었다. 장사라는 것은 이런 것은 뭐, 뭐라하까 뭐뭐 어찌께 말을 해야쓰까 신도 아니며 이것 뭐라고 하까. 옛날로서는 장사도 할라면 긴력이 센께 장사도 하고 그런께 장사는 막 그라께 생기는 사람처럼 생겼어도 막 날아다닌다는 그런 짓거리 했제. 옛날에는 그런 거시기가 여기가 한나 유명한 것이 거시기가 좀 한나 있제. “그래 바우가 없어진 것이 일제시대 남포 티어서부터 없어졌던가요”(조사자) “응, 그래본졌제 인자 몰막니라고.” “그란디 이제 발자국이 남아 있고요.”(조사자) 아 그것은 여기서 2키로 가면 남아갔고 있제라, 그래가지고 그리해서 여기로 왔다 그것이제 거기다가 자 일본말로 아시아도 발테죽을 딱 남겨놓고 여기로 왔다 이것이제.

2-3. 효녀·효부이야기

2-3-1. 효부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김태조(남, 85세)	산두리	『도서문화』4	

◇ 개요

역적으로 몰려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딸만 살아남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회갑에 머리카락을 팔아서 음식장만을 하고 중머리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사연을 알고 도와 주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놈보다 높은 벼슬을 하고 잘 산디, 역적으로 몰려서 죽어부렸거든. 아들도 죽고, 영감도 죽고, 그래서 며느리하고 딸 한나 하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본께 그 집에서 중은 춤추고, 첩이는 노래 부르고 노인은 울고 그라거든. 그래 들어가서 아 뭇일로 노인은 울고, 중은 뭇일로 노인은 우는디, 춤추고 첩이는 노래 부르냐고 그란께는, 그 늙은이 말이 영감도 벼슬을 하고 그렇게 대가집이고, 아들도 그런 아들이고 한디, 역적으로 몰래서 다 죽어 불고 살림살이도 암 것도 없고 한디 내 회갑이라고 할 수 없슨께 여느리가 머리를 깡까서 회갑장만 하고 딸은 미혼쟁이라 머리를 못 깡꼬와서 그래서 운다고 한께, 그 지나가든 사람이 나와서 도와줬다네.

2-4. 범인 이야기

2-4-1. 부자 된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박창호(남, 48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려고 흥정을 하는데 소금에 큰구렁이가 들어 있어 팔지 못했다. 큰 구렁이는 감긴 밧줄이었다. 며칠 후 다시 팔려고 나갔는데 소금값이 금값이 되어 부자가 됐다.

그런데 전에 뭐 부자 됐던 뭐 김 누구 그 사람 있드만, 이 동네서 사는 김씨라는 이름의 그 사람이 소금을 많이 사 갖고 인자 팔러갔던 것이든마. 소금 배가 소금 많이 실어 왔는데, 아 소금을 팔라고 인자 그 흥정을 해서 플라 했는데, 아니 큰 구렁이가 소금 배 우게가 이라고 있거든, 아 무서워서 어떻게 팔 수가 있어야제, 소금을 못 팔고 할 수 없이 도로 배로 인자 내려왔어. 메칠 있다가 소금을 팔라고 하께, 오매 소금 금이 밧배로 뛰어부렀거든 지금도 구렁이가 있는가 봉께 구렁이가 아니라 그 밧줄 밧줄이 이렇게 감긴 것을 자기 눈에는 구렁이로 봤든 모양이여. 그래갖고 흥재했다 그런 말도 있어.

2-4-2. 선비와 도둑호랑이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김일만(남, 67세)	대척 소척마을	『도서문화』4	

◇ 개요

선비가 과거에 7번이나 떨어지고 살망하여 장사를 나섰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호랑이를 잡았다. 김 정승네 딸이 혼인을 했는데 그날 밤 신랑을 호랑이가 물어가 버렸다. 선비는 김 정승네 딸을 살려준 것이 인연이 되어 혼인을 하게 되었다. 아들을 삼 형제를 낳았는데 진사벼슬을 했다.

여그 전설이라는 것이 벨라 거시기한 것이 없고, 그 전에 한 사람 역시나 공부만 하다가 공부한 사람이 편야 사회에는 어둡거든, 즈그 집서 책만 읽은 사람은 그러제 없는 사람은 어두와 그래서 읽

은 것이 참 10년을 읽었든가 팔년을 읽었든가 모르제마는, 그때 뉘가 나그든. 그라고 그런 사람 부인은 웅삭해 남자하고 같이 벌어야 없는 살림, 같이 협조하든 좀 일어날 수가 있는디 여자 혼자서 벌여갖고는 오직 힘이 안일어나는 것이여, 그럴할 때 여자가 얼마나 고생했잖나 말여! 여자로 생각해 보니 과거를 보러 가자니 그 전에 과거를 한 번이나 보러 가자면 그 전에 백목을 쪼개 주면 그 늬을 쪼까씩 주고 노자해서 얻어묵고 간다. 그란께 칠전팔기한다 하여서 7번이나 했든 모양이제. 후엔 포기를 하고 방랑을 해봐야 쓰것다 하고 나섰어, 나설락 한디 역시나 마누라까지 죽어브렸거든. 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이여, 그 사람인디 대차 촌에서 책이나 읽고 하다가 역시나 세력은 구파해지제. 그라다가 자기 부인마저 병들어 죽어브렸단 말이여. 그란께 사람이란 실망하기가 마련이거든. 글고 되어버리면 하는 일이 과거 못해브렸제 부인까지 고생만 하다가 인자 작고 해브렸제 그란께 마음에 어디다 둘데 없제 잉그래가지고 애라 장사나 해야 쓰것다는 맘을 묵고 나섰든 모양이제 그라다 보니까 차차 친고도 사귀지고 또 술도 먹어지고 그 전에 선비라는 것은 술도 잘 안 먹었었거든. 누가 착고가 있어야제 술도 먹었제, 서로 권한 맛이 있어야 술도 배워지는 것이제 혼자 마시면 술도 안배워지는 것이여 먹기 싫고 또 그런 생각조차 없어지고.

그란디 사회를 돌아 댕기다 보면 친고도 사귀어지고 좋은 친구도 생기고 나쁜 친구도 생기지만 말이여. 그란디 가다보니 술집에 앉았으면 역시나 친구가 많이 생기거든. 서로 피차 간에 먼 장사가 좋더라, 먼 장사가 좋더라 한 것이 약초를 캐러 댕기자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제, 내가 아무리 여자는 없드라도 그래도 선영헌티 밥 한그릇 올린 것도 보고 그란디 거기 마느래있는 데도 보고 집으로 왔던 모양이제. 와서 보니 참 쓸쓸하제, 집 있것다, 부모 형제 있것다, 하제마는 그래도 이녁 마느래만은 못하거든.

그래서잉 첫차에 친구가 젤이제 그래도 친구가 없고 술 한잔씩 하고 그란디 정월 열나흔 날이나 되었던 모양이제. 그때는 정월 열 나흔날이라면 정월 대보름앞 아니라고, 그때 내가 인자는 선영헌테 밥 한그릇 해 놓고 성의를 했은께 나는 가야 쓰것다, 고기서 나온 것이 그래도 보니 그란께 애인 생각이 나던 모양이제. 그란디 거그를 가야 쓰것다 거그를 가야 쓰것다 하고 걸은 것이 경상도서부터 멋이야 아 멋이야 정읍갈재, 거까지 갈 때 그때는 전부 걸어서 다닐 때거든, 얼마나 걸었든가 모르제마는 그래 갖고 그 밑에 갈재 밑에를 내려와서 보니까 열나흔날 모양이제. 그래서 거그 주막집서 술을 한잔 먹고는 일어날라고 한께 그 주막 주모가 어야, 여그 노인 양반이 노래 한잔 한다네, 지금 저녁인께 가지마라고 도둑도 있고, 범도 있지 않냐. 니 자기 몸 한나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밑에 사람도 생각해 줘야 쓸 것 아니냐, 내가 당신한테 돈 받을락 한것도 아니고 주막이라서 둘라 묵것도

아니게,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그라 한게, 꼭 가야만 쓰겠다 하거든, 이 사람이 그란게, 인자 조모도 역시나 거자 같은 또래나 되었던 모양인디 그록콤 사정해도 들고 일어서거든 그래서 막걸리 한잔을 더 주었던 모양이여. 그래 이사람이 녀 잔을 했든가, 다섯잔을 했든가 모르는데, 그란디 그 전에는 사발로 큰 놈을 주그던 그래서 그 놈을 먹고는 뭇이나 그 바람에 거그를 올라갔던 모양이제. 간게 느닷없이 “거 있거라!” 소리가 나거든 그란해고 마음이 인자 쫘 안중제잉, 범이 나설란가, 그란하문 산적이 나설란가, 마음이 안 좋락한 차이에 거있거라 소리가 나거든 본게 떼거리가 너덧 놈이 나오거든. 그란디 기골이 장대한 놈들이여. 보니까 자기가 기골이 아무리 시다해도 못 해보졌그등. 상대 못하제잉. 그래서 할 수 없어 붓따리를 내 매졌든 모양이제. 이것 전부께 하고 그란게 밀친다 가지고가 부렸제. 그란디 요놈들이 그것이 뿔만 아니거든 갓을 벗으라 하고 갓을 벗어 준게 그때 정월 열 나흔날이면 그 전에는 겁나게 추웠어. 지금인게 덜 춘게 그때 정월 열 나흔날이면 무자기 춘게, 아 그래 가지고 활랑 베께 가지고 인자 그냥 가보라거든. 아 그런게 요것도 다행이다 하고 내 모가지 안 떨어지고 있으나 싸질러 다름질하던 모양이제. 다름질하다 생각해 본게 큰 질로 가문 안 되것거든 소로질로 가든 모양이제.

그란디 어디 만치나 간게는 불이 하나 뻘히 보이거든, 살았다! 내가 쪼금 더 가다가는 엄사 죽을 건디 다행이다! 아까 모가지 안 빈 것도 다행이고 인자 그 거시기 엄사 안하기도 다행이다 그곳에 집이 서너채나 있어, 그 중엿 본게 시채 중에서 낮거든, 문을 두드렸던 모양이제. 두드려갔고 본게, 아무 흔적이 없거든. 또 한 번 두드라고, 두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시번 차 두드리니께 대치 그때는 인정계하는 소리가 나더니 멧을 꺾헛하드라고 문을 열어 주드라고, 문을 열어 준디 그때 마춤 보름달 할차 되어서 보름이 널인게, 달이 흰하것드라고 그때 옷벗은 것도 다 뵈이제잉, 보니까 어여쁜 새악씨가 와서 문을 열어 주거든, 먼일이나 한게 내가 중간에 짝 오다가 엄사해 죽졌다고 좀 들어가면 어짜것냐고. 대치 여자가 들어가더니 옷 한 벌을 갖다 주거든, 집에서 이불을 쓰고 자는데 새로 한 시 경이나 되었던 모양이제 시계는 그때 있었든가 없었든가 모르제마는 아, 이 아 보름달 저녁에는 별 도둑이 없든 모양이제. 즈그집을 와서 문 열라 소리를 하거든 그란게 여자가 가만 있으시오잉 내가 나가 볼라요, 그란게 여자가 나가거든 여자가 도둑놈과 함께 즈그 방으로 들어가거든, 그란게 그 놈도 한 방을 쓰든가 안쓰든가 모르제만은 즈그까지 하는 말이 여자가 내가 가되는 놈이 하나 있소. 어신 놈이 와서 아 방만 빌려주시오, 한게는 저병에다 가뒤왔소. 그란게 그래야 그라만 내가 아까 그놈 꺾벗게 논 놈인 모양이자! 처침해 브러야 쓰졌다. 에이 그냥 놔두면 안돼 도둑놈이 나와서 문에다 진놈 막대까지 로발치고 단단히 문을 막아불거든, 그라고 기냥 가드라만 이놈이 가

만 생각해 본게 문은 하나만 이란 말이여. 벽을 뚫고 나가자니 소리나쁜 한나 꽤빨먼은 죽을 것 같고, 워낙 기골이 장대한 놈이라 그라고 먼 무기가 없은게, 어치게 잠이 올라야제, 그라고 두시 아상 되게 경과 했는 모양이여, 경과 해놓고 본게 난 피가 안나고 에라 내가 방뚝을 뚫고 나가야 쓰것다. 방뚝을 뜯을라고 자리를 걷어내고 거그다가 오줌을 싸아 오줌을 싸먼은 요놈이 물붙으니께 거어지겠다고안, 그래 갖고 오줌을 찌개 뜯어 갖고 이 놈을 헌께 방뚝이 들어나거든 아참 손으로 뜯고 이 령게 해서 부엌으로 나온단 말이여. 나온게는 마치 그때 호랭이란 놈이 먼소리가 난께 흑 개나 안킨 가하고 멧을 더듬다가 사람이 일어난께 와 내밥이야!하고 덜크닥하고 가네, 인자! 달음박쳐서 간디 이 놈이 기차탄 것 같그든, 열만치 가드니 이 놈이 탁 내래 놓드니 등거리를 탕 한 번 굶드란다 굶은 게 거그 피가 나올 것 아니라고 그란께 색끼를 대래다가 빨려 색끼나 서니나 왔거든, 등거리를 쪽쪽 쪽 빨아 묵고 있거든 그란디 어디선가 굿소리가 땡쿵땡이 야단이거든, 그란께 호랭이가 귀를 쫑긋 해 갖고 들드라마, 들더니 막 그리고 가거든 그리가, 그란께 옳다! 되었다, 하고는 색끼를 서니 귀가에 잡아서 바위에다 내 때린께 다 죽을 것 아니냐고 그래서 본게 그 우게가 큰 소나무가 한 있거든 그래서 정신없이 그 우게로 올라갔어 그란께 사람이 급하면 담 뛰어넘는다는 소리가 거그서 나온 것 같어.

소나무 젤 봉우리에 가서 앉았던 말이여, 근께 요놈이 깃껏 있다가는 와서 본께 새끼털을 다 찢어서 찍었거든, 그란께 눈을 불을 쓸 것 아니냐고 사방을 다 뒤고 다 양으린다 저 산에서 악아리면 이 산에서 소리가 울려 갖고 더 소리가 큰디 팽울린 소리로 울린게잉 그란께 쨍쨍 야단이거든, 그란디 이 놈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잉 또 그 옆에 와서 시체를 말더니 달이 흰히 본인께 사람이 거가서 쪼 글썩고 있는 것이 뵈거든 모양이제 그라고 솔나무래도 그 인자 덜 거시기 한께 단단한 나무가 앉았을 것 아니라고, 이자 쳐다보더니 막 뛰그든 첫 번에 똥께 꼭 이마아 떨어지드라네 곧 달라말라 해, 와마 저 놈이 더 뛰면 어떻게 되냐, 이놈은 지 진력을 다해서 된 놈이라 인자 차근차근 힘이 파인께 떨어질 것은 정식이여. 아 그러제 한치도 더 못가거든. 낭중에는 그 솔나무를 막 물어 뜯거든, 물어 3분의 1이나 떨어져 나가거든 그래도 아무리 일이 없어도 솔나무를 어며게 다 찢겼어 못한께 이 놈이 앙을 부리고 땡기다가는 사방으로 막 화가 나서 열이 나갔고 뛰어 땡기다가 묘하게 끌렁 하나에다가 꺾이 콕 백여브렀든 모양인데, 다시 못나오고 그대로 쫑쫑이 서 죽어브렀든 모양이제 허허허 그란디 아까 굿소리는 무엇이냐 하른 김 정승네, 이 정승네 두집에 사돈을 맺어 갖고 인자사 아들 딸을 여우게 되었던 모양이여. 이 인자는 이 정승네 집서 김 정승네 집으로 김 정승네 딸이 서로 혼약해 갖고 그 전날 저녁에 똥이나 신방을 차리게 되었어, 신방을 차린디 이 놈이 철모르는 놈이라서

그란게 낮에 못목을 것을 막 묵었던 모양이제. 묵고는 난 것이 인자 설사병이 났든가 밤에 인자 변
 소를 놀라고 몇 번 땡기다 본께 늘 안 존재 몇 번 땡겼던 모양이여. 아, 그때 호랭이가 와서 흠쳐가
 부러어 흠쳐가분께, 그날 인자 그랑게 신부 하나나 인자 올라 저제나 올라 하는 것이 어찌게 될 것
 이여 그라고 잊어브렀단 말이여, 그라고는 호랭이가 물어간 것이 뒷이 어렵다 하드라. 그래 갖고는
 인자 있는 집이고 정승네 집인께 동네에서 데려다가 굶을 치고 호랭이가 못 오게 하드라는 것이여.
 그란게 그 그것이 며칠째나 그날 저녁조차 사흘째나 되었던 모양이여, 그런디 교대로 하는 모양이
 제 그랬는디 아 낭중에는 호랭이 소리가 없어졌든 아, 이상한 일인디 허고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찾
 는 모양이제 그란디 이 사람이 솔나무에 올라가서 내로지를 못해, 그때는 내가 아조 죽냐 사냐 하고
 선 올라갔는디 등거리 굶은데 아프제, 내로들은 못하제. 어뜨게 하느냔 말이여 그란게 그중에서 영
 리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을 어뜨게 내려서 쓰것냐 호랭이한테 놀래서 저란다. 용두식으로 줄 한나
 쥐고 말에 차근차근 내리면 내리졌는가 그래 갖고 그 사람을 내렸단 말이여. 내린께 내가 저그 호랭
 이 한나를 잡아 났은께 호랭이를 꾀꼬나 오라 허거든. 그때는 아즉까지 거시기가 있었는데 그래 가 본
 께 말뚝에다 박어논 것같이 말뚝에다 꽂아 났거든, 이 놈 차다 보고 있거든 가서 본께 죽은 놈이여
 사람이 가서 뜯석 안하고 있었는데 가서 본께 죽은 놈이여 똥구녕에 콧 박어 논 놈이여! 그 집에서는
 인자 그 사람이 은인도 되겠다고는, 딸 한나 뿐이란 말이여 거그도 아들이 없고 그놈 한나 뿐인디,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신부의 방에다 놔 났던 모양이여, 그때는 정신이 나가갖고 죽어브렀든 모양
 이제. 사람이 맘을 탁 놔볼면 죽는 수가 있는 모양이여. 그래서 그때라도 우화 대래다 멕이고, 참지
 림 대래다 멕이고 했던 것이 어뜨게 되었나 회복을 되었든 모양이여, 회복을 해갖고 상을 패르고 거
 리에다 먼 약을 했든가 모르제만은 호랭이가 보통 새는 걸어 가든 발톱이 안보인디 눈을 걸어가도
 발톱이 안 보이다 용쓰면 발톱이 나와 고양이도 그러지. 고양이처럼 뿌쭉하기도 허고 그 놈으로 한
 번 거더볼면 얼마나 파지졌어. 빼작까지 파져볼제 그런께 죽은닥 한 말도 옳제 그래서는 인자 대처
 한 이틀 지냈스니까 사흘 지내고 치료했으니까 손을 뺀치고 본께 먼 손이 닿거든 그래서 무의식중
 에 돌아본께, 먼 처녀가 옆에 들어 누웠거든, 인자 밤이 든 모양이제.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께 당신
 이 죽게 되어서 내가 구안한 사람이라고 인자는 그라니 조금도 서운치 말고 회복하기를 나는 바랜
 다고 그라거든, 그래도 자근자근 말을 좀 해주라고 하고든 아니 묻지 말고 당신이 회복하기까지 나
 한테는 묻지 말고 어마든지 뵈이든지 잠수시고픈 대로 잠수시라고 몇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든 주라
 고만 하가로, 그런 것이 한 일주일 정도, 간호했던 모양이제 그것이 회복되고 그제사 인자 호랭이
 잡은지도 알고, 호랭이가 물어 간지도 알고, 했든 모양이여. 그란디 그집이 어찌고니 그 놈이 은인

아니겠다고 잉, 할 수 없이 사우 삼았어. 그리고 신랑 잃어버린 디서는 호식해 가부렀으니 그만이고, 그라제 원수 째아 주고 딸 살려주고 그래서 역시나 은인이 되어 갖고 거그서 난 것이 진사벼슬 삼형제 낳닥 하드만.

2-4-3. 원님의 예언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김태조(남, 85세)	산두리	『도서문화』4	

◇ 개요

원님이 방자와 다니다가 명당을 찾았다. 명당자리는 집터로는 서운한 점이 있어 방자에게 그 곳에 집은 짓지 말라고 했다. 집을 짓고 사는데 하루는 술장사가 술을 팔러 왔다가 집에서 죽고 말았다. 집 주인은 살인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아들에게 전에 원님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원님을 찾아 갔다가 개를 한 마리 가져왔는데 개가 사형당하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 물어 죽였다. 죽은 사람이 모두 백여시로 변했다.

옛날에 어떤 원님이 어느 고을에 살았는지 한 번은 방자를 데리고 어느 산에를 구경댕기다가 좋다마는 하고 기냥 와버렸거든. 그 원님이 떠날 때 방자가 사뭇 따라 감시로 안가고 있거든, 어서 가거라 하면 ‘예’ 하고 안가고 안가고 자꾸 뒷돌아보면 안가고 그래서 그날 못 뜨고 거기서 잠을 잤거든 내가 오늘 뜰텐디 너 땀새 못가고 있다, 그라실거시오 그란디 사또께서 놀러갔을 때 좋다한데가 뭐요 나좀 갈쳐 주시오. 그래라 거기가 우선 니가 집짓고 살 형편은 못된께 막을 치고 살아 살다가 나중에 잘 살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로 기냥 알게 해라 그라고는 잠을 자고는 떠났거든, 그래 거기다 막치고 살드라네. 살다가는 자꾸 되어 나가든 집을 잘 짓고 잘 살고 손님이 북쩍북쩍 끌고, 한바짝으로는 장기두고 한뼘짜에서는 바둑두고 잘하고 사논디. 한 번은 술장사가 오든말로 술사시오 한께 손님들이 다 안산단다 이런 댁에서 뭘 술 산다냐 안산단다 그래 기냥가거든, 그랬는디 술장사 패들이 들어오더니 여자 내노라고 그란께는 너 계집을 누가 아냐 그란께 내 계집이 여그 들어왔는디 없어졌다 한께 그람 니 집 뒤어보리야 하더니 마루로 들어가더니 술장사가 기냥 칼을 물고 나자빠져 죽어 버렸거든 그래서 주인을 잡아가 버렸어. 잡혀서 옥으로 들어간디 그때서야 사또 생각이 나서 아들을 불러 서울 아무대감네 집을 가거라 가서 이말을 하면 알 것이다. 빨리 가거라. 내 죽

기 전에 어서 가거라. 아들이 죽었다고 걸어서 대감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게, 올중 알았드나, 가다가 뭘 물건이든 비싼 물건을 값을 묻지 말고 사갖고 가거라 했거든. 즈그 아버지 죽기 전에 갈라고 죽었다고 가도 날은 저물어지고 빠져서, 어떤 집에 가서 자고 가겠다고 말을 한게, 개가 어찌게 사나운고 못잔다, 한게 부모도 죽은디 나는 살아서 뭐 한데냐고 거기거 잘라고 한디, 개가 보고는 참 반가라 했거든 그래서 이 개 나한테 팔라고 해서 천냥을 주고 사서 꿩쪽에 담아서 갖고 갔거든, 간께는 즈그 아버지가 벌써 동전띠고 상투들고 사형받을라고 들어가거든, 그래서는 그 개를 갖고 와서 뚜껑을 딱 넣어논게 개고 사형을받을라고 들어가거든 그래서는 그 개를 갖고 와서 뚜껑을 딱 넣어논게 개가 나오듯이 이놈도 물어 죽이고 저놈도 물어 죽인디 덜컹덜컹 물어 죽애놓고 본게 하얀 백여시가 모두 나자빠졌드라우 그래서 그 뒤로는 잘 살아 부렸드라 이거여.

2-4-4. 당골의 딸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김태조(남, 85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양반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빌어먹을 상이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구복덩이를 얻을 라고 다니다가 당골네 딸을 며느리로 삼게되었다. 아버지가 죽자 며느리를 버리게되었다. 며느리는 나가서 숯장수하고 살면서 부자로 살게 되었다. 하루는 그 집에 거지가 왔는데 그 여자의 본서방이었다. 여자는 본서방을 따라 빈손으로 나왔는데 부자가 되었다.

전에 어떤 양반이 아들 한나를 낳는다. 상을 본게 아주 빌어 먹것거든, 생전 쪽박들고 빌어먹을 상밖에 안되.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였는디 장가갈 때가 된게는 며느리를 얻을라고 좁쌀양식을 싸갖고 댕겨도 어디가 없거든, 아들은 그렇게 빌어먹게 생겨봐서 며느리는 구복덩이를 얻어야 할텐디 어디가 그런 큰 애기가 없어 댕기다 댕기다 한반대를 간께는 어떤 큰 애기가 짐치를 시츠로 간디, 앞뒤로 보나 구복덩이로 완전히 쌓였거든. 그래서 그 큰 애기를 따라 들어가서 본게는 당골레 집이거든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있다가 우리 사돈하자고 그란께는 죽여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죽여 주십시오, 죽일 것 없다, 우리 사돈하자고 그란께 그래서 사존했거든 그래서 얻어다논게는 집안에서 저놈의 인사가 죽을라고 저랑당께, 노망해서 자식을 어따가 당골네 새끼를 얻어 매길라고 절

한디야 그래쫘거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죽을락 함시로 즈그 아들보고 나 죽으면 잠안에서 며느리를 버릴 것이다. 그러지만 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라고 죽어분께 아니사까 느그 압씨가 죽을라고 망녕 해서 저러케 당골네 자식을 얻어 매겼다고 당장 버리라고 그라거든, 나가거라 그란께, 나 늑 아버지 복 입었는께 복 벗고 나갈란다, 복 벗고 난께는 나가라고 안해도 기냥 나가거든, 수건 하나만 들고 나가서 가다가 어디만큼가서는 어느 짚은 꼬랑창에게 쫘그만 오두막집 한나가 있거든, 간께는 늑 은이가 다 떨어진 치마를 입고 정채서 기어 땡겨 쫘거든, 들어간께는 어찌게 저리는 고운 분이 이런 테를 왔냐고 그란께는, 가다가 질 일어 부러서 왔다고 한께는 들어와 앉으시라고 보리가리 죽을 썬서 주거든, 그래서 얻어 묵고 앉았는디, 어떤 꺾한 솟쟁이가 캄캄해진께 들어오거든, 어서 손님 오셨다우 그란께, 오냐, 여손님 한분 오셨다, 너는 정채서 자거라 사람들이 참 좋거든, 그래서 들어 오시라고 그란께 여그도 좋다고 안들어 간다고 그란께는, 괜찮다고 들오시라고 들어 와서 한비짜에 가서 소심하게 앉았거든. 우리 서로 이렇게 살자고 그란께는 저리 고운 분이 나같이 꺾만 솟쟁이하 고 어찌게 살 수 있냐고 한께 관계없다고 살자하면 살자고 아 그라자고 살거든 그 뒷날은 솟구러 간다고 간께 나도 간다고 같이 갔는디 솟구는 아구치 가운데다가 큰 바우를 막어 놓고 부삭을 봉하거든 그란디 솟불 문 악께가 바우가 걸려 있거든, 저 놈을 띠라고 띠어 놓고 본께는 노란 금이드라네. 그놈을 갖고 와서 쫘까석 쫘까석 띠어서 팔아도 굴도 안하고, 도로 ब्ल코 도로 ब्ल코 해서 아주 부자로 잘 살았거든 장곽같은 집을 짓고 네귀레 핑경달고 쥐구멍에 홍실달고 바람부면 잉그렁정그렁하고 잘 살거든. 한 번은 거지가 밥 얻으로 왔는디, 밥잔 주시오 하거든 내다 분께 즈그 본서방 이거든 사랑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밥한상 차라 쥐라하고 다 잠잠뒤로 가분께는 밥얻어 먹고 옆드러져서 자고 있거든 찌그덩 찌그덩 일어나라고 한께는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거든 나 모르졌냐고 한께 차다보던이 울거든 그란께는 지금도 내가 따라사서 살면 어찌것냐고 그람 좋체마는 어디가 그 달수가 있냐고 그란께 좋기만 하면 따라 갈란다 그란께는 좋기야 좋다고 기냥 아들 딸 영감 다 대놓고는 나는 조시내 본남편이라고 그란께, 본 남편따라 간디여 느그는 다 내가 일으켜 뵈는께나 없어도 잘 산다고 기냥 거기서도 수건 한나 손에 들고 나온 것이 그만이나 부자로 잘 살았드라네.

2-4-5. 어린 신랑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정택임(여, 85세)	산두리	『도서문화』4	

◇ 개요

시집살이는 서방이 야무져야 하고, 처가살이는 각시가 야무져야 한다.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갖고 양골연을 어뜨케 피목든가 그렇게 젊은 여자가 목은다고 그렇게 시집살이 못하면 친정살이를 해도 양골연 참고는 내 못살것다고 한계 각시를 못 버렸단다. 전에 쟤그만 것이 장개를 가서 한문서당에 나오니, 즈그 부모들이 애린 것들이 각시 얻어노면 맨 각시옆에만 가고 공부도 못하고 한계는 선생한테 말해서 꼭쥐고 아무 남자야 느그집 가제 밥이나 묵으면 그냥 오고가 제 느그집 가서 각시하고 그래서 안 된다 단속한계, 즈그집을 못간디, 한 번은 밤에 소매가 피라서 선상님 나 소매좀 보고 올랍니다. 서당이 높았든가 오줌 누고 내려다 본계, 노무는 다 불끄고 잠을 잔디, 우리 가시나고 있는 방은 어즈서 저리 불을 켜 놓고 있단 말이여. 그래 머이마가 하는 말이, 선상님 소매를 보고 나왔는디, 우리집 가시나가 있는 방만 불써졌습디다. 쪼끔 얼른 보고 올랍니다. 가서 본계는, 각시가 골뎀을 지르고 불써놓고 반질을 하고 있어, 그란계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는 이게 웬일이냐고 한계, 어머니가 옷한불을 다해서 속해놔서 아적에 어무니한테 바쳐야 아무 소리를 안하제, 그란하면 어무니가 뭐시라한계 그랍니다. 그라거든 모두 걸어서 거그다 연져놓고 잠자라고 내가 널 아적에 밥 묵으러 오면 어무니한테 그 옷 한 것을 받쳐야 할텐디 안오거든, 밥 다해 묵고 기영 돌리고, 기다려싼싼계 오거든. 와서 모방에서 맹근하고 갖하고 갖고 즉 엄마한테 와서 어무니 노무 자숙을 데려다가 밤에는 잠도 못작 반질을 시키니 노무 자숙이 쓰것소 그런 사람도 딸을 나서 줄때는 잠자가면서 하라고 했다우, 나 데려다 즐라우, 그라고 함시로 옷을 딱 입고 나섬시로 각시한테 당신네 잡서 뭐 못해갖고 왔으면 싸갖고 나오라고 가자고 그란계는 어무니가 인자는 느그각시 저녁밥 묵고 잠자라하고 낮이면 반질하라 할란다. 그 뒤로는 다시 메느리 반질하란 말 안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잤단다 고담으로 시집살이는 서방이 실거야 하고 처가살이는 각시가 실거야 한다.

3. 생활이야기

3-3. 경험이야기

3-3-1. 부조 산두 간다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박창호(남, 48세)	마명리	『도서문화』4	

◇ 개요

부조란 사람이 산두로 심부름을 갔는데 심부름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왔다. 그 뒤 사람들은 심부름을 잘 못하고 오면 “부조 산두갔다 왔다”고 한다.

부조 산두 간다는 말도 있어, 윗 동네에서는 부조 부조 산두 간다고, 간계 옛날 이 동네에 부조란 사람이 살았던 모양이어, 최부조란 사람이. 산두 간다, 산두 간다, 부조 산두 간다. 이 동네 바로 너메에 산두란 동네가 있어 부조란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돈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어. 한 100년 전의 일이다 그 분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심부름을 시켰던 모양이어. 산두로 거가서 갈 때는 누집가서 뿔뿔하고 오너라 했는데, 하 이 사람이 즈그 아버지 말을 까묵어 부렸어. 까묵고는 산두 가서는 동네만 뺑 돌아보고 와 부렸제. 그러께 심부름을 못 갔단 말이제. 얼른 말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 부조 산두 간다, 그래 그란디 그 말이 계속 지금도 내려와서 누가 가서 너 심부름 갔다 왔다 해갖고 잘 가서 잘 전하고 오면 괜찮은디, 못하고 그냥 올 때, 아 너 자식 부조 산두 갔구나 그래 부러 부조 산두 간다 말이 있어.

3-3-2. 담배밭과 중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김태조(남, 85세)	산두리	『도서문화』4	

◇ 개요

절에 스님이 남의 부인을 탐하러다가 그 집 신랑에게 몰매를 맞았다.

전에 어떤 사람이 짧은 마누라를 데리고 산중으로 담배 농사를 짓거든. 항상 담배밭에서 같이 일을 해췄다가 하루는 자네 혼자 담배밭에 가소, 나는 몸이 아파서 못가겠네. 혼자 가서 담배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게, 그 절애가 중이 있다가 내다보고 내다보고 하든 말로와서는 아씨 더운디 혼자 담배밭에 오겠습니껴 내가 좀 해 주랍니껴 하고는, 이리 감시로 궁치를 썩시쳐가고 그라거든 하도 불사시러서 그냥 가서 함박쫂박 내 불고 해췄게는 원 시상에 항상 같이 일하다가 오늘은 내가 몸 편찬한게 혼자 좀 갔다오라한게는, 그러케 해췄가 그란게 누가 그래서 그라냐 한께, 절 중놈이 혼자 더운디 왔냐 했췄드니 이리 감시로 궁치를 썩 시쳐가고 저리 감시로 궁치를 썩 시쳐가고 그라드라고

한게 그람가게 가서 뒤시라 하리야 한게 아이고 아이고 울고 가면 어찌 그라냐 하면 우리 서방님이 몸 아프다고 하든이 기냥 돌아가셔분께 누가 해낼리는 없고 자네하고 나하고 해내어 같이 살면 좋겠냐고 한게. 시끄러 시끄러, 독저태 독있고, 나무저태 나무있어 시끄러 그라거든. 새 찹쌀밥을 해오랍니껴. 새 꼬치장 가져오랍니껴 목은 고치장 가져오랍니껴 그라거든 찹쌀밥을 해서 한그릇 담보 고치장하고 해다 준게 딱 목어 부렸제 가자고 가서 썰팍에 막 들어간게 염불한다고 얼덜덜하고 방문앞에 들어감시로 굴갓을 벗어서 정제다 둬시로 자 나무하게 죽장을 문질러서 정제다 던짐시로 비땅이나 하게 혼이불을 덮어놓고 있는게. 몽둥이를 갔다 놓고, 혼이불을 할딱 견으고 네 이놈 우리 애팬네 담배밭에 간게 뒤시라고 해야 디지게 때려논게는 걸음도 못걸어가고 뿡뿡 기어서 절로 올라감시로 능청함도 능청하다 애양함도 애양하다 그년 밥 먹는 것이 알아보것드라 삼대차 내려온 내 굴갓, 삼대차 내려온 내 죽창 그라고 절로 기냥 가버렸드라네.

3-4. 풍속이야기

3-4-1. 토끼와 서숙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김애순(여, 71세)	마진리	『도서문화』4	

◇ 개요

밭에다 서숙을 심었는데 토끼 때문에 추수를 할 수가 없었다. 토끼 한 마리를 잡아서 사지를 펼쳐 묶고 흥시감을 발가락 사이와 똥구멍에 끼워두었다. 그 후 토끼들이 무서워 서숙을 헤치지 않아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목은 밭 파다가는 목은 밭 파서 서숙을 갈아 놨는데, 서숙에가 산토끼가 내려와서 서숙을 와딱와 딱 와르륵 와르륵 다 뜯어 다 뜯어서 몽땅 목어 브렸어.

“근게, 아이고! 이놈의 토끼 따말에 서숙 못 해묵겠다” 하고는 한 놈이 피를 활딱고는, 피를 활딱 벗어 갖고는(벌거벗음) 니 활개 쭉지를 활짝 피서는 빠란 흥시감을 물어다가 발꼬락에 양쪽 발꼬락에다 찡기고 똥구녕에다 끼우고, 그라고 이라고 있는게.

“토끼 한 마리 내로더니, 아이! 악들어(아이들아!) 이리 와 버러. 무슨 사람한나 죽었어야”

“그란게, 대천지그나 토끼가, 산토끼가 막 내봐서는 모도 감을 베목을라고 그란게 날롱 날롱 한게

는 예끼 니미 씹헐눔허곤 몽둥이 갖고 토끼를 획 갈개버린께 서마리가 죽드래여”

“그래서 시마리가 죽어서 집아다가 인자 해 묵고는 그 뒤로는 놀래서 잉, 안 내로거든, 인자 서숙을 안 뜯어 먹어.”

아! 그리고나, 하고 한 두어 달이나 있을께는 또, 또 와서, 또 그렇게 뜯드래여.

그란께, 또 그렇게 해 본다고 갔다 옆에다 놓고는 또 그렇게 모도 흥시감을 물고 있는께, 한참 있다, 토끼들이 내려와서는 철따구니가 몰랐던가, 한 놈이 내려오더니 막 어찌개 후려 꽤부렸던고 토끼 다섯 마리나 죽어서, 허, 허 토끼 다섯 마리나 죽어서 그 해때는 노오란 서숙을 했드래여.

4. 초자연이야기

4-1. 당·제의이야기

4-1-1. 당제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박창호(남, 84세)	시서리	『도서문화』4	

◇ 개요

마을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해 마을에서 당제를 지낸다. 당제는 150년 정도가 됐다. 깨끗한 사람으로 제관을 3명을 선정한다. 제관들은 당샘에서 목욕재계를 한 후 당제에서 제물로 쓸 꿩을 잡는다. 꿩은 물이를 해서 잡는데 그 때만 해도 영금이 있어 꿩이 주저앉아 잡았다고 한다.

당은 250년(?)전에 마을 그 여러 가지 옛날에 옛날 같으면 인자 한 마디로 말해서 부락에 못된 일을 좀 잘되게 하기 위하여 미신이 있지 않소. 빌기 위해서 당제를 지냈거든. 당제를 지낸 역사가 150년 됐다 하든만 당제를 지낼 때는 그냥 아무케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금이 있어 갖고 당을 옛날 같으면 아무도 함부로 출입을 못했어. 그래 못하게 하는 표시를 검줄이라 해서 당에 올라간 사람들은 알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햇머리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골라갖고, 셋이 제사를 지내갖고,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

“누가 고른답니까?” (조사자)

동네에서 생전 사는 사람이제. 사람 중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운이 좋다는 걸 누가 골라주었을 것 아닙니까?” (조사자)

골라준 것이 아니라, 부양군에 나타나제 인자 얼른 말하자면 궁합 보디끼, 뭐가 좋고 뭐가 좋듯기 그 햇머리에 무슨 해에 태어난 사람이 좋다 그렇게 있는 모양이든마. 토정비결 같이로 거기에 해당 된 연령들이 올라가갓고 찌그가면 당쟁이라고 있어. 당쟁이가 크도 안해. 한 평 종도 썸인데, 겨울 에도 항상 물이 넘고 여름에도 항상 물이 넘어. 그리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서 게그가서 목욕하면 몸 이 춥지 안다고 그래. 그랑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자 제각적으로 보면 지금 뭐다가 온천이라까 그 란디 여름이면 또 무지하게 시원해 거그가서 탄 디서 아무리 목욕해도 그 얼른 말하면 더위를 못 잊 는디, 거그는 하여튼 못 들어갈 정도로 시원했으니까 그래갓고 거기서 일단 목욕해갓고 난 다음에 인자 여기와서 제본디여. 여기와서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한 다음 한 다음에 썸몰이를 한다고 썸몰이. 저 산에 올라사거 바위만 가서 썸을 던단 말이며. 남은 사람은 여그 가서 썸을 털고 그러면 썸이 숙 제 있다고 이쪽 저쪽으로 모넨까 갈 때가 없을 것 아니라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나무가 있으니깐 여기 주저 앉는데, 옛날에는 연금있으께 주저 앉은다고 그래. 그래서 이 썸을 잡아갓고 제사를 지냈 다고 그래. 그런 말이 있어

4-1-2. 점하는 팽나무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김모갑(남, 84세)	시서리	『도서문화』4	

◇ 개요

시서리에서는 농사철이 되면 동네에 있는 팽나무에 잎이 나는 것을 보고 점을 친다. 팽나무 잎이 밑에서부터 나면 아랫마을에 풍년이 들고, 위쪽에서부터 잎이 나면 윗마을이 풍년이 든다. 북쪽부 터 잎이 나면 여름 농사가 잘되고, 남쪽이 먼저 나면 밭농사가 잘된다. 정월 초가흠에 팽나무에 제 사를 지낸다.

거기서 있는 팽나무란 썸에 대한 전설을 얘기해 보면 저 팽나무가 어느년에 숨졌는지 모르것는 디, 우리가 들은 바로 볼 때는 한 400년 되었어, 응 둘레를 재고 하니까 400년 되었다고 허제 뒷썸 밑에 팽나무라고 있는디, 저 팽나무가 생긴 것은 우리로선 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란디 저 팽나무는 분명히 이 동네가 생기기 전부터 컸으리라고 이렇게 봐요. 그란디 읍 동네가 본래는 동천

저 건너 동네가 앉았어요. 그런디 여그 입도하는 분들이 어디서 입도하셨나 하면 저그 칠호지에 입도해가지고 여가 조금 널뜬게 요리 올라온 것이 아마 400년 가까이 되지 않냐. 어그저께 조사해 본게는 3백 5,60년 된다고 봤을 때 전에 저런 어르신들이 보아도 꼭 그만하고 우리가 봐도 꼭 그만하거든, 저 팽나무가 그래. 그런디 저 팽나무의 유래라면 하나의 신비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나면, 매년 농사를 앞두고 여그 농촌이라서 농사를 진 사람들이 저 팽나무가 점을 쳐요. 저 팽나무가 점쟁이다 이거여. 그러면 으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이 점을 치냐 하면은, 어느 해에는 팽나무잎파리 밑보름 나기 시작한 해도 있고, 어느 해에는 위에서 보름 나기 시작한 해도 있고, 어느 해에는 동쪽, 말하자면 문야 나는 해가 있고, 그라드라 이거여. 그것을 감정해서 금년에는 웃달이-웃달리라면 위에서 문야 편게 웃다리 농사가 잘되겠다. 그리고 밑에 쪽이 문야 되면 인자 순이 나면은 아 인자 아랫섬 대가 농사 잘 되겠다. 그리고 하다 보다면 아! 금년에는 북쪽이 문야 편게 여름 농사가 잘 되겠다. 남쪽이 문야 되면 아! 발곡식이 잘 되겠다고 해서 점쟁이 노릇하는 점쟁이 팽나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제. 정월 초사흘날 팽나무에다 제사를 지내지. 제사 의식도 있는데 아조 축문도 있고 제관을 저 지난해에 설달 그믐날부터 정월 초사흘날까지는 모든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인동침도 안하고 모든 정결하게 하고 제주가 제사를 지내요. 그 바로 나무밑에는 뿌리가 전부 있는데 고 우리가 보듬으면 너이 달라 들어도 모두 보듬지 못하게 그렇게 인자 커요. 그 나무가 싸고 있는 바로 그 밑에가 약수터 있어요. 그런게 그 물을 먹은 사람은 장수하제 그러고 성적산! 기좌섬 안좌는 삼도인디 가장 높은 봉우리여.

4-2. 귀신이야기

4-2-1. 귀신 든 이야기

◇ 개요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허경희	김애순(여, 71세)	마명리	『도서문화』4	

밤길을 가는데 길이 휼했다. 귀신불을 만난 것이다. 오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 조용히 짐까지 왔는데 오빠가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물밥을 만들어 대문 밖에다 뿌렸더니 그대로 괜찮아졌다.

전에 우리 오빠가 일본 갔다가 내려와서 꼭 오빠가 밤질만 걸은게, 동네가 나는 동네서 살고 저그

잔등 둔제서 산디, 20리 걸어가야 가, 아이고 오빠 어제 그랴요! 아, 모래땅을 딱딱 걸어서 밤에 올라 간디, 모래땅이 이렇게 모래땅 곁에 큰 언덕이 있는디 그런 산 언덕 거그서 기양, 전에, 옛날에 등 촛불같이 생긴드, 고놈 같이 불을 썬갓고 가네그려, 울들은 앞으로……. 그란께 가네그려, 질이, 감한 질이 흰하그던.

“등불처럼요?” (조사자)

“응, 귀신이었어.”

아이고! 오빠 무서운 것 하면서도 말한께 오빠가 꼬집으면서, “암말도 말어라, 암말도 말어라, 암말도 말어라.” 신신당부를 한 것이여. 그란께 그 놈을 한곳 가다가는 한 잔 등을 넘어간께 막 거리 거리에 동네가 있어. 또 그렇게 썬 갓고 우리들 앞으로 인도를 해 갓고 간께. 또 개가 그렇게 짚는 것이여, 꼭 시 동네를 넘고 시전등으로 오르니 인자 이런 민둥개 잔 등에, 저그가 큰 동네가 있고, 거그서는 이렇게 미친개는 개가 영영하고 짚어 자친개는 없드니, 아이, 집에 막 들은께 우리 오빠가 느닷없이 배만 아프다 하네.

“성님, 성님! 거시기 저 오빠가 배 아프다고 하요. 저 저것잔 보시오” 한께는, 오빠 드릴가로 밥담아 났네만 물에 타서 섯밖에 찌그려 부시오. 된장물 타서 밥을 붓어서 오빠 안차라 드리고 죽은단 한 사람이 밥도 못 묵은께 그놈을 따서 오빠 고개를 획 둘러다가는 짹 찌크러분께는 아이 거짓말 같이 일어나 배가 안 아프닥하고 그란께 구신이 달라 붙었던 것이여.

(2) 민요

○ 모찌는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모찌는 소리	허경희	박순규(남, 68세)	안좌 대리	『도서문화』4	1985. 7

아라 먼디요

띠어차 띠어차 띠어차

무어나 봐라

뒷사람 띠어주고

앞사람 갖가지네

아라 먼디요
띠어차 띠어차 띠어차
다되아간다 다되아간다
이 못판이 다되아간다

누산네 끈말은
다빠져가네
누산네 다리엔
검자리가 붙었고

못살아것네 못살아것네
아라먼디요
배아지가 고퍼서
못하나것네

여혀어루 상사디아요
여혀루루 상사디아요
여여기도 싱기고
저저기도 싱기고
싱겨라

○ 흥타령(어랑타령, 청춘가)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흥타령(어랑타령, 청춘가)	허경희	박순규(남, 68세)	안좌 대리	『도서문화』4	1985. 7

이에산지로 갈거나에
집들잇뜻

내품안에 들어오는
젓비개가 높거든
내팔을비고

네사랑에 간장이아니는
잠을이루지 못했구나
헤헤

어이구대구 허어어지어
백마가났네

진안무칠벽이 위덥다고하여도
새는앉아서 운운한다

어설놈의 공산놈아
공산당이 왔다기에

꽃같은 이내청춘
야밤중이 다되왔네

홍타령 분자령은
함경도 원산인데요
임씨나고향은 안좌면대리로구나
어랑어랑 어여야
허어양 더어야
몽땅내사랑아

날다려 가그라

날머서 가그라
 한양에 낭군아
 좋다날 다려가그라

니가날만큼 사랑만한다면
 가시덤뿌리 이라도좋다
 따라나가리

○ 베틀가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베틀가	허경희	정병임(여, 68세)	안좌 여홀리	『도서문화』4	1985. 7

오늘날도 하심심하고요
 베틀가에나 놀아나 볼거나
 밤에짜며는 월광단을 짜로나
 에헤이여

낮에짜며는 일광단을 짜구요
 바에도짜며는 월광단을 짜노라
 일광단 월광단 다짜가지고
 어느때 어느곳에로 시집을 갈거라

○ 논매기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논매기소리	허경희	정병임(여, 68세)	안좌 여홀리	『도서문화』4	1985. 7

달아되는 님이요
 에야디야 에로고나

달아달아 밝은달아
에야디야 디어차
저기저기 저달속에
에야디야 에로고나

계수나무 박혔구나
에야디야 에로고나

은쪽으로 찍어내어
에야디야 에로고나

은꼭쪽으로 다듬어서
에야디야 디여차
어깨짜고 개성짜여
이야디야 에로고나

대구성에 흥행이여
에야디야 에로고나

나대상에 곱게미여
에야디야 에로고나

월춘둔영 유대로세
에야디야 에로고나

어쩔라말고 미고가세
에야디야 디여차

어조그마가는 아그성재
에야디야 에로고나

아그들 우는소리
찾아내어야지 못듣겠네
에야디야 에로고나

○ 청춘가(홍글노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청춘가 (홍글노래)	허경희	정병임(여, 68세) 정명엽(여, 54세)	안좌 여흘리	『도서문화』4	1985. 7

느그부모 하는 말을
일일이 다하리아
거명글씨 흰종우에
주터읽어나 보아라
청춘아 청춘아

이내몸 내청춘아
오는백발 못잡고
가는청춘 못잡네
어이를 할거나
어찌를 할거나
원수놈의 백발이
돌아왔구나
세월이나 갈라면
너혼자 갈일이제
청춘 세월 나를주러
버리고 갈거나
니가잘나 인생이나

내가못나 보보드나
 거명머리 희어지고
 좋다내뻘 내가못살라
 처녀때 단복짐은
 대도시몰라 농촌에 핫바가지가
 좋아라 내세상되었네
 여자로 태어나
 생긴것도 내억울한데
 가려고 떠난이들좋다
 너구리라 하드라
 백발은 줄때가있구
 노인네백발은 쓸데가없더라
 이놈의 공방살이 남이아는지
 님두고 공방살이는
 우리어매도 모르네
 사는데 바람잘날이 없구요
 재산없이 내가슴속
 편할날이 없더라

○ 상여소리 1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상여소리 1	허경희	김명엽(여, 54세)	안좌 여흘리	『도서문화』4	1985. 7

간다간다 나는간다
 황천길을 나는간다
 어널어널 어널이영차 어널

 저승이 길같으면

어느누가 못갈손가
어닐어닐 어닐이영차 어닐

저승길이 문같으면
어느누가 못넘을손가
어닐어닐 어닐이영차 어닐

승천길은 이앞에도
얼마나떨면 못오실까
어닐어닐 어닐이영차 어닐
님죽고 내가살어
열녀가 될거나
한강수 깊은물에
빠져나 죽자나
간아니상사 간아니상사 간아니상사

황천질이 질같으면
오고가고 갈것같으나
어닐어닐 어나리넘자 어닐

간다간다 나는간다
황천길로 나는간다
어닐어닐 어나리넘자 어닐

○ 상여 소리 2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상여소리 2	허경희	정주섭(남, 69세)	안좌 방월리	『도서문화』4	1985. 7

어가리넘자 어화노
세월아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흘리네
거들거들 어나리넘자 어화넘

정든세월은 인생은 북망가자
어서어서들 어와리넘자

북망산천이 노다가지
왜몬저 북망일세
어서어서 어와리넘자 어와리

늙은사람 죽지를 말고
젊은사람은 늙지마소
어와리넘자 어화소

가시는데 효도하면
그효도가 쓸데있소
어화리넘자 어화노

칠십밖세기 화저로세
하직이로세
어화리넘자 어화노

노다가자 노다가세
오늘은 예서 노다가자
어화리넘자 어화노

갈까부다 갈까부다
북망산천에 나는가네
어화리님자 어화노

이제가면 언제나오실나요
오실날짜나 알려주소
어화리님자 어화노

높드라 방상고지
천지가되며는 오실라요
어화리님자 어화노

이차봉에 거리장단
두날개치고 우면오실라요
어화리님자 어화노

우지마라우지마라
내면 춘삼월에 또다시 올란다
어화리님자 어화노

하직이야 하직이야
내문전 하직하고 북망가네
어화리님자 어화노

동네방네 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어화리님자 어화노

어서가자 어서가자
 북망산천으로 어서가세
 어화리넘자 어화노

○ 상여소리 3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상여소리 3	허경희	박남주(남, 69세)	안좌 소곡리	『도서문화』4	1985. 7

어허어허 넘자
 어가리넘자 어화노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안산너머가 북망이라
 어허 어허노넘자 어가리넘자 어화넘

여보시오 가군진네
 눈먼남편 혼자두고
 당신혼자 가실래요
 어허 어허노넘자 어가리넘자 어화넘

아가청아 우지를말아라
 배가고파 네가우나
 어허어허 어가리넘자 어가리오

아가청아 느그모가
 죽은줄알고
 그리슬피 우는구나
 어허 어허넘자 어가리넘자 어화넘

○ 뱃노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뱃노래	허경희	박남주(남, 69세)	안좌 소곡리	『도서문화』4	1985. 7

에헤노야 어기어차
 뱃노래가 잔다
 어스른달밤에 바다엘갔더니
 무지한 인간만나네
 들베게 비었다
 에헤노야 노야
 에헤노야 어기어차
 뱃노래가 잔다

창해만리 먼먼바다에서
 외로운 등대불만
 깜박거린다

에헤노야 노야
 에헤노야 어기어차
 뱃노래가 잔다
 달뜬동산에 달떠야 좋건만
 요내몸에 달밝은건
 매맛을 징조라
 에헤노야 노야
 에헤노야 어기어차
 뱃노래가 잔다

○ 아리랑 타령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아리랑 타령	허경희	박남주(남, 69세)	안좌 소곡리	『도서문화』4	1985. 7

아리아리 아리랑 서리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흥흥흥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제는 인고개더냐

구예야 굽이굽이가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흥흥흥 아라리가 났네

달뜬동산에 달밝아야 좋고

우리네 정든님은 젊어야 좋네

아리아리 아리랑

서리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울넘어총각은 물푸던소리나

이웃집의 처녀

날부르는 소리구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 서리랑

흥흥흥 아라리가 났네

○ 동덩이 타령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동덩이 타령	허경희	최동환(남, 73세)	안좌 소곡리	『도서문화』4	1985. 7

동덩기덩 동덩기덩 당기동덩에 동덩기덩

어느죽 팔죽 삼부자죽

어느죽 팔죽 삼부자죽

삼부자묵다 씹이나문

지에비텔고 송사를건다네

동덩기덩 동덩기덩 당기동덩에 동덩기덩

○ 산달미꽃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산달미꽃	허경희	정덕임(여, 85세)	안좌 마진리	『도서문화』4	1985. 7

꽃아꽃아 산달미꽃아

너른객사장도 썬것마는

더러운 개상살이가

저리곱게만 되었느냐

너른객사장에 저리곱게 피었지만

얼마나좋으리 예루만세되실레

○ 언문뒤풀이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언문뒤풀이	허경희	김태조(남, 85세)	안좌 마진리	『도서문화』4	1985. 7

기억니은 디글리을

지긋지긋하게 살자더니

가갸거겨

가이없는 이내모이

그지없이 되었구나

고교구구
고생하든 우리낭군
간하기가 짝이없다
나나너너
너고나고 살자더니
정이없어 못살겠다
노노누누
노자노자 젊어노자
늙어지면 못노나니
다다더더
다정하다 삼삼오면
더도없이 깨어난다
도도두두
뚫달아라 배질하자
라라러러
날아가는 저기리기
너를보니 심사로다
로료루류
로류장화를 꺾어놓고
춘풍낙엽이 떨어지고
명년삼월이 돌아온다
마마머머
마자마자 마자도다 님생각이 다시난다
모묘무뮤
모질도다 모질도다
한양낭군 모질도다
바바버벼
밥을먹자 지었더니

벗이없어 못먹겠다
보보부부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 보고지고
사사서서
사신행차 바쁜집에
중간참이 늦어간다
소쇼수슈
소슬단풍 찬바람에
울고가는 기러기야
한양성을 지나거든
이내소식 전코가소
아아어어
아양록 고두막이
홀떡떳다 열광단
오요우유

오동복판에 거문고를
세줄매어 타노라니
백학이벌써 오줄오줄
춤춘다
자자저저
자주종종 만나더니
영소식이 무소식이요
조쵸주쵸
조별낭군이 내낭군인디
편지소식이 돈절하다
차차처처
파라리 죽었더면

이것저것을 잇을 것을
초초추츄
초당에 깊이든잠
학이설음 놀래께니
들리노니 물소리라
카카커켜
용친검 드는칼로
이내몸을 베어주오
코쿄쿠큐
클클히 설은한을
누구래서 풀어줄까
터터터터
타도타도 열타도하니
누구를 바래고 여기왔나
토토투투
토지지신은 감동하사
님을보게 도아주소
파파퍼퍼
파요파요 보고파요
님의화용 보고파요
포표푸푸
폭포수 흐른물에
풍기둥실 빠졌으면
이것저것을 잇을 것을
하하허허
한양낭군이 내 낭군인데
편지소식이 돈절하다
호호후후

호접하게 먹은마음
 단사흘이 다못가고
 님생각이 다시난다

○ 자장가

곡 명	조사자	제보자	주 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자장가	허경희	정덕임(여, 85세)	안좌 마진리	『도서문화』4	1985. 7

자장자장 우리애기
 잠자거라
 멀동아 잠자거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잠못잔다
 망망개야 짓지마라
 우리애기 잠못잔다
 자장자장 어서가자

어서와서 내앞으로 생겼냐
 일본대판 천국만국가도
 내자손될라고 날찾아왔구나
 내야 자손아
 어서나 잠자거라
 동동동동 내손지
 어디를 갔다가
 날찾아왔느냐
 조선팔도를 다내불고
 내손지가 날찾아왔구나
 어허동동 내손지
 나혼자 보기는 아깝다

우리낭군 한양에
 낭군은 어디가고
 이손지 불줄을 모르는가
 한양에 낭군은 어서와
 이손지 보듬아보게
 동동동동 내손지

○ 꽃타령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꽃타령	허경희	김태조(남, 85세)	안좌 마진리	『도서문화』4	1985. 7

꽃아꽃아 고운꽃아
 초앙앞에 심긴꽃아
 내월이라 어리다고
 손한번을 안켰더니
 꺾거간다 꺾거간다
 백성님이 꺾거간다
 백년광풍 맞아다가
 부모봉양 하자더니
 못다하고 떠난길은
 천년인들 잊을쏘냐
 만년인들 잊을쏘냐
 무후공지 하등앞에
 임한쌍을 기르자도
 눈물에 겨워 못기르겠네

○ 옥중가(창가)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옥중가(창가)	허경희	최귀금(여, 54세)	안좌 대척리	『도서문화』4	1985. 7

악하도다 감옥아
 니게 못나니
 세상에 생겨난지
 몇해이더냐
 꿈인지꿈인지 철장속에서
 밤마다 자는잠은
 새우잠이요
 구먹으로 주는 밥은
 수수밥이요
 새우잠이 편하든
 누가 자리요
 수수밥이 맛있으면

누가 먹을까
 선명을 불러대어
 나가보니까
 사랑하신 어머니가
 나를 보러오셨네
 눈물은 말보당먼자 나오고
 눈물은 머금고
 말은 꿇겼소

○ 도라지 타령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도라지타령	허경희	최귀금(여, 54세)	안좌 대척리	『도서문화』4	1985. 7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도라지캐러 간다고
 이리핑계 저리핑계하더니
 뒷동산에 올라가
 낮잠만 푹푹자노라
 에헤에헤 에헤요
 에헤헤요
 도라지를 켈라면 캐고요
 산삼을켈라면 캐지요
 남의집에 귀동자를 다리고
 야밤에 산보가웬일이냐
 에헤헤요, 에헤헤요
 에헤헤요

○ 꽃타령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꽃타령	허경희	장대일(여, 79세)	안좌 대척리	『도서문화』4	1985. 7

어화테화 매화꽃
 봄들이기만 기다려
 고봉산천의 높은봉에
 봉지봉지 꽃봉지는
 태양나부를 기다려
 데에에 나호랑어기야
 따라가그라 따라가그라
 따라가그라 따라가
 어기야디디 봉구야좋지
 맞아죽어도 따라가

○ 등당기 타령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등당기 타령	허경희	장대일(여, 79세)	안좌 대척리	『도서문화』4	1985. 7

등당이다 등당이다
 덩기등당이 등당이다
 에라마라 경칠놈아
 장기땅땅 놓지마라
 천냥짜리 니지집은
 장기바람에 떨어진다
 등당이다 등당이다
 장기등당이 등당이다

파룻파룻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지달려
 오도록포도록 봄배추는

밤이슬만 지달려
 에화데화 매화꽃은
 봄철한철 기달려

○ 논매기 노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논매기소리	허경희	장대일(여, 79세)	안좌 대척리	『도서문화』4	1985. 7

에-헤에야 저얼레
 절레절래가 절레고나
 헤-에헤야 저얼레
 저달이뻗다 대장이되며

데에헤헤 저얼레
 개도풍년이 호군이로구나
 에-헤헤 아하저얼레
 도아가저 허어허이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언덕밑으로 돌아가자
 헤헤야 얼싸좋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다.

○ 배잡이 노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배잡이 노래	허경희	장대일(여, 79세)	안좌 대척리	『도서문화』4	1985. 7

야백주편주가 야백주편주가
 송살신고 가는 배
 아니 그배도 아니요
 칠산바닥에 조기배
 아니 그배도 아니요
 장포밭에 장어배
 아니 그배도 아니요
 여그저그 끝치배
 아니 그배도 아니요
 아그배 들배 맛난배가
 아니 그배도 아니요
 남원골로 살짝내려
 춘향이배나 잡거나 탈거나

○ 신세 타령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신세타령	허경희	장대일(여, 79세)	안좌 대척리	『도서문화』4	1985. 7

아이고아이고 내신세여
 굵고도 안좋은
 여그 내팔자는
 논들밭들 자빠지고
 쓰러진데는
 술밭이들면 고쳐나진다
 요새시상 술밭이 들수록이 더안좋아진다
 꿩꿩우는 꿩은
 앞다리는 두시압시
 상에 올리고
 뒷다리는 서방님
 상에다 올리고
 조실조실 저주등이는
 시누이에게 주고지고
 애복장타는 복장이네
 나나 묵고지고

○ 님마중 노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조사일시
님마중노래	허경희	정덕임(여, 85세)	안좌 마전리	『도서문화』4	1985. 7

옷집총각은 담넘어다보고
 아랫집 큰애기는
 참말로 피욕하자네

달아달아 붉은달아
이타박이 노던달아
우리일본아 낭군이
앉었느냐 누웠느냐
너본대로 일러다오
나는 아무리 여그앉았어도
눈도있고 손도있어도
우리님이 앉었는지
누웠는지 내가몰라
달아니가 알텐께
너본대로 일러다오
달아달아 붉은달아
우리 정든님이
언제나 오신다고
말했는가 들어봐라
그란께 달이오신다요
당신할멈 본다고
오신다요 어디오나
저기저그 산을타고오시니
마중이나 가시오 우리정단님이 저기오신구나
정단님이 날찾아
오십년만에 날찾아오시니
이렇게 좋으까
정단님도 날보고
두주먹을 갈라쥐고
나도 정단님을보고
두주먹두손을 마주잡고
정단님나한테 오시느라고

십리를 찾아서
 날찾아 오십니까
 나도 자네를 찾아오니라고
 이렇게 담박질했네
 손을잡고 발발이떨고
 인사를 받으시오
 인사나 뛰어나 어서가자
 사자사자 정든님보듬고
 잠을자고 살아보세

○ 강강술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강강술래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선소리 : 권양님

후소리 : 김재월 외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달아 달아 밝은달아

강강수월래

이태백이 놀든달아

강강수월래

계수나무 백혔으니(박혔으니)

강강수월래

옥도끼로 찍어내어 (찍어내어 부분부터 조금 빨라짐)

강강수월래

금도끼로 다듬어서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달아 달아 밝은달아

강강수월래

이태백이 놀든달아

강강수월래

저기저기 저달속에

강강수월래

계수나무 벽했으니(박혔으니)

강강수월래

옥도끼로 찍어내어

강강수월래

금도끼로 다듬어서

강강수월래

초가삼간 집을지어

강강수월래

양친부모 모셔다가

강강수월래

천년만년 살고지야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나주영산 흐른물에

강강수월래

쾌차(?)씻는 저처녀야

강강수월래



사진 19. 민요 구연 중인 권양님과 김재월

누에간장을 녹일라고

강강수월래

그리곶게 생겼냐

강강수월래

금을주리 옥을주리

강강수월래

금도옥도 내사싫고

강강수월래

도리색경 너를주리

강강수월래

도리색경 나도싫고

강강수월래

반달같은 딸을주리

강강수월래

반달같은 너도싫고

강강수월래

원달같은 우리임은

강강수월래

강나주서(?) 오신다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춘아춘아 옥단춘아

강강수월래

경기옥단 남경춘아

강강수월래

바람불고 서리오니
강강수월래
맨발벗고 뛰었나
강강수월래
땃잎총총 솔잎총총
강강수월래
사철명당에 내가왔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녹음방초 권자씨는
강강수월래
지만보러 와겠는가
강강수월래
잠만자리 와겠는가
강강수월래
울 맹기 한설숨에(?)
강강수월래
밤만긋고 날며보소
강강수월래
닭아닭아 우지마라
강강수월래
날아날아 새지마라
강강수월래
우는각시 아니올까
강강수월래
새는날이 아니샅까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파릇파릇 봄배추는

강강수월래

봄이오기만 기다리고

강강수월래

옥에갠힌 성춘향이

강강수월래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딸아딸아 막내딸아

강강수월래

너만큼계 잘만커라

강강수월래

너만큼계 잘만크믄

강강수월래

오동나무 비자놓에

강강수월래

가진양석 털어주마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하늘밧이 널룬땅에
강강수월래
안개속에 앓근눔아
강강수월래
글공부를 하라느냐
강강수월래
말공부를 허라느냐
강강수월래
무시먹고 무정현눔
강강수월래
마늘먹고 말을해라
강강수월래
노무유숙 날데려다
강강수월래
허송세월 다냉기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저건네 잔술밭에
강강수월래
잔술비는 저남도령
강강수월래
그산나무 다비어도
강강수월래
꽝대독신 비지말소
강강수월래
꽝우계가 용이얏아
강강수월래

용우계가 학이얏어
강강수월래
학우계가 꽃이피른
강강수월래
꽃 한쌍 끈거다가
강강수월래
춘향이 방이로 놀러가세
강강수월래
춘향이는 어디가고
강강수월래
거문고만 걸렸구나
강강수월래
여기왔다 귀경가니(?)
강강수월래
거문고나 비고가세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서울이라 차 많하네
강강수월래
차리장은 유근놈아 (?)
노던바지 긴놈아

옛날에는 사실 하나를 하다가 끝나면 길게 했다. 빠르게 하다가 하나의 내용이 끝나면 길게 했다.
빨리 댕 때는 더 빠르게 한다.

강강술래에서 남생이는 뛰다가 소리를 매기던 사람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춤을 추면서 소리도 매졌다.

○ 남생아 놀아라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남생아 놀아라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남생아 놀아라
출래출래 잘논다
남생아 놀아라
출래출래 잘논다



사진 20. 민요 구연 중인 권양남

○ 청애영자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청애영자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옛날에는 청애도 워고 다 했어.
꼬사리 경자도 하고.

‘청 청 청애영자’ 그라고 청애를 워어 가거든. 그라고 다 워고 나서 ‘청 청 청애풀자’ 허고, 맨 그 소리여. 다른 사람들도 해. ‘청 청 청애영자’ 그러믄 ‘유두군사 청애영자’ 그러고. 이쪽에서 한 번 하믄, 저쪽에서 한 번 하고. 뽕 돌아갖고 (워는 시늬를 하며) 요렇게 워어가. 또 찌 사람 찌가 워고. 질게 워어. 그래갖고 또 뚝스로 풀어나가.

청 청 청애영자
유두군산에 청애영자
청 청 청애영자
유두군사 청애영자

청 청 청애영자
 유두군사 청애영자

청 청 청애풀자
 유두군사 청애풀자
 청 청 청애풀자
 유두군사 청애풀자

○ 꼬사리 경자

곡 명	조사자	제보자	주 소	조사일시
꼬사리 경자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꼬사리 경꺼 바굼지 담고
 가사리나 경세
 꼬사리 경꺼 바굼지 담고
 가사리나 경세

꼬사리 경꺼 바구리 담고
 가사리나 경세
 꼬사리 경꺼 바구리 담고
 가사리나 경세
 경자경자 꼬사리 경자

꼬사리 경꺼 바굼지 담고
 가사리나 경세
 꼬사리 경꺼 바굼지 담고
 가사리나 경세
 꼬사리 경꺼 바구리 담고



사진 21. 민요 구연 중인 김재월

가사리나 쟁세

꼬사리 쟁겨 바구리 담고

가사리나 쟁세

꼬사리 쟁겨 바구리 담고

가사리나 쟁세

가사리는 꼬사리 아재비 같은 것이다. 안좌에서는 잘 안 먹지만 흑산도는 그것을 최고로 안다.

○ 덕석물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덕석물기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남(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물자물자 덕석물자

비 온다 덕석물자

물자물자 덕석물자

비 온다 덕석물자

물자물자 덕석물자

비 온다 덕석물자

물자물자 덕석물자

비 온다 덕석물자

물자물자 덕석물자

비 온다 덕석물자

물자물자 덕석물자

비 온다 덕석물자

물자물자 덕석물자

비 온다 덕석물자

○ 덕석풀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덕석풀기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풀자풀자 덕석풀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벗 난다 덕석풀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벗 난다 덕석풀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벗 난다 덕석풀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벗이난다 덕석풀자

○ 개고리타령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개고리타령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개골개골 청개고리

청개고리를 잡을라든

두 어깨 딸딸걷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아라

개골개골 청개고리

청개고리를 잡을라든

두 손을 딸딸걷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아라

개골개골 청개고리
 청개고리를 잡을라든
 양쪽 팔뚝을 딸팔걸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아라

○ 넘자넘자 담넘자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넘자넘자 담넘자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따자따자 감따자
 담 우게 올라가 감따자
 따자따자 감따자
 담 우게 올라가 감따자
 따자따자 감따자
 담 우게 올라가 감따자
 따자따자 감따자
 담 우게 올라가 감따자
 따자따자 감따자
 담 우게 올라가 감따자

넘자넘자 담넘자
 따자따자 감따자
 담 우게 올라서 감따자

○ 보보보따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보보보따리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 강강술래에서는 하지 않고 놀면서 부른 노래이다.

보 보 보따리

늙은년도 보따리

젊은년도 보따리

???

내가찬놈 보따리

보 보 보따리

발 발 발치기

늙은 사람도 발치기

젊은 사람도 발치기

발 발 발치기

발 발 발치기

늙은 사람도 발치기

젊은 사람도 발치기

발 발 발치기

니가 차는 보따리

내가 차는 보따리

보 보 보따리

늙은년도 보따리

젊은년도 보따리

너도 차는 보따리

나도 차는 보따리

늙은년도 보따리

젊은년도 보따리

보 보 보따리
니가 차는 보따리
내가 차는 보따리
너도 차고 나도 차자

보 보 보따리
니가 차는 보따리
내가 차는 보따리
보 보 보따리
늙은 사람도 차는 보따리
젊은 사람도 차는 보따리
보 보 보따리

* (제보자들을 감안해 '년'을 '사람'으로 바꿔서 리듬이 끊김.)

보 보 보따리
늙은년도 차는 보따리
젊은년도 차는 보따리
니가 차는 보따리
내가 차는 보따리
보 보 보따리

손 이렇게 하면서, 발로 이놈 차고, 또 이놈 이렇게 차고 뛰어댕이면서 한다. 한 쪽 발을 옆으로 들었다가 내리면서 반대쪽 발을 찬다. 그러면 반대쪽 발이 튕겨나가듯이 올라가고, 찼던 발은 땅을 짚는다. 내가 내 발을 차서,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요놈이 또 요놈 차면 이렇게 올라가고, 양 팔을 옆으로 펴서 춤을 추면서 한다. 보보보따리를 하고 나면 복숭아뼈 이런디가 많이 아프고 애렸다.

○ 춘향이 내려온다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춘향이 내려온다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남안골 연골 춘향이 아씨

정골정골 내리소

오늘은 몇 월 몇 일날

* '내려온다 내려온다 윤선이 내려온다' 는 어떻게 했는가요?

내려온다 내려온다

윤에 윤선이 내려온다

끈고도 붉은윤선

거들기고 내려온다

등당기당 등당기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등당기당 등당기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등당애 타령 거누가 냈나

건방진 큰애기 요내가 냈네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등당기당 등당기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 등당애 타령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등당애 타령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등등기당 등등기당
딩기 등등기 등등기당

등등애 타령 거누가 냐나
건방진 큰애기 요내가 냐네
당기 등등애 등등애당

등등기당 등등기당
딩기 등등기 등등기당

등등기당 등등기당
딩기 등등기 등등기당

등등기당 등등기당
딩기 등등기 등등기당

등등애 타령 거누가 냐나
건방진 큰애기 요내가 냐네
당기 등등애 등등애당

등등기당 등등기당
딩기 등등기 등등기당

등등애 타령 거누가 냐나
건방진 큰애기 요내가 냐네
당기 등등애 등등애당

딸아딸아 막내딸아

너만곶게 잘만커라

너만곶게 잘만크문

???

가진정성 너를주마

당기 동덩애 동덩애덩

동덩애당 동덩애당

덩기 동덩애 동덩기당

동덩애 타령 거누가 냐나

건방진 큰애기 요내가 냐네

당기 동덩애 동덩애덩

○ 연애노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연애노래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 일본말로 부른 연애노래

아이다 사하이러 사니

구하사모 아스레

구라이요미찌요 다다히도리

기다노니 미라노니

마다대대꾸리누

구라히요미찌요 다다히도리

아다노 요부쵸예

아스레 아세누나

지에하누 도니노

가고로 도오니

○ 모심는 노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모심는 노래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헤 헤 헤여루 상사디여

여기도 숨구어 저 저기도 숨구세

헤 헤 헤여루 상사디여

요봐라 농부들아 내말 잠 듣소

헤 헤 헤여루 상사디여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었네

헤 헤 헤여루 상사디여

○ 밭 땀 때 부른 노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밭 땀 때 부른 노래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나주영산 흐른물에

배차(배추)씻는 저처녀야

누애간장 녹일라고

저리곱게 생겼느냐

금을주리 옥을주리

금도옥도 내사싫고

도리색경 너를주리

도리색경 나도싫고

반달같은 나를주리

반달같은 너도싫고
 원달같은 우리님은
 강나주서 오신다네

○ 모심는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모심는 소리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못허졌네 못허졌네
 헤 헤여루 상허뒤야요
 이놈의 노동세월 나는 못허졌네
 헤야 헤야 하하루 아 허허 뒤야요

헤 헤여루 상사뒤요
 요 요기도 숨이고
 저 저그도 숨으세

헤 헤여루 상사뒤요
 못허졌네 나는 못허졌네
 헤 헤여루 상사뒤요
 이놈의 종사를 나는 못허졌네
 헤 헤여루 상사뒤요

에야디야 하하루 사하 허허 뒤야요
 여기도 심으고 저기 저기도 심으세
 에야디야 하하루 사하 허허 뒤야요
 종중 심으고 빨리 나갑세
 에야디야 하하루 사하 허허 뒤야요

아야 이여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었네
 에야디아 하하루 사하 허허 뒤야요
 노세 좋네 젊어노세 늙어지믄 못노나니
 에야디아 하하루 사하 허허 뒤야요
 고봉(?)살이는 일도야 많고
 에야디아 어여루 사하 허허 뒤야요
 이놈의 살림살이 짐도많네
 헤 헤야 허여루 상사뒤야

○ 논매는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논매는 소리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남(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오라는데는 밤에밤에나 가고
 동네술집은 낮에낮에나 가네
 에 헤이야

오란데는 밤에밤에 가고요
 동네 술막은 밤낮에 간다네
 에헤야

산골 큰애기 베짜는 소리는
 지나가는 신사가 오도가도 못한다

○ 방아야 방아야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방아야 방아야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남(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 땅개비 잡아서 부른 노래

방애방애 짚어라
 땅개비방애 짚어라
 머심방애 짚래나
 각시방애를 짚래나
 방애방애 짚어라
 땅개바 땅개바
 방애방애 짚어라
 머심방애 짚래나
 각시방애를 짚래나
 방애방애 짚어라

○ 이빨 빠진 춘향이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이빨 빠진 춘향이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이빨빠진 춘향이야 샘 가새 가지마라
 봉애한테 뺨맞는다
 이빨빠진 춘향이 새미가새 가지마라
 봉애한테 뺨맞는다

이빨빠진 개고리 새미옆에 가지마라
 봉애한테 뺨맞는다
 이빨빠진 개고리 새미옆에 가지마라
 봉애한테 뺨맞는다
 이빨빠진 개고리 봉애한테 뺨맞는다

○ 애기 재울 때

곡 명	조사자	제보자	주 소	조사일시
애기 재울 때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자장자장 자장개야
 꼬꼬닭아 울지마라
 멍멍개애 짓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장개야
 꼬꼬닭아 울지마라
 멍멍개애 짓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장개야
 꼬꼬닭아 울지마라
 멍멍개애 짓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 애기 어를 때

곡 명	조사자	제보자	주 소	조사일시
애기 어를 때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들강 달강
 들강 달강

○ 아리랑

곡 명	조사자	제보자	주 소	조사일시
아리랑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놀세놀세 젊어서 놀세

늙고야 병이들든 ???

아라리가 났네 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 심오야 달은 저케 밝은데

정든님 생각이 간절이로구나

아라리가 났네 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공산 명월아 말 물어보자 (?)

사랑이 ??????????????

아라리가 났네 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 ?? 저기 저남산 보아라

우리도 늙어죽으면 저모양 되리라

아라리가 났네 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고서 발병난다

아라리가 났네 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놀기 좋기는 새장구 ?? (?)
 짹짹하기 ??? 사구라마치 ?? (?)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날다려 가거라 날다려 가거라
 돈많고 잘난놈아 날다려 가거라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갈보야 질보야 몸단장 마라
 돈없는 건달이 다모여 든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좋다~. 열씨구 잘 놀았소.

○ 에야디아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에야디아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에야디아 에헤헤헤야
 에야디아 어기여차 산아지로구
 놀세놀세 젊어서 놀세
 늙고야 병이들면 내가 못노나니
 에야디아 에헤헤헤야
 에야 디여라 산아지로구

아라리가 났네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세월아 내월아 말 물어보자

사람이(?) 죽은 무덤이 몇 무덤인가
아라리가 났네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 허랑타령

곡 명	조사자	제보자	주 소	조사일시
허랑타령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허랑허랑 어야

어야 도야

모두다 내 사랑이로구나

허랑타령 본령은

황해도 원산 이고요

임시 잠깐 ????????

허랑허랑 어야

어야 도야

몽땅 내사랑아

이보세요 그말씀 마세요

당신 아들 아니면은

내 뺏혀러 왔으까요

에야이나노야

에야이나노 어기여차

뺏놀이 가잔다

○ 청춘가 1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청춘가 1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청춘아 내청춘아

호텔 갔는나

청춘을 돌려다오

그 아까운 내청춘을

청춘이 어데가고

오지않는나

○ 청춘가 2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청춘가 2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님(여, 74세) 김영님(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어때어때 우리어때

뭇할라고 날낳는가

날날시에 놈도낳고

놈날시에 날낳건만은

우리어때 우리어때

우리어때 날설뜨게

고부노물을 잡았던가

우리어때 나를나서

자리고부에 뉘었던가

구부구부 앓어 생각허믄

구부구부가 고생이네

○ 흥글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흥글소리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남(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어매어매 우리어매
 뭇할라고 날낳는가
 날날시에 놈도낳고
 놈날시에 날낳는다
 어매어매 우리어매
 우리어매 나를설때
 고부노물을 잡았던가
 우리어매 나를나서
 자리고부에 누웠든가
 구부구부 생각허른
 구부구부가 고상이네

어매도 싫어요 아버지도 싫어요
 양님딸 아들나서 남을줘서 싫어요
 에야디야 에헤헤에야
 오나산다나 구절시구나
 나는 못살겠네
 계다구쓰 구하바이야 밭길 밑이서 놀고
 여자인물 좋아봐야 남자 밑이서 놀고
 아라리가 났네 에헤에 아리랑
 얼씨구 아라리가 났네
 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살자
 어리절씨구 아라리가 났네

아무리 여자는 잘났어도 남자 밑에서 놀고, 게다가 구쓰 잘나봐야 발바닥 밑에서 놀제. 쓰리빠. 발바닥은 여자 지가 아무리 잘나봐야 남자 밑에서 놀아야 그 집구석이 되제.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 요즘은 또 틀려. 즈그들이 잘 날락하제. 세상 따라간대로 살아야 좋제.

○ 어디만큼 왔나

꼭 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어디만큼 왔나	이경엽	김재월(여, 79세), 권양남(여, 74세) 김영남(여, 68세), 정금월(여, 76세)	안좌 구대리	2005. 5. 15

어디만큼 간가
 당당 멀었네
 어디만큼 간가
 당당 멀었네
 어디만큼 간가
 당당 멀었네

5. 무형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1) “우실과 노두가 아름다운 섬” 안좌 · 팔금

안좌와 팔금을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홍보하고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다. 신안의 수많은 섬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한꺼번에 자원화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모든 섬을 개발할 필요도 없다.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전통을 특징으로 삼아 그것을 이미지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전통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가는 방향으로 자원화해야 한다. 안좌와 팔금의 경우 우실과 노두와 같은 특유의 생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토대로 지역을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다.



사진 22. 우실과 노두가 있는 섬 안좌 팔금

2) 자료은행 구축을 통한 자원화의 토대 마련

이번 지표조사의 기본 방향은 자원화를 위한 자료 수집과 정리이다. 문화자원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자원화되어야 한다. 오랜 동안 주민들이 일구어온 전통은 문화산업의 시대에 '문화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문화자원은 일회적 쓰임새 때문에 각광받아서 안 된다. 지역의 문화자원은 일회적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자료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료은행을 구축해야 한다.

신안군의 경우 지역적 특징이 두드러지므로, 문화자원을 통한 활용 경쟁력이 남다르다. 다도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신안은 민속의 고장이기도 하다. 푸른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섬의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각 섬을 찾아 답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신안의 문화적 전통은 소중한 자원임에 틀림없다.

신안의 문화적 전통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재창조하고, 새롭게 활용할 것인지가 과제다. 민속문화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새롭게 가꾸어가야 할 문화자원이다.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하며, 그것을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되살려 내고 의미 있게 활용할 것인지, 문화상품과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

문화재만으로 전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거도 멸치잡이소리>, <장산도 들노래>처럼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흑산도 진리 당제, 흑산도 심리 해녀노래·동당애타령, 가거도 산다이, 대둔도 수리 풍어제, 도초도 고란리 당굿, 비금도 남사당놀이, 비금도 셋김굿, 장산도 셋김굿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신안 사람들의 삶과 역사, 사람살이의 정겨움과 흥겨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꾸려온 생활양식 자체가 민속이다. 신안에는 섬마다, 마을마다 축제가 있었다. 당제와 갯제, 강강술래, 산다이의 흥겨움은 신안 사람들이 가꾸어 온 신명난 축제였다. 또한 고기잡이의 흥취를 담은 뱃노래와 파시의 흥청거림은 해양민속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밤달애의 장례놀이는 사람사는 정겨움을 담고 있고, 마을을 둘러싼 우실은 모듬살이의 소중함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 염전이 있고, 초분도 있다. 이들은 모두 신안다운 특성을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임에 틀림없다.

이들 민속은 주민들의 삶 자체로서 전승되어왔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전승이 끊긴 경우라도 기억 속에 온전히 자리잡고 있으므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전통은 지역을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문화자원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당장 어떻게 써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소재 정도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관광자원과 문화상품의 소재로만 생각하다보면 지속적 생명력을 유지하

기 어렵다. 삶의 맥락과 현장의 맥락 속에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신안의 문화적 전통을 자료은행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문화 생산의 지속성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의미 있는 쓰임새를 다양하게 모색해 갈 수 있다.

민속 분야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해서 자료은행 구축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수행했다. 안좌와 팔금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지조사를 통해 새 자료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많이 파악할 수 있었다. 안좌·팔금의 기우제, 우실, 노두, 민요 등은 새로 조사된 자료들이다.

민속 분야에서는 어로문화, 생활문화, 민속신앙, 세시풍속·민속연희, 설화, 민요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다. 어로문화에서는 갯벌 어업(독살, 덤장, 개맥이 등), 어선, 어구, 어민들의 생애사를 정리했다. 마을신앙 및 어로신앙에서는 공동체 신앙(당제, 기우제, 장승, 입석), 어로신앙(풍어제 및 갯제, 뱃고사)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우실, 노두와 같은 생활 문화자원을 의미 있게 주목하여 상세하게 조사했다. 설화 자료들은 도서적 환경 속에서 성립되어 전승되고 있는 설화 중심으로 수집했다. 그리고 민요는 노동요(어업노동요, 농업노동요), 유희요(강강술래, 산다이 등)을 조사했다. 이 자료들은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번에 수집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해서 자료은행을 구축함으로써 자원화의 지속적 원천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연행예술 : 축제 및 관광자원 활용

안좌 팔금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연행예술은 축제 및 관광자원으로 주목할 만하다. 신안의 각 섬에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연행예술이 전승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강술래는 개성 있는 연행물로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안좌 강강술래는 에피소드별로 분절화되는 독특한 음악적 구성을 갖고 있으며, 부수놀이도 색다른 것들이 있다. 강강술래와 같은 연행예술은 축제 콘텐츠, 공연 콘텐츠로 활용 폭이 넓다. 또한 음성·동영상·악보 자료를 시디롬으로 정리해서 교육자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안좌 강강술래 : 무형문화재(향토문화재) 지정 추진

안좌의 강강술래는 지방자치 단체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현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지방지정 무형문화재를 지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

군 지자체에서 향토문화재 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좌 강강술래는 그 예능성이나 전승현실의 기준으로 볼 때 국가지정이나 전라남도지정의 대상으로는 삼기 어렵다. 하지만 남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신안군 차원의 향토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보존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토문화재 차원에서 보존 및 계승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안군의 문화적 전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줄 자원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볼 때 향토문화재 자원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 섬마을 특유의 우실과 노두, 나룻배에 대한 주목

(1) 우실, 노두 : 무형문화재(민속자료) 지정 추진

우실과 노두, 나룻배 등은 기존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던 자료다. 하지만 섬 사람들의 모듬살이 모습과 개펄 생활을 잘 보여주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실은 도서지역 공동체 생활의 특징을 보여주는 마을숲이며, 노두는 개펄을 끼고 살아온 섬 주민들의 생활문화자원이다. 도서지역 특유의 생활문화자원이므로 기존의 무형문화재 개념을 새롭게 확장하는 취지에서 민속자료로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우실

우실은 마을숲이다.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한 섬마을 특유의 마을숲이므로 개성적인 자원이다. 안좌와 팔금에는 우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우실은 섬마을의 모듬살이 모습을 잘 담고 있는 자원이므로,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좌면 대리, 대척리, 여홀리, 한우리 우실의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우실을 생태문화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3) 노두

우실과 함께 노두, 갯벌어로를 더불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두는 물이 빠질 때 드러나는 개펄을 연결해주는 길이다. 노두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어로 활동을 위해 건너다니는 '길'이므로 매년 보수되고 관리되었다. 노두는 팔금면 거사리와 고산리 사이의 것이 잘 남아 있다. 섬마을 특유의 풍광을 담고 있고, 주민들에게 의미 있게 작용하던 민속 전승이므로 우리 시대 문화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4) 나룻배

나룻배는 섬 끼리를 연결하는 배다. 강에서 사용되던 배와 다른 섬생활의 특징을 담고 있다.

우실, 노두, 나룻배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문화자원일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특유의 경관이며,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개펄 생태에 대한 학습과 개펄 어로와 연계된 체험프로그램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최근의 관광 형태는 체험과 학습이 강조되는데, 섬마을의 어로활동을 이와 관련지어 활용할 수 있다. 안좌면 복호리나 한운리, 팔금면 고산리 등에서 이루어졌던 어로를 주목하여 체험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운리의 경우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끼고 있어서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운리는 우실, 개맥이 어로 등이 있는 곳이므로 단순히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 체험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물-바람-섬' : 생태적·문화적 의미 주목

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물과 바람이다. 물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섬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을 얻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장치를 개발해왔다. 우물, 관개시설, 기우제, 우실 등이 그것이다. 삶 속에 내재해 있는 토착지식과 유무형의 장치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섬-물-바람'은 신안의 생태적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문화 코드다.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지식으로 토착화되어 있고, 개성 있게 표출되어 왔으므로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코드로 해석할 수 있다.

안좌 팔금지역에서 섬마을 특유의 경관을 이루고 있는 자원들도 모두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우실은 바람과 관련된 마을숲이며, 노두와 나룻배는 생업의 터전인 갯벌과 이웃 섬들을 연결해주는 물길이다. 또한 샘과 기우제는 물을 얻기 위한 생활 공간이며, 종교적 장치이다. 섬생활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생태문화적 코드가 '물-바람-섬'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일상적이어서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다른 지역과 의미 있게 차별되는 문화이므로 지역의 생태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하는 코드로 자원화해갈 필요성이 있다.

2부

팔금면 지포조사

新安

I. 자연자원

1. 자연자원 목록

구 분		자 원 명	주 소(위치)	규모 및 사양
1. 섬의 모습	풍수사상	8조(鳥)형상	팔금도 일원	면적18km ² , 해안선36km
2. 숲과 동·식물	보호림	이목우실(방풍림)	이목리 북쪽	연장100여m, 활엽수 수령300~500여년
		읍리우실(방풍림)	읍리 북쪽	연장80여m, 활엽수 수령300~500여년
3. 지형과 지질	명산과 들	금당산	팔금도 중앙에 위치	표고130m, 야영장조성
	갯벌자원	매도갯벌	거문-매도해역	총면적3km ²
4. 지역 산물	특산물	마늘, 대하, 소금	팔금도 전역	
5. 공원과 관광지	야영장	금당산야영장	금당산 읍리쪽 기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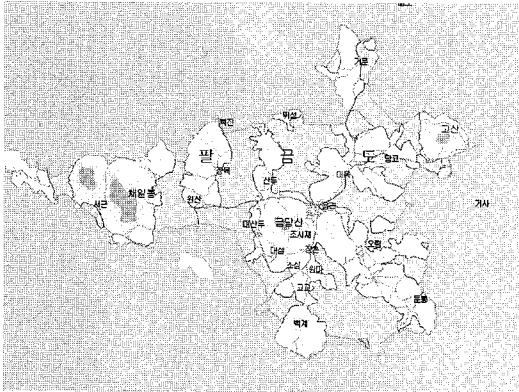
2. 자연자원 현황

1) 재미있는 섬의 모습 - 팔조(八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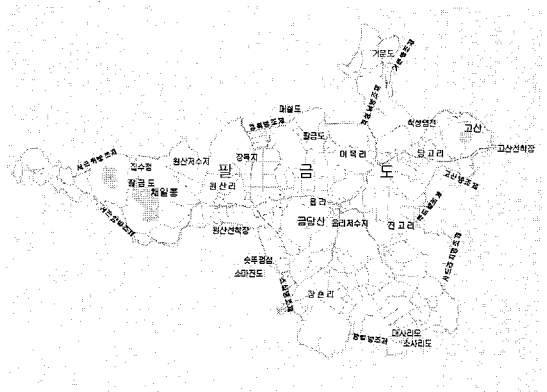
목포시 서쪽 해안에서 약 18km 지점에 있고, 면적 18.32km², 해안선 길이 35.8km인 섬이다. 북쪽에 암태도가 있고, 남쪽의 안좌도와는 안좌-팔금연도교로 이어져 있다. 중심 섬인 팔금도와 부속섬인 매도·거문도·거사도·백계도·원산도·매실도·일금도 등 8개의 섬이 간척사업을 통해 하나의 섬으로 연결되었으며, 섬의 모양이 나는 새와 같다 하여 여덟 이자와 새 禽자를 따서 八禽島라 했다.

원래 우리 팔금 본토가 원산을 중심으로 한 서근·장목리가 섬 하나였고, 띠섬·거문도·매도·고산·거사도·백기도와 읍리를 중심으로 한 닭메산 자락을 본 섬으로 하여 살펴보면 전부 여덟개의 군도로 되어 있었다. 그러한 자연 속에 여덟개의 숫자 팔과 새의 팔자를 합하여 '팔금'이라 불리었다는 기원설화가 있다. 그러니까 팔금의 여덟개 섬을 연결하는 원뚝(방조제)이 구축된 것이 1910년 이후로 본다면, 그 이전의 팔금 모습은 현재 들녘으로 된 논들은 모두가 갯벌이었으며, 논이었던 산골짜기 아래 조성된 웅달배미가 고작이었으리라, 나머지는 산자락이나 야산을 일군 밭이 생계수단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여덟 개의 섬이 완전한 섬으로 되어 있어 교통이 막히고 썰물때가 되어 바닷물이 빠져 나가면 노두(징검다리)를 이용해 통행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도서	구분	간척 전(원지형)		간척 후(현지형)	
		해안선(km)	면적(km ²)	해안선(km)	면적(km ²)
팔금도		65.66	7.39	35.90	17.42



간척 전(원지형)



간척 후(현지형)

2) 광활한 천혜의 갯벌자원(거문도-매도해역)

거문도-매도해역(팔금도 북동쪽)에는 천혜의 갯벌이 자연 그대로 숨쉬고 있어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황토갯벌, 염전, 노두⁴⁾, 우실⁵⁾ 등이 잘 보존, 즉 광대한 황토갯벌에 여기 저기 노두(특히 거매노두)가 만들어져 있고 육지부에는 우실 또한 잘 조성되어 있어, 섬 주민들의 특이한 모습들이 삶 모습을 체험할 수 있어 “주말갯벌농장” 갯벌체험관광지로의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3) 타 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는 특산물(마늘, 대하, 소금)

기후가 비교적 온난(1월평균기온 0.8℃ 내외, 8월평균기온 26.0℃ 내외, 연강수량 1,128.2mm 정도)하고 토질이 좋아 해안 곳곳에는 간척지가 넓게 펼쳐져 대하양식이 성행하고 소금생산이 많다. 뿐만 아니라, 경지면적이 넓어(경지율 35%)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 관계로 농산물이 풍부하나 특히 마늘생산이 많으며 질 또한 좋아 특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4) 수심이 얇은 갯벌에 정비되어진 일종의 바닷길로 신안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며 다양한 형태의 원형이 잘 남아 있음. 조류에 의해 유실되면 또 다시 크고 작은 돌, 조개 껍질과 갯벌의 흙을 모아 제방을 쌓아 만들어 졌음. 현대에 와서는 큰 돌과 벽돌 혹은 콘크리트로 제방형태로 개축되어 차량 통행까지 가능한 것도 있음.

5) 농작물의 보호나 조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정장치 역할로 만들어진 것으로 방풍림으로 조성되어 있거나 돌로 축조되어 있는 것이 보통임. 주민들에 의해 오랜 시간 정비되고 가꾸져 있어 문화적 민속적 가치가 높음.

4) 야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금당산

팔금도에는 섬의 서쪽에 솟은 최고봉인 채일봉(159m), 중앙에 금당산(130m), 동쪽에 고산(142m)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중앙에도 위치한 금당산은 높이는 낮지만 오르기가 쉽고 아열대림의 상록활엽수가 우거져있을 뿐만 아니라 북쪽 기슭에는 오래된 사찰(영덕사)이 있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아름다워 발길이 끊이질 않는 산이다. 최근에는 야영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자연자원의 활용 방안-“주말갯벌농장”으로 활용

거문도-매도해역(팔금도 북동쪽) 갯벌은 “주말갯벌농장”으로의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활용 가능 면적이 넓고 오염되지 않는 천혜의 갯벌이 자연 그대로 숨쉬고 있으며, 특히 황토갯벌과 함께 천일염전이 있어 체험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두, 우실 등이 문화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다. 즉, 광대한 황토갯벌에 여기 저기 노두(특히 거매노두가 유명)가 만들어져 있고 육지부에는 우실이 잘 조성되어 있어 섬 주민들의 특이한 모듬달이 삶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따라서 “주말갯벌농장” 갯벌체험관광지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II. 유형자원

1. 고고문화자원

1) 고고문화자원 목록

번호	유적명	위치
1	대심리 유물산포지	팔금면 대심리 대산두마을
2	읍리 유물산포지	팔금면 읍리
3	당고리 유물산포지	팔금면 당고리 당고마을
4	이목리 유물산포지	팔금면 이목리 이목마을

2) 고고문화자원 현황(그림 1)

팔금도에 대한 지표조사는 1987⁶⁾년에 처음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읍리 3층석탑을 제외하고 유구나 유물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팔금도에서 4곳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을 뿐 다른 종류의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1) 대심리 유물산포지(사진 1)

- 위치 : 팔금면 대심리 대산두마을

- 현황 : 팔금여객터미널에서 원산리쪽으로 가는 국도 37번을 따라 1.4km정도 가면 대심리 대산두 마을이 나온다. 유물산포지는 대산두 마을 동남쪽에 있는 얇은 구릉에 위치하며 현재 밭으로 대부분 경작되고 있다. 유물은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확인되었다.

- 수습유물

· 토기편(사진 5-1) : 회청색경질이다. 외면은 수직집선문이 타날 되었으며, 횡침선이 돌아간다. 태토는 정선되었다. 잔존길이 2cm, 두께 0.5cm.

(2) 읍리유물산포지(사진 2)

- 위치 : 팔금면 읍리 62번지 일원

6) 최성락 1987,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회전 물손질흔적이 남아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속심은 자색을 띠고 있다. 잔존길이 3.5cm, 두께 0.3cm.

(3) 당고리유물산포지(사진 3)

- 위치 : 팔금면 당고리 당고마을

- 현황 : 팔금여객터미널에서 당고리쪽으로 가는 지방도를 따라 3.2km정도 가면 당고마을에 들어서게 된다. 마을로 들어서기 전에 도로 우측에 농협창고가 있는데, 유적은 이 창고의 동쪽 구렁에 위치한다.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 수습유물

· 토기편(사진 5-4) : 회색경질이다. 내면에는 회전 물손질흔적이 남아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잔존길이 3.5cm, 두께 0.7cm

· 토기편(사진 5-5) : 회청색경질이다. 내·외면에는 회전 물손질흔적이 남아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속심은 자색을 띠고 있다. 잔존길이 3cm, 두께 0.6cm.

· 토기편(사진 5-6) : 회색경질이다. 내면에는 회전 물손질흔적이 남아있고, 태토는 정선되었다. 잔존길이 3.6cm, 두께 0.7cm.

(4) 이목리유물산포지(사진 4)

- 위치 : 팔금면 이목리 이목마을

- 현황 : 팔금여객터미널에서 당고리쪽으로 가는 지방도를 따라 3km정도 가면 당고리와 거문도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거문도쪽으로 500m정도 가면 도로 좌측에 야트막한 구렁이 형성되어 있다. 구렁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유적은 이 건물의 남쪽에 해당되는 밭에 위치한다. 유물은 석기와 경질토기가 확인되었다.

- 수습유물

· 토기편(사진 5-7) : 회색경질이다. 외면에는 물손질흔적이 남아있고, 내면에는 자연유가 흐른다. 잔존길이 3.9cm, 두께 0.6cm.

· 석기(사진 5-8) : 일부분만 남아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마연하였으나 석기의 뒷면은 떼어낸 면을 그대로 두고 날을 형성하였다. 잔존길이 4.5cm, 잔존 폭 3.5cm, 두께 0.6cm.



사진 1. 대심리유물산포지



사진 2. 읍리유물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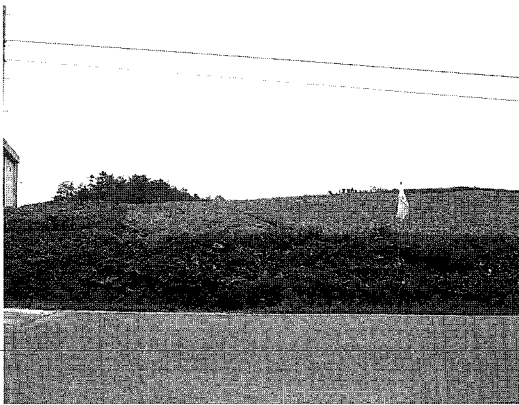


사진 3. 당고리유물산포지



사진 4. 이목리유물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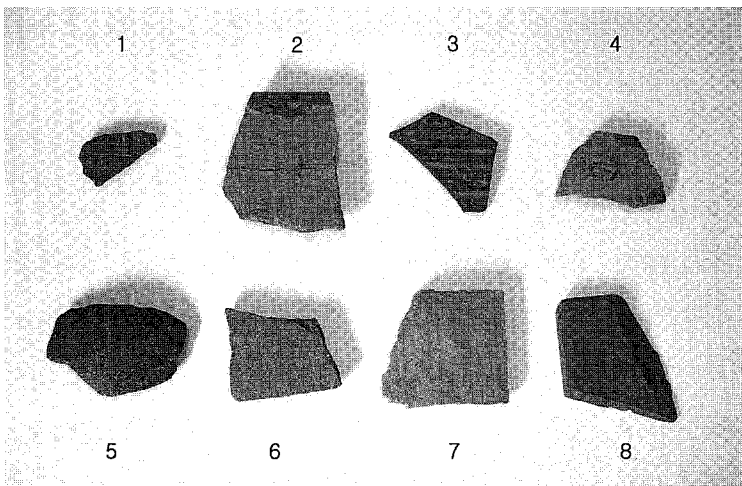


사진 5. 팔금도 출토유물

- 1. 대심리유물산포지
- 2~3. 읍리유물산포지
- 4~6. 당고리유물산포지
- 7~8. 이목리유물산포지

2. 역사문화자원

1) 역사문화자원 목록

(1) 기념비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효행비	長澤高氏孝行碑	대심리 대산두마을	1953년	신규
2	효행비	鄭維文·淸州韓氏雙孝碑	대심리 소심마을	1952년	신규
3	비석군	장촌리 비석군	장촌리-읍리 경계	1973년	신규
4	기념비	李自玉紀念碑	이목리 이목마을	壬午年	신규

(2) 효열각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열녀각	慶州金氏孝烈碑閣	대심리 원마을	1934년	신규
2	효자각	李銀碩孝子碑閣	장촌리-읍리 경계	1947년	신규
3	효자각	陽城李氏孝子碑閣	읍리 읍리마을	丁丑年	기존

(3) 재각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재각	永蒸齋	당고리 당고마을	己卯年	신규

2) 역사문화자원 현황

(1) 기념비

① 長澤高氏孝行碑(사진 1)

· 소재지 : 팔금면 대심리 대산두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대심리 대산두 마을회관 오른쪽에 있다. 이 비석은 장택고씨 부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고씨부인은 팔금면 대심리에서 태어났다. 부인의 천성은 온화하였다. 성장하여 대산두마을에 살고 있던 강희일과 혼인하였다. 이후 고씨부인은 시어른을 봉양하며,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하였다. 결국 시어머니는 庚申年에 돌아가셨다. 시어머니 상을 치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을 얻어 목숨이 위독하자 부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남편에게 수혈하였다. 남편 역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

상을 떠났다. 따라서 시댁을 지키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온전히 부인의 몫이 되었다. 이후 고씨부인은 74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고씨부인의 행실이 널리 알려져 열녀로 포상되었으며, 1953년에 고씨의 사위 金洪述이 장모의 효행비를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貞夫人 長澤高氏 孝烈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 고씨부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은 13행 33자이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2.5cm, 너비 69.5cm, 두께 15cm이다. 비석 주변에 석축 담장이 둘러져 있다.

② 鄭璉文·淸州韓氏雙孝碑(사진 2)

· 소재지 : 팔금면 대심리 소심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대심리 소심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이 비석은 효자 鄭璉文과 그의 부인 淸州韓氏의 효행을 기념하기 위해 1952년에 건립되었다.

정진문의 본관은 晉州이며, 文定公 鄭以諤의 후예이다. 정진문의 천성은 정직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모님이 병을 얻어 쓰러지자, 잠시도 병상을 떠나지 않고 정성으로 봉양하였다. 그의 부인 청주한씨 역시 1년을 하루같이 시부모님을 간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식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며 예를 다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孝子 晉州鄭公璉文 孝婦 淸州韓氏 雙孝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뒷면에 부부의 효행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은 14행 31자이며, 李炳觀이 撰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8cm, 너비 46cm, 두께 18.5cm이다.

③ 장촌리 비석군(사진 3)

· 소재지 : 팔금면 장촌리-읍리

· 유적현황 : 읍리에서 장촌리로 향하는 도로 오른쪽에 비석 3기가 서 있다. 崔亮鎬, 姜福同, 金聲振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다. 왼쪽부터 〈月村崔公亮鎬頌德碑〉, 〈當谷姜公福同頌德碑〉, 〈竹坡金公聲振頌德碑〉 순으로 나란히 서 있다.

최양호는 1890년에 원마리에서 崔圭淳의 2남으로 태어났다. 八明學堂을 최초로 다녔으며, 목포 전수학원 2년을 수료하였다. 선생은 팔금국민학교에 교문을 건립하였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술통인체 모형을 기증하였다. 또 가난한 주민들에게는 곡식을 나눠 주었고, 학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공의 행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姜在植이 송덕비를 세웠다.

강복동은 1891년에 원마리에서 姜聖有씨의 3남으로 태어났다. 선생은 팔금중학교 설립 추진위

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학교 설립 당시 부지 4,600평을 기증하였다.

김성진은 1892년에 진고리에서 金文三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공은 남일 운수회사 전무로 재직하면서 목포에서 생활하던 팔금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 1940년 7월 5일에 팔금 초등학교 사택 1동을 기증하였다. 1948년 1월 10일 팔금초등학교에 논 10필지 5,321평을 기증하였다. 1948년 1월 20일 안좌중학원을 설립할 때 논 40두락(약 8,000평)을 기증하였다.

3개의 비석은 모두 비문이 없고, 측면에는 1973년 4월 28일에 건립하였다고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모두 높이 118.5cm, 너비 38cm, 두께 15cm로 동일하다.

④ 李自玉紀念碑(사진 4)

· 소재지 : 팔금면 이목리 이목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이목리 이목마을 표지석 건너편에 있다. 비석 뒤편에 마을 모정이 위치한다. 李自玉은 인근 지역 5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공을 세웠다. 특히 공은 마을 주민들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논밭을 기증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공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1942년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故 李君 自玉 有功紀念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앞면 여백에 공의 행적을 노래한 4언 절구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9.5cm, 너비 41.5cm, 두께 13.7cm이다.

(2) 효열각

① 慶州金氏孝烈碑閣(사진 5·6)

· 소재지 : 팔금면 장촌리 원마마을

· 유적현황 : 팔금도와 안좌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초입에 도로 왼쪽에 원마마을이 위치한다. 원마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마을회관이 있고, 회관 앞에 4거리가 있다. 이 비각은 마을 회관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열부 경주김씨는 金紋亨의 딸로, 읍동에서 태어났다. 김씨는 16세가 되던 해에 원마동에서 거주하고 있던 全州 崔泰鉉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태증의 아이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김씨는 온 정성을 다하여 남편을 간호하였다. 하루는 남편의 목숨이 더욱 위중해지자, 부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남편에게 수혈하였다. 그러나 김씨부인의 나이 23세가 되던 해에 남편이 죽었다. 이후 김씨부인은 유복자를 낳아 양육하면서 시댁을 보존하며 생계를 꾸렸으며,

나이 99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김씨부인의 효행을 널리 알려졌다. 마침내 무안향교 유림들에 의해 열부로 천거되어 성균관에서 열녀로 포상하였다. 이에 후손들이 1934년에 부인의 열행을 기록한 열녀각을 건립하였다.

비각의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며, 기둥만 석축으로 되어있다. 비각의 앞에는 김씨부인의 효행사실을 기록한 <경주김씨 열부비각>이라 새겨진 안내판이 있다. 열녀각 내부에는 1기의 비석과 현판이 걸려있다. 비석의 앞면에는 <烈婦 慶州金氏 事蹟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는 김씨부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은 13행 27자이며, 申佐均이 撰하고, 金漢禧가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6cm, 너비 52cm, 두께 24cm이다. 현판은 ①「烈孝婦 金氏 事蹟碑」(己卯年, 李炳壽述), ②「烈婦 金氏 紀蹟碑」(辛巳年, 崔秉心 撰)이다.

② 李銀碩孝子碑閣(사진 7)

· 소재지 : 팔금면 장촌리-읍리 팔금중학교 앞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팔금중학교 정문 앞에 있다. 도로변에서 돌계단을 올라서면 벽돌 담장으로 둘러싸인 孝子門이 있다. 외삼문을 들어가면 정면에 석조 비각이 있고, 오른쪽에는 비문을 해석해 놓은 안내석이 놓여 있다. 비각 안에는 1987년에 세운 효자비가 서 있다.

효자 李銀碩의 본관은 原州이고, 號는 崖松이다. 공은 1888년에 팔금도에서 태어났다. 공은 李英華의 13대 후손이며, 通政大夫 李應斗의 아들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섬기는 도리를 알았다. 17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시묘생활을 하였다. 또한 공은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약을 봉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병환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공은 어머니의 시신을 마을 앞 안산에 봉안하고, 3년 동안 육식을 하지 않으며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러한 효행이 향리에 널리 알려졌다. 무안향교와 무성서원의 유림들이 경성의 효자로 천고하였다.

비각 안에 서 비석은 앞면에 <孝子 崔崖松 原州 李公 紀行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는 延安 李炳觀이 撰하고, 李背馥이 書한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14행 39자이며,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2cm, 너비 55.5cm, 두께 23.5cm이다.

③ 陽城李氏孝子碑閣(사진 8)

· 소재지 : 팔금면 읍리

· 유적현황 : 읍리 마을 초입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1호인 삼층석탑이 있다. 이 삼층석탑 옆에 陽城李氏 효자비각이 위치한다. 비각의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1칸이며, 목조건물이며 팔작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각의 주변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편에 〈淑夫人 陽城李氏之墓〉라 새겨진 묘비가 서 있다. 비각 내부에는 2기의 비석이 있는데, 1기는 陽城 李炳淵의 효자비이고, 다른 하나는 濟州梁氏의 효열비이다. 비석의 유적현황은 다음과 같다.

효자 이병연은 양성이씨 23대 손으로 1863년에 李鎭九의 아들로 태어났다. 공은 부모가 주신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효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부친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아버지에게 수혈하였다. 결국 부친이 돌아가시자,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공은 司憲府 監察을 역임했으며, 1925년에 세상을 떠났다. 비석의 앞면에는 〈孝子 通訓大夫 司憲府 監察 陽城李公 炳淵之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 뒷면에 16행 32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8.5cm, 너비 40.5cm, 두께 19cm이다.

열부 제주양씨는 學生 李成九의 부인이다. 비석의 앞면에는 〈烈婦 學生 陽城李公 成九 妻 孺人 濟州梁氏之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 뒷면에는 18행 35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기 어렵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2.5cm, 너비 39.5cm, 두께 19cm이다. 이 비석은 丁丑年에 건립되었으며, 李炳壽가 撰하고, 林哲周가 書하였다.

(3) 재각

① 永慕齋(사진 9·10)

· 소재지 : 팔금면 이목리 당고마을

· 유적현황 : 영모재는 이목리 당고마을에 있는 당고교회 왼편에 있다. 영모재는 海州吳氏 舍人公派의 문중재각이다. 1999년에 후손들이 신축하였다.

영모재는 외삼문에 〈永慕祠堂〉이라 쓰여진 편액이 걸려 있다. 영모재의 규모는 일반 民家의 형식으로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다. 전면에 미단이 유리창문과 여단이 유리문이 달려 있다.

영모재 외삼문 앞에는 〈海州吳氏永慕齋〉라 새겨진 비석이 서 있다. 비석의 뒷면에는 己卯年에 영모재를 신축할 때 참여한 28세손 舍人公派 후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사진 1. 長澤高氏孝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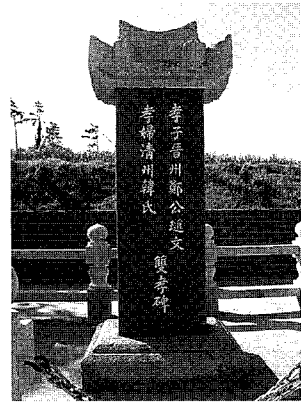


사진 2. 鄭礎文·清州韓氏雙孝碑



사진 3. 장춘리 비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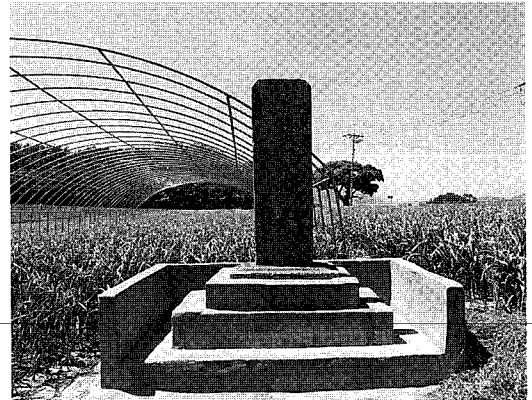


사진 4. 李自玉紀念碑



사진 5. 慶州金氏孝烈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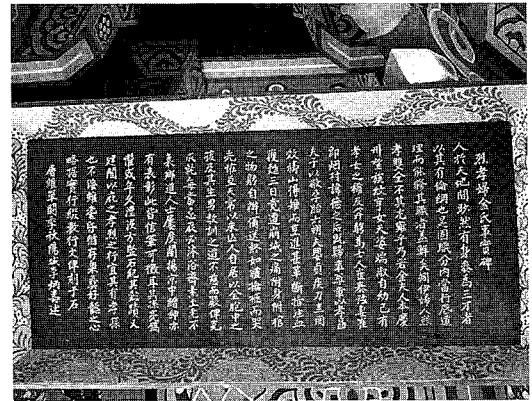


사진 6. 烈婦金氏事蹟碑(현판)



사진 7. 李銀碩孝子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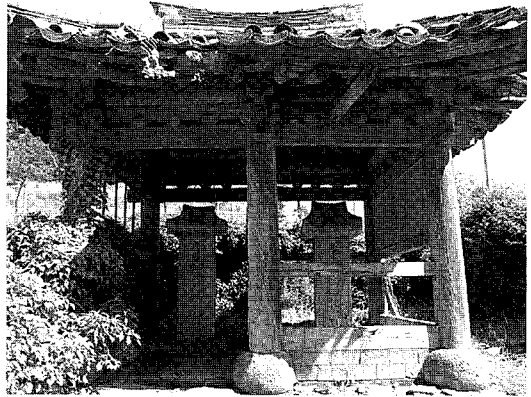


사진 8. 陽城李氏孝子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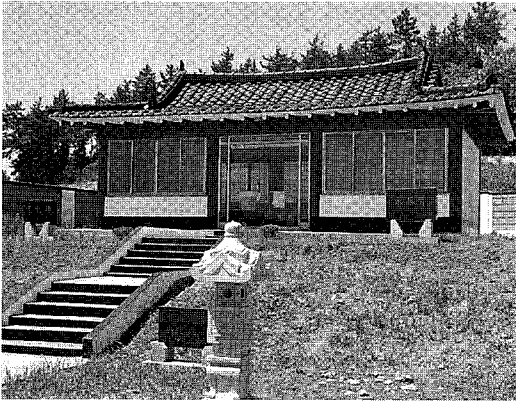


사진 9. 永慕齋



사진 10. 海州吳氏永慕齋碑

3. 주거문화자원

1) 주거문화자원 목록

전통이란 지속성을 지니면서 때론 가변성도 있는 문화유산이다. 변한다는 것은 발전도 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 고착된 목조초가는 분명 전통성의 명분을 간직한 우리의 주거문화이다.

현재 서남해 도서지역에서는 건립시기가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무렵까지의 사이에 건립된 민가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옥들을 17세기를 전후한 이주민의 주문화가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면서 발전, 고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입도 당시(17~18세기)의 주거 형태에 대하여는 사실을 밝힐만한 현장은 물론 기록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상황(건축재료, 구조기술, 경제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본 조사에서 제시한 19세기, 20세기초경의 건축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1〉은 팔금도의 전통가옥 조사목록이다. 11~14번 가옥은 필자가 1988년도에 현지 조사한 가옥으로 현재는 모두 헐리고 없다. 당시 거의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었던 가옥으로 이번 조사한 가옥과 비교가 될 것이다. 아울러 주거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표 1〉 팔금도 조사가옥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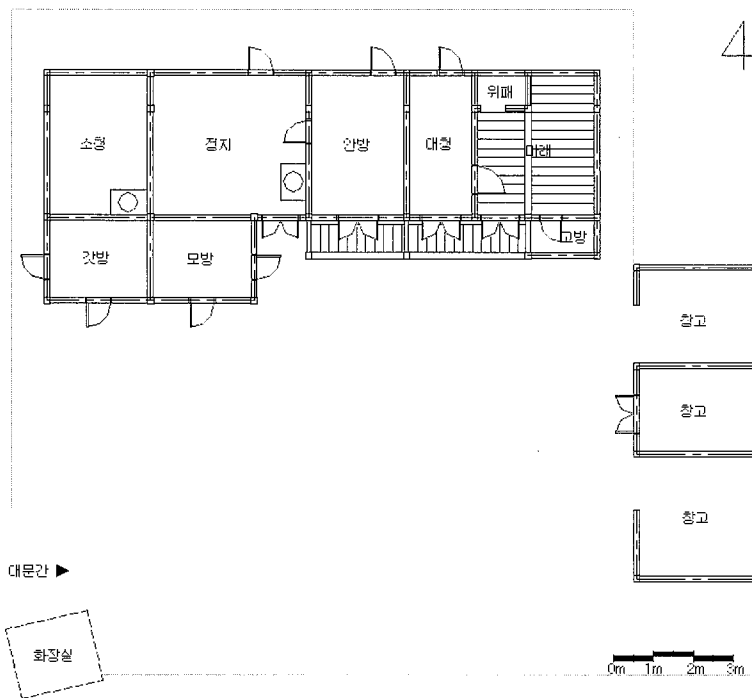
번호	가옥명	소재지	건립연대	건물구성	비고
1	주명선 가옥	신안군 팔금면 읍리 575번지	1800년대 말	안채, 헛간채	
2	김창복 가옥	신안군 팔금면 서근리 1827번지	1900년대 중	안채, 측간채	
3	김정국 가옥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1010번지	1900년경	안채	
4	설연순 가옥	신안군 팔금면 단고리 1059번지	1900년대 초~중	안채	
5	조복용 가옥	신안군 팔금면 단고리 864번지	1800년대 말	안채, 측간채	
6	공가 1	신안군 팔금면 단고리 25번지	1800년대 중	안채, 측간채	
7	민성임 가옥	신안군 팔금면 단고리 1055번지	미상	안채, 헛간채, 측간채	
8	정복진 가옥	신안군 팔금면 읍리 574번지	1800년대 말	안채, 측간채	
9	공가 2	신안군 팔금면 읍리 249번지	1840년	안채, 헛간채, 측간채	
10	조정강 가옥	신안군 팔금면 진보리 470번지	1850년경	안채, 측간채	
11	김정선 가옥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827번지	1800년대 중	안채	헐림
12	지석태 가옥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1067번지	1874년	안채, 헛간채	헐림
13	이명식 가옥	신안군 팔금면 색리 308번지	1880년대 경	안채	헐림
14	강희빈 가옥	신안군 팔금면 장촌리 629번지	1800년대 중	안채	헐림

2) 주거문화자원 현황

(1) 건립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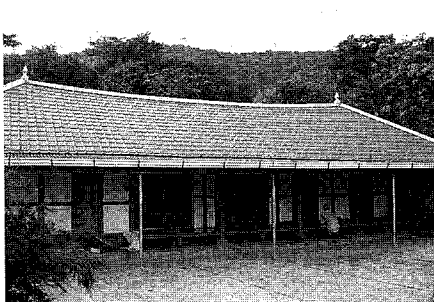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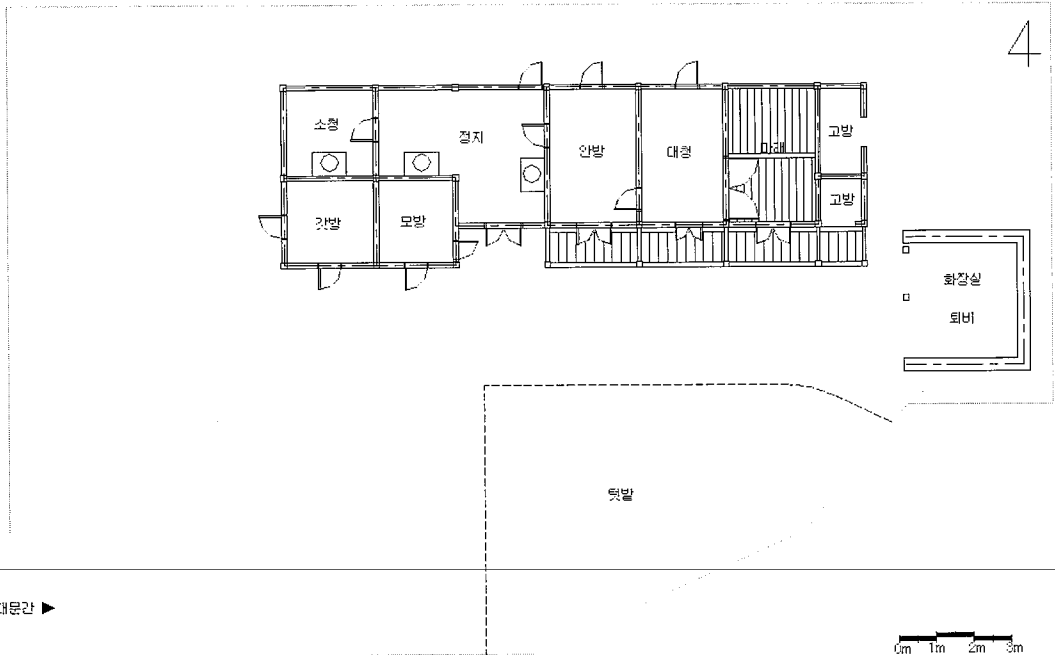
① 주명선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읍리 575번지
- 건립연도 : 1800년대 말
- 가옥특성 : 마래에 위패 안치공간 설치. 안방과 마래사이 대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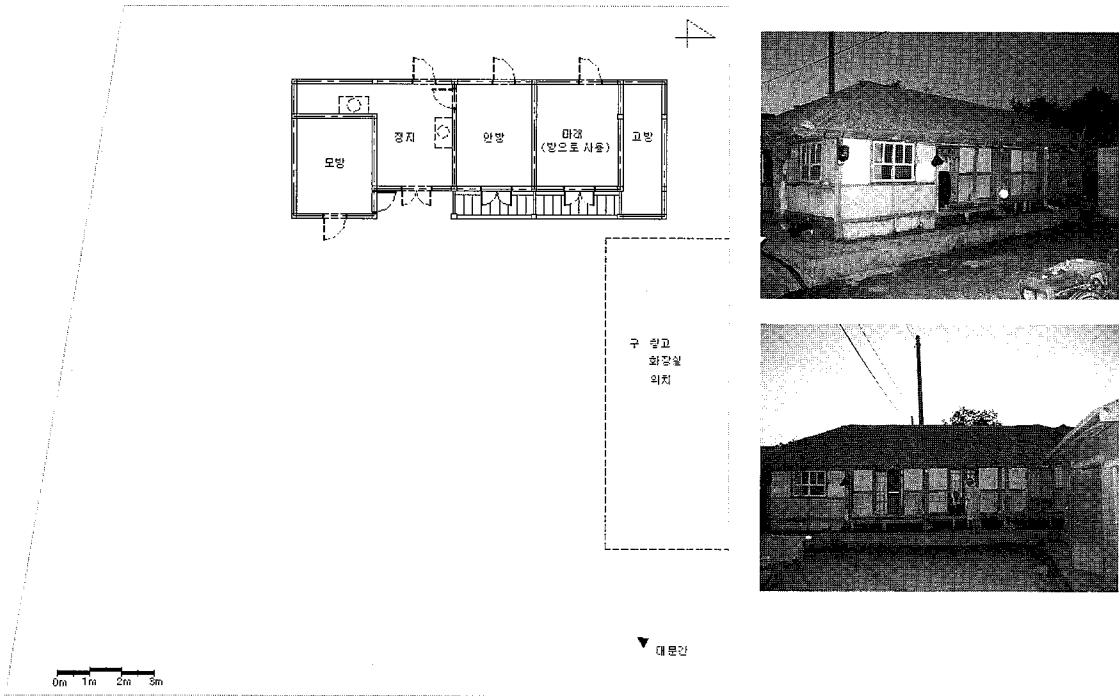
② 김창복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서근리 1827번지
- 건립연도 : 1900년대 중
- 가옥특성 : 정지 측면으로 겹집(갓방, 소청)구성. 대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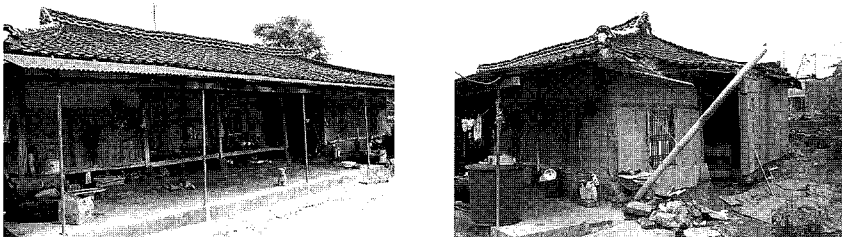
③ 김정국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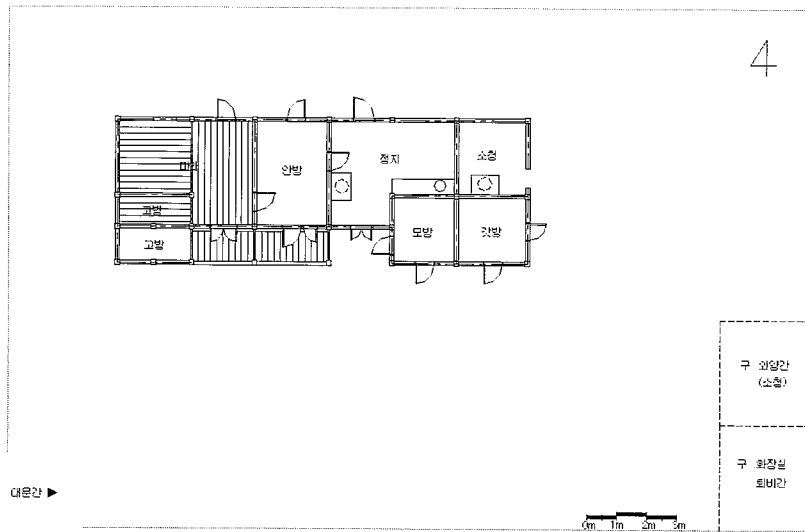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1010번지
- 건립연도 : 1900년경
- 가옥특성 : 모방이 다른실에 비해 큼.



④ 설연순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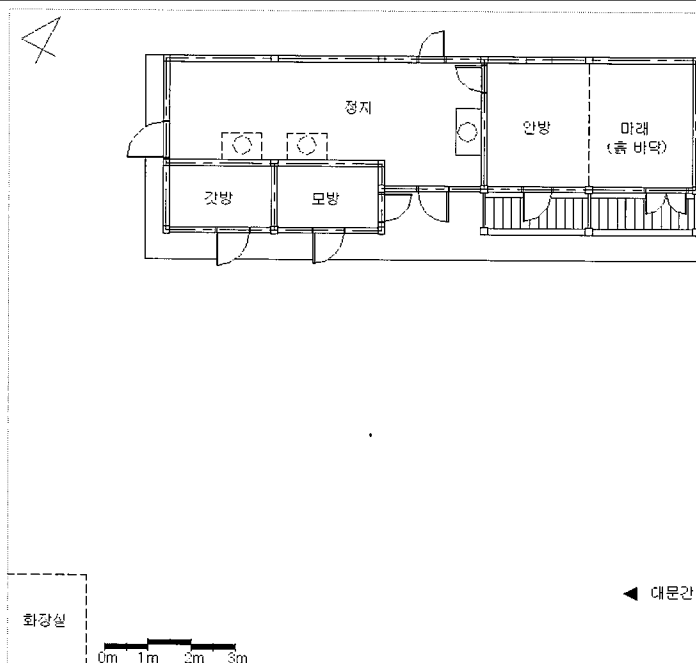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단고리 1059번지
- 건립연도 : 1900년대 초~중
- 가옥특성 : 정지엮 겹집화(갯방, 소청). 마래가 상당히 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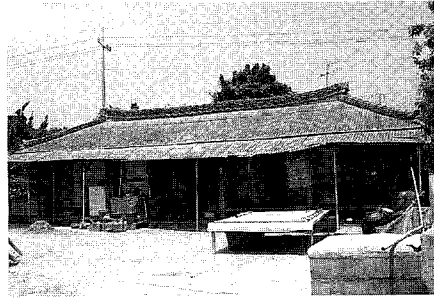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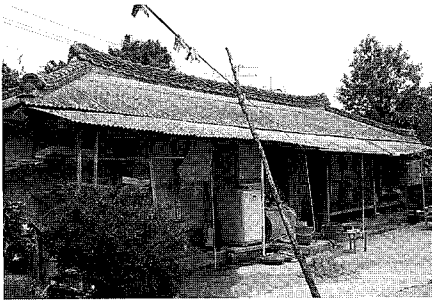




⑤ 조복용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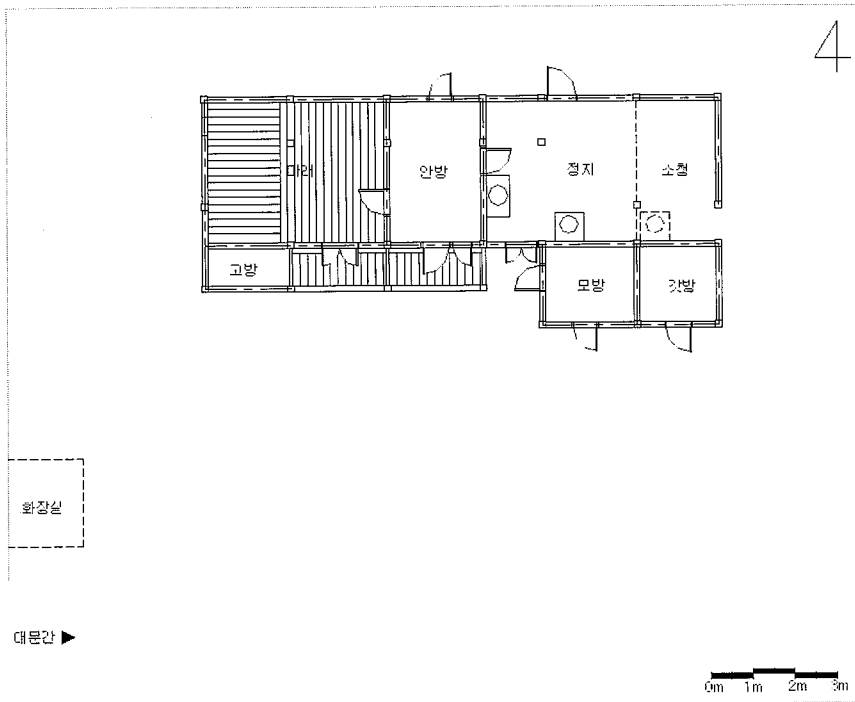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단고리 864번지
- 건립연도 : 1800년대 말
- 가옥특성 : 완전 '2' 자형 가옥. 갯방 뒤쪽으로 정지 공간 분리(소청 등)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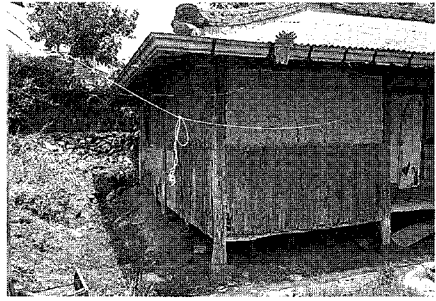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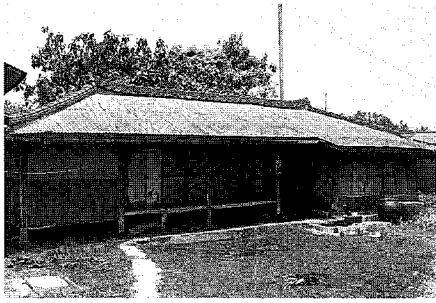




⑥ 공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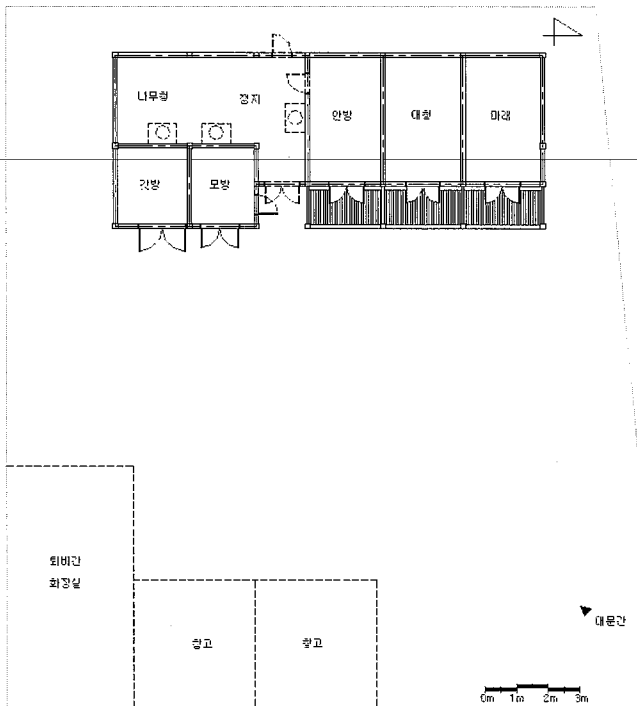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단고리 25번지
- 건립연도 : 1800년대 중
- 가옥특성 : 가옥 우측 겹집화. 마래2칸으로 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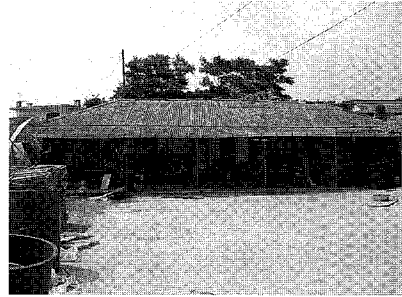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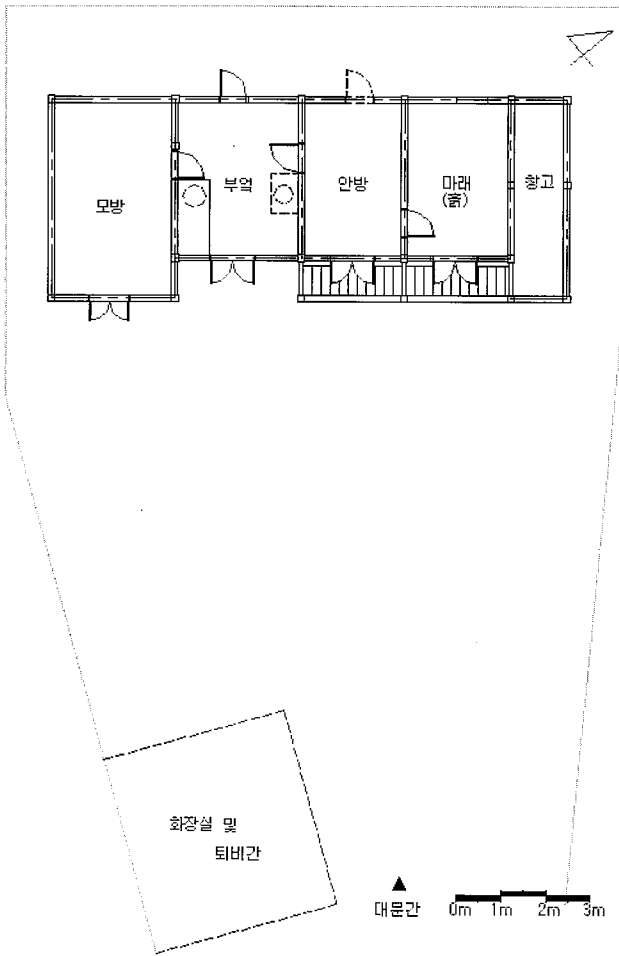
⑦ 민성임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단교리 1055번지
- 건립연도 : 미상
- 가옥특성 : 대청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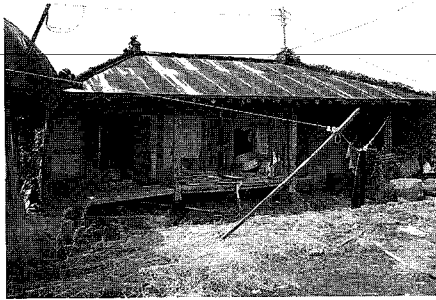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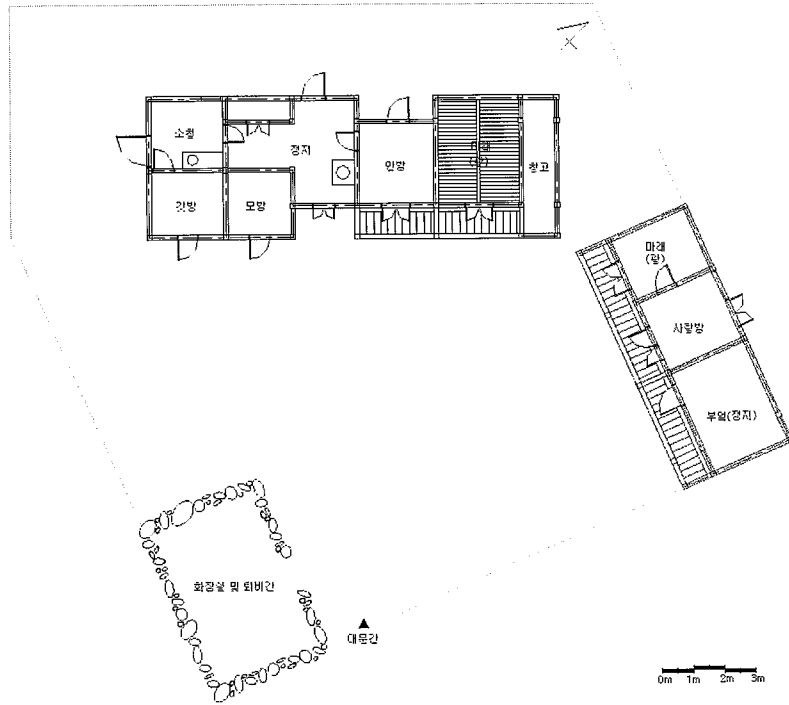
⑧ 정복진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읍리 574번지
- 건립연도 : 1800년대 말
- 가옥특성 : 모방이 정지 측면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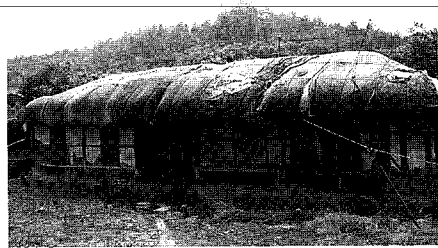


⑨ 공가 2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읍리 249번지
- 건립연도 : 상량 “道光貳拾年…” (1840년)
- 가옥특성 : 행랑채 등이 있는 큰 규모의 가옥. 안채의 평면구성이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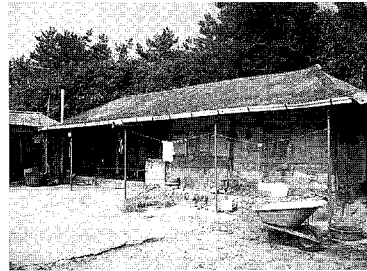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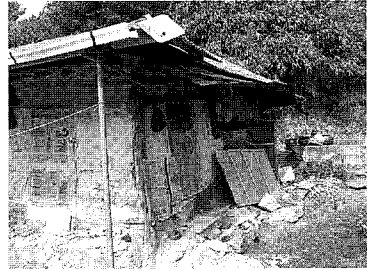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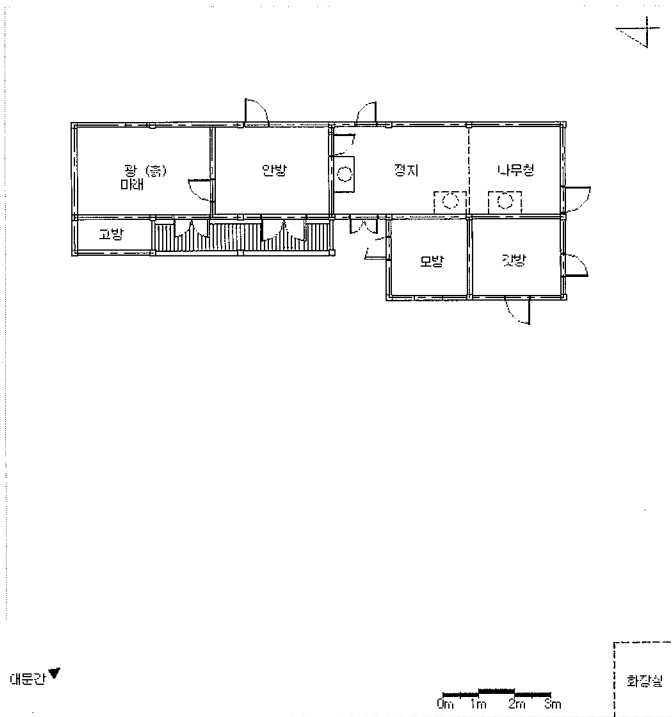
행랑채



안채

⑩ 조정강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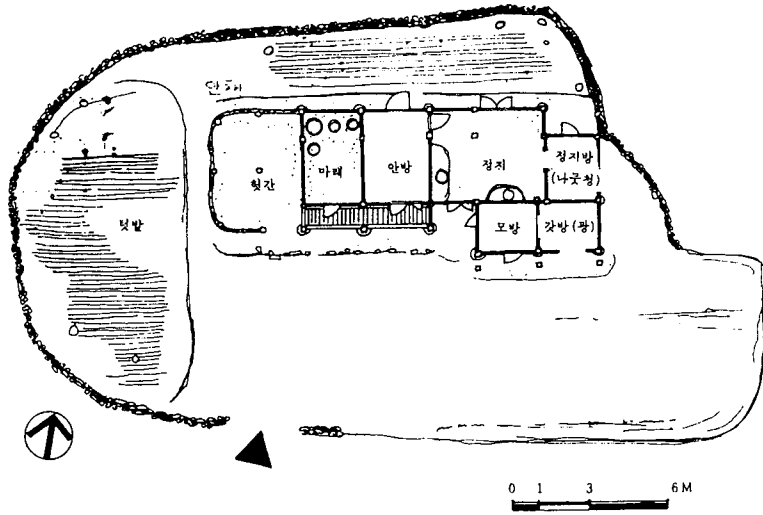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진보리 470번지
- 건립연도 : 1850년경
- 가옥특성 : 정지와 모방 옆 겹집화



⑪ 김정선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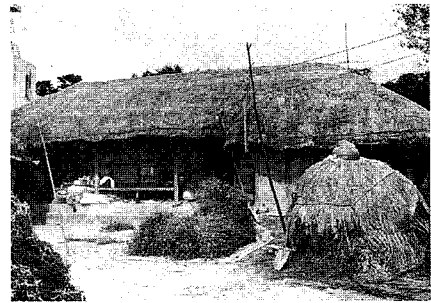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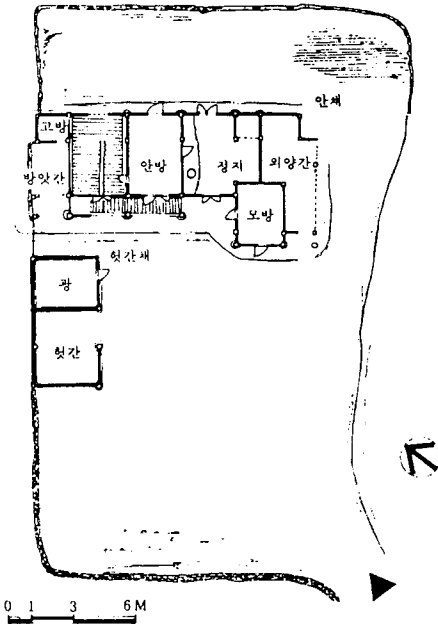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827번지
- 건립연도 : 1800년대 중
- 가옥특성 : 마래 측면 헛간 증축(흙벽돌), 후퇴까지 넓게 공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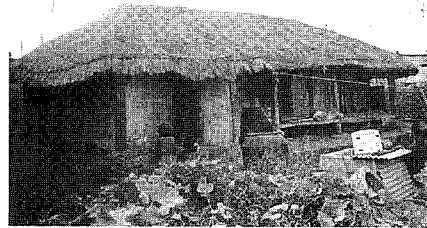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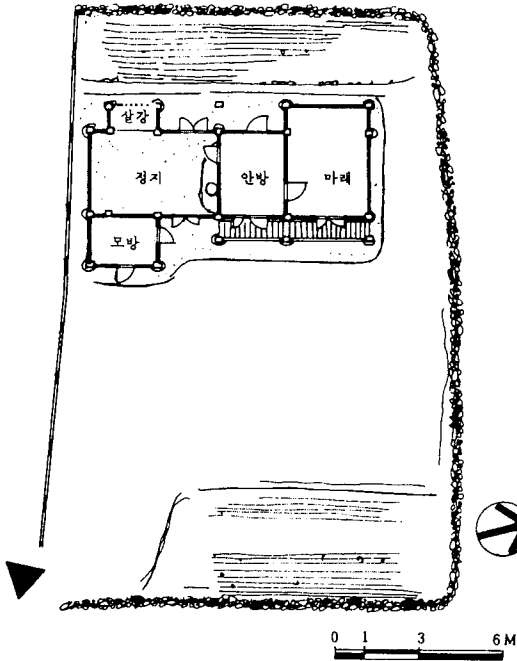
⑫ 지석태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1067번지
- 건립연도 : 상량 "4207년 9월 7일..." (1874년)
- 가옥특성 : 본채 좌 · 우측으로 외양간, 방앗간 등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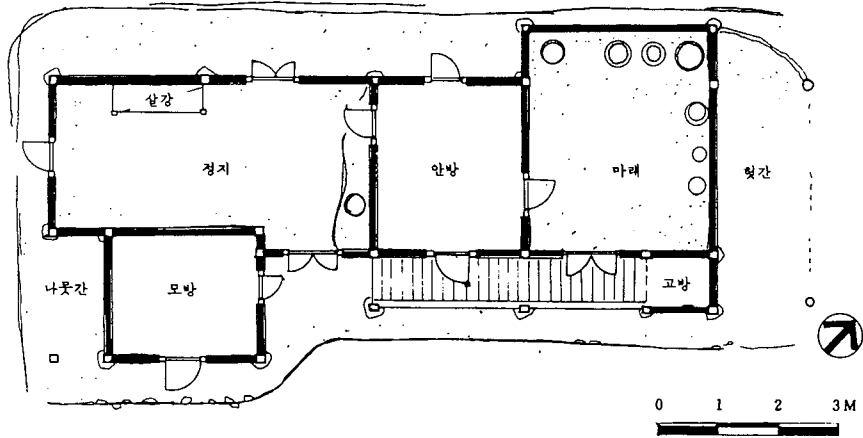
⑬ 이명식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읍리 308번지
- 건립연도 : 1880년경
- 가옥특성 : 모방이 정지 전면 모퉁이에 설치된 전형적 도서 민가 구조. 안방에 봉창설치.



⑭ 강희빈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팔금면 장촌리 629번지
- 건립연도 : 1800년대 중
- 가옥특성 : 모방 옆 뒷간 구성(나뭇간) 마래-흙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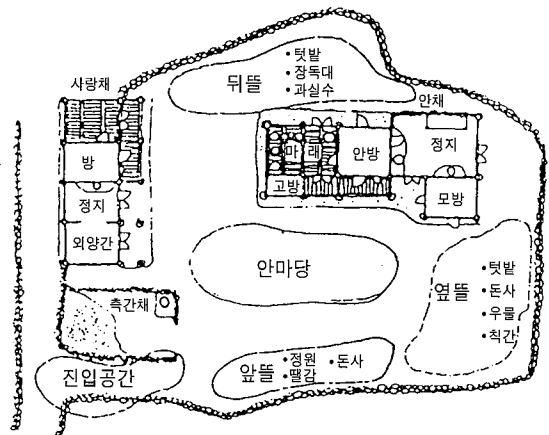


(2) 주거구성 특성

① 주거의 기본구성

일반적으로 서민이 사는 민가에 있어서는 상류주택과 달리 가족구성의 동질성, 경제 및 사회활동의 단순, 건축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부속채의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 기껏해야 별도로 행랑채와 측간채, 가축사 정도가 고작이다. 행랑채의 경우 지방에 따라 호칭(사랑채, 아래채, 부속채, 작은채, 바깥채)과 기능(작업+수장, 거주+수장+작업, 거주+수장+가축사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건축의 본질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 지역 민가의 대지 성격은 안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안채와 함께 그 중심에 위치하며 그 성격은 매우 개방적이다. 또한 안마당은 부속채나 출입구, 가축사 등의 위치를 결정하게도 한다. 이외 외부공간 구성은 안채 뒤편으로 협소한 공간과 대지 측면에 텃밭이 일구어지는 것이 거의 전부다. 즉 가능한 대지의 후면(안쪽)으로 안채를 앉혀 그 전면으로 마당을 넓게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행랑채가 들어섰을 경우도 반드시 안채 전면에 두지 않고 측면에 배치하여(두 건물이



〈도서 전통민가 구성 사례〉

트여진 직각 형태) 역시 안마당 중심의 배치관계로 이끌어 나갔다. 안채 전면에 문간채 겸 부속채가 들어서는 “二”자형 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ㄱ”자형 배치개념은 전남 도서 및 내륙지방 민가 배치의 기본 유형으로서 대지를 개방적 측면으로 유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내부공간(안채)은 안방, 정지, 마래, 모방의 4실이 주가 되어 기능적으로 조합, 공간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 외 뒷마루, 헛간, 소청, 갓방 등의 공간도 가옥에 따라 안채를 구성하는 주요 실도 등장한다. 제일 보편화된 유형은 마래, 안방, 정지, 모방의 4실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이 경우 모방이 전면의 퇴주선(退柱線)보다 약 1m 정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二’자형 평면이지만 ‘ㄱ’자형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유형은 팔금도 뿐 만 아니라 다른 신안 도서에서도 일반화된 중요한 패턴이다.

이 지역 민가에서 안채 다음으로 제2의 건물은 행랑채이다. 독립된 별동으로 건립되는 이 건물은 안채처럼 반드시 건립되지는 않고 보통 안채 건립이후 가족 수가 늘어나고 살림의 규모가 커질 때 지어진다. 따라서 가옥의 경제적 역량과 관계를 가진다. 호칭은 도서에 따라 행랑채, 사랑채 등으로 불리며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수장과 거주, 가축 사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② 지속가능한 전통공간 모색

· 마래

“마래”, “마리”, “말래” 등으로 호칭되는 이 실은 서남해 도서지역의 핵심이 되는 도서민의 생명력과 응집력을 엮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마래는 항상 머리 쪽에 위치한다. 그 위쪽으로는 어떠한 실도 들어서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전남의 서남해(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등) 도서에서 모두 같다.

이 실의 용도는 외형적으로 수장의 기능을 갖는다. 수장 형태는 1년 알곡식이 크고 작은 독에 담겨져 큰 독은 아래로, 작은 독은 그 위로하여 벽선에 따라 놓여진다. (하의도 대리마을 어느 가옥의 큰 독은 중앙부 직경이 70cm, 높이가 99cm이다.) 이외 각종 집안 살림도구(바구니, 상, 돛자리, 그릇 등)도 보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래는 한 가정의 정신적 지주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보통 3대조까지의 신위를 모셔두고 제례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위는 정면 출입구 맞은편 벽 상부에 감실장을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고 감실장 없이 “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상자를 선반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다. 이는 사당을 별도로 건립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형편에서 마래방을 제사공간으로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다.

결국 마래는 제사와 수장을 동시에 수용한 전통공간으로서 충분히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 마당

민가의 건축적 구성요소는 단순히 안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안채는 저장과 거주, 그리고 종교적 사고까지 수용하고 있는 제일 비중이 큰 대상이다. 그러나 부속채나 마당 등도 한 가옥의 틀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인자가 아닐 수 없다.

도서지역 민가에서 마당은 내부공간 만큼 중요하다. 가족의 대소 행사장으로, 농수산물의 정리 및 건조, 또는 가족 휴식 공간으로서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내륙 농촌지역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의식 조사시에도 보면 넓은 마당을 갖기를 앞으로의 신축주거에서도 원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마당은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 '퇴' 공간

건축에서 퇴간(退間)은 몸채 앞 뒤, 또는 좌우에 본래 간보다 좁게 달린 간을 말한다. 이 퇴간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매개하는 중간적 성격의 공간으로 반내부적이면서도 반외부적인 성격을 갖는다. 매개공간은 단순히 공간의 이웃함에 따른 시각적 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측면에서의 뒤엉킴에 의해 유기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다.

내륙과 마찬가지로 도서민가에서도 이 퇴공간은 마루가 놓여지는 전면의 '뒷마루'로 크게 조명된다. 앞 뒤, 좌우의 비어진 퇴에는 특히 외부에서 필요한 각종 생활도구가 손쉽게 놓여진다. 가옥에서 여유를 찾아볼 수 있는 퇴공간은 충분히 현대주거에서도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4. 유형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1) 고고유적의 활용방안

팔금도에서는 이번에 4곳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는데 그 시기가 모두 삼국시대에 속하는 것들로 안좌도에 위치한 고분군과 비슷한 시기에 속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태로는 이들 토기편들이 어떠한 유구에서 흘러나와 지표면에 노출된 것인지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유물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 주거지나 고분이 확인되면 안좌도와 연계하여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1) “안좌도-팔금도-자은도-암태도” 연도교 건설로 인한 연계 관광자원의 개발

자은도-암태도를 연결하는 은암교와 안좌도-팔금도를 연결한 신안1교가 완공되었으며, 팔금도-암태도를 연결하는 교각이 2005년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따라서 하나의 섬을 방문할 경우, 교각으로 연결된 섬과 부속도서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간 도서지역을 오직 하나의 섬만을 방문하고 일정을 마무리하기 보다는 동일한 해역에 입지하고 있는 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권역별·주제별 관광자원의 개발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안좌도 인근 해역의 섬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민박이나 폐교를 활용하여 체류공간을 확보한 다음 테마별 여행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①암태도의 매항비와 우실, 그리고 소작쟁의, ② 안좌도, 섬 속의 농촌풍경과 고인돌, ③자은도의 백길해수욕장, ④팔금도의 불교와 유교이야기, ⑤섬 속의 섬, 팔금도-거문도-매도의 간조 시 드러나는 갯벌과 노두체험, ⑥ 안좌도의 구대리-방월리 해안도로 주변의 생태체험장으로 활용. 즉 산두리의 낙지, 향목리의 조개, 우목리의 감태, 박지도의 굴, 자라도의 염전, 금산리의 대하양식장, 읍동의 김 양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통(거리와 방향), 먹거리, 볼거리, 역사문화자원, 체험공간, 자연경관의 요소 등을 안내해 주는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2) 불교와 유교이야기가 있는 공원 조성-팔금도 3석탑과 효열각-

팔금도 읍리마을의 초입에 3층석탑 1기와 효열각 1동이 위치한다. 석탑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절터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1942년에 조사된『조선보물고적조사보고』에 따르면 5층석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곳에서 옮겨 왔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석탑의 조성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그런데 석탑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19세기말-20세기초에 생존하였던 양성이씨와 제주양씨의 효열각이 위치하고 있다.

동일한 공간에 불교와 유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유적이 팔금도 주민들과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공간을 교육의 장소, 혹은 토론의 장소, 휴식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석탑과 효열각이 입지하고 있는 공간은 약간 경사지에 입지하고 있어서 저 멀리 읍리마을 전경이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또 주변에 건축물이나 야산 등이 입지하지 않아서 공간이 사방으로 열려 있다. 따라서 유적과 인접해 있는 전답을 활용하여 넓은 잔디밭을 구축한다면 많은 사람이 함께 모

여 집회할 수도 있고, 섬을 방문한 외지인에서 팔금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의 놀이 공간, 주민들의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서지역은 다수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또 주민들이 자연을 벗 삼아 생활하고 있다지만, 실제 일하는 공간은 많지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지공간은 거의 조성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도로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와의 경계를 구분하는 나무숲을 조성하고, 그 안 쪽에 잔디밭을 구축하되, 마을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서북쪽은 열린 공간을 유지한다면, 이 곳에서 팔금도의 문화를 전달할 수도 있고, 인접한 마을과 마을 간의 연계성, 섬의 생태환경 등을 안내하는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거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많은 문화자원이 있다. 전통건축도 그 중의 하나다. 전통건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 준다.

첫째, 감성가치를 제공 해 준다. 초가삼칸집, 웅장한 궁궐 등 옛 집은 우리에게 옛 생각 등 감성을 유발 시킨다.

둘째, 역사적 가치이다. 건축물은 지어질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사찰건축은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주택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따라서 전통건축은 형체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요, 역사현장이다.

셋째, 조형 예술사적 가치가 있다. 건축은 종합예술의 결정체로서 모든 각각의 형태와 요소는 기술적인, 조형적인 측면에서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산업화 이후 전통주거는 그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심지어는 존재의 의미조차도 찾지 못하게 됐다. 그 이유는 건축 구조적인 측면과 경제성 등에서 이른바 현대식 주택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에서는 그러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여 2005년부터 누구나 저렴하고 쉽게 우리 한옥을 지을 수 있는 “한옥시공 메뉴얼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에 ‘문화강국 2010 비전’을 통해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동북아 관광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서·남해안 관광벨트(바다)와 지리산권(산), 경북 북부(유교문화) 등 3곳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수많은 신안의 도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관광화 산업에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1) 개별 전통가옥의 보존

현재 각 마을에는 초가집은 아니나 내부구조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집, 특히 빈집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집을 원형으로 복원하여(마을별 2~3채 정도, 또는 인접 마을을 묶어 3~4채) 마을의 정체성을 갖게 해 준다. 외지에 사는 도서민이 고향을 찾을 때 텃자리의 의미도 갖게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잠시 찾는 소그룹 외지인에게 임대(숙박업)를 한다.

팔금도는 내륙(목포)과 가깝고 안좌도와 연륙이 되어 있는 등 도서관광의 명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하절기에는 숙박업소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바다냄새가 물씬 나고 깔끔하게 정돈된 전통가옥에서의 하룻밤은 또 다른 도서관광의 낭만이 될 수 있다.

1차 관리와 보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군에서는 통합관리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가령 인터넷에서 '신안 도서 전통가옥 체험' 만 클릭하면 홍보부터 예약까지 가능하게끔 한다.

(2) 집단 전통가옥의 복원

민가(초가)는 개별적인 건축보다는 집단적으로 있을 때 낙안 민속마을처럼 그 효과가 커진다. 민가는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팔금의 경우 어느 한 마을을 선정, 여러 채의 전통가옥을 민속자료와 함께 복원하여 집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세트는 도서의 전통마을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교육(초, 중, 고 학생의 교육 캠프)과 향수의 장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벤트사업(영화촬영장, 민속공연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가능 할 것이다.

참고로 물론 문화권이 다르겠지만 안동시의 경우 고가옥 전통체험 상품에 하루 300여명이 꾸준히 찾고 있다.

Ⅲ. 무형문화자원

1. 어로문화자원

1) 어로문화 목록

번호	제목	제보자	제보지역	제보일자	비고
1	송어잡이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팔금면 고산리	2005. 4월 21~22일	
		김갑동(남, 80)	안좌면 한운리		
2	농어잡이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팔금면 고산리	2005. 4월 21~22일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안좌면 복호리		
3	전어, 우럭잡이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팔금면 고산리	2005. 4월 21~22일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안좌면 복호리		
4	망둥어잡이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팔금면 고산리	2005. 4월 21~22일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안좌면 복호리		
5	게잡이	김남현(남, 48)	팔금면 당고리	2005. 4월 21~22일	
6	낙지잡이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팔금면 고산리	2005. 4월 21~22일	

2) 어로문화 현황

(1) 송어잡이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고산리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안좌면 한운리 김갑동(남, 80)

- 현황 : 송어잡이의 어로서기는 10월부터 5월까지이다. 송어는 여름철에도 잡는데, 주로 봄철에 잡는다. 여름철 산란시에는 송어의 맛이 떨어지고, 잡아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잡지 않는다. 찬바람

이 날 때 잡은 송어가 맛있다. 송어는 수심이 얇은 곳을 좋아한다. 얇은곳 중에서도 바닥이 빨리 되어있는 곳을 좋아하고, 뺨을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송어잡이는 대맥이와 삼마이, 삼각망으로 잡는다. 대맥이는 일반적인 개맥이와 비슷한 방법이다. 바다에 말목을 박아놓고, 그물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대맥이다. 들물 때는 그물을 내려놓고, 썰물이 될 때 그물을 대에 걸어서 빠져나가는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대맥이는 한운리에서 조사된 것으로, 한운리 앞에 '되' 라고 부르는 조금만 섬과 마을 앞바다를 가로질러 대맥이를 설치한다. 길이는 대략 300m 가량이다. 대맥이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3~4명이 짝을 이뤄서 작업을 한다. 물이 쓰면 박아놓은 말목 밑에 그물을 묻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보통 이틀 정도 걸린다. 이후 들물이 되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들어올리는 데 하루가 걸린다. 현재는 이렇게 대맥이로 고기를 잡지 않지만, 근래에까지 대맥이를 했었다.

삼마이는 뺨에 말목을 박고 그물을 친다. 삼마이그물로 잡는 방법은 조금 무렵에만 한다. 이는 그물이 사리때의 빠른 물을 건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리때에 삼마이그물을 치면 그물이 엉키고 훼손된다. 그물은 물이 빠졌을 때 설치한다. 그 후 물이 들어왔다 나갈 때 고기가 걸리게 한다. 송어는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많이 잡을 때는 100마리 이상도 잡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겨우 한두 마리씩 잡힐 때도 있다. 삼마이그물은 보통 60~70m 정도 길이로 친다.

삼각망에는 주로 사리 때에 많이 잡힌다. 삼각망은 삼마이와 달리 말목을 튼튼하게 고정하여 거의 1년 내내 설치해 둔다. 장소도 거의 고정적이어서 각 철에 따라 드는 고기를 잡는다. 그물을 잠시 철수할 때도 있다. 그물에 이끼나 해조류 등이 끼어서 그물이 무거워지면 보수를 위해 잠시 철수한다. 그물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사리 무렵에는 고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1~2일에 한번씩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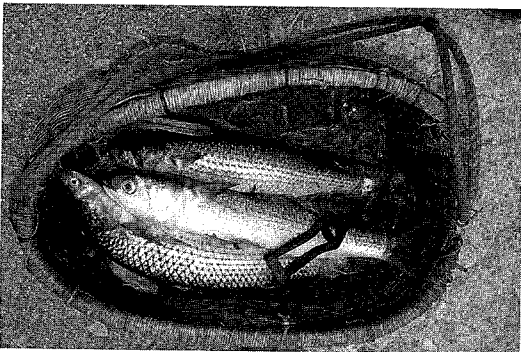


사진 1. 삼마이로 잡은 송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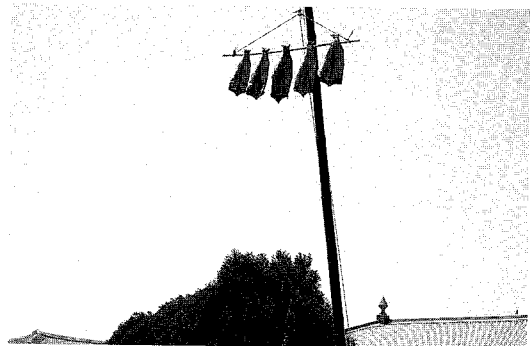


사진 2. 집안에서 건조 중인 송어

(2) 농어잡이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고산리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안좌면 복호리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 현황 : 농어는 봄여름에 연안으로 회유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먼 바다로 돌아간다. 안좌면에서는 연안으로 회유하는 봄철에 주로 잡는다.

농어는 송어보다 조금 깊은 곳에서 서식하고, 수초가 있는 여 근처를 좋아한다. 또한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 서식한다. 농어잡이는 주로 주낙을 이용한다. 삼마이그물에도 가끔 걸리긴 하지만, 삼마이 그물은 낮은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바닥에 여가 많은 곳에 주낙을 내려 조업한다. 주낙을 이용해 잡기 때문에 조금 무렵에 맞춰 조업을 한다. 사리 때에는 물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주낙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다.

농어는 송어에 비해 4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봄철 외에도 '아무 때나 잡는다'고 한다.

(3) 전어, 우럭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고산리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안좌면 복호리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 현황 : 전어는 주로 남해안 지방에서 많이 잡힌다. 안좌 근해에서도 조금씩 잡힌다. 가을에 잡은 전어의 맛이 좋고, 여름에 잡은 전어는 맛이 없다. 농어에 비해 조금 얕은 곳에서 잡는다. 삼각망으로 주로 잡는데, 삼마이 그물에 걸리기도 한다. 삼각망을 쳐 놓고, 잡힌 고기를 쭈기통을 해 가져온다. 전어는 암초와 수풀이 있는 곳에 산다.

안좌와 팔금지역에서는 전어를 잡기 위한 목적의 어로행위는 별로 없다. 다만, 삼마이 그물과 삼각망에 가끔 걸린다. 전어는 농어보다는 얕은 곳에 산다. 전어도 여름에는 안 먹는다. 여름에는 맛이 없다. 전어는 여수쪽에 많이 난다. 특별히 전어를 잡으러 가지는 않는다. 그냥 삼마이에 잡히면 잡는다. 3~4월에 잡는다. 여름에는 맛이 없다.

우럭은 9월 초순부터 봄까지 잡힌다. 주로 가을에 잡힌 우럭의 맛이 좋다. 바다의 암초나 수풀이 있는 '여'에서 산다고 한다. 우럭은 삼마이로도 잡고, 삼각망으로도 잡는다.

(4) 망둥어(운저리)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고산리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안좌면 복호리 송진일(남, 42), 박형석(남, 38)

- 현황 : 망둥어는 주로 빨에서 산다. 겨울에는 빨 속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산다. 3~4월에는 산란을 하고 죽는다. 어로시키는 주로 9~11월의 가을철이다. 보통 8월부터 12월 사이에 빨이 좋은 곳에서 잡을 수 있다. 봄에 잡은 것은 맛이 없고, 가을에 잡은 것은 맛있다. 봄에는 산란기가 끝나고 죽어버리니 때문에 맛이 덜하다. 또, 봄에 잡은 것은 고기가 뻘뻘하다.

망둥어잡이는 맨손으로 잡기도 하고, '태우'를 쳐서 잡기도 한다. 맨손으로 잡을 때는 망둥어의 구멍을 파악해야 한다. 망둥어는 빨을 파먹고 내뱉어 놓는데, 그 곳에서 손을 집어넣어 잡는다. 태우는 새우를 잡을 때도 사용하는 그물이다. 갯벌 개웅에 20~30m 정도 길이로 그물을 치고, 쭈기 통을 만들어서 잡는다.

(5) 게잡이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당고리 이장 김남현(남, 1958생)

- 현황 : 갯벌을 자갈이 섞인 곳과 빨만 있는 곳으로 구분한다. 자갈이 섞인 갯벌은 갯장불이라고 하고, 진흙으로만 이루어진 곳을 넉지창이라고 한다. 갯장불은 비교적 딱딱해서 발이 빠지지 않는 곳이다. 넉지창은 딱딱한 곳과 무른 곳이 있는데, 딱딱한 곳에서는 발이 빠지지 않고, 무른 곳에서는 발이 빠진다. 갯벌에서는 농기와 서리기를 잡는다. 서리기는 빨기라고도 한다.

농기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붉은색을 띠면서 조금 크다. 주로 3~4월에 넉지창에서 잡는다. 넉지창 중에서도 발이 빠지지 않을 만큼 딱딱한 곳에서 잡는다. 주요 어획방법은 손으로 구멍을 파서 잡는 방법이다. 농계의 구멍은 동그랗고 일직선으로 파여 있다. 6월이 되면 산란하기 위해 내려가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서리기는 가을이나 봄에 잡는다. 서리기는 빨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진흙이 많은 빨에서 살기 때문이다. 서리가 내려서 하얗게 되면 조그만 개웅 근처에 많이 있다. 개웅 근처의 빨이 좋은 곳에서 잡는다. 개웅 근처에서 사람이 쫓으면 한 구멍으로 몰린다. 그러면 구멍에 손을 넣어서 잡는다.

(6) 낙지

-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 제보자 : 팔금면 고산리 김재남(남, 54), 김월출(남, 57)

- 현황 : 낙지는 갯벌에서 가래로 잡기도 하고, 근해에서 주낙으로 잡기도 한다. 낙지주낙은 3~4월과 7~9월경에 한다. 5~6월에도 잡을 수 있지만, 산란기인데다 맛이 없어서 잡지 않는다. 겨울에는 추워서 많이 하지 않는다. 주낙의 미끼는 서리기를 사용한다. 낙지주낙의 경우 조금 무렵 저녁 들물시에 한다. 낙지는 주로 저녁에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갯벌에서는 가래와 손을 이용해 잡는다. 가래는 삽처럼 생겼지만, 폭이 훨씬 좁아서 깊이 파기에 적당하다. 낙지를 잡는 방법 중 가장 큰 노하우는 낙지구멍과 부릇을 구별하는 것이다. 부릇은 낙지구멍 주위에 있는 조금만 구멍으로, 구멍 주위의 갯벌색깔이 푸른빛이다. 부릇은 낙지구멍과 연결되어 있어서 낙지구멍에 손을 집어넣으면 부릇으로 물이 빠져나온다. 낙지구멍과 부릇을 확인하면 바로 가래와 손을 이용해 잡는다. 낙지는 구멍을 수직으로 파지 않고, 어느정도 깊이에서부터 옆으로 파기 때문에 이동위치를 생각해서 가래로 판다. 가래로 파기 시작하면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재빨리 손을 집어넣어서 잡아야 한다. 빨 깊이 손을 집어넣어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힘이 세야 많이 잡을 수 있다. 가래를 사용하지 않고 잡기도 하는데, 이는 양손으로 구멍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낙지를 잡아올리는 방법이다.

2. 생활문화자원

1) 생활문화자원 목록

(1) 우실 목록

번호	마을	명칭	위치 및 형태	관련의례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팔금면 원산리 서근마을	우실	마을 서남쪽 바다를 막고 있는 나무군락(팽나무, 시누대)		2005. 04. 21~22	박종엽(여, 1936생) 안봉엽(여, 73) 유경애(여, 28) 김종술(남, 68) 김동연(남, 72)	현존
2	팔금면 원산리 원산마을	우실 (우실제)	마을 북쪽 일대를 감싸고 있는 나무군락(소나무, 전나무)	당제	2005. 04. 18~19	박종기(남, 89)	현존
3	팔금면 이목리 매도	우실	마을 북서쪽과 북동쪽을 감싸고 있는 나무군락(소나무, 팽나무)	없음	2005. 04. 21~22	박종신(여, 86)	현존
4	팔금면 이목리	우실	마을 북서쪽 일대를 감싸고 있는 나무군락(팽나무, 소나무, 시누대)	당제	2005. 04. 18~19	정향심(여, 81) 남기순(여, 77)	현존
4	팔금면 읍리	우실	마을 북서쪽 일대를 감싸고 있는 나무군락(소나무, 팽나무)		2005. 04. 18~19	김만심(여, 86)	현존

(2) 노두 목록

번호	위치		형태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팔금면 거사도	읍리와 연결된 구 노두	갯벌 위에 작은 돌로 다져진 길	2005. 04 21~22	최남술(남, 81) 이옥순(여, 80)	현존(사용하지 않아 갯벌에 묻히고 있음)
		고산리와 연결된 신 노두	갯벌 위 시멘트길	2005. 04 21~22	최남술(남, 81) 이옥순(여, 80)	현존
2	팔금면 거문리 - 매도		갯벌 위 징검다리	2005. 04 21~22	박종신(여, 86)	시멘트로 포장되었음

(3) 세시풍속 목록

번호	위치	내용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팔금면 이목리 이목마을	월별 세시의례 및 놀이	2005. 04 18~19	정향심(여, 81) 남기순(여, 77)	
2	팔금면 원산리 서근마을	월별 세시의례 및 놀이	2005. 04 18~19	박종엽(여, 1936), 안봉엽(여, 73), 유경애(여, 28), 김종술(남, 68)	

2) 생활문화자원 현황

(1) 우실과 노두

① 팔금면 원산리 서근마을 우실

가) 위치 및 형태

서근마을은 정면(서남쪽)으로 바다와 접해있고, 마을 뒤편 일대를 산이 둘러싸고 있다. 마을이 바다와 접해있기는 하지만, 바로 앞에 원뚝을 막아 조금만 농경지가 만들어져 있다. 우실은 마을 입구를 따라 일렬로 가로막고 서있다. 수종은 팽나무와 시누대 등이다.



사진 3. 팔금면 원산리 서근마을 우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우실은 150여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구체적 조성 이유는 알 수 없다. 또한, 특별한 금기나 관련 이야기도 전하지 않는다.

다) 관련의례

마을의 집단적 의례는 전하지 않으나, 15년 전까지 우실 옆에 살던 故김남석씨가 명절마다 우실에 음식을 차려놓았다고 한다. 마을이 '큰산재 밭'이라고 해서 각각의 명절을 다 쇠었는데, 그때마다 김남석씨가 우실에 음식을 차려놨었다. 그러나 15년전 김남석씨가 타계한 이후로 이러한 의례도 없어졌다. 마을의 집단적 의례는 없다.

□ 제보자 : 박종엽(여, 1936), 안봉엽(여, 73), 유경애(여, 28), 김종술(남, 68), 김동연(남, 72)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② 이목리 매도 우실

가) 위치 및 형태

매도는 팔금도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매도마을은 팔금면 본 섬과 노두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는 시멘트로 길이 놓여있지만, 예전에는 징검다리처럼 큰 돌이 띄엄띄엄 놓여진 노두가 놓여 있었다.

시멘트 포장된 것은 20~30여 년 전이다.

매도는 팔금면 본도와 달리 나무가 많고, 고기가 많이 잡혀 '돈섬'으로 불렸다. 그래서 본도의 사람들이 매일갯이 나무를 해가기 위해 몰려왔다고 한다. 그럴때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마을 노두 입구에서 그들을 만류하여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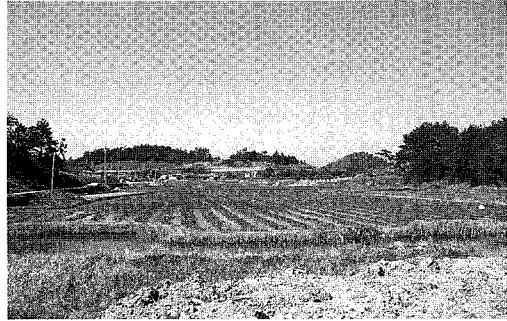


사진 4. 팔금면 이목리 매도를 둘러싸고 있는 우실

마을은 팔금도와 연륙되어있는 남쪽을 제외한 전 부분이 산과 우실로 싸여있다. 마을 북쪽에는 낮은 산이 자리잡고 있고, 좌우로도 낮은 야산이 자리잡고 있다. 우실은 마을 뒷산과 좌우 야산이 만나는 지점에 조성되어 있다. 우실의 수종은 소나무와 팽나무다. 예전에는 우실이 무성했으나 지금은 많이 고사하고, 흔적만 남아있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우실의 조성시기는 알지 못한다.

마을에 우실이 성해야 청년들도 성하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우실을 뺨뺨이 심었다고 한다. 또한 우실에는 상여도 못 나가게 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다고 한다. 우실은 북풍을 막아주고,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한다.

□ 제보자 : 박종신(여, 86)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③ 팔금면 이목리 우실

가) 위치 및 형태

이목리의 우실은 마을 뒤편 북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팽나무 군락이다. 마을 뒤편에는 언덕이라고 할 만한 낮은 야산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윗부분에 일렬로 서있다. 우실이 마을 뒤편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서풍인 하늬바람을 막아준다. 예전에는 팽나무가 뺨뺨이 들어서서 마을을 감싸고 있었는데, 지금은 몇 그루만 남아있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우실의 유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하는 바가 없다.

예전에 우실리 뻑뻑하게 심어져 있을 때는 북쪽 암태도 사이의 태남강에서도 우실이 보였다. 당시에는 팽나무숲으로 이루어진 우실이 일렬로 서있어서 배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 저 동네는 살기도 잘 산 동네다 저 동네서는 누가 나도 인물이 났겠다' 라고 했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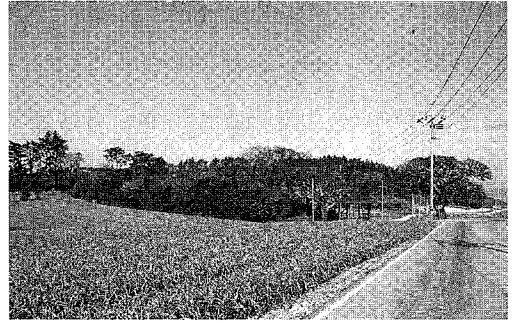


사진 5. 팔금면 이목리 우실

또, '손님 ◎을 동네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는 우실의 보호를 받는 마을내부는 따뜻한 반면 마을 밖에는 매우 추웠기 때문이다. 즉, 마을에 들어가면 좋지만, 다시 나올때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마을에 초상이 나서 상여를 매고 나갈 때 절대 우실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다. 우실 뒤편에 묘를 써야 할 경우에도 곧바로 우실을 지나가지 않고, 마을을 우회해서 우실 뒤편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금기가 약해져서 우실과 관련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 관련연례

우실의 맨 가장자리에 팽나무로 된 당산나무가 있다. 이 당산나무에 40~50여년 전까지 정기적으로 당제를 지냈는데, 이것이 특별히 우실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다만 우실과 연결선상에 있고, 나무의 수종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보자 : 팔금면 이목리 정향심(여, 81) 안좌면 방월리에서 19세에 시집옴.

팔금면 이목리 남기순(여, 77) 충청도 출생, 어려서 목포로 이사옴.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④ 팔금면 원산리 우실

가) 위치 및 형태

원산리의 우실은 마을 뒤편에 일렬로 서 있는 전나무와 소나무 군락이다. 우실이라고도 하고, 우실재라고도 한다. 우실의 중간부분에 장목마을로 통하는 길이 있다. 현재도 마을 뒤편이 북쪽을 감

싸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우거져 있었다고 한다. 해방 후 태풍에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청년들이 전나무를 심은 적이 있다.

마을 북쪽을 감싸고 있어서 하늘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웃마을과 연결되는 길이 나 있어서 출입구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마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구분선의 기능도 한다.



사진 6. 팔금면 원산리 우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우실의 형성시기와 유래는 전하지 않는다.

우실은 여름에 마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놀던 곳이다. 사람들이 모여 장기도 두고, 권도 두면서 놀았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을 때 상여는 우실을 넘어가지 못했다.

다) 관련제의

원산리의 당제는 80~90년 이전에 중단되었다. 당제는 마을 뒤편 우실재(우실) 한 가운데서 지냈다고 한다. 당제를 지낼 때는 막을 쳐놓고 목욕재개를 했다고 한다.

□ 제보자 : 팔금면 원산리 박종기(남,89)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⑤ 팔금면 읍리 우실

가) 위치 및 형태

읍리의 우실은 마을 북서쪽에 위치하고, 수종은 소나무와 팽나무 등이다. 우실 사이로 원산리와 통하는 길이 나있다.



사진 7. 팔금면 읍리 우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우실에 대한 유래나 특별한 금기는 없다. 예전부터 우실 근처에서 남녀노소 모두 즐겨 놀았다. 우실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동네가 좋다고 해서 예전부터 나무를 심고 보호했다. 우실은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북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 제보자 : 팔금면 원산리 박중기(남, 89)

팔금면 읍리 김만심(여, 86) 안좌 시서리에서 시집옴.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⑥ 팔금면 거사리 노두

가) 위치 및 형태

팔금면 거사리의 노두는 이목리로 통하는 구노두와 고산리로 통하는 신노두가 있다. 신노두와 구노두 모두 썰물때 드러나고, 밀물때 물속에 잠긴다. 구노두는 뿔에 돌을 놓아서 길을 만든 것이고, 신노두는 시멘트 포장을 한 것이다. 구노두는 곡선으로 폭이 약 1m, 길이가 약 700~800m 정도이고, 신노두는 직선으로 폭이 약 2m, 길이가 약 150m 정도이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구노두의 조성시기는 전하지 않고, 신노두는 30여 년 전에 조성된 것이다. 신노두는 민간업자가 원목을 막으려고 하다가 포기하자 거사리 마을 사람들이 돌을 날라서 보수를 하고, 이후 면에서 시멘트로 포장을 한 것이다.

노두에 관한 특별한 전설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해마다 봄철이면 거사리에 살던 12가구 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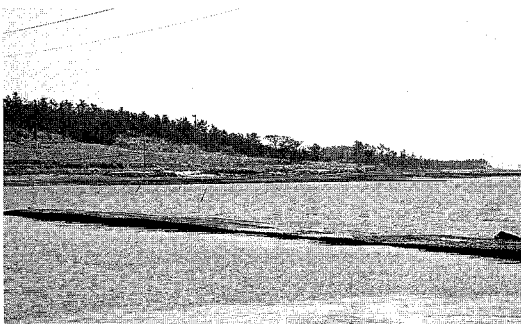


사진 8. 팔금면 거사도와 고산리를 연결하는 신노두



사진 9. 팔금면 거사도와 이목리를 연결하는 구노두

민이 구노두를 보수했다. 구노두는 조그만 돌로 평평하게 닦여져 있어서 보수를 해도 1년이 지나면 빨에 파묻힌 곳이 많았다. 따라서 파묻힌 돌을 파내서 다시 쌓기도 하고, 산에서 돌을 가져와 쌓기도 했다. 보수공사는 주로 조금 때 하는데, 이는 사리 때보다 물이 늦게 들기 때문이다. 경운기나 리어카가 없을 때에는 지게로 돌을 저 날라야 했기 때문에 보수공사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또한 구노두는 썰물이 들어도 물이 얁아서 길만 잘 알면 옷을 건고 걸어도닐 정도였다. 물이 들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로 배를 타고 다녔다.

□ 제보자 : 최남술(남, 81). 팔금면 거산리 거주. 9년전 거사리에서 고산리로 이주.

이옥순(여, 80). 진도에서 23살에 시집왔다. 가마타고 왔다. 가마꾼들이 이목으로 이어진 노두로 가마를 지고 왔다.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22일)

② 팔금면 이목리 매도 노두

가) 위치 및 형태

매도는 팔금면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매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거문리와 연결된 노두를 지나가야 한다. 현재 노두는 포장이 돼 있어서 언제나 드나들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징검다리처럼 큰 돌이 드문드문 놓여 있어서 썰물 때에만 드나들 수 있었다. 노두의 길이는 300m 정도이다.

나) 유래 및 관련전설

노두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없다. 예전에 놓여있던 노두는 징검다리처럼 드문드문 놓여 있어서 '폴짝폴짝' 뛰어서 건너와야 했다. 제보자 박종신 할머니의 경우 시집을 때 가마를 타고 왔는데, 가마꾼들이 폴짝폴짝 뛰면서 들어왔다고 한다.

또한, 매도는 팔금면에서 '돈섬'으로 불릴 정도로 부유했다고 한다. 섬에 나무도 많고, 바다에서 나는 것도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실이 좋고, 산에 나무가 많아서 팔금면 본섬 사람들



사진 10. 팔금면 이목리 매도와 거문리를 연결하는 노두

이 하루면 두차례씩이나 나무를 하러 왔다고 한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노두 입구에 진을 치고, 이들을 막았다고 한다.

노두로 놓여진 돌의 크기가 매우 커서 물에 쏠려가거나 뺨에 파묻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노두를 손질했다는 기억이 없다.

□ 제보자 : 박종신(여, 86) (조사일시 : 2005년 4월 21일)

(2) 세시풍속

① 팔금면 이목리 세시풍속

-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 제 보 자 : 팔금면 이목리 정향심(여, 81) 안좌면 방월리에서 19세에 시집옴.

팔금면 이목리 남기순(여, 77) 충청도 출생, 어려서 목포로 이사 옴.

가) 1월

<설>

선달 그림날 설 차례를 지냈다. 묵은달 넘어가기 전에 지내기 위해 선달 그림날 12시 지나기 전에 지냈다. 12시 넘으면 새날이라고 해서 12시 전에 지냈다. 선달 그림날 잠을 자면 안 된다고 했다. 잠을 자면 눈썹이 빠진다고 하기도 하고, 눈썹이 길어진다고 해서 잠을 못 자게 했다. 상은 보통 10시에 대부분의 음식을 차려놓고, 11시 넘어서 메를 올린다. 진설을 하고 나서 제를 지냈다. 세배는 정월 초하루 아침에 했다. 세배를 하고 성묘를 갔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놀았다. 여자들은 정월 초하루에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했다.



사진 11. 팔금면 이목리 정향심(여, 81세)과 남기순(여, 77세)>

<보름>

보름에는 강통돌리기도 하고, 쥐불놀이도 했다. 강강술래도 했다. 강강술래를 뛰엄뼌다고도 했다. 강강술래를 남녀노소 다 모여서 했다. 남자들이라도 강강술래를 했다. 큰애기들, 각시들, 애기아

빠들, 총각들 모두 모여서 강강술래를 했다. 강강술래에는 지와밧기, 청어영기, 고사리꺾기, 닭잡기 등이 있었다. 닭잡기는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제일 뒤에 선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놀이다.

진대끄시기를 했다. 보름날 날이 따뜻해지면 충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이 작물을 뜯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 보름날 아침에 보름밥을 해놓고, 산에서 솔가지를 꺾어와서 산애기밥을 준다고 지붕에 솔가지를 던진다. 땅에다는 도라지 그런 것 죽으라고 원새끼를 파서 고추와 머릿카락, 숯을 끼어서 피마주대에 달아서 앞에서는 '진대 곳자' 라고 하면서 새끼줄을 끌고 다니고, 뒤에서는 나뭇가지를 들고 새끼줄을 때리면서 '비암 꼬랑지 뚜들자' 라고 하면서 집을 한 바퀴 빙 돌았다. 한 바퀴 돌고 나서 집 밖에다 버린다. 이 때 대부분의 가정에서 진대 곳기를 하기 때문에 보름날 아침 길가에는 피마주대와 새끼줄이 많이 널부러져 있었다.

보름차례 상은 선영을 모셔놓았던 마루에다 차려냈다. 정월 14일 저녁 11시경에 차려놓는다. 밥은 오탁밥을 했다. 오탁밥에는 쌀, 수수, 팥, 좁쌀, 차좁쌀, 검은콩 등 여러 가지 잡곡을 넣어서 만들었다. 그리고 헌석을 했다. 헌석은 오탁밥과 나물을 대바구니에 올려놓고 마당 앞에다 놓는 것이다. 헌석은 조상님들을 따라온 잡귀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차려놓은 헌석밥은 동네 아이들이 몰래 훔쳐 먹었다. 헌석밥은 아이들한테 좋다고해서 아이들이 견으러 다닌다.

나) 2월

〈하례달〉

음력 정월 그믐날에 차례를 지낸다. 2월 초하루의 하례달을 선달 그믐날에 차례지내는 것이다. 2월 초하루를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하례달을 지내는 것이다. 하례달의 차례도 보름차례와 같지만, 오탁밥을 올리지 않는 것이 다르다. 성주상과 조상상을 차린다.

2월 초하루에 영등 내린다고 해서 차례를 지내는 것 같다. 영등에는 물영등, 바람영등, 불영등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은 2월 초하루의 기상을 보고 파악하는 것으로서 비가 내리면 물영등이 왔다고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이 왔다고 한다. 날씨가 맑으면 불영등이 왔다고 한다. 영등은 2월 초하루부터 2월 20일까지 불고 올라가는데, 20일까지만 내려오면 너무 서운하다고 해서 21일까지 불고 올라간다고 한다. 올 해는 바람도 불고, 날도 꺾었다가 맑았기 때문에 물영등, 바람영등, 불영등이 섞여서 내렸다.

다) 3월

〈삼월 삼짇날〉

제비가 온다고만 하고, 특별한 의례는 없다. 강남 갔던 제비가 삼월 삼짇날에 온다고 했다.

라) 4월

〈4월 초파일〉

영덕사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 집에서 쌀과 기름 등을 가지고 갔다. 절에는 고기를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쌀, 기름, 나물 등을 준비해서 갔다. 불공을 독실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음식과 시루도 만들어서 갔다. 영덕사 사택에서 시루도 찌고, 메도 지어서 법당에 차려놓고 불공을 드렸다. 음식을 가져가서 사택에서 만들어서 올렸다. 남은 쌀 등의 음식은 사택에 놔두고 왔다. 연등은 영덕사에서 사서 걸었다. 연등은 가족 숫자만큼 사서, 연등 각각에 가족 이름을 써서 걸었다. 연등을 걸어놓고 그 초가 다 타도록 옆에서 기다렸다.

마) 5월

〈단오〉

단오에는 특별한 의례나 행사가 없다.

〈어버이날〉(5월 8일)

어버이날에 동네 청년들이 함께 지냈다. 젊어서는 없었는데, 중년이 된 후 동네 청년들이 한꺼번에 지내줬다.

바) 6월

〈유두〉

여름에 발등에 오줌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빠서 특별한 놀이는 없었다. 낮에 일하고 와서 저녁에 목욕재개를 하고 마루에 상을 차려냈다. 상차림은 하례달과 같다. 상차림은 가정 형편에 따라 많이 올리기도 하고, 적게 올리기도 한다.

보리개떡을 해 먹었다. 유두 때만이 아니라 품앗이 등의 일을 할 때도 해 먹었다. 일하는 사람들 새참을 위해 준비했다. 상에는 쌀로 떡을 해서 놓고, 개떡을 놓지는 않았다.

사) 7월

〈칠석〉

칠석은 건우 직녀가 만난 날이라고 한다. 특별한 의례나 행사는 없다.

〈백중〉

보리개떡을 해 먹었다. 차례를 지냈다. 밀을 멧들에 갈아서 부침개를 해서 상에 냈다. 쌀이 귀했기 때문에 밀을 조금 갈면 밀로 옷에 풀을 했다.

아) 8월

〈추석〉

여름내 농사지었다고, 농사 거름 다 지었다고 추석을 썼다. 강강술래를 하고 놀았다. 차례는 14일 저녁에 지내고, 15일 저녁에 강강술래를 했다. 14일은 음식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15일 저녁에 강강술래를 했다. 강강술래는 뛰엄뼉다고도 했는데,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강강술래를 했다.

자) 9월

〈중구절〉

특별한 의례는 없다.

차) 10월

〈시제〉

선산 있는 사람은 시제 지내는 것이 큰 일이었다. 산에 묘 앞에 가서 지냈다.

카) 11월

〈동지〉

팔죽을 쑤어 먹었다. 팔죽을 쑤 먹은것은 팔죽을 쑤서 사람이 먹기 전에 떠갖고 다니면서 방 벽과 집 담에 뿌렸다. 셋밖에 나가서 ‘잡귀야 썩 물러가라’ 하면서 뿌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하면 잡귀가 범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다. 동지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했다. 해마다 그 시간이 달라진다.

동지달 초 열흘 안에 든 것은 애기동지라고 한다. 애기동지 때는 팔죽을 하지 않고, 팥떡을 해서 먹었다. 보름날 동지가 들면 그 다음해 농사가 별로다. 보름 다음날 동지가 들면 농사가 괜찮다. 보름 다음에 동지가 들면 어른동지라고 해서 팔죽을 해 먹는다. 보름에 든 동지도 어른동지에 드는데, 후보름 선보름 중간에 들면 그 다음해 농사가 별로 좋지 않다.

전에 보름날 자시에 동지가 들어서 동지를 씌다고 팔죽을 해 먹었는데, 칠칠풍수를 만나버렸다. 섬에서는 방조제를 막아놓고 사는데, 5월 보름에 모내기를 해냈는데, 별라도 모가 이쁘고 좋았다. 그런데 그 해에 제방이 터져서 논이 전부 바닷물에 적셔버렸다. 7월 초하룻날 원독이 터져버렸다. 집 앞까지 갯물이 들어서 낚시질을 할 정도였다. 어른들이 칠칠풍수라고 했다. 그 원을 막으려고 흙과 돌을 지게로 저 날랐다. 제보자 정향심이 23살 정도 먹어서 그 일이 났다. 조금때 물이 덜 들때 원독을 막았다. 어느정도 원독이 막아졌을 때 장부(가래삼처럼 생긴 것에 줄을 매어놓은 것)로 흙을 떠서 막았다. 58년 전의 일이다.

② 팔금면 원산리 서근마을 세시풍속

-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 제보자 : 박종엽(여, 1936), 안봉엽(여, 73),
유경애(여, 28), 김종술(남, 68)

가) 1월

〈설〉

선달 그림에 조상이 모셔진 마래에서 차례를 지낸다.

보통 저녁 11시나 12시경에 지낸다. 선달 그림에 안 좋

은 일이 있으면 일년 내내 재수가 없다고 해서, 빌린돈도 다 갚고, 근신하며 지낸다. 세배와 성묘는 정월 초하루에 한다. 설날에는 옷놀이나 화투를 치면서 논다.

〈보름〉

정월 열 나흘날 저녁에는 보름차례를 지낸다. 오곡밥을 해서 마래에 차려놓고, 마당에 헌석을 한다. 차례 음식은 일반 제사 때와 같은데, 다만, 메를 오곡밥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이때 마당에 헌석을 해 놓는데, 헌석은 바구니에 오곡밥과 국, 떡, 나물 등을 조금씩 떼어 놓는 것이다. 헌석을 해 놓으면 동네 어린아이들이 '헌석 견으러 다닌다'고 하여 헌석밥을 견어서 먹는다. 동네 아이들은 헌석밥을 견어서 먹고, 쥐불놀이와 불강통 돌리기 등의 놀이를 한다.

정월 열 나흘날 저녁에 잠을 자면 이가 생긴다고 해서 잠을 자지 않았다. 보름날에는 좀 먹는다고 해서 발가락 사이에 물집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버선을 신지 않았다. 보름날 아침에는 더위팔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대화중에 먼저 "내더우"를 하면 더위를 파는 것이다. 만약, 이름을 불렀을 때



사진 12. 팔금면 원산리 서근마을
박종엽(여, 1936생)

대답하지 않고, 반대로 “내더우”를 먼저 하면 반대로 더위를 팔게 된다.

보름날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진대꽃자’라는 놀이를 한다. 이 놀이는 두 명의 아이가 짝이 되어 하는 것으로, 피마주 나무에 원새끼를 묶고, 고추와 머리카락을 꽂아서 진대를 만든다. 진대가 만들어지면 한 아이는 앞에서 진대를 끌고, 뒤에 아이는 나뭇가지를 들고 새기줄을 때리면서 “두~ 두~”라고 하며 따른다. 진대꽃자놀이는 뱀이 못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집 주변을 돌면서 한다. 보통 아침 일찍 진대꽃자를 하고, 해가 뜨면 멀리 던져버린다.

나) 2월

〈2월 1일 하례달〉

2월 1일을 하례달이라고 하여 보름과 똑같이 마래에 상을 차리고, 헌석을 한다. 2월 1일을 하례달이라고 하지만, 실제 차례와 헌석은 정월 그믐에 지낸다. 여기서는 오탁밥 대신 쌀밥을 차려놓는다. 이때도 보름과 같이 아이들이 헌석밥을 걸으러 다닌다. 예전에는 상을 다 차렸다. 보름과 똑같이 한다. 그리고 하례달은 노는날이라고 생각해서 하루종일 놀았다고 한다.

〈영등〉

영등은 2월 1일에 와서 2월 20일에 올라간다고 한다. 2월 1일날 아침에 남쪽 마파람에 비가 오면 물영등이 온 것이고, 바람만 불면 바람영등, 날씨가 따뜻하면 불영등이 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기에는 물영등이 좋고, 불영등은 별로 안좋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2005년에는 물영등이 내렸다.

다) 3월

〈삼진날〉

삼월 삼진날에는 제비가 날아온다고 한다. 특별한 의례나 행사는 없다.

라) 4월

〈초파일〉

예전에는 초파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절에 갔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절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절에 갈 때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갔었다. 보통 쌀이나 나물 등을 가지고 가서 공양도 하고, 연등도 사서 걸었었다. 연등은 주로 가족들과 죽은 사람의 것을 각

각 사서 걸어놓는데, 꼭 정해져 있지는 않다.

마) 5월

〈단오〉

단오는 바쁜 시기라서 특별한 행사가 없었다.

바) 6월

〈유두〉

유두에는 차례를 지낸다. 일반적인 차례와 마찬가지로 유두 전날 마래에 제상을 차려놓고, 마당에는 헌석밥을 놓는다. 유두에는 보통 때와 달리 밀가루로 '문지 지진다'고 하여 밀가루전을 제상에 놓는다. 또한 낮에는 밀가루전을 해서 주위 사람들과 나눠먹는다.

사) 7월

〈칠석〉

칠석에는 큰 행사를 치르지 않지만, 유두와 마찬가지로 전날 저녁에 마래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또한 마당에 헌석밥을 놓는다.

〈백중〉

백중에는 차례를 지내고 헌석을 한다. 14일 저녁에 차례와 헌석을 하고, 15일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인근 가정집을 돌아다니면 마련한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15일 저녁이 되면 동네 처녀들과 젊은 각시들이 모여 강강술래를 했다.

아) 8월

〈추석〉

추석에는 외지에 나갔던 가족들이 전부 모인다. 14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헌석을 한다. 추석에는 강강술래를 가장 왕성하게 했다. 14일 저녁에는 동네 처녀들과 각시들이 강강술래를 하고 돌아와서 차례를 지낼 정도였다. 강강술래는 저녁에 하는데, 14일부터 16일까지 2~3일 동안 했다. 강강술래를 하면서 청어엮기, 고사리깍기, 덕석물기 등을 했다.

자) 9월

〈중구절〉

중구절이라는 명칭은 있으나 특별한 행사는 없다.

차) 10월

10월에는 보통 시제를 많이 지냈다. 시제에 모셔지는 조상은 고조부부터이다.

카) 11월

〈동지〉

동지가 월초에 들면 아기동지라고 해서 팔떡을 해먹고, 중반 이후에 들면 어른동지라고 해서 팔죽 쑤어 먹었다. 팔죽을 쓸 경우에는 잡귀가 범하지 못하도록 담벼락에 팔죽을 뿌리고 다녔다.

3. 민속신앙자원

1) 민속신앙자원 목록

(1) 당제 목록

번호	마을	이름	신격(제당)	제일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팔금면 이목리 이목마을	당제	팽나무(당산할머니 또는 당산할머니·당산할아버지)	1/14	2005. 04. 18~19	정향심(여, 81), 남기순(여, 77)	40~50여년 전 중단
2	팔금면 원산리 서근마을	당제	마을 뒤 우실에 있는 소나무		2005. 04. 18~19	이갑제(남, 75)	80~90여년 전 중단

(2) 기우제 목록

번호	마을	이름	제의형태	제장	제일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팔금면 이목리	기우제	불 지르기, 제사	제사당피산(금당산) 정상, 고산	여름	2005. 04. 18~19	강호빈(남, 78)	40년 전 중단
2	팔금면 읍리, 원산리	기우제	불 지르기, 제사	당피산(금당산) 정상	여름	2005. 04. 18~19	박중기(남, 89)	
3	팔금면 당고리, 고산리	기우제	불 지르기, 제사	고산 정상	여름	2005. 04. 18~19	김봉춘(남, 84)	

2) 민속신앙자원 현황

(1) 당제

① 팔금면 이목리 당제

-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 제보자 : 팔금면 이목리 정향심(여,81) 안좌면 방월리에서 19세에 시집옴.

팔금면 이목리 남기순(여, 77) 충청도 출생, 어려서 목포로 이사 옴.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팔금면 이목리는 북동쪽으로 당고리와 접해있고, 서쪽으로는 읍리와 접해있다. 마을 뒤로는 언덕처럼 얇은 산이 자리하고 있고, 마을 앞에는 비교적 넓은 평야가 조성되어 있다.

이목리의 당 신체는 마을 우실 끝에 위치한 팽나무다. 우실은 뒤쪽(북쪽)에서 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에 조성되어 있다. 현재는 우실이 관리되지 않아 그 형태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실이 당고리와의 접경지역에서부터 마을 중간까지 이어지는데, 당산나무는 당고리와의 접경지역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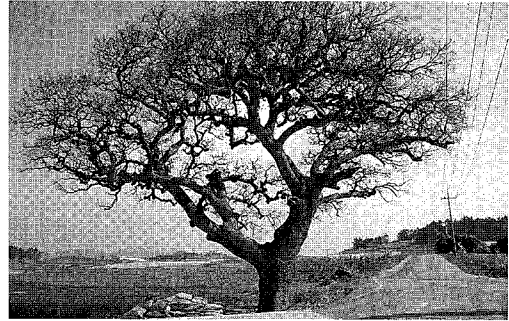


사진 13. 팔금면 이목리 당산나무

당제는 정월 14일 저녁에 당산나무에서 지냈다. 신격은 당산할아버지나 당산할머니, 또는 당산할아버지·당산할머니로 파악되는데, 당제가 오래 전에 중단되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다만, 20여 년 전에 마을의 불상사로 인해 중단되었던 당제를 다시 지낸 사례가 있다.

나) 당제의 준비와 진행

제관은 당주라고 하여 부부를 선정했다. 부부를 선정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깨끗하다고 판단되는 집을 선정한다. 남자는 제를 주관해야 하고, 여자는 제물을 장만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선정한 것이다. 제관이 선정되면 당제 3일 전에 당산나무와 당주집, 당샘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는다. 금줄이 쳐지면 부정한 사람은 그 주위에 가지 못했다.

제물은 마을 청년들이 목포에 나가서 사오는데, 흥정을 하지 않고 주는대로 사온다. 제물은 돼지 머리와 시루떡, 나물, 과일, 술 등이었다.

당제 모시는 샘은 마을 뒷산에 있다. 그 샘의 물은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았다. 당제를 지낼 때만 당주가 청소를 해서 물을 떠다 음식을 했다.

당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마을 공동자금이다.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당제를 지내면서 금고를 치고, 당제를 마치고 나서는 집집마다 마당밧이를 했다. 마당밧이를 할 때는 마을 공동우물에서 우물긋도 치고, 집안 선영이 모셔진 말래에서 말래긋도 치고, 부엌에서 부엌긋도 쳤다.

이목리의 당제는 40~50여 년 전에 중단되었다. 20여 년 전에 다시 지낸 적이 있는데, 단 한 해

만 지냈을 뿐 그 이후로는 지내지 않고 있다.

라) 영험담

중단되었던 당제를 20여년 전에 다시 지낸 적이 있다. 우실 밑에 밭을 가지고 있던 젊은 사람이 우실의 그늘 때문에 밭작물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실의 팽나무에 약을 쳐서 고사시켰다고 한다. 그 후로 마을 노인이 선몽을 했는데, 백발의 할아버지들이 자꾸 꿈속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선몽의 원인이 우실을 훼손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날을 잡아 당제를 지내게 되었다.

② 팔금면 원산리 당제

-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 제보자 : 팔금면 원산리 박종기(남, 89)

원산리의 당제는 80~90년 이전에 중단되었다. 당제는 마을 뒤편 우실재(우실) 한 가운데서 지냈다고 한다. 당제를 지낼 때는 막을 쳐놓고 목욕재개를 했다고 한다.

(2) 기우제

① 팔금면 이목리 기우제

-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 제보자 : 팔금면 이목리 강호빈(남, 78)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이목리의 기우제 형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산 정상에서 불을 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두 형태가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었는지, 각각 분리되어 있었는지, 또는 합쳐져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는 제보자를 만나지 못했다. 이목리에서 가장 연로한 측에 속하는 강호빈 옹 또한 두 형태를 혼동하고 있다. 따라서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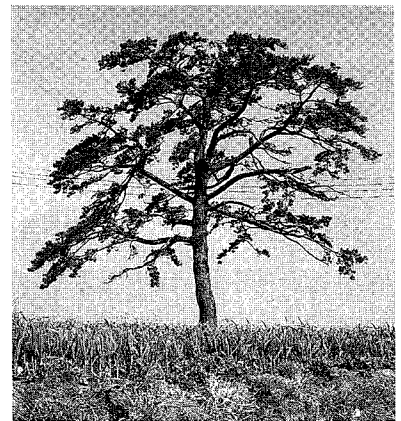


사진 14. 팔금면 원산리 당제 터

하지만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이목리에서는 여름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읍리에 있는 당피산(금당산)이나 고산리에 있는 고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는 한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마을이 공동으로 지냈다. 당피산은 읍리 동남쪽에 위치해있고, 높이는 1303m이다. 고산은 고산리 북쪽에 위치해 있고, 높이는 1416m이다.

구체적인 신격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는다.

나) 제의 준비 및 진행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우제 일시와 제관을 선정한다. 여러 마을이 함께 지내지만 제관은 한 마을 사람이 일임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관은 1명을 선정하고, 제물은 제관집에서 장만한다. 제일이 되면 외소리⁷⁾ 해서 마을 사람들이 각각 한 뭉치의 나무를 들고 나오게 한다. 기우제를 지낼 산으로 제관과 제물이 이동하고,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들고 산을 오른다. 제관과 몇몇 어르신들은 제장에 남고, 나무를 들고 산에 올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만 넘겨주고 바로 내려온다. 나무가 쌓이면 불을 지르고 제를 지낸다.

산에서 불을 질러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제를 지냈다고도 하는데, 제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제후 행사는 없고, 40~50년 전에 중단되었다.

② 팔금면 읍리와 원산리의 기우제

-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 제보자 : 팔금면 원산리 박종기(남, 89)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읍리 동남쪽에는 1303m 높이의 당피산(금당산)이 있다. 당피산에서는 여름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인근의 이목리와 원산리 등의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는 보통 음력 6월에 지냈고, 장소는 당피산 정상에 있는 제단에서 지냈다.

7) 외소리는 앰프가 없던 시절에 앰프 대신 사람이 외치던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읍리와 원산리를 비롯한 팔금면 전체 사람들이 당피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산리를 포함한 서쪽 마을 사람들은 큰산재(채일봉)에서 제를 지냈다. 큰산재는 원산리 본 마을과 장암, 서근 마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원산리에서 볼 때는 서쪽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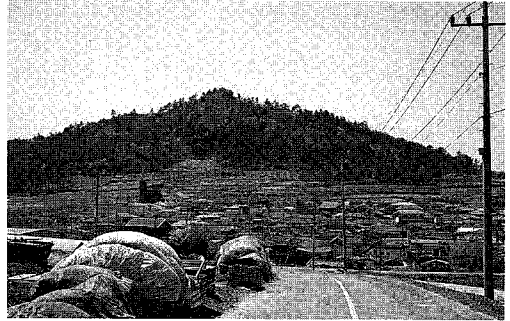


사진 15. 팔금면 읍리와 인근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던 당피산

나) 제의 준비와 진행

기우제는 불을 피우는 것과 제를 지내는 것 두 형태가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제의를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불을 피우는 때에는 제를 지내지 않고, 제를 지내는 때에는 불을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먼저 제를 지낼 때는 제 지내기 며칠 전에 남자 제관 1명이 선정되어 당피산 제단에 막을 쳐놓고 기거했다. 제관은 제 지내는 날까지 밤마다 등불을 켜 놓았다. 이후 제일에 제를 지냈다.

다음으로 당피산에 모여 불을 피울 때는 팔금면 사람들 전체가 동참했다고 한다. 이날은 각 마을 사람들이 각각 나무를 들고와서 불을 피우기 때문에 불꽃이 매우 높게 치솟았다고 한다. 또 불을 피울 때 보면 안좌나 암태에서도 불을 피우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제후 행사는 없다. 기우제는 일제시대 때까지 지냈다고 한다.

라) 영험담

기우제를 지내고 나서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③ 팔금면 당고리와 고산리의 기우제

- 조사일시 : 2005년 4월 18~19일

- 제보자 : 팔금면 당고리 이장 김남현(남, 1958생)

팔금면 당고리 김봉춘(남, 84)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당고리와 고산리는 고산리에 있는 고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고산은 팔금도의 북동쪽 끝에 위치해있고, 고산리를 중심으로 보면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기우제는 고산의 정상에서 지냈는데, 정상부근은 평평하게 깎여있었다고 한다.

나) 제의 준비와 진행

기우제의 준비와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음력 5~6월 경에 지냈다고 한다. 제는 각 마을이 같은 날에 지냈다. 제일이 되면 당고리와 고산리 사람들은 고산에 나무를 들고 가서 불을 피우고, 제를 지낸다.

기우제는 보통 흐린날 지냈는데, 제관도 선정하고, 음식도 들고 올라가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마을 어른들이 고산 정상에서 기우제를 준비하면, 마을 사람들은 짚이나 나무를 들고 올라가서 나무를 쌓고 내려온다. 제사를 어떤식으로 지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은 해질 무렵에 피웠다고 한다. 불을 피우면 마을이 흰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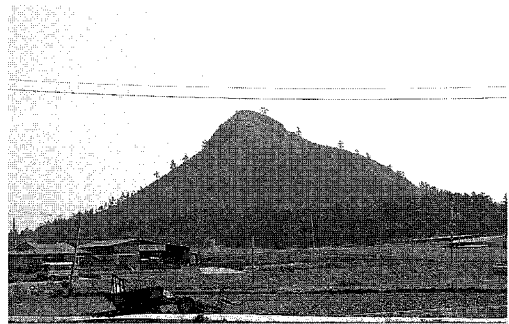


사진 16. 당고리와 고산리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던 고산리 고산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기우제 후에 진행되는 특별한 행사는 없다. 기우제는 1940년대까지 지냈다.

라) 영험담

보통 흐린날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이 높았고, 기우제를 지내면 꼭 며칠 내에 비가 왔다.

4. 구비전승자원

1) 구비전승자원 목록

(1) 설화 목록

번호	대분류명	중분류명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비고
1-1-1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호박산 전설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1-1-2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둔봉마을 유래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1-1-3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진고리 유래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1-1-4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장촌리 유래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1-1-5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대심리 유래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1-1-6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읍리 유래			2005. 5	『팔금』	
1-1-7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인고리 유래			2005. 5	『팔금』	
1-1-8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이복리 유래			2005. 5	『팔금』	
1-1-9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당고리 유래			2005. 5	『팔금』	
1-1-10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금당산에 얽힌 전설			2005. 5	『팔금』	
1-2-1	삶터이야기	풍수이야기	우실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2-1-1	내력·인물이야기	입도조이야기	입도조 이야기	이재남(남,78)	팔금 읍리	2005. 5		현지조사
2-1-2	내력·인물이야기	입도조이야기	세 입도조이야기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2-1-3	내력·인물이야기	입도조이야기	양성이씨 선산이야기	이재남(남, 78)	팔금 읍리	2005. 5		현지조사
2-2-1	내력·인물이야기	장수·이인이야기	안운보 장사가 만든 독살이야기	이재남(남,78)	팔금 읍리	2005. 5		현지조사
2-2-2	내력·인물이야기	장수·이인이야기	고산을 옮긴 장사이야기	여성빈(남,48)	팔금 오림	2005. 5		현지조사
2-2-3	내력·인물이야기	장수·이인이야기	둔봉마을 엄첨지 이야기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2-4-1	내력·인물이야기	범인 이야기	진고리 이씨 총각 부자된 이야기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3-3-1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산다이	김용우(남,68)	팔금 읍리	2005. 5		현지조사
3-3-2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술 좋아해서 이사한 이야기	김천길(남,73)	팔금 읍리	2005. 5		현지조사
3-3-3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객사한 사람 시신 안방에 안치 할 때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3-3-4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북쪽에 가지 말라고 했으나 가서 죽게 된 이야기	노귀환(여,83)	팔금 읍리	2005. 5		현지조사
4-1-1	초자연이야기	당·제의이야기	기우제	이재남(남,78)	팔금 읍리	2005. 5		현지조사
4-1-2	초자연이야기	당·제의이야기	닭목산기우제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4-3-1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도깨비	이재남(남,78)	팔금 읍리	2005. 5		현지조사
4-3-2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도깨비불이 났던 집이 망한 이야기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4-3-3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김천길(남,78)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4-3-4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도깨비 만난 사람 도깨비 퇴치법	여성빈(남,48)	팔금 오림	2005. 5		현지조사
4-3-5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도깨비 형제	김천길(남,73)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4-3-6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챤도깨비는 나타난 곳에 만 꼭 나타난다	여성빈(남,48)	팔금 둔봉	2005. 5		현지조사

(2) 민요 목록

번호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모찌는 소리		팔금 진고리		『팔금』
2	모심는 소리 1	고옥분 부인	팔금 대심 산두		『팔금』
3	모심는 소리 2		팔금 상동		『팔금』
4	모심는 소리 3				『팔금』
5	논매는 소리 1				『팔금』
6	논매는 소리 2				『팔금』
7	상여소리 1	정복천	팔금 대심 진고리		『팔금』
8	상여소리 2	정복천	팔금 대심 진고리		『팔금』
9	상여소리 3		팔금 대심 진고리		『팔금』
10	등당애당	정향심(여, 81)	팔금 이목리	2005. 4. 18~19	『팔금』

2) 구비전승자원 현황

(1) 설화

□ 설화 분류안(도서지역 설화)

상위분류	하위분류	항목
1. 숲터이야기	1-1. 지명이야기	섬별로
	1-2. 풍수이야기	''
	1-3. 기후이야기	''
	1-4. 바다이야기	''
2. 내력·인물이야기	2-1. 입도조이야기	''
	2-2. 장수·이인이야기	''
	2-3. 효녀·열녀이야기	''
	2-4. 범인이야기	''
3. 생활이야기	3-1. 어로이야기	''
	3-2. 생애이야기	''
	3-3. 경험이야기	''
	3-4. 풍속이야기	''
4. 초자연이야기	4-1. 당·제의이야기	''
	4-2. 귀신이야기	''
	4-3. 도깨비이야기	''
	4-4. 꿈이야기	''

1. 삶터이야기

1-1-1. 호박산 전설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김천길(남, 73세)	진고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천지개벽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다. 모든 섬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 자은의 말봉산은 쓸리는 말만하게 보이고, 암태의 되봉산은 되만하게 보이고, 팔금의 호박산은 호박만하게 보여서 각각 바다에서 보인만큼의 크기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자은면에 가면 말봉산이 있다. 암태에 가면 되봉산이 있고 팔금에는 호박산이 있다. 옛날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섬이 다 물에 잠겨버렸다. 그런데 자은에 산이 쓸을 되는 말만하게 보인다고 해서 말봉산이라고 했다. 암태의 되봉산이 뒷만한 크기로 보인다고 해서 되봉산이고, 호박산은 호박만하게 보인다고 해서 호박산이라고 했다. 섬들이 바다가운데 떠다니다가 보이는데로 이름이 지어졌다.

1-1-2. 둔봉마을 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김천길(남, 73세)	진고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진고리에는 둔봉이라는 마을이 있다. 양성이씨가 들어와 일가를 이루고 살았는데 마을 형국이 벌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둔봉마을 앞에는 꽃섬이 있다.

이 곳은 벌형국으로 둔봉마을이다. 벌형국을 닮았다고 해서 둔봉, 벌봉자를 써서 둔봉이다. 둔봉마을 앞에는 벌이 있으면 꽃이 있게 되는데 화섬이라고 하는 꽃섬이 있다.

암새미 숫새미라는 지명이 있었다. 큰 소나무 밑에 샘이 있는데 숫새미라고 했고, 저 아래 전봇대 아래 암새미라고 있었다.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물을 먹었다. 생긴 것이 움푹한 곳이 있어서 암새

미, 뽀쪽하게 생겨서 숫세미라고 한다.

1-1-3. 진고리 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김천길(남, 73세)	진고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진고리에는 자연마을 3개가 모인 법정리명이다. 진고리에는 세 가지의 날 짐승이 있다. 까마귀 오자를 쓰는 오림, 벌 형국인 둔봉, 비둘기 구자를 쓰는 친구지이다.

진고리에는 자연마을 3리가 있다. 진고리에 오림이라고 있다. 까마귀 오자 수풀림자 오림이다. 형국이 까마귀처럼 생겼다. 진고리에는 시 개 날 짐승이 있다고 한다. 둔봉리는 벌, 저 너페에 친구 지 비둘기 구자, 그래서 3리 자연마을이 모여 진고리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다.

1-1-4. 장촌리 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장촌리는 삭은 다리, 원마, 옛다리, 백기도가 합쳐진 법정리이다. 370년 전 전주최씨, 350년 전 전주강씨가 입도했다. 백기도는 옛날부터 팔금의 관문인 객선의 기항지로서 1989년 말경 팔금와 안좌간 연육교가 완성되었다.

장촌리는 장촌(삭은다리) 본마을과 원마, 고교(옛다리), 백기도 마을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마을인 장촌은 옛날에 마을 앞길까지 해구가 드나드는 개(포)가 있었다. 그 개를 건너는 다리가 썩었다 하여 지금도 삭은 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에서 읍리로 가는 길가에 팔바위라는 여덟 개의 바위가 있었는데 50여년 전만해도 해가 질무렵이나 비내리는 밤에는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난다고 하여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기를

무서워했다. 지금은 간선도로 확장으로 바위가 모두 없어져버렸다.

원마마을에 속한 안산골, 다릿머리 두 마을 중 다릿머리는 인가가 없어져버렸다. 370년 전 전주 최씨, 350년 전 진주강씨가 입도했다. 백기도는 옛날부터 팔금의 관문인 객선의 기항지로서 1989년 말경 팔금와 안좌간 연육교가 완성되었다.

1-1-5. 대심리 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대심리는 대심(깊은골) 본마을과 소심(작은물), 대산두(큰산두저너메, 재너머) 마을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마을인 대심에는 350년 전 이천서씨가 제일 먼저 입도한 곳으로 도리 뒤편에 서씨 세장산(世葬山)이 있다.

대심리는 대심(깊은골) 본마을과 소심(작은물), 대산두(큰산두저너메, 재너머) 마을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마을인 대심에는 350년 전 이천서씨가 제일 먼저 입도한 곳으로 도리 뒤편에 서씨 세장산(世葬山)이 있다. 소심마을 우물 위의 밭에 80여년 전 팔금학당이 있었다. 대산두 마을은 1980년 경 군 내에서 제일 먼저 취락구조 개선 마을로 선정되어 동네 길이 바둑판같이 뚫려진 곳이다. 왼쪽 골짜기 위 산밑에 절이 있었는데 빈대 때문에 절은 없어지고 우물터만 남아 있다. 이 마을에 속한 소드랑섬 수문 안에도 인가가 있었으나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

1-1-6. 읍리 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읍리는 팔금의 가장 안 쪽에 있다고 하여 골안이라고 불렀다. 읍리(골안) 본마을과 덕진, 소산두(작은산두)마을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마을인 읍리는 면 중심지로서 각 기관이 있는 곳이다.

읍리는 읍리(골안) 본마을과 덕진, 소산두(작은산두)마을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마을인 읍리는 면 중심지로서 각 기관이 있는 곳이다. 옛날에 진고 저수지 부근에 포구와 덕진 나루터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 기항하여 적진의 동정을 살피려고 닭메산(금당산)에 올라갔었다고 하며 마을에 사장이 있었다고도 전한다.

고적은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이 있고 마을 뒷산 석벽에 날개 돌힌 장사가 무릎을 꿇었다는 움푹 팬 흔적과 위편 평석에도 장사 오줌 방울이 떨어져 패였다는 곳이 있다.

북편에는 토성 방풍림 30여 그루 노송과 덕진 쪽 고목 팽나무가 있다. 소산두 마을은 옛날에 비해 부촌으로 변했다. 관내 띠섬은 옛날에도 인가가 있었는데 지금도 인가가 있다. 독석목(돌이 서 있는 목) 삼거리에 어떤 도사가 세웠다는 돌이 서있다. 소산두 마을에서 바라다보이는 닭메산 계곡 위산에 1970년경에 창건된 영덕사가 있는데 그 전에도 절이 있었다고 한다.

띠섬은 소산두에 속한 자연마을이다.

1-1-8. 이목리 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이목리는 배나무가 많다고 불려진 이름이다. 이목(배낭골) 본마을과 거문도(거문지리), 매도(매무리) 마을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마을 이목은 325년 전 진주강씨가 전주최씨를 데릴사위로 장촌리에서 살다가 두 아들 중 한 분이 분가하여 정착한 곳이 배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이목리는 이목(배낭골) 본마을과 거문도(거문지리), 매도(매무리) 마을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마을 이목은 325년 전 진주강씨가 전주최씨를 데릴사위로 장촌리에서 살다가 두 아들 중 한 분이 분가하여 정착한 곳이 배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거문도는 문필봉인 고산이 바로 보며 문필로 재주 있는 사람이 난다고 거문이라하고 매도는 매화나무가 옛날에 많이 있었다고 하나 동백나무도 있다. 임고 본마을은 당초 밀양박씨가 355년 전에 입도한 마을로 그후, 전주최씨가 335년 전 원마에서 분가해 정착하여 했으나 후손은 강씨만큼 번성하지는 못했다.

1-1-9. 당고리 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당고리는 당고(당고지, 당구지) 본마을과 고산(높은메), 거사도 마을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마을 당고 마을 뒤에는 350여년 전부터 길게 대밭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었고 신당이 있었다고 하여 당고(堂古)라 불렀다. 그런데 고산에 올라가서 마을 형세를 보니 당나귀 형상이어서 당고(唐古)라 고쳐 쓰게 되었다고 한다.

당고리는 당고(당고지, 당구지) 본마을과 고산(높은메), 거사도 마을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마을 당고 마을 뒤에는 350여년 전부터 길게 대밭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었고 신당이 있었다고 하여 당고(堂古)라 불렀다. 그런데 고산에 올라가서 마을 형세를 보니 당나귀 형상이어서 당고(唐古)라 고쳐 쓰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이 길어서 상리, 하리로 나눠 부르기도 한다.

예날 조세를 거두어 가는 목선이 당 주변 거목을 베어 싣고 가다가 당지기에 의해 배에 불이 나서 파선이 됐다. 파선된 곳인 거사도 뒤 해변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엽전과 불에 탄 쌀이 나왔다고 한다. 고산 마을에는 동복오씨가 먼저 입도했고, 그 후에 김해김씨가 해남군 일성산에서 입도했다고 한다. 1982년 1월 1일 행정리로 승격되었다. 해변가에 선착장이 있는데 연간 연도교가 완성되면 9개 면의 관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곳이기도 한다. 거사도는 이 마을에 속한 자연마을이다.

1-1-10. 닭메산(금당산)에 얽힌 전설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암태 박달산에 살던 두 장사가 팔금과 암태 사이의 깊은 바다를 메우고자 어디선가 큰 산덩이를 운반해 오던 길이었다. 산덩이를 양쪽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받쳐들고 팔금 중심부를 막 지나가던 참이었다. 그런데 툭 소리를 내면서 판소드랑섬 쪽 장사의 허리끈이 터지면서 흠바지가 흘러내렸다.

순간 산덩이를 들고 가던 손을 놓치면서 바지꼴말을 보이고 말았다. 한 아낙네가 “저 장사 X 좀 보소! 오메! 무지무지 크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장사 쪽을 쳐다보았다. 망신을 당한 장사는 성큼성큼 암태도 쪽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암태도·팔금도를 합쳐지지 못했다.

팔금 땅 중앙부에 또렷하게 자리잡은 하나의 봉우리로 된 닭메산(금당산). 이 산은 이상하게도 더 큰 산들이 서쪽에 있는데도 이 산은 팔금의 상징처럼 돼 있다. 이유는 닭메산이 명산이기 때문이다.

닭메산에 얽힌 전설이 있다. 땅이, 물이 생겨나던 창조의 과정에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 받아 백두대간이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다가 영취산에서 서남으로 꺾어져 호남 정맥이 되어 뻗어내려 중지부분에서 힘없이 흠뻑러 버린, 그러나 비교적 균형있게 나누어 놓은 나주군도의 경관은 실제로나 지도상으로도 아름답다. 현재의 행정구역 상으로는 신안군의 중심부에 놓인 면 단위치고는 약간 모자란 듯, 이쉬은 듯한 장삼각형의 섬, 그것이 팔금도이다. 암태 박달산에 살던 두 장사가 팔금과 암태 사이의 깊은 바다를 메우고자 어디선가 큰 산덩이를 운반해 오던 길이었다. 때가 여름철인지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덩이를 양쪽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받쳐들고 팔금 중심부를 막 지나가던 참이었다. 그런데 툭 소리를 내면서 탄소드랑섬 쪽 장사의 허리끈이 터지면서 흠뻑러져 흘러내렸다. 순간 산덩이를 들고 가던 손을 놓치면서 바지꼴말을 움켜쥐었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대산두 들녘에서 논일을 하고 있던 한 아낙네가 “저 장사 X 좀 보소! 오메! 무지무지 크네”하고 소리를 질렀다.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허리를 펴고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장사 쪽을 쳐다보았다.

망신을 당한 장사는 성큼성큼 암태도 쪽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암태도·팔금도를 합치려던 합쳐지지 못했다. 훗날 사람들은 이일을 못내 아쉬게 여겨 방정맞은 여인이 소리를 지르던 자리에서 뻘뻘 울려다 보이는 닭메산 자락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그녀를 저주했다. 그런데 그해 이상하게도 그해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치고, 도 얼마 후에는 돌림병이 나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그로부터 이 산을 명산이라 여겨, 가뭄이 든다거나 돌림병이 발생하거나 하면 산정에 산막을 치고 정성을 들이며 산제를 지내게 하였다.

이 전설은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 암태도 박달산 중턱에는 이 두 장사들이 살던 흔적이 남아 있다. 돌솥과 절구통, 그리고 바위에 소변을 보아 파인 자국 등이 지금도 역역하게 남아 있다.

1-2. 풍속이야기

1-2-1. 우실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김천길(남, 73세)	진교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읍리 골안 북쪽에는 우실이 조성되어 있다. 풍수지리상 북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조성하게 되었다. 또한 겨울에는 방풍의 효과도 된다.

옛날에는 골안 북쪽에 소나무가 아름답리 있었다. 일제식민치하에서 일본사람들이 소나무를 다 베어 간다고 마을 사람들이 미리 베어서 연자방아도 만들었다. 지금 있는 소나무는 다시 심은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소나무에 병이 생겨서 죽게 되었다.

우실은 북쪽으로 조성되어 있다. 우실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있다. 풍수지리학상으로 북쪽이 터져 있어서 수목을 조림하게 되었다. 또 겨울에는 북풍 방지도 하기 위해서 방풍용으로 하였다.

우실은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였다. 사람들이 여름이면 나와서 쉬고 한다.

2-1-1. 팔금 입도조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이재남(남, 78세)	읍리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팔금의 입도조는 3성씨라고 한다. 양성이씨, 이천서씨, 선산김씨가 비슷하게 들어왔다. 서로 높은 산에 올라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연기를 보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누가 먼저 들어 왔는지는 가리기 어렵다.

맨 처음 들어온 성씨는 3성씨다. 양성이씨, 이천서씨, 선산김씨가 비슷하게 들어왔다.

우리 양성 이씨 12대조가 입도조인데 하루는 높은 곳에 가서 바라보니까 별심에서 연기가 나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이천서씨가 있더라. 누가 먼저인지는 모른다. 12대조가 들어와서 바로 올라갔

는지 어쨌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름잡아서 한 400년 되었다. 임진왜란 후에 들어왔다고 봐야한다. 임진왜란 전에도 사람이 살기는 했으나 다 나가버리고 공도가 되어버렸다. 임진왜란 평정 후 3성씨가 들어오게 되었다.

2-1-2. 세 입도조 이야기. 양성이씨, 이천서씨, 김해김씨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김천길(남, 73세)	진고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팔금에는 입도조가 세 성씨이다. 양성이씨는 둔봉에, 이천서씨는 대심에, 김해김씨는 원심리에 각각 들어와 있었다. 어느 날 각자 높은 산위에 올라 바라 봤더니 연기가 나서 찾아 갔는데 각자 들어와 살고 있었다.

양성이씨가 살았던 자리가 이 솔안너메이다. 이 곳에서는 둔봉리라고 한다. 벌 형국이라고 해서 둔봉리이다. 화도라고 하는 꽃섬이 있는데 이 꽃섬을 보고 벌형국인 둔봉마을이 생겼다고 한다.

양성이씨가 백 몇 십 호가 자자일촌을 이루고 있었다. 저 너메에도 화도가 있었다. 옛날에는 제방을 막기 전에는 요 아래까지 물이 들어왔다.

맨 처음 양성이씨 입도조가 들어와서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봤더니 대심쪽에서 연기가 났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이천서씨가 살고 있었다. 또 김해김씨의 경우는 원산리에 가면 서근리가 있다. 인가가 귀한 때라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둔봉리에서 연기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천서씨는 대심리에서, 양성이씨는 둔봉리에서, 김해김씨는 원산리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자리를 잡았는지는 모를 일이다.

2-1-3. 양성이씨 선산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양성이씨 선산이 다들 명당이고 했는데 한 지관의 말이 앞에 꽃섬에 벌이 날지 않아 허국이라 해 묘를 파게 되었다. 묘를 파는데 갑자기 수증기가 솟아나 다시 묘를 복원하였다.

팔금 둔봉마을 위에 양성이씨의 후손 선산이 있다. 다들 명당이라고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관이 와서 그 산을 보고 참 좋은 산이라면서 벌 형국이라고 하였다. 앞에 있는 섬 이름이 꽃섬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더 명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다 위를 벌들이 날지 않아 그 꽃섬에 못 간다는 말을 듣고는 허국이라며 묘를 파야 한다고 하였다.

그 까닭인즉 꽃이 있어도 벌이 가지 못사니 쓸모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묘를 후손들이 파자 엄청난 수증기가 솟아 나오므로 황급히 묘파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공사는 중단하고 그 자리에 묘를 복원했다고 한다.

그 후 이 꽃섬은 자연히 없어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섬 주위를 막아 염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염전 개발로 이제는 꽃섬이 연육되어 있다. 산너머 양성이씨 입도조 선산과는 무관하나 전설이다.

2-2. 장수 · 이인 이야기

2-2-1. 안운보 장사가 만든 독살 이야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지	비고
	엄수경 김현주	이재남(남, 78세)	읍리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옛날에 안운보라는 장사가 있었다. 안장사는 실제 인물로 후손은 없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에 살았던 인물로 안장사가 고기를 잡기위해 독살을 만든 것이 현재 남아 있다. 독살을 지금 사람이 가서 들어 불려고 하면 바위덩이처럼 무거워 아무도 들지 못한다.

옛날에 안장사가 있었다. 힘이 좋은 장사가 있었다. 장사 이름은 안운보였다. 이 영감이 비오는 날 나막신을 신도 콩 한 섬을 지고 저 선두로 나가는데 대부분 사람이 지게를 잘못 지면 바르게 지게 되는데 이 양반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기울리는 쪽에다 돌을 달았다. 다른 쪽이 기울면 다시 돌을 달고 했다. 나락짐을 지고 오면 섬이 하나 굴러오는 것 같았다. 실지 살았던 사람이나 후손이 없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에 살았다.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하지만 잘 모른다. 이곳에서는 운보

영감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다. 탄 매실이라고 그 곳에 가면 돌을 가지고 독살을 썬아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도저히 들 수가 없다. 탄매실리라고 부른다. 작은 섬인데 물들면 못 들어가고 물이 쓰면 들어간다.

2-2-2. 고산을 옮긴 장사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여성빈(남, 49세)	진고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고산이 지금은 팔금에 있으나 원래는 안좌에 있었다. 장사가 고산이 악산이라는 말을 듣고 안좌 고산을 암태로 옮기려고 지게로 지고 안좌에서 팔금 바다를 한 발로 건넜다. 도중에 오즘이 마려워 지게를 진채 무릎을 꿇고 오즘을 샀는데 무릎 꿇은 자국과, 지게 작대기 자국, 오즘 싯 자국이 바위에 그대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안좌 금산에가 고산이 있었다. 장사가 고산이 악산이라는 말을 들었다. 악산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여 고산을 지게에 지고 암태에다 풀려고 했다. 장사는 얼마나 힘이 좋고 크던지 안좌에서 팔금으로 바다를 건너는데 한 발로 건너버렸다. 한참을 오다가 힘드니까 바위에 지게를 대고 오즘을 샀다. 장사가 무릎을 꿇고 오즘을 샀다. 무릎 꿇은 자리, 작대기 자리, 오즘자국이 남아 있다.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에 오즘 자국이 남게되었다. 그리고 고산이라고 한 곳에 산을 나뉘버렸다. 그래서 지금의 고산이 되었다. 15년 전만 해도 오즘 자국과 작대기 짚었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고산이 그래서 악산 뜯산이다. 떠 온 산이다.

집에서 고산 봉우리가 보이면 안 좋다고 한다. 산꼬락이 잘 보여야 좋다. 50% 이상이 보여야 한다.

2-2-3. 둔봉마을 엄침지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김천길(남, 73세)	진고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둔봉에는 천석군 엄침지가 살았다. 엄침지는 암태에서 살다가 부부가 단신으로 둔봉으로 왔는데 둔봉에서 역시 큰 부자였다. 엄침지네 막내딸이 자기집의 손포(머슴)과 눈이 맞았는데 손포는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가 몇 년 뒤 돌아와서 엄침지 딸과 결혼을 했다.

연애법이 없던 시절 연애이야기여. 철호아버지하고 막동이 딸하고 연애를 했는데 난리가 났다.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철호아버지가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 박동이라는 분이다. 여자 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엄씨였다. 그때 당시 여자들 이름은 잘 모른다. 철호아버지가 몇 년 뒤 다시 돌아와서 그 여자 분하고 결혼을 했다.

여자 엄씨네는 부자였다. 동네에서는 엄침지라고 불렀다. 옛날에는 천석군 만석군을 침지라고 불렀다. 남자(철호아버지)가 그 집 손포였다. 손포는 일하는 사람 즉 머슴을 이르는 말이다. 철호아버지는 손포였는데 주인집 막동이 딸과 눈이 맞았었다. 여자 집은 암태에서 살다가 둔봉리로 들어왔었다. 암태에서 이사를 와서 살았는데 천석군이였다. 엄양빈이라는 사람이였다. 암태에서도 부자였는데 두 사람이 단신으로 몸만 빠져나와 둔봉 이 곳 마을 숲 속에 집을 짓고 살았다. 단신으로 암태에서 오긴했으나 부자 끝이라 뭔가 있어 둔봉에서도 침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자였다. 둔봉 이 마을 앞뜰이 모두 엄침지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다.

2-4. 범인 이야기

2-4-1. 진고리의 이씨 총각이 부자가 된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팔꿈은 섬이지만 바다를 생업터전으로 살기 보다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형제가 있었으나 동생은 농사일을 하기보다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살았다. 형님은 그런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바다에서 돌아 올 때마다 동생에게 고생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욕을 했다. 후에 동생이 형님의 뜻을 알고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었다.

옛날 진고리에 이씨 성을 가진 몹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들고 노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그 총각은 최후의 수단으로 원산 동네 박씨 집안의 과부를 붓쌈해 살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옛날에는 어디서나 가끔 있는 일이었다. 특히 얼굴이 예쁘거나 청상과부면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붓쌈을 해오긴 했으나 먹고 살기는 막막했다.

그해 가을 이씨는 육지로 벼추수 일의 품을 팔러 나가게 되었다. 혼자 남게 된 부인에게 담배 세 발을 얻어 주면서 “이것을 밀천으로 삼아서 연명을 하시오” 라고 부탁하고 나갔다.

당시 진고리는 양성 이씨의 일촌이었는데 서로 동정을 해서 다른 집에서는 담배를 사지 않고 그 집에서 사주었다. 늦가을이 되어서 육지로 품 팔러 나갔던 이씨가 집에 돌아와 보니 담배 세 발이 세 동치로 불어나 있었다. 이씨가 벌어들인 돈과 합쳐 자린고비처럼 절약하며 부지런히 일한 결과 작은 부자라고 일컫는 동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씨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부였다. 어느 날 동생이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와서 “형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는데, “요 빌어먹을 놈, 너 다녀왔냐?” 라고 하는 것이었다.

동생은 기분이 나빠져 어느날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고 들어서면서

“형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자 형은 역시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요 빌어먹을 놈, 잘 다녀왔느냐?”

“그런데, 형님은 왜 이 동생을 없신여기시는 겁니까? 엄한 파도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왔는데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은 한 마디도 없이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하고 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 이제야 내말을 네 뺨속에 새겼구나. 이놈아, 생각해 봐라. 농사짓는 자손이 되어 똥, 오줌을 바다에다 버리고 다녀 이놈아! 너 같은 놈이 안 빌어먹고 어떤 놈이 빌어먹을 것이야? 너도 오늘부터 똥오줌 아까운 줄 알고 농사를 짓도록 해라”

그 후 동생은 형님 말대로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제법 부자로 살게 되었다고 한다.

3. 생활이야기

3-3. 경험이야기

3-3-1. 산다이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김용우(남, 63세)	읍리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산다이는 노래방이 없던 시절의 놀이문화이다. 대체로 명절에 산다이판이 이루어지지만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날 밤에 꼭 산다이판을 열게 된다. 군대 송별회 산다이는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크게 한다.

술 마시면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는 것을 말한다. 술이라도 한잔해야 한다. 산다이는 주로 노래방이 없었을 때 30년 전에 가장 유행했다. 놀면서 불렀던 노래는 소양강처녀, 군세어라 금순아, 목포에 눈물, 전우가, 진짜사나이도 불렀다. 가정집에서 주로 논다. 대부분 술판이 어울려져야 한다. 친구들과 군대 갈 때 가장 심하게 했다. 한 3일 정도는 놀게 된다.

월남 지원을 했는데 몸이 불편해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어차피 군대 생활하는 것 돈이나 별자는 생각하게 된 것이다. 명호부대는 먼저였고 백마부대는 67년도였다. 백마부대 때 지원을 했다.

3-3-2. 술 좋아해서 이사한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임수경 김현주	김천길(남, 73세)	진고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위낙 술을 좋아한 사람이 읍리 골안에 살다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되겠다 싶어 팔금에서 제일 골짜기라고 하는 둔봉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골안에서는 가게가 가까워 잔 술로 마시게 되었으나 둔봉에서는 독가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용돈을 마련하려고 돼지와 닭을 길렀지만 단 한 번도 마을 잔등을 넘지 못했다.

군대생활을 한 십이년허고 읍리에서 살았는디. 내가 술을 위낙 좋아했제. 그래서 결혼도 하고 먹고 살아야 하길래 이사를 했제. 여그 둔봉이 골짜기라 술도 덜 묵고 헐거시라고. 점빵이 먼께 술 사 묵기가 힘들거라고 이사를 했제. 술을 그만 묵을라고 했는디 그란디 여기는 술이 더 많드라고. 여그는 독가지 술로 있드라고. 읍리에서는 점방에 가서 한두잔 받아묵고 마는디 여그는 점방이 먼께 여기는 독소주를 한 통씩 가져다가 금방 없어져 부러. 한말 가웃인디 금방없어져부러.

돼지를 키워서 가용돈을 쓸려고 허는디 여그 잔등을 못넘어 갔당께. 한 번도 못 풀아 묵고 잡아

묵어 부렸제. 서너시 앉어서 돼지고 닭이고 다 잡아 묵어부러.

3-3-3. 객사한 사람 시신 안방에 안치 할 때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임수경 김현주	김천길(남, 73세)	진고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사람이 밖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안방으로 모시지 않고 마당에 모시게 된다. 집밖에서 집안으로 들어 올 때도 담을 헐고 들어오게 되고 만약 방안에 안치를 하고자 할 때도 방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벽을 헐고 들어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해가 된다고 한다.

사람이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한다. 객사를 하든 집안으로 들어 올 때 담을 헐고 들어간다. 방으로 모실 수가 없고 마당에다 빈소를 만든다. 객사한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 갈 수가 없다. 안방에 정이 모시고자 할 때는 다시 안방 벽도 헐고 들어간다.

마을에서 기석이네 형수라는 분이 객사를 했는데 자식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고 방으로 모시게 되었다. 시신을 방으로 모시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벽을 헐고 들어갔다. 바로 들어가게 되면 후손이 안 좋다고 벽을 헐고 들어간다.

시신을 안치할 때는 부엌문을 뜯어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해둔다. 부엌문이 나무로 되어 있고 길이도 적당하기 때문이다. 부엌문은 버리지 않고 다시 달아서 사용한다.

3-3-4. 북쪽에 가지 말라고 했으나 가서 죽게 된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임수경 김현주	노귀환(여, 83세)	읍리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점을 봤는데 그해 북쪽을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초상이 나서 상여를 매리 갔다 왔는데 그 곳이 북쪽이었다. 다녀와서 3일만에 아프지도 안했는데 죽게 되었다.

점쟁이가 북쪽을 가지 말라고 했는디 북쪽을 다녀와서 3일만에 그대로 가버렸다. 그래서 남편이 43살에 가고 지금까지 혼자 자식 키우고 살았다. 징을 맞아서 죽었다. 뱀이를 했는데도. 마흔시시 삼재라고 북쪽을 가지 말라고 했다. 내가 그날 기를 잡으러 갔다가 못가게 말기지를 못했다.

초상은 이 동네에서 났는디 문을 다가 띠섬이라고 여그서는 북쪽이제. 생에 땀으러 갔다가 그렇게 되부렀제. 징 맞으른, 양판에다 물 떠놓고 쪼박 덮어놓고 숯구락으로 때리면서 빈다. 마당 가운데 놓고 한다. 아픈 사람은 방 안에 있고 당골네 불러다가 한다. 다 하고 나서는 당골네가 칼을 상너머로 던져분다. 칼이 문밖으로 향하른 구신이 물러갔다고 생각하고 빼뚫어지거나 안쪽으로 칼머리가 되어버릴 때는 다시 주어오라고 해서 다시 던진다.

옛날에는 내전밥을 잘 쫘제. 몸이 안 좋거나 했을 때. 당골이 누가 따라 왔다고 가르쳐 주믄 한 그릇을 주기도 하고 두 그릇을 주기도 한다. 내전 밥은 명절에도 주지만 잡안에 안 좋은 날이 있을 때도 주게된다.

4. 초자연이야기

4-1. 당·제의이야기

4-1-1. 기우제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김친길(남, 73세)	진고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게 된다. 팔금에서는 세 곳에서 동시에 지내게 되는데 닭메산, 고산, 호박산에서 동시에 봉화불처럼 불을 놓는다.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 곡물대나 짚, 소나무를 해다 산 정상에 쌓아두고 내려오면 제관들이 불을 놓게 된다. 기우제를 지내고 제관들은 종종 소나기를 맞고 내려온다.

호박산 닭메산에서도 지낸다. 닭메산에서 지내는 것을 봤다. 나무를 집집마다 산봉우리로 올린다. 기우제를 지낼 때 닭메산에다 막을 치고 안골샘이 있는디 밭에가 있는디 금줄을 치고 목욕계게 허고 올라가 며칠 동안 공을 드린다. 밥도 허고. 그 물을 이용했다. 제물은 무엇이 올라가는지 모른다. 나무만 올려놓고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다.

높은 봉우리는 다 일제히 불을 피운다. 봉화불처럼 일제히 피운다. 고산, 호박산, 닭메산.

밤에 올라가서 지냈다. 제주가 따로 있어서 지냈다. 제관들만 불을 피웠다. 사람들은 곡물대, 짚 등 나무만 가져다주고 내려온다. 풍물은 치지 않는다.

4-1-2. 닭목산 기우제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이재남(남, 78세)	읍리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50여년전까지만 해도 가뭄이 들면 닭목산 금당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를 지낼 때는 각 가정에서 나무를 가지고 닭목산 정상에다 쌓아놓는다. 기우제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제관만 참석해서 지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목만 올려주고 내려오게 된다.

닭목산 밑에 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버렸다.

비가 안 올 때는 기우제를 지낸다. 비가 50여년전에 닭목산 꼭대기에 짚, 나무, 소나무가지를 가지고 가서 불을 놓는다. 기우제를 지낼 때 쓰던 시암이 있었다. 지금의 절 영덕사 뒤에 있다. 기우제를 지낼 때는 금줄을 쳐둔다. 지금은 메워져 있으나 기우제를 지내려면 구 곳을 판다. 그러면 물이 차는데 메 지을 만큼의 물이 차서 그물로 썼다.

불을 치르면 이상하게 소나기가 와서 그 소나기를 맞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다. 일차세계대전 때 비 29가 일본을 폭격했다. 폭격이 있는 다음 날은 반드시 까만 비가 내렸다.

4-3. 도깨비이야기

4-3-1. 도깨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이재남(남, 78세)	읍리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도깨비불을 만나 씨름을 하고 허리띠를 풀어 묶어 놓고 와서 다음날 가보니까 빗자루 몽갱이었다. 도깨비불은 파랗다고 한다. 도깨비를 만나서 씨름을 한다가 허리띠를 풀어서 퐁퐁 묶어 두었다. 다음날 가서 보니까 빗자루 몽갱이가 있었다. 사람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이 대부분 도깨비가 된다.

4-3-2. 도깨비불이 났던 집이 망한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김천길(남, 73세)	진고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도깨비불은 빨강계 불빛은 있으나 광채가 나지 않는다. 도깨비불이 나타난 집안은 대부분 망하게 되는데 둔봉에서도 도깨비불이 나타났던 집에 딸이 죽었다.

옛날에는 도깨비불을 많이 봤다. 도깨비불은 빨강계 보이나 광채는 없다. 불은 여러 가지이나 암수가 있다. 설달그믐에 읍리 높은 뒷산인 닭목산에 올라가 동네 불 썬 것을 보는데 등불이 가만이 있느냐 요동을 하느냐하는 것을 보러 다녔다. 각자 집에 썬 놓은 불을 불이 모두 같은 불인데 유난히 까불고 혼드는 불이 있다. 바람도 그 바람이고 그래서 도깨비불이라고 한다. 설달그믐께라 보리가 포릇포릇한디 불이 획 지나가는디 다 보이더라고. 도깨비불을 봤는데 아주 낮게 지나가기 때문에 파릇파릇한 보리가 다 보였다. 그 불이 이만수 집으로 갔다. 불이 여러 개 되었다가 하나로 합쳐졌다가 했다. 용머리를 넘었다가 어쨌다가 했다.

그 도깨비불을 보면서 점을 친다. 저 것이 흥할 징조냐 망할 징조냐를 점치는데 나중에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 집에 열아홉인가 열여덟인가 딸이 있었는데 죽고 말았다. 그 집이 신가구로 큰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작은 집하고 바꿔 살았다. 나중에 폐허가 되고 말았다. 도깨비불은 흥하냐 망하냐 하는디 나중에 본께 망하드라고.

도깨비불은 저기압이나 날씨가 흐리거나 안 좋을 때 잘 나타난다.

4-3-3. 도깨비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김천길(남, 73세)	진고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도깨비는 음식을 빼앗아가기는 하지만 먹지는 않는다. 집에 돌아와 빈석작만 있을 때 다음날 오던 길을 가보면 음식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게 된다.

낮에도 음식을 가지고 다니면 도깨비가 다 빼내 가버리고 빈 석작만 있게 된다. 왔던 길로 가보면 음식이 조르르 떨어져 있다.

팔바우께라고 있는디 병구가 들어 사람이 쓰러져 죽고 했ندی. 읍리사람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오는다. 하나만 주라고 한다. 하나만 주라고 해서 아 저리 가라고 하고 왔ندی 집에 와서 본께 빈바구리만 있었다. 그 다음날로 가본께 그 질에가 조르르 고기가 떨어져 있었다. 도깨비는 음식을 빼앗아가기는 허나 먹지는 않는다.

4-3-4. 도깨비 만난 사람 도깨비 퇴치법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여성빈(남, 49세)	진고리 오림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도깨비가 든 사람은 도깨비를 쫓아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된다. 명기 아버지가 도깨비가 들어 당골을 불러 경을 읽어서 쫓아냈다.

밤에 돼지고기를 가지고 다니면 육물을 도깨비가 따라 다닌다. 명기에 아버지가 당포 마을 처갓집을 다녀오다가 낮에 도깨비를 만났다. 눈동자가 풀려버렸다. 그 때 우리집으로 왔ندی 도깨비를 쫓아내야 한다고 하든만. 장촌 당골을 불러 경을 일어서 도깨비를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 도깨비가 든사람은 속이 타는지 물을 많이 마시고 도깨비하고 귀신은 다르다. 도깨비도 눈에 보이기도 한다. 경을 읽으니까 도깨비가 나갔다.

낮도깨비를 만나면 대부분 오래 못산다고 한다.

4-3-5. 도깨비 형체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김천길(남, 73세)	진고리 둔봉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도깨비는 대체로 불빛으로 나타나지만 형체를 드러내기도 한다. 얼굴 형체가 사람처럼 생겼으나 입, 코, 눈이 희미하다.

종수네 큰 집. 비는 부실부실오는다. 밭에 갔다오는다 어덕 밑에서 불이 뽀닥뽀닥해서 본께 불이 점점 커졌다 작아졌다했다. 우리 아버지허고 자세히 보니까 눈, 코, 입이 형태만 있느라고. 아버지가 시내근처까지 와서 가만히 있다가 작대기로 팍 때렸는다. 먼 소리가 퍽 소리가 나드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집으로 와부렸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여름이면 베고 자든 목침이 풀숲에 있드라고.

4-3-6. 쉼도깨비는 나타난 곳에만 꼭 나타난다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현주	여성빈(남, 49세)	진고리 오림마을	2005. 5. 14~15	현지조사

◇ 개요

도깨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갈포리 도깨비가 제일 무섭고, 쉼도깨비는 꼭 나타나는 곳에서만 나타난다. 쉼도깨비가 나타나면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져버린다. 그 지역만 벗어나면 다시 밝아진다. 진고리에서 쉼도깨비는 오림 아랫돔에서 잘 나타난다.

칙간이 있는다 낮도깨비, 갈포리도깨비, 쉼도깨비도 있고 여러 도깨비가 있다. 쉼도깨비는 밤에 는 앞이 안보인다. 그 지역만 쉼 도깨비가 나온다. 쉼도깨비는 그 구역만 가면 꼭 나타난다. 그 지역을 벗어나야 보인다. 오림 아랫돔에서 잘 나타났다.

갈포리도깨비가 제일 무섭다고 했는디 보지는 못했다. 진숙이네 칙간허고 동규씨네 칙간 통시에

서 잘 나타난다. 낮도깨비를 만나면 3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한다.

(2) 민요

○ 모찌는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모찌는 소리			팔금 진교리	『팔금』	

에헤 에에헤러어허-디아
 금연같은-가뭇 모에 이 못판을 언제나 찌리
 오동추야 달은 밝은-데 님의 동산에 해는 지-네
 누구 풀개로 이 못판을 언제 다 아- 다 찢거나
 참밥은 나오는데 이 못판을 언제나 찢까
 에헤 에- 헤라 허-디아

○ 모심는 소리1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모심는 소리1			팔금 대심 산두	『팔금』	

모-못하것-네 모-못하나 것-네-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요-요놈의 수사를- 모-못-하것-네-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우-리로 보아서-마-맞지를 말-고-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일-일거리 보아서-마-말저나 주-소-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다-다 잘하-네- 다-다 잘하-요-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우-우리=군사가 다-다 잘하하-요-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상-사소리는- 어-어디를 갔다가-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이-들을 따라서- 도-돌아를 온-고-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아-앞산은 점-점- 멀-멀어-지-고-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뒷-잇-산은 점-점 가-까온다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우-울머니 꿈엔 풀만이나 넘-고-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여-여기도 숨고 저-저기도 숨-고-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이-입도 없이 시-심겨나 주소-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서-마지기 논배미- 반-달 만큼 남었네-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산천에 풀잎은 푸르러나 진-데-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우-우리 어메는- 느-늪어나지-네
 어-기야 여어루상-사-뒤요-

○ 모심는 소리2

곡 명	조사자	제보자	주 소	참고문헌	비 고
모심는 소리2		교육분 부인	팔금 상동	『팔금』	

상-사 소리는 어-어디를 갔-다
 해-해-철마당 도-돌아를 온-다
 무문산 밑에 새-새집 지어-
 한-번 가-면 그만이-로-다
 여-여그도 심기고- 저-저그도 심기고-
 연-방어 듯 심겨나 주-게-
 어-어뜨난- 사람은- 파-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노-높은 집-에-
 부-귀 영화도- 자-잘도나 산-다
 요-요내야 나는 어-어디를 갔-다
 놈-타는 속을 못-못참-것다
 간-난다 간-다 나-나는-간-다
 이-이팔청-춘-소-소년-들-아-
 배-백발을 보고서- 과-괄시를 말어라-
 어-어제-청춘- 오-오늘은 백-발-

○ 모심는 소리3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모심는 소리3				『팔금』	

여 여기도 심기고 저 저기도 심기고
 금년에도 풍년이고 내 년에도 풍년
 덕택으로 비가 와서 이 종을 하는구나
 서마지기 논 뺨이가 반달만큼 남았네
 앞산은 멀어지고 뒷-산은 가까우네
 어기야 여- 여 루상 사-디야

○ 논매는 소리1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논매는 소리1				『팔금』	

이 절래가 뉘절래-가
 박봉심네 절래로구나
 방방곡곡이 농사로-다
 절래절래절래로다
 아 허라 절래
 다 돼왔네 다 뵈왔네
 절래 뱀이가 다 돼왔네
 아 허라 절래

○ 논매는 소리2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논매는 소리2				『팔금』	

에 헤라 절래
 소리 크기가 맞기가 잘한다
 어덕 밑으로 돌아가세
 차근 차근 돌아가세
 이 뱀이를 메고 설랑
 반장 논으로 들어가세
 노인네 집으로 들어가세
 에 헤라 절래

○ 상여소리 1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상여소리1		정복천	팔금 대심 진고리	『팔금』	

여보아라 상두들아 이내 말을 들어보시오
 아-나 상두들아 내말을 들어라
 어-넘 어어허 넘어이가-리넘-차 어화넘-
 북망 산천이 멀-더더니-오날-보니-가까우네-
 어-넘 어어넘자 어이가리 넘자-너화넘-
 심침이는-간곳이 없어지고 물 소리만- 출렁한다-
 마지막으로-부락에다 하직하고-그 곳-산천으로 나는-가네-
 고국산천을- 마지막으로 하직하세 내갈-길이- 가까워요-
 하직을 할라거든 모두가 준비하고-모두가- 할 일을 하여보세-
 여보시오 부락 친구들 이내말을 들어보소 이내말을 자세히 들어요-
 나도- 옛그제- 청춘이 되었지만 오날-북망산천을 가고-만다-
 가고- 가도- 세월이 빠른 고로 모두가 할 일을 다 다하세-
 나는 가고-또 가고 간다 한들 뒤에- 친우들아 잘하고 온다-
 어-넘 어어넘자- 어이가리 넘자-너화넘-
 여보시오 상두네들 이내말을 들어보오 아-나 상두들아 내말을 들어라-
 해 안넘어서-가세 집앞으로 들어가세 하직하고서-떠날-라네-
 나는 오늘-간다고 하지마는- 모두가- 떠난 갈-이 섭섭-하고-
 북망한천이 멀-다고 하였더니- 오늘-보니-가까우네-

○ 상여소리2(집을 떠날 때나, 넓은 길을 갈 때 부르는 소리1)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상여소리2		정복천	팔금 대심 진고리	『팔금』	

아나 아-너어 어나리 넘-자 어화요
 인제 가면 언제와요- 올-날이나 이리주오
 높은봉 상상봉에-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오 두 백 되-거든- 오-실-라요
 구시월 시단풍에 낙엽만 떨어져도 님의 생각

어너 어-너여 어나리 넘자 어화요

○ 상여소리3(집을 떠날 때나, 넓은 길을 갈 때 부르는 소리2)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상여소리3		정복천	팔금 대심 진고리	『팔금』	

어너얼 어-널-얼가리 넘-자 어널

어너얼 어-널 얼가리 넘자 어널

어서 가자 어서 가자-님의 갈 길을 어서가자

어 널-어-너얼 얼가리 넘자 어널

불쌍하구려 하늘에 베고 어찌들 하다가 땅 속에 묻혀 이 탄 집을 지어진가

어널 어-너얼 얼가리 넘자 어널

○ 동당애당 <사진17 민요 구연 중인 이목리 정향심(여, 81세)>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동당애당		정향심(여, 81)	팔금면 이목리	2005. 4. 18~19	

오리도리 샷갓집이

논망테로 엮은집이

밤달같은 딸있으면

임달같은 사우삼소

딸이살아 있네만은

나가작어 못하졌네

어매어매 그말말게

참새는 작어도 알 뽕이 낱고

재비는 작어도 강남을 가네

당기 동덩에 동덩애당



사진 17. 민요 구연 중인 이목리 정향심(여, 81세)

동덩애당 동덩애당 당기 동덩애 동덩애당
 저 아래라 간 생애는 여생엔가 남생엔가
 저생갈님 가시걸랑 우리엄매 만나거든
 어린동생 보챌다고 백주병에 젖을담아
 한숨으로 머개막아 눈물로는 끈을달아
 전해주소 전해주소 안개구름에 전해만주소
 당기 동덩애 동덩애당

5. 무형문화자원의 활용 방향사진(안좌면, 팔금면)

1) "우실과 노두가 아름다운 섬" 안좌 · 팔금

안좌와 팔금을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홍보하고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다. 신안의 수많은 섬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한꺼번에 자원화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모든 섬을 개발할 필요도 없다.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전통을 특징으로 삼아 그것을 이미지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전통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가는 방향으로 자원화해야 한다. 안좌와 팔금의 경우 우실과 노두와 같은 특유의 생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토대로 지역을 이미지화 할 필요가 있다.



사진 18. 우실과 노두가 있는 섬 안좌·팔금

2) 자료은행 구축을 통한 자원화의 토대 마련

이번 지표조사의 기본 방향은 자원화를 위한 자료 수집과 정리이다. 문화자원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자원화되어야 한다. 오랜 동안 주민들이 일구어온 전통은 문화산업의 시대에 '문화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문화자원은 일회적 쓰임새 때문에 각광받아서 안 된다. 지역의 문화자원은 일회적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자료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료은행을 구축해야 한다.

신안군의 경우 지역적 특징이 두드러지므로, 문화자원을 통한 활용 경쟁력이 남다르다. 다도해라

는 별칭을 갖고 있는 신안은 민속의 고장이기도 하다. 푸른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섬의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각 섬을 찾아 답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신안의 문화적 전통은 소중한 자원임에 틀림없다.

신안의 문화적 전통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재창조하고, 새롭게 활용할 것인지가 과제다. 민속문화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새롭게 가꾸어가야 할 문화자원이다.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돌아봐야 하며, 그것을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되살려 내고 의미 있게 활용할 것인지, 문화상품과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

문화재만으로 전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거도 멸치잡이소리>, <장산도 들노래>처럼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흑산도 진리 당제, 흑산도 심리 해녀노래·등당애타령, 가거도 산다이, 대둔도 수리 풍어제, 도초도 고란리 당굿, 비금도 남사당놀이, 비금도 셋김굿, 장산도 셋김굿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신안 사람들의 삶과 역사, 사람살이의 정겨움과 흥겨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꾸려온 생활양식 자체가 민속이다. 신안에는 섬마다, 마을마다 축제가 있었다. 당제와 갯제, 강강술래, 산다이의 흥겨움은 신안 사람들이 가꾸어 온 신명난 축제였다. 또한 고기잡이의 흥취를 담은 뱃노래와 파시의 흥청거림은 해양민속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밤달애의 장례놀이는 사람사는 정겨움을 담고 있고, 마을을 둘러싼 우실은 모듬살이의 소중함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 엽전이 있고, 초분도 있다. 이들은 모두 신안다운 특성을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임에 틀림없다.

이들 민속은 주민들의 삶 자체로서 전승되어 왔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전승이 끊긴 경우라도 기억 속에 온전히 자리잡고 있으므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전통은 지역을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문화자원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당장 어떻게 써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소재 정도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관광자원과 문화상품의 소재로만 생각하다보면 지속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삶의 맥락과 현장의 맥락 속에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신안의 문화적 전통을 자료은행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문화 생산의 지속성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의미 있는 쓰임새를 다양하게 모색해 갈 수 있다.

민속 분야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해서 자료은행 구축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수행했다. 안좌와 팔금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지조사를 통해 새 자료

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많이 파악할 수 있었다. 안좌·팔금의 기우제, 우실, 노두, 민요 등은 새로 조사된 자료들이다.

민속 분야에서는 어로문화, 생활문화, 민속신앙, 세시풍속·민속연희, 설화, 민요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다. 어로문화에서는 갯벌 어업(독살, 덩장, 개맥이 등), 어선, 어구, 어민들의 생애사를 정리했다. 마을신앙 및 어로신앙에서는 공동체 신앙(당제, 기우제, 장승, 입석), 어로신앙(풍어제 및 갯제, 뱃고사)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우실, 노두와 같은 생활 문화자원을 의미 있게 주목하여 상세하게 조사했다. 설화 자료들은 도서적 환경 속에서 성립되어 전승되고 있는 설화 중심으로 수집했다. 그리고 민요는 노동요(어업노동요, 농업노동요), 유희요(강강술래, 산다이 등)을 조사했다. 이 자료들은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번에 수집된 자료들을 데이터 베이스로 제작해서 자료은행을 구축함으로써 자원화의 지속적 원천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연행예술 : 축제 및 관광자원 활용

안좌 팔금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연행예술은 축제 및 관광자원으로 주목할 만하다. 신안의 각 섬에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연행예술이 전승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강술래는 개성 있는 연행물로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안좌 강강술래는 에피소드별로 분절화되는 독특한 음악적 구성을 갖고 있으며, 부수놀이도 색다른 것들이 있다. 강강술래와 같은 연행예술은 축제 콘텐츠, 공연 콘텐츠로 활용 폭이 넓다. 또한 음성·동영상·악보 자료를 시디롬으로 정리해서 교육자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안좌 강강술래 : 무형문화재(향토문화재) 지정 추진

안좌의 강강술래는 지방자치 단체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현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지방지정 무형문화재를 지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군 지자체에서 향토문화재 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좌 강강술래는 그 예능성이나 전승현실의 기준으로 볼 때 국가지정이나 전라남도지정의 대상으로는 삼기 어렵다. 하지만 남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신안군 차원의 향토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보존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토문화재 차원에서 보존 및 계승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안군의 문화적 전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줄 자원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볼 때 향토문화재 자원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 섬마을 특유의 우실과 노두, 나룻배에 대한 주목

(1) 우실, 노두 : 무형문화재(민속자료) 지정 추진

우실과 노두, 나룻배 등은 기존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던 자료다. 하지만 섬 사람들의 모듬살이 모습과 개펄 생활을 잘 보여주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실은 도서지역 공동체생활의 특징을 보여주는 마을숲이며, 노두는 개펄을 끼고 살아온 섬 주민들의 생활문화자원이다. 도서지역 특유의 생활문화자원이므로 기존의 무형문화재 개념을 새롭게 확장하는 취지에서 민속자료로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우실

우실은 마을숲이다.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한 섬마을 특유의 마을숲이므로 개성적인 자원이다. 안좌와 팔금에는 우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우실은 섬마을의 모듬살이 모습을 잘 담고 있는 자원이므로,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좌면 대리, 대척리, 여흘리, 한운리 우실의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우실을 생태문화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3) 노두

우실과 함께 노두, 갯벌어로틀 더불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두는 물이 빠질 때 드러나는 개펄을 연결해주는 길이다. 노두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어로 활동을 위해 건너다니는 '길'이므로 매년 보수되고 관리되었다. 노두는 팔금면 거사리와 고산리 사이의 것이 잘 남아 있다. 섬마을 특유의 풍광을 담고 있고, 주민들에게 의미 있게 작용하던 민속 전승이므로 우리 시대 문화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4) 나룻배

나룻배는 섬 끼리를 연결하는 배다. 강에서 사용되던 배와 다른 섬 생활의 특징을 담고 있다.

우실, 노두, 나룻배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문화자원일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특유의 경관이며,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개펄 생태에 대한 학습과 개펄 어로와 연계된 체험프로그램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최근의 관광 형태는 체험과 학습이 강조되는데, 섬마을의 어로활동을 이와 관련지어 활용할 수

있다. 안좌면 복호리나 한운리, 팔금면 고산리 등에서 이루어졌던 어로를 주목하여 체험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운리의 경우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끼고 있어서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운리는 우실, 개맥이 어로 등이 있는 곳이므로 단순히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태 체험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물-바람-섬' : 생태적·문화적 의미 주목

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물과 바람이다. 물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섬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을 얻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장치를 개발해왔다. 우물, 관개시설, 기우제, 우실 등이 그것이다. 삶 속에 내재해 있는 토착지식과 유무형의 장치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섬-물-바람'은 신안의 생태적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문화 코드다.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지식으로 토착화되어 있고, 개성 있게 표출되어 왔으므로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코드로 해석할 수 있다.

안좌 팔금지역에서 섬마을 특유의 경관을 이루고 있는 자원들도 모두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우실은 바람과 관련된 마을숲이며, 노두와 나룻배는 생업의 터전인 갯벌과 이웃 섬들을 연결해주는 물길이다. 또한 샘과 기우제는 물을 얻기 위한 생활 공간이며, 종교적 장치이다. 섬 생활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생태문화적 코드가 '물-바람-섬'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일상적이어서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다른 지역과 의미 있게 차별되는 문화이므로 지역의 생태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하는 코드로 자원화해갈 필요성이 있다.

※ 안좌면 편에 통합 수록함.

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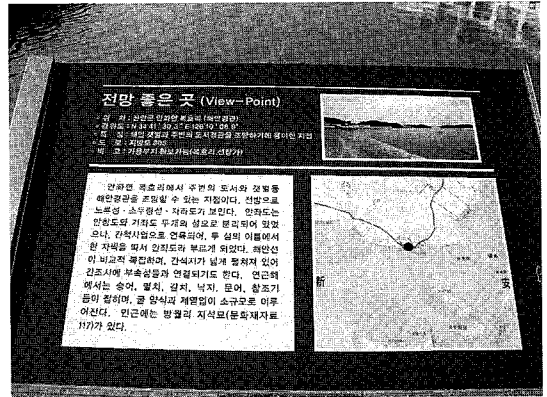
문화유적 자원화 방안

新安

1. 베일에 쌓인 웅장함 ‘안좌도’

1) 안좌도의 개요

안좌도는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약 21km 지점에 있다. 본래는 안창도와 기좌도 두 섬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간척사업으로 연결되어 두 섬의 이름에서 한 자씩을 따서 안좌도로 부르게 되었다. 주위에는 상사치도, 하사치도, 내호도, 외호도, 반월도, 박지도, 부소도, 자라도, 요력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북쪽에 있는 팔금도와는 안좌·팔금 연교로 이어져 있고, 부소도, 내호도와는 방조제로 연결되어 있다. 최고점은 섬의 북서쪽 끝에 솟아 있는 봉산(182m)이고 남쪽에는 큰산(151m), 후동산(151m) 등이 있다. 해안선은 굴곡이 비교적 복잡하며, 간척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간조시에는 부속 섬들과 육지로 연결되기도 한다. 주민의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쌀, 보리 이외에 고구마, 콩, 마늘, 참깨 등이 많이 생산된다. 연근해에서서는 송어, 멸치, 갈치, 낙지, 문어, 참조기 등이 잡히며, 굴 양식과 제염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문화유적으로는 서양화가 김환기 생가, 방월리 지석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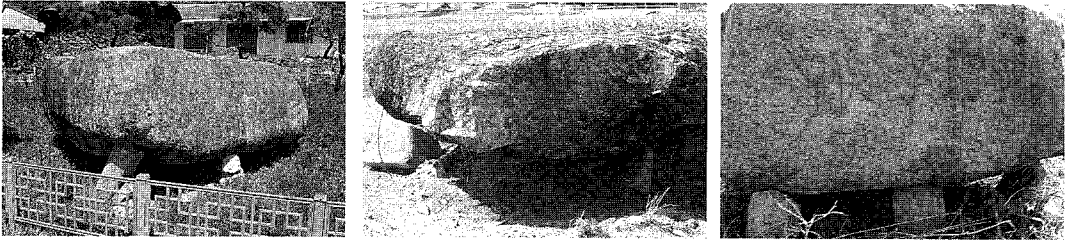
안좌도의 특징은 도서지역의 원색적이면서 직설적인 성문화가 민속화 또는 토속화되어 지명에 반영되거나 각종 조형물들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안좌도, 팔금도, 암태도, 자은도는 연교로 연결되어 단일 생활권이 되었다.

2) 안좌도의 관광자원 현황

(1) 방월리 지석묘

- 지석묘는 고인돌이라고도 부르며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다. 큰 덮개돌을 작은 고인돌이 받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방월리 지석묘의 형식은 바둑판형의 남방식으로 원래 7기가 있어 “칠성바위”라 불렀다고 전하는데 현재는 4기가 남아 있다. 무덤 안에서는 주로 돌

칼·민무늬 토기·돌화살촉 등이 출토된다. 안좌면에는 6개 곳에 55기가 남아 있다. 안좌도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안좌도에서 가장 오래전에 형성된 마을이 방월리이며, 마을의 돌담길과 가옥 등을 재정비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수화 김환기 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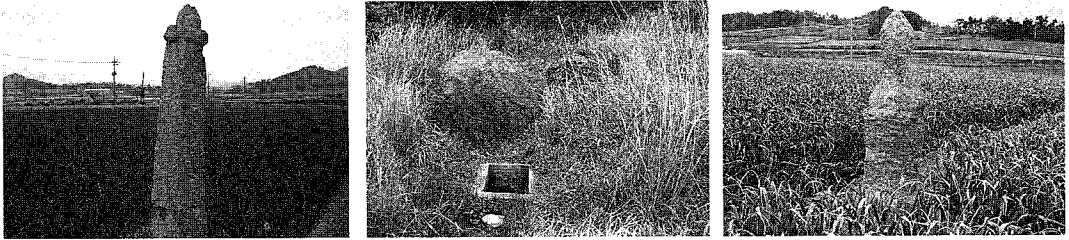
- 수화 김환기(1913~1974)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1910년 백두산에서 잘라 나무를 이곳까지 운반하여 건축한 북방식 “ㄱ”자형으로 만든 기와집이다. 선생은 1934년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며, 추상미술운동에 참여하였다. 1936년 일본에서 귀국하여 3~4년 동안 이곳 고향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수로 재직하였다. 이 때 신사실패를 조직하여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선생은 동양의 직관과 서양의 논리를 결합한 한국적 특성과 현대성을 겸비한 그림을 구상과 추상을 통해서 실현시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양화가이다. 현재는 생가를 원형대로 복원하여 관광객들이 둘러보는 명소가 되었다.



(3) 대리 양바위와 음셈

- 대체적으로 남근석은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안좌면 대리 남근석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시대는 알 수 없으나 전해오는 설에 의하면 옛날 중국을 왕래하며 교역하던 선박의 등대 역할을 위해 촛불바위를 만들었다는 설과 마을 뒷산에 음바위가 있는데 동네 아낙

들이 이 음바위를 보면 바람이 자주나 온 동네가 시끄럽게 되자 동네 어른들이 음바위를 쪼개어 두 개의 남근석을 만들어 동네 앞쪽에 세웠다는 설이 있다. 음샘은 산두리의 산자락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유래를 알 수 없으나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다. 안좌도의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성문화 표현 방식은 지명과 조형물 등에서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지고 있다.



(4) 요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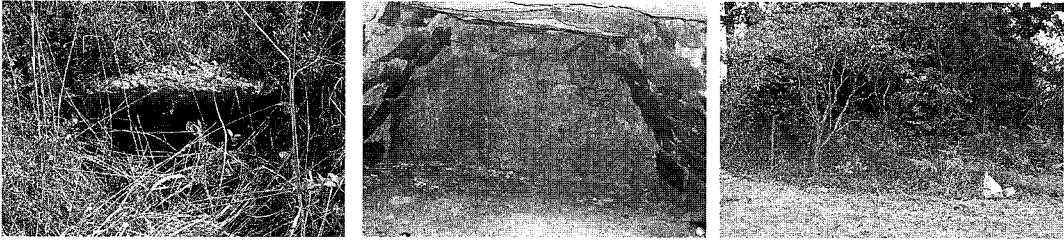
- 산두리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만조시에는 배를 이용해 닿을 수 있는 섬이며, 간조시에는 물길이 열려 걸어서 갈 수 있는 섬이다. 산두리 주민들은 하계에 야유회를 할 정도로 물이 맑고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안좌도에 해수욕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일하게 모래 해변을 지니고 있는 점을 부각하여 해안 휴양지로의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5) 석실고분과 배널리의 돌무덤(고분)

- 고분은 삼국시대 이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았던 지배층의 무덤을 말한다. 이 무덤은 주로 부여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무덤방과 길을 갖춘 괴임식 돌방무덤으로 맞조임식 돌방무덤에서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긴 후인 6세기중엽~7세기 초에 주로 지배층이 사용했던 무덤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돌방무덤이 조사된 사례가 많지 않아서 백제의 무덤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배널리의 고분은 조사되어진 바 없으나 역사적으로 안좌도의 해상무역상, 국토방위 목적상 지정학적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고대 뱃길 재현을 통한 크루즈 관광 상품이 출시된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 기항지로 개발하여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마을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6) 내호 고니 도래지

- 철새도래지는 최근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생태체험형 관광지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철새의 먹이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면 생태체험 관광지로서 환경 교육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철새도래지인 점을 감안하여 조망대를 설치하고 다양한 철새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3) 관광자원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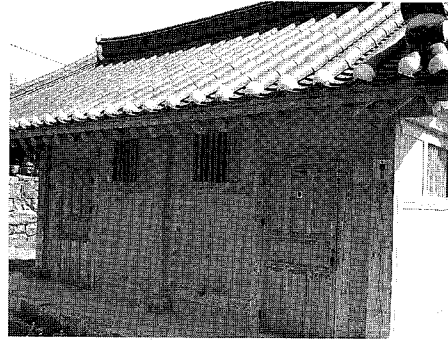
- 산두리에 위치한 요력도는 평소에는 안좌도와 떨어진 섬이지만 썰물때 접근할 수 있으며 안좌도의 유일한 모래사장으로 형성된 간이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다.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산두리 주민들은 하계에 야유회를 즐기는 등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

다. 해수욕과 함께 조개잡이 등 갯벌을 이용한 생태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객들의 유입이 전망되는 곳이다. 접근로는 섬 특유의 노두를 복원하여 접근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기획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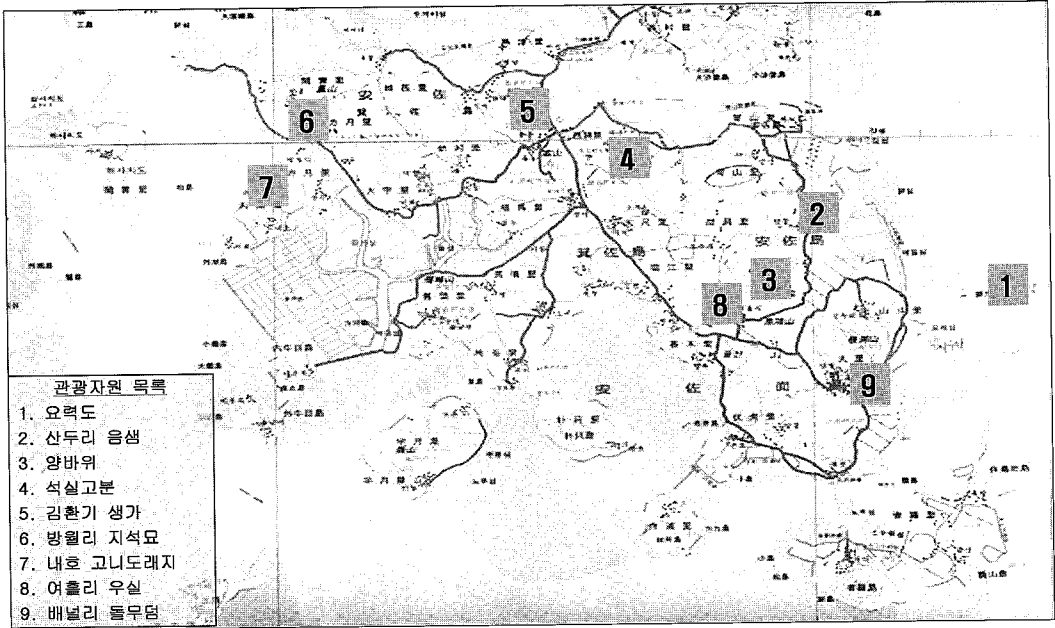
- 양바위와 음샘에는 섬 특유의 향토적인 性신앙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신비로운 요소를 가미하여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무의미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형편이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그 기원을 설명하고 현실과 허구를 가미한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배널리 돌무덤과 석실고분은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는 안좌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안좌도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고인돌을 복원 또는 보수하여 고인돌공원을 건립하고 배널리 돌무덤과 석실고분 등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높은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전남의 인근지역을 표적시장으로 하여 수학여행단 또는 소품을 유치한다면 적지 않은 관광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면적인 개발과 관광 상품을 발굴하여 기획한다면 전국적으로 수학여행단의 유치도 예상할 수 있다.

- 김환기 생가는 미술학도들이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체험관광을 실시하고 다른 자원들과도 연계하여 관광수익을 증대한다. 현재는 원형 상태로의 복원이 끝난 상황이나,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시설의 정비가 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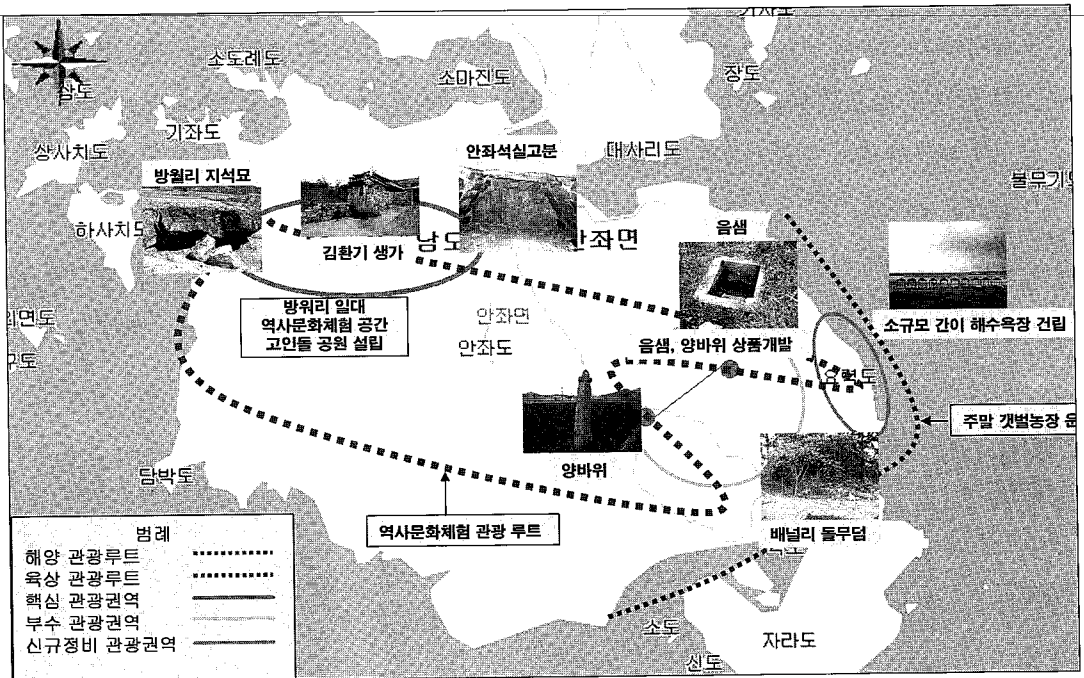


- 안좌도는 갯벌이 많고 낙지가 유명하다. 이에 산두리와 대리, 복호와 준포 등 갯벌에서 낙지를 채취하고 향목리 갯벌에서 조개채취, 우목리와 두리 갯벌에서 감태, 남부 개벌에서 갯지렁이, 박지도와 반월도의 굴 채취, 자라도의 염전체험 등 해양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과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개발의 예로서는 주말농장과 비슷한 의미의 “주말갯벌농장”을 운영하여 외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다이아몬드 제도권 개발로 인하여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전반적인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상품의 개발과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 관광자원 목록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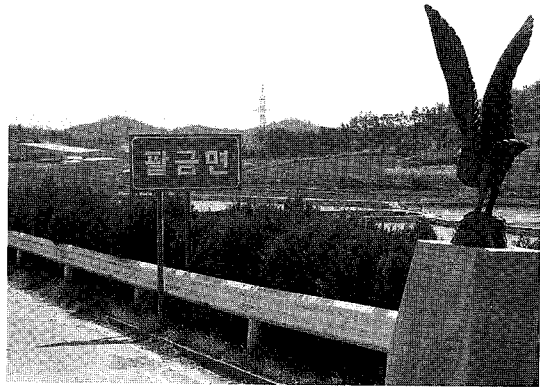
■ 관광자원화 지도



2. 노두와 우실이 아름다운 섬 '팔금도'

1) 팔금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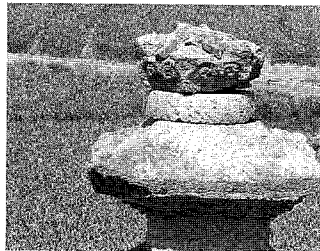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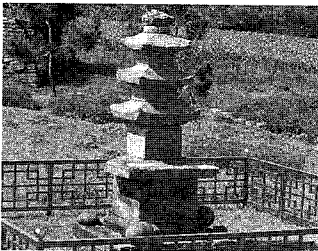
목포에서 24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섬으로 동으로는 바다 건너 압해도와 서쪽으로는 비금도와 남쪽으로는 안좌도 그리고 북쪽으로는 암태도와 이웃하고 있다. 안좌도와는 연도교가 개설되어 있으며, 암태도와는 현재 연도교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주변경관이 뛰어나며 인근해역에 낚시터가 형성되어 있다. 7개의 법정리와 9개의 행정리에 33개의 반과 자연부락이 있다. 주민들의 주 소득원은 벼, 보리, 마늘, 양파, 김 등이다.



2) 팔금도의 관광자원 현황

(1) 팔금 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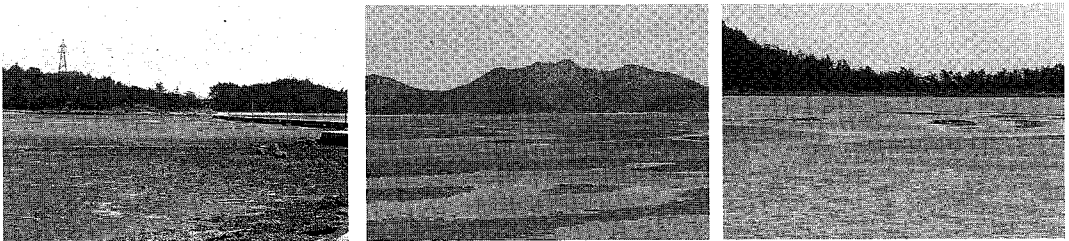
- 읍리에 소재한 이 탑은 고려시대의 일반형 석탑으로 밝혀져 1978년 9월 22일자로 지방유형문화재 제 71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2.3m에 사각 모형의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 사지의 석탑군마저 발굴해 내지 못했으나 단층기단임에 틀림없다. 탑신은 옥개석이 하나씩 있고 모서리가 뚜렷하며 밑쪽과 같이 기둥형의 각이 있는데, 1층의 받침은 2단이고 2, 3층의 그것은 3단식 구조이나 옥개석 받침은 4단이다. 이 탑의 기법이나 조각 솜씨는 조금 둔탁한 편이며, 그나마 맨 꼭대기 부분인 상층부마저 유실되어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주군 현곡면의 월성



나원리와 양북면 장항리의 5층석탑, 낭산 황복사의 구황동 3층석탑이 이 탑과 닮은 건축 양식이라고 한다. 3층 석탑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효자각과 열녀비에 대한 정비사업도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2) 거문도-매도간 갯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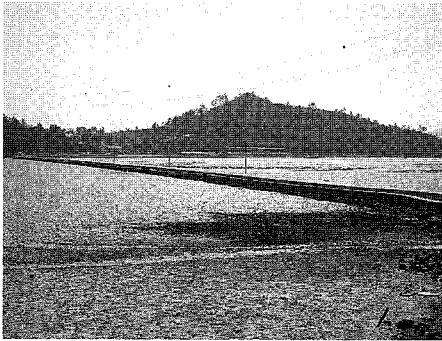
- 팔금도 북동쪽에 위치한 거문도, 매도 갯벌체험형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용이하다. 특히 노두가 잘 정비되어 있고 광활한 면적에 갯벌이 펼쳐져 있으며,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다.



(3) 노두와 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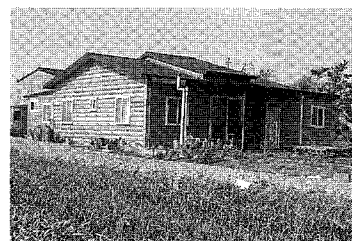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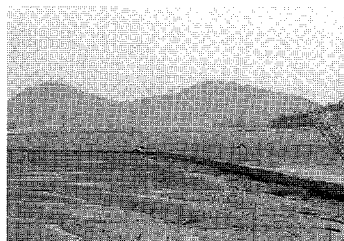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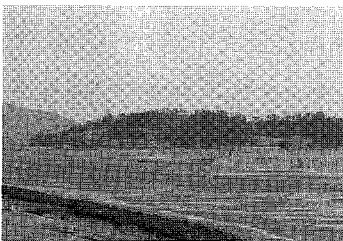
- 섬 지역 특유의 공동체 생활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실이다. 농작물 보호나 조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장치 역할로 마련되었던 우실과 방풍림으로 조성되었던 것도 있으나 용기종기 모여 사는 섬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대표하는 것이 우실이다. 일반적으로 돌로 축조되거나 또는 나무를 심어 오랜기간 동안에 정비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문화적 가치가 높다 하겠다.
- 노두는 수심이 얕은 신안군의 갯벌에 정비되어진 바다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밀물과 썰물로 인하여 유실되면 또 다시 크고 작은 돌, 조개 껍질과 갯벌의 흙을 긁어모아 제방을 쌓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노두의 형태이다. 현대에 와서는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아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규모로 정비되어진 곳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이와 같은 노두와 우실은 특히 신안군의 섬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데,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다 하겠다. 도서 특유의 생활민속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전통어구를 활용한 어로활동을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면 관광객 유인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실의 경우, 주변에 재배되어지는 작물에 따라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게 되며, 보리밭이나 양파, 마

늘 밭 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연중 4계절 내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두와 우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도시의 관광객들에게는 생소하고 색다르게 느껴져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므로 이를 관광자원으로 기획하고 상품으로 개발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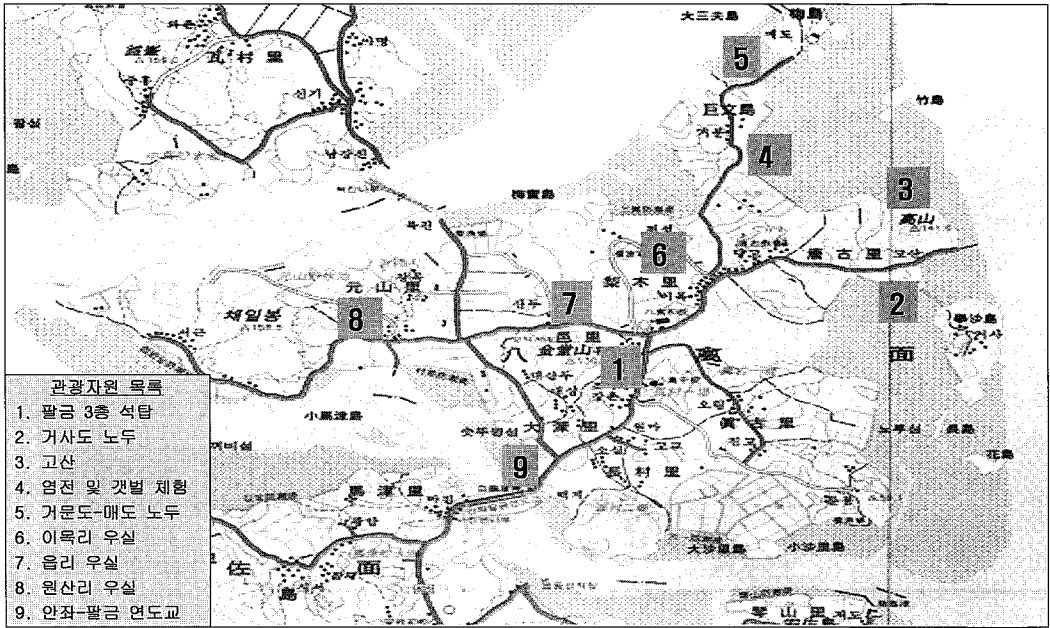


3) 팔금도 자원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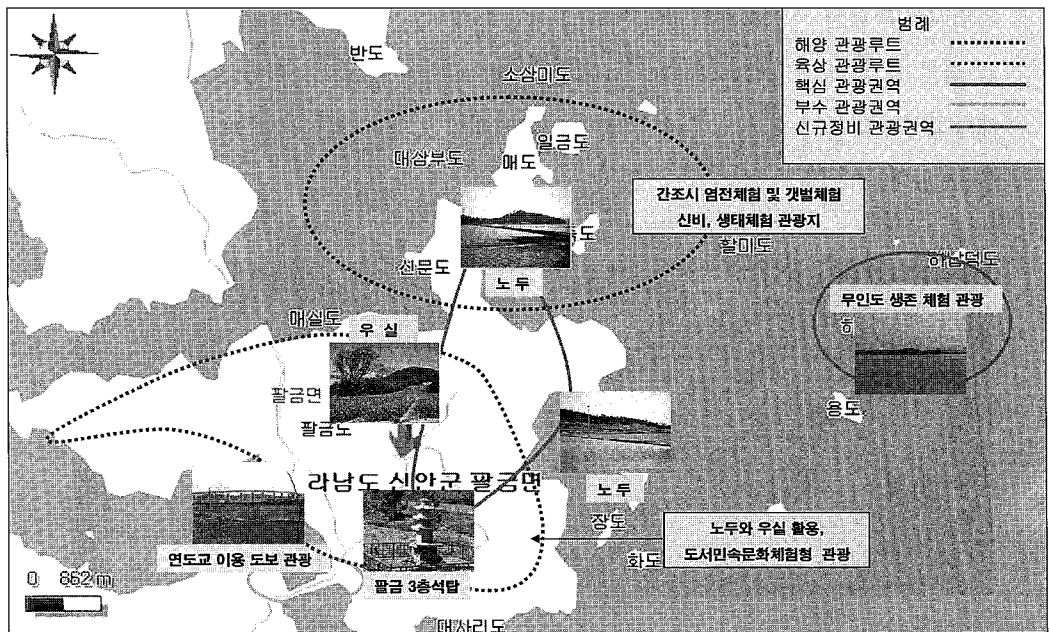
- 팔금도는 이렇다 할 문화자원이나 매력적인 관광요소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팔금도의 부속 도서를 이용하여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팔금도와 안좌도 간 연도교 공사 완공으로 도보 이동이 가능하므로 팔금도와 안좌도 연도교 도보 관광, 팔금도와 거문도, 거문도와 매도 노두체험 관광, 거문도와 매도의 간조시 갯벌체험, 거문도 염전체험으로 생태 체험관광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노두와 우실 등은 팔금도가 지닌 잠재적 관광자원으로서 상품 개발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자원 목록 지도



■ 관광자원화 지도



3. 관광자원화 방안 종합 대책

1) 연계자원화 기본방향

(1) 종합 역사·문화 전시장 개발

- 연구대상 4개 도서지역은 모두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문화유산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서지역 역사 문화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를 복원·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되, 이들을 서로 연계하여 관광 루트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2) 해양레저 스포츠 단지로 개발

- 해수욕장과 수면이 고른 일부 지형은 해양레포츠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수산어업과 관련한 어촌관광지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2) 상세 개발 구상

(1) 생태공원 조성

- 안좌도와 팔금도의 거문도와 매도 부근의 갯벌을 활용한 갯벌, 염전 생태공원 조성
 - 갯벌 주변의 염생식물인 칠면초를 식생하여 매월마다 칠면초와 생육과정을 관찰토록 유도
 - 어린이 놀이시설(보트 놀이장, 미끄럼틀 등)과 생태체험장(갯벌, 염전체험장) 생태관 조성
 - 갯벌 체험장에서는 갯벌 자전거타기, 갯벌 발리볼, 갯벌 스키타기 등 다양한 레저 활동 제시
 - 갯벌과 칠면초를 활용하여 염생식물 체험프로그램 개발

(2) 가족 휴양촌 조성

- 해안휴양시설을 이용 관광 휴양촌으로서 장기체류와 단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숙박시설과 음식 특화촌 조성

(3) 해상 크루즈 운항

- 기암괴석과 함께 항로상에 산재한 섬들을 활용한 볼거리 위주의 해안 크루즈 운항 : 해상로를 개발하고 각종 시나리오를 가미하여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함

(4)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전복양식과 조리체험, 고기잡이 및 생선 말리기, 조리법 체험, 안좌 낙지 잡기 체험, 팔금도의 바지락 굴 체험, 미역, 파래, 김 등 각종 해조류의 Well-being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에 채취하여 집에 가져가기

(5) 지역 특산물 체험 직판 전시장 설치

- 안좌-팔금 연도교 지역에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한다. 동시에 섬 지역 특유의 생활문화를 직접 볼 수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정비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선착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음식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승선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거리에 조성된 음식점에서는 저렴한 양질의 해산물을 맛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6) 폐교 활용 수련원 조성

- 폐교 리모델링 사업은 해당지역 어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되,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전개한다.

(7) 무인도 생존 체험장 조성

-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무인도에 무인도 체험프로그램 도입 : 유람선을 타고 유입된 관광객을 무인도로 이동시켜 생존에 필수적인 용품만을 지급하고 “무인도 생존전략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도한다. 가족단위 상품, 연인단위 상품, 친구단위 상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무인도 체험기간 동안 체험기를 작성토록 하여 그 중 기발한 아이디어와 환경 보호 등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발하고 시상토록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
- 방문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안군 기타도서 지역 방문 상품권을 패키지 제공한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적인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토록 하며, 인터넷상에 “신안 무인도 체험 프로그램 사이트”를 구축하여 홍보효과를 증가시킨다.

3) 대상 도서지역의 문제점과 개발방안

(1) 문제점

• 역사 문화적 자원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족으로 보존과 개발이 미흡,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복원에 따른 대형자본 소요 예상

• 인구노령화로 인한 관광 수용태세 미비와 전반적인 활기 부족(관광종사원의 서비스 정신 결여, 관광조사원 교육미비, 안내 표지판 및 관광 안내소 부족)

• 관광자원의 가치 발굴, 상품기획 및 포장능력 전반적 부족

•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홍보 부족과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관광객 유입 미흡

• 도서간의 연계형 관광자원 및 4계절형 전천후 관광지 개발 부족으로 인한 장기체류 유도 미흡

• 해양 레저 스포츠의 대중화 부족으로 인한 관광수요 저조

• 계절적 수요 편중으로 인한 대규모 시설 자본 투자에 대한 경제성 저하,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여행계획의 차질 빈번하게 야기

• 접근성 미비로 인한 관광의 고비용(연륙·연도교 건설로 다소 해결 전망)

(2) 개발 방안

- 역사문화 체험형 관광지 조성
- 도서음식문화거리 및 Drama Set장 조성
- 해양레저스포츠 단지 조성
- 생태, 신비 체험형 관광지 조성
- 연도교를 이용한 인근 도서 연계 해양 관광지 조성
- 폐교를 이용한 청소년 수련원 등 이용방안 모색
- 전통부락 환경미화와 민속자료 복원으로 체험학습형 관광지 조성
- 우실과 노두를 활용한 도서민속문화 체험형 공원 조성
- 도서 性文化 야외 박물관 공간 조성
- 생태체험지(주말갯벌농장) 조성

(3) 안좌도와 팔금도의 관광개발 기본방향

1. 고란 8경, 장승, 초분을 주제로 하는 도서민속문화 체험형 관광지

2. 화도의 상가복원사업으로 도서음식문화거리, Drama Set장 조성

3. 시목해수욕장 전망대 설치 및 해양레저스포츠 단지 조성

4. 돈목해수욕장의 풍성사구를 활용한 생태, 신비 체험형 관광지

5. 진리의 사당복원 및 조선시대 축조 방파제를 활용한 역사관광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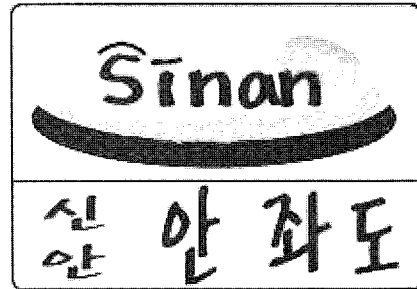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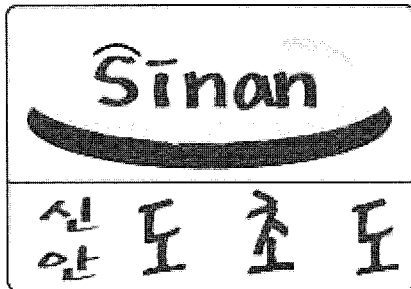
6. 연도교를 활용한 비금도 연계 대규모 해양 관광지 조성

하누넵, 원평, 명사십리

(4) 대상도서 지역의 이름 알기리

- 신안군의 브랜드로는 도서지역을 모두 나타내기 힘들다. 전면적으로 엠블렘을 바꾸는 작업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이에 신안군의 마크 밑에 각 도서들의 이름을 적어 도서에 관련된 물품이나 페리에 부착 관광객들이 도서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예시 1) 각 도서별 엠블렘 디자인 예시



- 각각의 도서별 특징을 함축한 슬로건을 제작하여 홍보물과 안내 책자 등에 기재토록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지역을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의 장소마케팅 전략에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이와 같은 사례는 인근 시군에서 활용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므로 신안군의 도서지역을 알리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 도서가 지닌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민속적 특징 등을 요약하여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문학적 표현을 도용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고, 도시의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문구나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구상이 가능하다.
- 섬들의 슬로건을 구상하기 위해서 인터넷 상에서 공모전을 개최하는 방법도 구상 가능하다.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고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전개한다면, 장소 마케팅 전략으로서 활용해 볼 수 있다.
- 관광개발에 있어서 각 도서별 관광자원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어떻게 상품으로 기획하고 포장하여 관광시장에 출시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현대 관광마케팅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관광 이미지가 정립된 후에는 관광지 개발과 지역의 이벤트, 특산물 판매, 관광 홍보 등에 설정된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이도가 풍성사구를 활용한 신비·생태 체험형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설정되면, 우이도의 모든 관광홍보시스템은 이를 근간으로 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예시 2) 각 도서별 슬로건 제작

1. 안좌

- ① 베일에 쌓인 웅장한 섬 '안좌도'
- ② 사람과 철새와 사랑이 있는 섬 '안좌도'
- ③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살아 숨쉬는 섬 '안좌도'

2. 팔금

- ① 노두와 우실이 아름다운 섬 '팔금도'
- ② 갯벌체험관광 일번지 '팔금도'
- ③ 섬과 섬이 만나는 섬 '팔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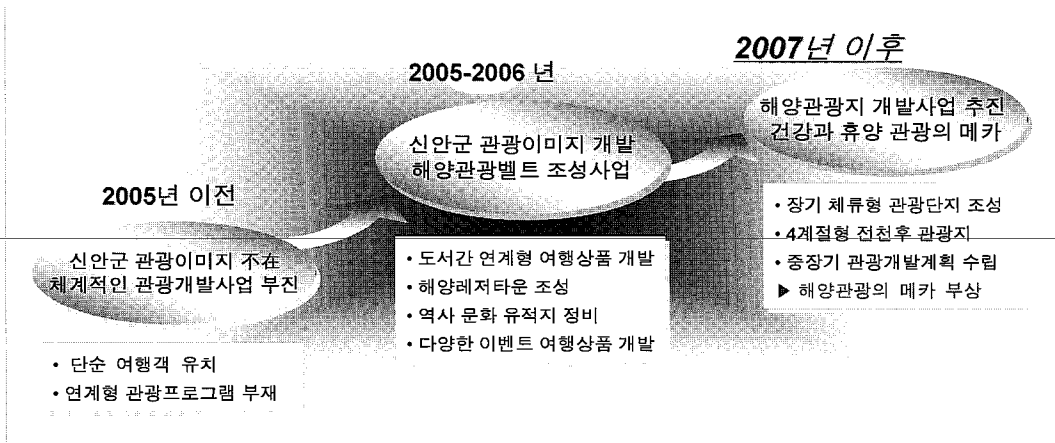
(5) 도서지역 민속자원의 관광상품화

- 마을 공동체 생활문화 관광상품화

예) 노두, 우실, 밤달애, 강강술래, 풍어제...

- 도서지역의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광상품화

(6) 신안군 관광개발의 차별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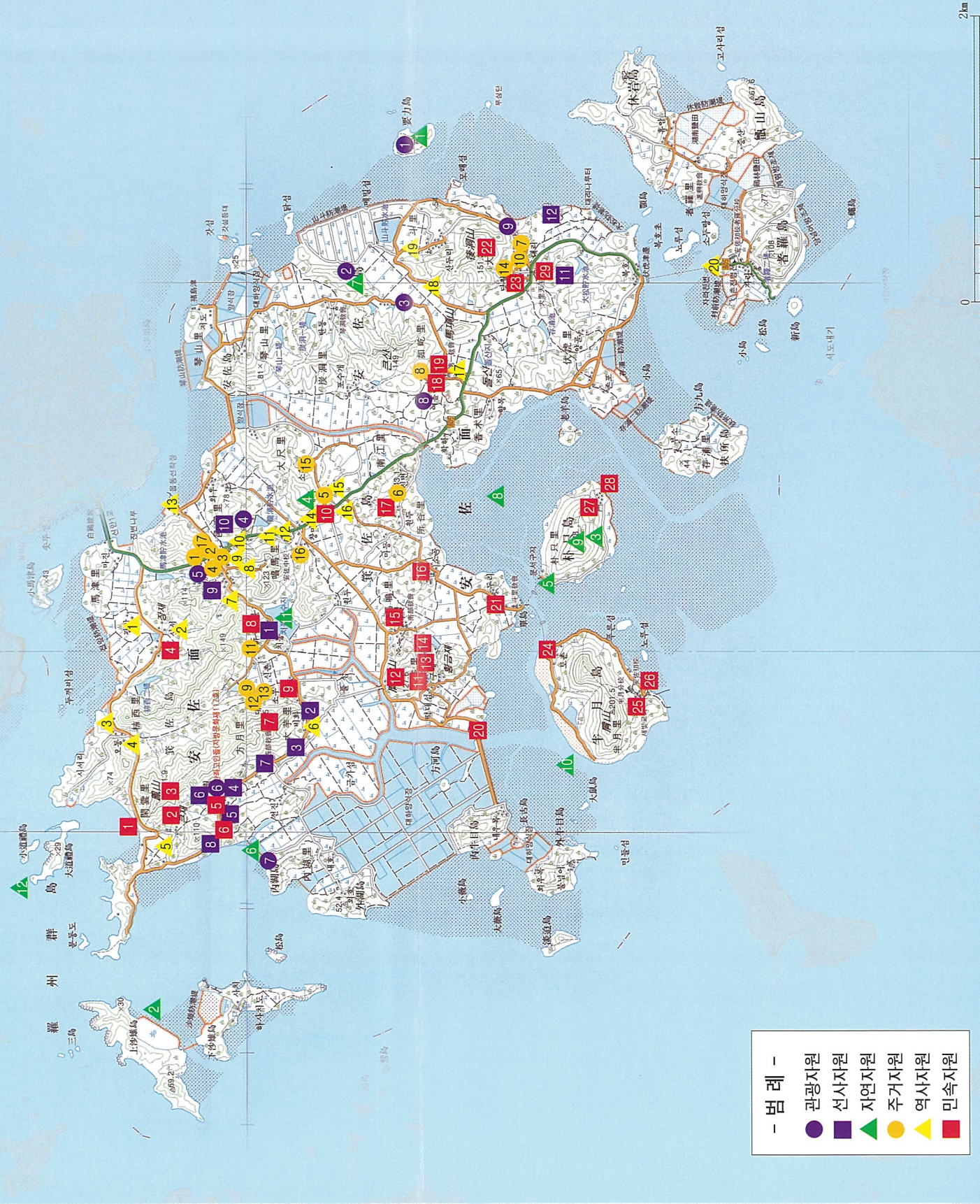
지역의 문화관광
이미지 설정 필요성 인식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
하는 문화이미지 개발

관광사업 추진 본격화
해양체험 관광의 메카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신안 건설

안 좌



- 범례 -
- 관광자원
- 선사자원
- ▲ 자연자원
- 주거자원
- ▲ 역사자원
- 민속자원

관광자원

1. 요령도
2. 산두리 음샘
3. 양버위
4. 석실고분
5. 김환기 생가
6. 방월리 지석묘
7. 내호 고니도래지
8. 여흘리 우실
9. 배널리 돌무덤

역사자원

1. 감기림기적비
2. 김무진선행비
3. 오동리비석군
4. 경모재
5. 김윤각유하비
6. 김해김씨열녀비
7. 김환기생가
8. 김해김씨효열각
9. 모인재
10. 강희신·김계운·정정산공적비
11. 안좌중학교창설기념비
12. 김학수사은비
13. 김종석불망비
14. 김석주효자비각
15. 김범진공적비
16. 신장비군
17. 안교익효자비
18. 김종윤기념비
19. 최공인기념비
20. 이호준불망비

자연자원

1. 유명섬(요령도)
2. 유명섬(사치도)
3. 마을숲(박지리 동백군락지)
4. 마을숲(대척리 팽나무숲)
5. 특이자원(박지함초자생지)
6. 내호고니도래지
7. 음샘
8. 박지갯벌
9. 유명섬(박지도)
10. 특산물(파래김)
11. 산촌저수지
12. 낙시터(한은리북지)

민속자원

1. 한은리·함안리 우물
2. 함안리·함안리 우물
3. 함안리·동촌 노신재
4. 시서리 동촌 노신재
5. 방월리 배고사
6. 방월리 기우재
7. 신촌리 기우재
8. 대우리 기우재
9. 대척리 기우재
10. 구대리 기우재
11. 구대리 기우재
12. 구대리 기우재
13. 구대리 기우재
14. 구대리 기우재
15. 구대리 기우재
16. 구대리 기우재
17. 구대리 기우재
18. 구대리 기우재
19. 구대리 기우재
20. 구대리 기우재
21. 구대리 기우재
22. 구대리 기우재
23. 구대리 기우재
24. 구대리 기우재
25. 구대리 기우재
26. 구대리 기우재
27. 구대리 기우재
28. 구대리 기우재
29. 구대리 기우재

선사자원

1. 신촌리 차동마을 지석묘
2. 대우리 비화마을 지석묘
3. 방월리 지석묘 A군
4. 방월리 지석묘 B군
5. 방월리 지석묘 C군
6. 방월리 지석묘 D군
7. 방월리 지석묘 E군
8. 방월리 유물산포지
9. 음동리 유물산포지
10. 음동리 고분군
11. 대리 석실분
12. 대리 배널리고분군

주거자원

1. 고순례 가옥
2. 이길동 가옥
3. 김은기 가옥
4. 공가 1
5. 윤방하 가옥
6. 오제단 가옥
7. 김채철 가옥
8. 김봉흥 가옥
9. 김정순 가옥
10. 전양례 가옥
11. 서갑철 가옥
12. 정상호 가옥
13. 고신월 가옥
14. 정정균 가옥
15. 강육월 가옥
16. 이선여 가옥
17. 김환기 가옥

